

# 6장

## 조선 후기의 지도

---

### 1. 관방도

#### 1) 명대의 백두산과 만주

15세기 조선은 만주일대를 직접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 대한 관심 또한 적지 않았다.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나 『조선방역도』는 백두산은 특별히 강조하거나(『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 만주일대의 지리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도 백두산과 만주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다. 이 지도와 지리지들은 모두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15세기적인 역사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조선이 구할 수 있었던 중국 측 지리지로는 『대명일통지』가 사실상 유일했다. 그러나 『대명일통지』는 만주일대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했다. 결국 16세기 조선은 백두산과 만주에 관해 자세한 지리를 파악할 수 없었다.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어 가면서 만주에 대한 관심도 차츰 줄어들고 있었다.

백두산과 만주일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명대지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허균의 『구변도』는 명대 변경을 그린 유명한 지도인데, 당시 조선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군사기밀이기 때문이다.



[그림 6-1] 『명대북경지도』

자료: 서울대 구관서고

『명대북경지도』는 『구변도』 사본 중 하나로, 청대에 모사된 것이다. 원명교체 이후 몽고고원 일대로 퇴각한 몽고부락은 명의 변경을 위협했다. 명은 장성을 수축하고, 장성 연변에 9개의 군진을 설치했다. 9개의 군진은 9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허륜은 9변 안팎의 군사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군사지도를 제작했다. 그것이 『구변도』이다. 허륜이 처음 만든 『구변도』는 현재 전하지 않고, 다양한 사본들만이 남아 전한다. 그런데 이 사본은 『구변도』의 다른 사본들과는 달리 백두산과 만주지역이 자세한 편이다. 『구변도』의 원본에 그런 정보가 들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백두산과 만주일대에 관한 한 이 지도에 담겨 있는 지리정보는 명대의 것이다.

장백산이라는 이름 옆으로 설명이 붙어 있다. 백두산은 개원성에서 동북쪽으로 1,000여 리 지점에 있으며, 그 정상에는 80리 되는 못이 있는데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북쪽으로 흘러 혼동강이 된다고 한다. 이 설명문은 도면과도 일치한다. 장백산으로부터 토문하(土門河)·삼둔하(三屯河)·합라하(哈喇河)·밀하(密河)·혼하(渾河)가 흘러내린다. 이 물줄기들은 모두 압록강의 강원이 된다. 백두산에서 북류하는 여러 물줄기 가운데에는 혼동강과 송화강이 보인다.

이 지도에서는 두만강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대명일통지』는 두만강에 관한 정보를 싣고 있지는 않지만,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아야고강이라고 적었다. 『대명일통지』는 적어도 동류하는 물줄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명대북경지도』에 기록된 백두산 일대의 지식은 그런 점에서 명백히 『대명일통지』와는 차이가 있다.

## 2) 전쟁의 위기감과 영고탑 회귀설

15세기 조선은 이성계가 건국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세종이 사군육진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압록강 두만강 양안의 야인들과 마주쳤다. 그러나 이 지역에 관한 문헌자료는 많지 않았다. 조선은 일찍이 『대명일통지』를 들여와 참고했지만 만주일대에 대한 지리지식만으로 본다면 『대명일통지』는 너무나 소략했다. 야인과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백두산과 만주일대에 대한 지식은 한동안 담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조선 관리가 만주일대를 직접 탐사한 것은 정유재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던 1596년 8월이었다. 조선의 국경도시 위원의 무관이 강변을 넘어온 야인들을 사살하자, 건주위의 추장이 조선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뒷날 후금을 세운 누루하치였다. 조선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건주위의 근거지로 신충일을 파견했다. 그곳이 영고탑이었다. 신충일은 영고탑까지 왕래하는 과정에서 보고들은 것들을 상세히 적어 선조에게 보고했다.

세력을 규합한 건주위의 만주족들은 마침내 나라를 세우더니, 조선을 두 차례 침략했다. 병자호란은 조선의 조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청 태종에게 머리를 조아렸으며 조선은 오랑캐로 멸시하던 청과 군신관계를 맺게 되었다. 조선지식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들은 조선이 중화문화의 유일한 적자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 조선은 혈연적·지리적으로 중화가 아니었지만, 문화적으로 중화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중화를 가변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중화의 가변성은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들의 뇌리에서 청은 오랑캐라는 숙명을 어찌할 수 없는 나라였다. 조선지식인들은 그들이 멸지 않은 장래에 오랑캐라는 숙명적인 이유로 멸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조선이 그 상황을 즐기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데 있었다. 전면전의 위기감은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청이 북경에서 퇴각하게 될 경우 어디를 거쳐 어느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

가 조선 조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때 신충일이 탐사한 영고탑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곳은 청이 세력을 키운 곳이므로 그들이 돌아갈 곳으로 여겨진 것이다.

청이 북경에서 영고탑으로 이동할 때 어느 길을 통해서 어떻게 이동하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조선은 북경에서 심양을 경유해 영고탑으로 가는 길보다 북경에서 조선의 서북지방을 경유해 영고탑으로 가는 길이 훨씬 완만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판단을 내릴만한 정확한 지리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이 조선을 경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지면서, 유사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배우성, 1998).<sup>1)</sup>

숙종 17(1691)년에 청이 백두산 지도제작을 명분으로 조선 측에 길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 이 소식이 민간에 퍼지자 온 나라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숙종 38(1712)년 청에서 목극등을 파견하여 국경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알려 왔을 때에도 논란이 벌어졌다. 청이 영고탑으로 퇴각할 것에 대비해 조선의 서북지역 도로를 정탐하려 한다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변경개발론자인 남구만은 영고탑 회귀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만주 지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청에서 편찬한 『성경지』를 들여오자고 주장했다. 청은 이 새로운 지리지를 금서목록에 올려놓고 통제했다. 조선은 우여곡절 끝에 이 지리지를 들여올 수 있었다. 『요계관방지도』,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등 대다수의 조선 후기 관방지도들은 『성경지』의 정보들을 기초로 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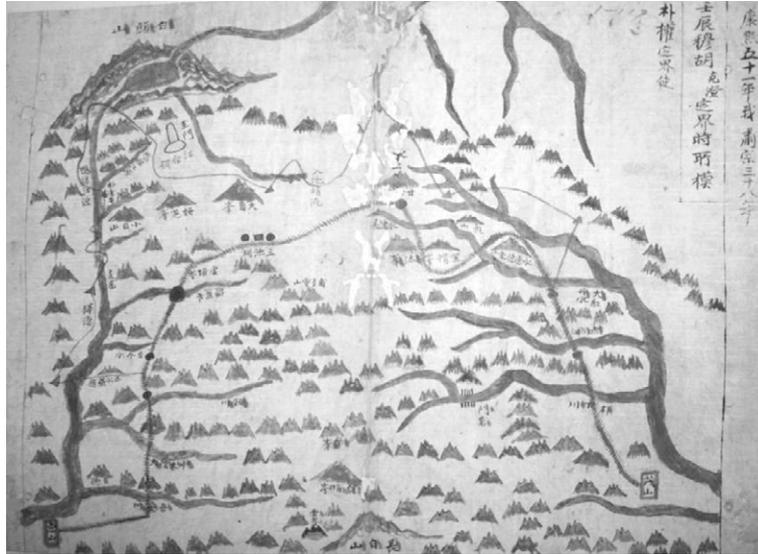
남구만은 『성경지』를 근거로 삼아 영고탑 회귀설을 비판하고, 서북지역을 개발하자고 주장했다. 숙종도 『성경지』를 보고 청이 영고탑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선에 큰 피해를 입힐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선 지식인들이 청의 운명적인 몰락을 예견하는 한, 그리고 몽고가 퇴각하는 청의 퇴로를 중간에서 차단할지 모른다는 판단이 계속되는 한 영고탑 회귀설은 근본적으로 불식되기 어려웠다(배우성, 2005).

### 3) 백두산 정계와 정계비지도

조선 후기 관방지도에는 청대 만주지리지의 지식들이 들어있는가 하면, 백두산 정계와 연관된 지식, 혹은 고토의식과 연관된 역사적인 지명들도 들어 있다. 이 현상들은 1712년 정계비 건립으

---

1) 영고탑 회귀설에 관해서는 배우성(1998) 참조.



[그림 6-2] 『백두산정계비도』

자료: 규장각

로 인해 촉발된 것들이다.

강희제는 숙종 38(1712)년 2월, 국경을 조사하겠다고 조선 측에 통보했다. 범월사건이 빈발하자 경계를 분명히 하려 한 것이었다(배우성·구범진 역, 2008).<sup>2)</sup> 목극등이 조선 땅을 밟은 것은 그해 5월 12일이었다. 접반사 박권과 이선부가 목극등 일행을 맞았다. 목극등은 조선 측 실무자 일부만을 참여시킨 채 백두산에 올랐다. 백두산에 오른 목극등은 동남쪽 기슭에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비석을 세웠다. 박권과 이선부, 그리고 등반에 참여하지 않은 청측 인원은 곧장 무산부 인근으로 이동해서 하산하는 목극등 일행과 합류했다. 『백두산정계비도』(『여지도』 수록)는 백두산 정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지도이다.<sup>3)</sup>

혜산~허항령~삼지연~감토봉~대흥단수~박하천~무산에 이르는 선은 접반사 일행이 간 길이며, 압록강대안~압록강 발원지~대각봉~두만강 상류~대흥단수~무산으로 이르는 선은 목극등 일행이 지난 길이다. 정계비는 강원비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으며,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백두산에서 동류하는 물줄기는 대각봉을 지난 뒤 땅 속으로 흐르기 시작하는데, 지도상에서 ‘입지암류(入地暗流)’라고 되어 있는 곳이 그 자리이다. 복류(伏流)

2) 정계를 둘러싸고 조선과 청간에 오간 외교문서들에 대해서는 배우성·구범진 역(2008) 참조.

3) 이 지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강석화(2000) 참조.

하던 물줄기는 감토봉 부근에서 다시 솟아나는데, 이 지점에는 “수출(水出)”이라는 표시가 있다.

목극등은 토문강이 복류하는 지점을 다시 살피게 하고는, 박권에게 글을 보내 그곳에 목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지를 물었다. 박권 등은 토축(土築), 취석(聚石), 수책(樹柵) 등을 쌓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 공사를 청에서 감독할 의사가 있는지를 되물었다. 목극등은 ‘조선이 임의로 시행한 뒤 사신이 통보해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를 주관한 허량은 목극등이 지정한 수원이 아니라 새로 발견한 수원으로 연결되는 표식을 세웠다.

정계 이전부터 조선과 청의 판도는 두만강을 경계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계 과정 자체는 불투명하기 짝이 없었다. 목극등이 지정한 수원이 실제로는 두만강으로 이어지지 않는 수원이라는 사실은 단류처(斷流處)에 설책(設柵)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다. 게다가 설책 과정에도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다. 『성경지』를 비롯한 청대의 지리지조차 백두산정계비에 관해, 토문이 두만인지의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정계비나 토돈·목책 등은 조선전도나 관방지도를 막론하고 빠져서는 안 될 지표가 되었다.<sup>4)</sup> 지도에는 또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수원에 관한 다양한 판단들이 담기기 시작했다. 어떤 지도는 두만강과 별개의 강으로 토문강을 그렸으며, 다른 지도들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온성부 부근에서 두만강에 합류하는 분계강을 그렸다. 선춘령이 두만강 이북에 있다는 설은 조선 초기의 역사 인식을 반영하는 것인데, 토문이 두만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해 지면서 더 힘을 받기 시작했다.

#### 4) 요계관방도

『요계관방도』는 1706년, 북경에 사신으로 갔던 이이명이 『주승필람』, 『산동해방지도』를 들여온 뒤, 『성경지』의 내용을 추가하여 만든 관방지도이다. 『주승필람』은 명나라 말 직방랑(職方郎)이었던 선극근(仙克謹)이 저술한 지리서였다. 『산동해방지도』는 청에서 대외 유출금지목록에 올려놓은 책자였다. 이 지도책을 본 이이명은 화원에게 급하게 베껴 그리게 했다. 보고를 받은 숙종은 두 지도 자료를 하나로 합쳐서 다시 그리게 했다. 이이명은 자신이 들여온 두 자료에 『성경지』의 지도와 지리지식을 결합시켜 10폭짜리 병풍지도를 완성했다.

4) 백두산 정계비의 유무는 지도의 편년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그림 6-3] 「요계관방도」

자료: 규장각

이이명은 이 지도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조선의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선은 서북쪽이 요동과 계주로 이어져 있고 북쪽은 야인과 가까우며 서쪽으로는 발해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요주, 계주, 산동, 만주 일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이명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리지식의 유무가 아니었다.

지도의 대부분은 명대의 방어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청의 군사편제와 군사시설을 파악한 지도가 아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지도가 관방지도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미지수이다. 지도를 만든 이이명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신이 이 지도를 올리는 것은 감히 천하가 액색(厄塞)함을 알아서 장차 큰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력(國力)을 다하여 변방(邊防)에 전심(專心)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하건대, 성명계서는 변계(邊界)의 지키기 어려운 것과 관방(關防)의 믿을 수 없는 것을 깊이 살피셔서, 환난(患難)을 염려하기를 항상 강구(強寇)가 국경을 억압하는 것과 같이 여겨, 공검(恭儉)하고 절약(節約)해서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여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수족(手足)과 두목(頭目)의 의리가 있는 줄 알게 하며, 선왕(先王)이 다하지 못한 지사(志事)를 추구하고 명나라 말년의 복철(覆轍)을 경계로 삼으신다면, 국가(國家)의 매우 다행

한 일이겠습니까.<sup>5)</sup>”

이이명은 군사시설을 수축하는 것만으로 조선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이명에게 이 지도는 관방을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관방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임금에게 환기시키기 위한 자료였던 것이다.

『요계관방도』는 정계 직전 시점에서 조선이 사행로와 만주일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지도상에는 요양~성경~기류하~백기보~광녕~산해관을 거쳐 북경에 이르는 사행로가 표시되어 있다. 요양~우가장~광녕~산해관을 경유하던 조청간 최초 사행로는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청이 성경부를 설치하면서 조선사신은 요양에서 성경을 거친 후 우가장~광녕~산해관으로 가야 했다. 1679년 청은 우가장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다시 경로를 변경했다. 우가장을 사행경로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 결과 요양~성경~기류하~백기보~광녕~산해관을 거쳐 가는 노선이 새로 생기게 되었다. 『요계관방도』는 숙종 5(1679)년의 사행로를 충실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 사행노선은 『성경지』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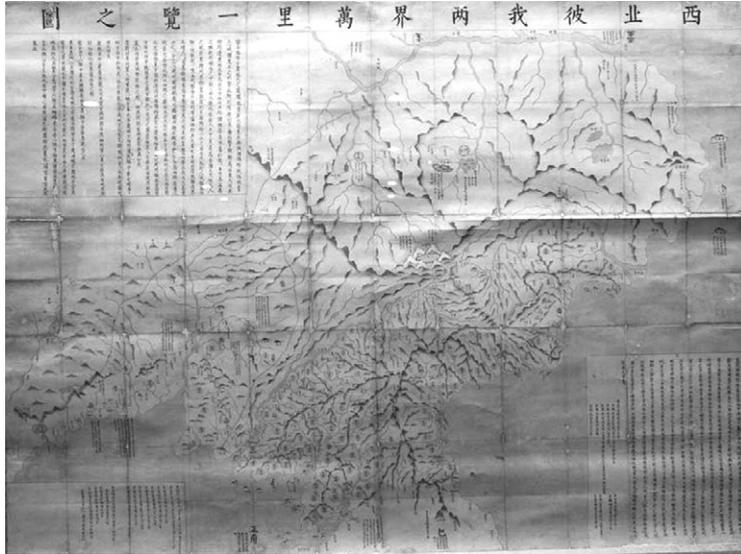
중국 본토에서 오라~영고탑에 이르는 길도, 백두산으로부터 발원하는 강줄기에 대한 설명도 모두 『성경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설명문에 따르면, “『대명일통지』에서 이르기를, (백두산은) 천리를 뻗어 있으며 높이는 이백리이다. 그 정상에 연못이 있는데 둘레가 팔십리이다.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鴨綠江)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 토문강(土門江)이 되고, 북쪽으로 흘러 혼동강(混同江)이 된다.”라고 되어 있다. 『대명일통지』에는 토문강이 없다. 아야고강(阿也苦江)이 동쪽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 물줄기를 토문강으로 비정했던 것은 『성경지』였다. 그런 점에서 이 설명 역시 『성경지』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계 이전에 그려진 지도이지만, 선춘령은 온성부 건너편에서 멀지 않은 곳에 표시되어 있다.

## 5)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영조 22(1746)년 청이 변경의 울타리를 남쪽으로 옮겨 경작지를 늘리려 한 일이 있었다. 조선은 북경에 자문을 보내 공사증지를 요청했다. 청은 병부상서를 보내 상황을 파악한 뒤 조선의 요

---

5) 숙종실록 숙종 32년 1월 12일



[그림 6-4]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자료: 규장각

청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지시켰다. 영조는 강희연간의 전례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 수입된 수정본 『성경지』를 찾았다. 영조는 조선과 관련이 깊은 토문강, 성경, 영고탑 등지의 지도를 자세히 그려 올리도록 했다.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류는 이렇게 탄생했다.<sup>6)</sup>

지도의 왼편 위쪽 여백에는 영고탑의 유래, 청의 건국과정과 군사편제, 몽고에 관한 정보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고탑은 옛 숙신씨의 땅이다. 한나라 당나라 이전에는 동북쪽에 강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쪽의 땅을 오로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 때문에 수나라나 당나라는 매번 조선을 공격하는 것을 정동대역(征東大役)으로 여겼다. 그 때에는 요동과 요서의 땅 중 태반이 우리 땅이었으며 백두산 안팎의 여러 종족들도 대부분 우리에게 복속되어 있었다. 여진이 경박호 지역에서 일어나서 급격히 강성해 지더니, 급기야 송나라를 대신해 중원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이 금나라이다. 금나라가 원나라 사람들에게 쫓겨 동쪽으로 돌아간 즉 그

6)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가 만들어지게 된 사정에 대해서는 배우성(1998, 2005) 참조. 이 문제에 관한 조청간 교섭과정에 대해서는 배우성·구범진 역(2008) 참조.

나머지 무리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의 서북쪽에 살았는데 혹은 야인이라 하고 혹은 변호라 하면서 빈번하게 조선의 서북지방을 침략해 오니, 북쪽의 이탕개, 서쪽의 이만주가 대표적인 자들이었다. 이때 이후로 우리나라의 변방이 편안하지 않았다. 대저 여진 종족은 숙여진과 생여진으로 구별되는데 명나라 만력연간에 이르러서는 생여진 동산의 일파가 건주위에서 갑자기 커지더니 모린위의 좌위 우위 등의 부락을 통속시키니, 그 곳과 가까운 폐사군 지역이 가장 피해가 심했다. 이것 때문에 사군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태종(홍타시) 이후로는 병력이 날로 강성해졌다. 그들은 북상하여 개원현으로부터 심양을 평정하고, 동쪽으로 내려가 요양을 점령한 뒤, 심양은 흥경, 요양은 동경, 건주는 흥경이라고 칭하니, 영고탑 서쪽지방을 모두 차지한 것이다. 드디어 대릉하 소릉하 사이에서 수많은 싸움을 벌이다가 송정연간 말에 북경으로 들어갔다. 건주는 능묘가 있는 곳이며 노성은 종족이 살았던 곳인 고로 그 제치한 바가 성경과 다름이 없이 했던 것이다. 요동지방에 3명의 장군을 두었다. 하나는 봉천부 등을 진수하는 장군으로 요양에 주재했다. 또 하나는 영고탑 등을 진수하는 장군으로 선창에 주재했으며, 나머지 하나는 흑룡강 등을 진수하는 장군으로 애호성(艾濤城)에 주재했다. 모두 1품의 직급으로 각각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원을 4사람씩 거느렸다.”

영고탑이 초미의 관심사인 것을 한눈에 읽을 수 있다. 물론 청의 운명적인 몰락과 영고탑 회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도면에는 각화도·구가보(舊家堡)·신요동성(新遼東城)·번양(瀋陽)·오라(烏喇) 등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 있다. 각화도는 바닷길을 통해 명나라에 가던 조선사신이 상륙하던 곳이다. 물론 바닷길이 막혔던 원인은 후금 때문이다. 구가보(舊家堡) 인근에는 연대가 있는데, 명나라가 이 연대를 쌓느라 국력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오랑캐’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다. 심양은 명말에 ‘오랑캐’가 도읍으로 삼은 곳이다. 오라(烏喇)는 동쪽으로 영고탑까지 700리, 서쪽으로 성경까지 820리, 남쪽으로 백두산까지 1,300리에 달한다 한다. 대명 조공외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반면, 청을 주저 없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데에서 이 지도에 담긴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몽고에 대한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도 『요계관방도』와는 다른 점이다. 다음 설명문을 보자.

“강희 말년에 흑룡강 이북 지방의 몽고를 걱정하여 백도남 장군 1사람을 두었는데, 그가 주재하는 곳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흑룡강과 혼동강 사이인 듯하다. 몽고의 48부가운데 동북지방에 있는 여러 종족이 가장 강성하며, 대비달자 또한 흑룡강 북쪽에 있다. 동쪽으로 흑룡강에서 개원현 이북지방 및 장성의 바깥쪽까지, 북서쪽으로 이어져 한나라 때의 서역 우란 지방에 이르는 곳까지가 모두 몽고의 경계이다. 그 땅 넓이는 중국에 비해 몇배나 더 된다. 상고시기에는 판도에 들어있지 않았으며, 거친 사막 땅이어서 사람이 살지 않았다. 당나라 송나라 이후로는 땅이 개척되고 사람들이 번성해서 지금은 48부가 되었다. 서로가 웅장이 되어 각기 한 지방을 다스리므로, 동서남북황제라고 부른다. 동서남북황제 가운데 황태극과 청태극은 중국의 서남지방에 있고 액사라(厄斯羅)는 대비자이며, 합이합(哈爾哈)은 동북지방에 있다.”

도면상에도 몽고에 대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실마리가 들어 있다. 유조변책은 봉황성에서 개원현(開原縣) 위를 거쳐 산해관에 이르는 한 갈래와 개원현 인근에서 오라성 위쪽까지 이어지는 다른 한 갈래가 있는데, 개원현 위쪽으로 ‘몽고책(蒙古柵)’이라는 표시가 보인다. 또 낙니강 위쪽으로는 아이등객(阿爾登喀)이라는 곳이 ‘몽고의 경계’로 표시되어 있으며, 흑룡강 위쪽으로도 ‘몽고’ 표시가 두 군데 더 있다. 청나라 사람들이 심양을 생각하듯, 몽고족은 금주(錦州)를 그런 곳으로 생각한다는 기록도 보인다.

사행로에 관한 정보 역시 『성경지』나 『요계관방지도』보다 자세한 편이다. 당대의 사행로 뿐만 아니라 우가장을 경유하는 이전의 사행로도 기록되어 있다. 영고탑에서 회령 혹은 경원부까지 이어지는 도로망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요계관방도』와 다른 점이다.

이 지도는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분계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계 이전에 작성된 『요계관방도』 유형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백두산에서 두 갈래의 물줄기가 흘러내리는데, 하나는 두만강의 본류이며, 다른 하나는 두만강 위쪽을 흐르다가 온성부 근처에서 두만강에 합류한다. 전자는 ‘토문강원(土門江源)’, 후자는 ‘분계강(分界江)’이라고 명명되어 있으며, 그 발원처 역시 ‘분계강원(分界江源)’으로 적혀 있다. 정계 후 설치한 목책은 ‘토문강원’에서 ‘분계강원’까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토문강을 두만강의 상류로 보면서도, 분계강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 6) 황여전람도 계열의 지리지식과 서북계도<sup>8)</sup>

조선이 『성경지』를 처음 들여오려고 할 때, 청은 이를 철저히 통제하려 했다. 조선은 『성경지』의 여러 판본들을 들여오는 데 성공했지만, 사실상 그 과정이 원만한 것은 아니었다. 청이 조선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적 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지도를 들여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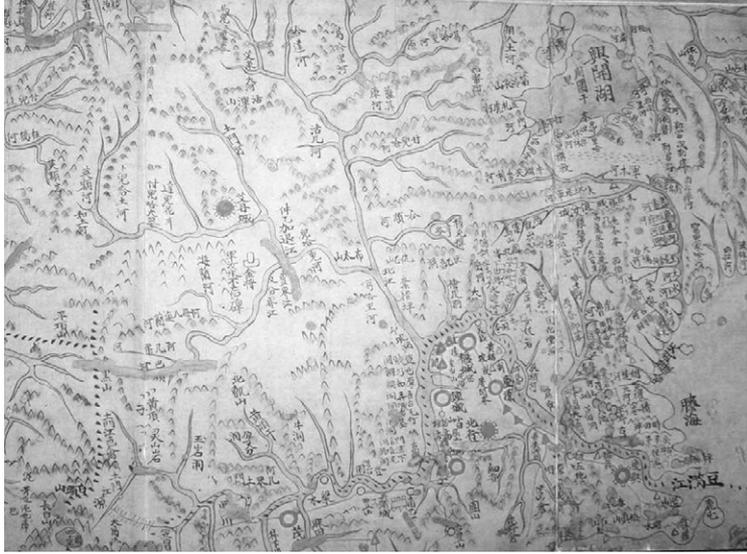
이런 상황은 청이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청은 조선을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게 되었다. 청의 운명적인 멸망을 예상하는 조선의 태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싹트기 시작했다. 조선사신의 활동반경은 넓어졌으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양질의 지식정보가 다량으로 조선에 흘러들었다.

청이 대대적인 문화정리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조는 서호수를 통해 『사고전서』를 들여오려 했다. 정조는 뜻을 이루지 못한 대신 거질의 다른 책을 들여오는 데 만족해야 했다. 5,020여 책에 달하는 『고금도서집성』이 그것이다. 강희제 때 시작되어 옹정제 때 완성된 이 책은 당시 중국에 알려진 모든 지식을 망라한 백과사전이었다. 역상휘편(曆象彙編), 방여휘편(方輿彙編), 명륜휘편(明倫彙編), 박물휘편(博物彙編), 이학휘편(理學彙編), 경제휘편(經濟彙編)과 같은 대분류 항목 아래 각각 전(典)으로 소분류된 내용이 실려 있다.

『사고전서』가 선본들을 실음으로서 지식을 망라하려 했지만, 『고금도서집성』은 그 책들에 들어 있는 지식을 주제별로 나누어 수록했다는 점에서 달랐다. 또 『고금도서집성』은 중국 전역의 지도를 성도와 군현도 형식으로 실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고전서』와 달랐다. 이 지도들은 강희제 때 만들어진 『황여전람도』와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었다. 『황여전람도』는 청대 지도학의 결정판이라고 평가되는 지도이다. 『고금도서집성』의 지도들이 경위도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연해주 일대를 포괄하지 않았다는 점 정도가 『황여전람도』의 지도와 다를 뿐이었다. 이후 조선에서는 『고금도서집성』의 지도를 활용한 다양한 사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에는 『성경여지전도』나 『영고탐도』와 같은 만주지도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었다.

7) 분계강에 관한 정보는 정조시대의 관료 홍양호가 그린 백두산지도에도 잘 나타난다. 홍양호의 『북새기략』에는 백두산도와 함께 백두산에 관한 자세한 설명들이 들어 있다. 그는 「대청일통지」와 조선측의 지리정보를 결합해 백두산도를 그렸다. 토문강을 두만강의 상류라고 생각했던 그는 백두산도에서도 토문강원(土門江源)만을 표시하고, 두만강원(豆滿江源)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 지도에도 온성부로 합류하는 분계강의 흐름이 선명하다.

8) 배우성, 2008, “18세기 청의 지리지·지도와 백두산의 수계,” 역사와경제 65.



[그림 6-5] 『서북계도』

자료: 규장각

강희제가 만든 『황여전람도』는 옹정제·건륭제 때에도 수정되었다. 『황여전람도』는 일본에도 전파되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황여전람도』는 조선에도 유입되었다. 『서북계도』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면이다.

『서북계도』에 실린 만주지역 지도는 『황여전람도』의 지명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대부분의 지명들은 만주어를 한자로 음차한 것들이다. 필사자가 만주어에 대한 소양이 없었던 듯, 곳곳에서 오자와 탈자가 있다. 그러나 『서북계도』에 실려 있는 만주지역 지리정보는 『성경지』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었다.

『서북계도』가 『황여전람도』를 그대로 모사한 데 그친 것은 아니다. 필사자는 지도 안에 가급적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 『서북계도』에는 『황여전람도』에 수록된 군현명, 산천명, 주요 성곽명칭보다 훨씬 많은 지명이 적혀 있다. 특히 역참(驛站)에 관한 정보가 자세한 것, 상세한 도로망이 파악되어 있는 것 등은 주목할 만하다.

도로 표시는 『요계관방도』나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에 기록된 것들과 다르다.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에 그려진 길 가운데 구요동에서 창성(昌城)에 이르는 길, 그리고 영고탑에서 회령과 경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서북계도』에서는 표시되지 않았다. 반면, 구요동에서 영해현(寧海縣)까지, 성경에서 흥경(興京)까지, 오라성(烏喇城)에서 흑룡강성(黑龍江城)에 이르는 길이 표

시되어 있다.

여백의 설명문은 만주의 주요 산천, 도시의 사방영역과 각 장군들의 관할범위, 변문의 위치와 소속, 성경의 연혁 등에 관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 설명문에 따르면 백두산에서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압록강,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토문강(土門江)’ 이라 한다.

백두산과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수원에 대해서는 도면에서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두만강의 발원처 가운데 동북쪽 물줄기에는 ‘토문강원’ 이라는 표시가 있다. 토문강을 두만강의 상류로 이해한 것이다. 도면상에는 백두산에서 발원하지는 않지만, 두만강 위를 흐르다가 온성부 인근에서 두만강과 합류되는 물줄기가 있다. 두 강이 만나는 자리에 분계강(分界江), 건을가퇴강(件乙加退江)이라는 강 이름도 보인다. 건을가퇴강은 ‘buruhatu bira’ 라는 만주어 지명을 음차한 것이다. 후춘강의 발원처 가까운 곳에 선춘령이 표시되어 있고, 그 옆으로 ‘高麗界碑去慶源六百里’ 라고 되어 있다. 이것들 가운데 분계강과 선춘령 등은 『황여전람도』와는 관계없는 지명들이다.

**배우성**

#### **참고문헌**

-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_\_\_\_\_, 2005, “홍양호의 지리인식- 조선후기 만주 지리지식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 327-356.  
\_\_\_\_\_, 2008, “18세기 청의 지리지·지도와 백두산의 수계,” 역사와 경계, 65, 27-62.  
배우성·구범진 역, 2008, 『국역동문회고』, 동북아역사재단.

## 2. 군현지도집

### 1) 군현지도의 개념과 유형

군현지도란 조선 시대 지방 행정의 기본 단위였던 부(府)·목(牧)·군(郡)·현(縣)을 대상으로 그린 지도로서, 군현도(郡縣圖) 또는 읍지도(邑地圖)로 불렸다. 흔히 ‘군현’으로 줄여 부르는 부·목·군·현은 1895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읍격(邑格)이 폐지되어 군으로 통일된 이후, 현재 시·군으로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사회·정치·경제 등 모든 면에서 근간을 이루는 행정단위이자 문화단위이다. 군현 즉 지방을 단위로 만든 군현지도의 발달은 조선 후기의 지도제작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군현지도가 발달했다고 표현한 것은 군현지도의 양적 증가, 군현지도 제작과 이용 주체의 다양화, 지도제작기법, 지도형태 등 외형적인 변화 등 여러 면에서 조선 후기 군현지도의 내용과 형태에 발전적인 측면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군현지도도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제작주체에 따라 관찬(官撰)과 사찬(私撰)으로, 표현양식에 따라 회화식과 기호식으로, 판중에 따라 목판본과 필사본으로, 축척에 따라 대축척과 소축척 지도, 축척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지도의 형태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면, 단독 군현지도, 지지에 포함된 군현지도, 군현지도집(郡縣地圖集)의 3종류로 범주를 나눌 수 있다(양보경, 1995c, 56-61).

#### (1) 단독 군현지도

단독 군현지도란 한 군현의 지도가 한 종으로 독립적으로 제작된 지도를 말한다. 단독 군현지도는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그린 도성도(都城圖)는 대표적인 군현지도이다. 한양으로 천도가 결정된 1394년 9월에 태조 이성계는 권중화, 정도전 등 중신들을 보내 한양의 종묘, 사직, 궁궐, 조정, 시장, 도로 등의 터를 살펴보게 하였다. 이에 권중화(權仲和) 등은 궁궐을 세울 터를 살피고 지도에 그려 바쳤다(『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9월 병오).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군현지도 특히 단독 군현지도의 제작이 시작되었던 셈이다.

세종대에는 태종대에 개혁된 지방행정제도와 지방행정구역을 바탕으로 지도와 지리지의 편찬이 매우 활발하였다. 세종대에는 각 군현 단위의 정보를 수집하여 전국지리지인 『신찬팔도지리

지(新撰八道地理志)』를 세종 14(1432)년에 완성하였다. 또한 4군 6진의 개척 등 영토에도 변화가 있었으므로 새로 회복한 지역의 지도 제작도 필요하였다. 세종 16(1434)년에 함길도 전역의 지도를 완성하고, 여러 폭을 모사하여 감영 및 변방 군진의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병진). 이어 세종은 호조에 명하여 각 도의 각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각각 그 경내의 관사 배치의 향배처소(向非處所)와 산천내맥·도로의 원근리수(遠近里數)와 그 사면의 이웃 고을의 사표를 갖추어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 감사에게 전보하도록 하고, 감사는 각각 주·군에 차례로 폭을 이어 올려 보내서 참고에 갖추도록 하게 하였다(『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5월 경자)고 하였다. 세종대에 이미 전국적으로 군현지도가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단종 1(1453)년에 수양대군(후의 세조)도 정인지에게 조선도(朝鮮圖), 팔도각도(八道各圖), 주부군현각도(州府郡縣各圖) 등을 만들도록 지시해 양성지(梁誠之)가 이 사업을 관장하였다(『단종실록』 권8, 단종 원년 10월 경자). 조선 초에 국가 제도정비 및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몇 차례의 군현지도의 제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30년에 편찬된 경상도 선산의 읍지인 『일선지(一善志)』 첫머리에는 성종 8(1477)년에 김종직(金宗直)이 선산부사로 재임시에 쓴 선산지도에 관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양보경, 1995c, 100-101).

“여지(輿地)에 지도가 있음은 매우 오래되었다. 세계에는 세계지도가 있고, 나라에는 국가의 지도가 있으며, 읍(邑)에는 읍의 지도가 있는데 읍지도는 수령에게 매우 긴요한 것이다. 대개 산천의 넓이, 인구의 많고 적음, 경지의 증가와 축소,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읍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화공에게 명하여 산천, 마을, 창고, 관청, 역원 등을 한 폭에 그리게 하고, 인구, 경지, 거리 등을 써넣게 하여 벽에 걸게 하니 읍 전체의 봉역(封域)이 확연하게 한 눈에 들어온다. 세금을 정하고 거들 때마다 먼저 그 문적을 보고 다음에 이 지도를 보아 정해 주면 백성들이 조그마한 베품을 입으며, 그 사이에서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조선 전기부터 군현의 수령이 지역의 통치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의 지도를 그려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김종직이 만들었던 지도는 지리지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던 지도는 아니다. 화공에게 명하여 그렸으므로 회화식 지도였으며,

여백에는 인구, 경지, 거리 등 주기를 기록한 대형 지도로 추정된다. 지도첩이나 지도책에 포함된 지도들이 책이나 종이의 크기에 제한을 받아 내용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비하여, 이렇게 단독으로 작성된 지도는 한 고을을 매우 상세하게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김종직의 이 글은 군현지도가 지녔던 중요한 기능을 잘 알려 준다. 군현지도는 행정과 통치의 수단이며 자료로서 활용되었던 것이다. 지역을 구체적이고 공간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으로 군현 지도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전통은 조선 후기로 이어졌다. 19세기 초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군현지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수령은 취임한 지 10일이 지나거든 노숙한 아전으로서 글을 잘 하는 자 몇 사람을 불러 그 고을의 지도를 작성케 하되 주척(周尺) 1척의 길이로 10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가령 그 고을의 남북이 백리요 동서가 80리라면, 지도의 지면의 길이가 10척이요 너비가 8척이 되어야 이에 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읍성을 그리고 다음에 산림, 구릉, 천택(川澤)과 개천의 형세를 더듬어 묘사하고 다음에 촌리(村里)를 그린다. 1백 가(家)가 있는 마을은 △표 1백개를 그리며 (삼각형은 지붕을 본뜬 것이다 - 原註) 10가가 있는 마을은 △표 10개를 그리고 3가가 있는 동네는 △표 3개를 그려 넣는다. 비록 산 아래의 외진 곳에 단지 1가가 있더라도 역시 △표 하나를 그린다. 도로의 구석구석까지도 각기 본래 형태대로 그릴 것이다. 이 지도를 엮은 빛깔로 채색하되 기와집은 푸르게, 초가는 누르게 할 것이며, 산은 초록으로 물은 청색으로 하고 도로는 붉은 벽돌 색을 입힐 것이다. 이를 정당(政堂)의 벽에 걸어 두고 항상 살펴본다면 온 고을 백성들의 주거가 바로 눈앞에 있는 듯한 것이요, 공문서를 띄우거나 사람을 보낼 때에도 그 멀고 가까움과 가고 돌아옴을 모두 손바닥 보듯 할 것이니, 이 지도를 만들지 않아서 안될 것이다. 지도의 지면이 널찍해야만 자세히 기재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주척 1척으로써 10리를 삼는 것이다.”(정약용 저, 다산연구회 역주, 1981, 81-82)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그 지역의 대형 군현지도 제작을 권유하고 있다. 다산의 이 글은 지방행정에 군현지도 활용하는 구체적 방법과 지도제작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군현지도가 가진 정보 제공의 역할을 잘 반영하고 있다.

조선 지도의 아름다움을 발휘하고 있는 회화식 지도는 사실상 군현지도 제작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전국도나 도별도는 수록할 정보의 양이 많고 대상 지역의 규모

가 너무 넓어 그림식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군현지도는 그리는 대상 지역의 규모와 자연적 배경이 회화식 표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회화식지도의 장점은 예술성이 높은 예술품이라는 점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 주며,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점에 있다. 회화식 지도는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지역의 구조와 배치를 확연하게 알려 준다. 뿐만 아니라 기호식 지도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현상의 전체적인 경관과 분위기, 인상까지도 조망해 주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회화식 지도는 누구에게나 쉽게 낯선 고장을 안내해 주는 친근감이 있어 널리 활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생략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회화식 지도 즉 그림지도는 지도가 일반에 가장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지도 양식이다. 기호에 대한 지식, 설명이 필요 없이 지역에 곧바로 도달할 수 있으며, 예술적 감동까지 줄 수 있어 감상을 위한 예술품으로 지도가 가까이 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 군현지도에서 보이는 또 다른 두드러진 변화는 18세기 중엽 이후 군현지도의 보급과 수요의 증가에 따라 나무판에 지도를 새겨 여러 장을 인쇄해 낼 수 있는 목판지도의 제작이 증가된 점이다. 숙종 35(1709)년에 제작한 제주도 지도인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並序)』는 제주도에서 일찍 대형 목판지도가 만들어졌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현전하는 목판본 군현지도는 대부분 서울의 지도이다. 19세기 이후의 서울의 목판지도로 『수선전도』, 『수선총도』, 『경조전강』 등 여러 종류가 전하고 있어 목판지도의 제작이 점차 활성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수선전도』를 비롯하여, 이들 목판지도는 민간에서 제작한 것이었다. 민간 목판지도의 대량 보급은 군현지도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많았으며, 지도의 사용처가 군사·행정적인 측면을 넘어 일반 사대부층의 삶에도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군현지도의 보급과 대중화를 반영하는 또 다른 측면이 한글본 군현지도 또는 국한문을 함께 쓴 국한문 병용 군현지도의 편찬이다. 이 지도들은 지도이용계층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군현지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말해 준다.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수선전도』는 목판본 『수선전도』를 저본으로 하여 필사한 한글본 서울지도이다. 한자를 모르는 계층도 이용할 수 있는 지도의 제작은 지도의 보급과 기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01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성부지도』(그림 6-6)은 전통적인 도성도의 양식과 내용을 따르고 있으나, 한글과 한문을 병용하여 이용자층을 넓힐 수 있도록 제작된 점이 큰 특징이다.

## (2) 지지에 포함된 군현지도

조선 전기에는 국가 주도로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 전국지리지가 편찬되었다. 16세기 중엽 이후 각 지방에서는 군현 단위의 지리지인 읍지(邑誌)들이 편찬되어 지방에 관한 자료들이 지방 단위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읍지에 그 지방의 지도를 첨부하여 지지의 내용을 시각적, 공간적으로 도시(圖示)함으로써 군현지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본이 전하는 가장 오래된 읍지는 평안도 평양의 읍지인 『평양지(平壤志)』이다. 이 책에는 「평양관부도(平壤官府圖)」와 「평양폭원총도(平壤幅員總圖)」 등 두 폭의 목판지도가 들어 있다. 이 지도는 읍지 속에 포함된 간략한 형태의 지도로서, 독립된 지도는 아니지만 임진왜란 이전에 만들어진 군현지도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17세기 이후 많은 지역에서 읍지의 편찬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읍지도의 첨부도 증가하였다.

읍지와 읍지에 첨부된 군현지도의 대표적인 책이 18세기 중엽에 전국 각 군현에 읍지 편찬을 명하여 완성한 『여지도서(輿地圖書)』이다. 『여지도서』는 이전의 읍지들이 각 지방별로 편찬됨으로써 일관성과 공식성이 결여된 단점을 극복한 전국 읍지이다. 이 책에는 전국 각 군현의 읍지 앞에 모두 지도를 수록하였다. 이처럼 18세기 중엽 영조대에는 군현지도의 큰 흐름이 읍지와 결합되어 『여지도서』로 정리되어, 이후 지리지 편찬의 모범이 되었다. 이 책의 제목은 이러한 지도와 지지의 결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읍지에 지도를 첨부하는 현상은 18세기 이후 일반화되어, 19세기에 편찬된 대다수의 읍지들, 예를 들면 1832년경에 편찬된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20책, 1840년대에 편찬된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51책, 고종대에 편찬된 『영남읍지(嶺南邑誌)』 34책을 비롯한 많은 도별 읍지, 그리고 1899년(광무 3)에 편찬된 전국 각 군현의 읍지에도 대부분 군현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지지에 포함된 군현지도들은 기본적으로는 지지의 부도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단독 군현지도 못지않게 상세한 지도들도 상당수 있다. 지지 중의 군현지도는 단독 군현지도나 군현지도집에 포함된 지도들에 비하여 지역에서 그린 원형대로 남아 있는 지도가 많아 지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거나, 지역 간의 비교 등을 할 때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 지도들은 조선 후기의 활발한 지지의 편찬, 보급에 따라 일반인들의 지역에 대한 공간적 파악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지를 편찬하면서 만들었던 지도제작의 경험이 단독 군현지도나 군현지



[그림 6-6] 『한성부지도』

도집에 포함된 지도제작과 상호보완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 (3) 군현지도집

군현지도집은 전국 또는 도 단위로 소속된 각 군현의 지도를 모아 놓은 지도집이다. 대상 규모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군현의 지도를 한 종의 지도책이나 지도첩에 수록한 전국 군현지도집과, 도별로 지도책이나 지도첩을 만들어 도내의 군현지도들을 모아 도의 이름을 붙인 도별 군현지도집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지도의 내용과 제작 방법에 따라 군현지도집을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으니, 일정한 축척을 적용하여 만든 '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 과, 다른 하나는 축척을 균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로 각 군현을 그린 '비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 이 있다.

### ① 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

경위선표식(經緯線表式) 군현지도집은 비교적 일정한 크기의 방안(方眼)을 바탕으로 그림으로써 축척을 적용하여 그린 군현지도 모음집이다. 방안으로 축척을 나타냈으므로 방안지도, 또는 옛 문헌의 표현을 빌어 경위선표식 지도, 선표도(線表圖), 방안좌표지도 등으로 불려 왔다. 이밖에도 계란(界欄), 방격(方格), 방괘(方畧), 획정(劃井)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지역의 크기에 따라 군현마다 지도의 크기가 모두 다른 지도가 되며, 지도첩 형태로 제작된 것이 많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이른바 '비변사지도(備邊司地圖)' 로 알려져 있는 도별 군현지도집이 이 유형의 대표적인 지도이다(양보경, 1992). 한국학연구원규장각에는 비변사인이 들어 있는 지도가 12종 42책 660장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6종의 도별 군현지도집은 조선의 지도제작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이다. 『영남지도』(6첩, 71매), 『호남지도』(7첩, 56매), 『호서지도』(6첩, 69매), 『충청좌도각읍지도』(1첩, 12매), 『해서지도』(3첩, 21매), 『함경도전도』(5첩, 21매) 등 6종의 군현지도집은 총 28첩 250장에 달한다. 8도 중 경기도, 강원도, 평안도의 3도의 지도집은 전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군현지도집은 1리 방안 위에 지도를 그린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방안의 크기는 7.0~8.5mm 내외이다. 따라서 방안의 크기로 축척을 나타냈으니, 약 1:53,000~1:64,000의 대축척지도이다. 군현지도집의 앞에 첨부되어 색인도 역할을 하는 도별도 중에는 10리 방안을 단위로 한 것도 있다.

『영남지도』(그림 6-7)의 예를 들면, 개별 군현지도는 세로 108cm 가로 82~89cm 내외로 도폭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나 설명 부분을 제외한 지도 부분의 크기는 세로 15cm 가로 23.3cm의 소형지도부터 세로 82.8cm 가로 82.8cm의 진주지도까지 모두 다르다. 군현지도는 대부분 8.3~8.5mm의 크기의 방안좌표 위에 지도를 그렸으므로, 약 1:54,000~1:53,000의 대축척지도들이다. 제2책의 대구·안동·경주, 제5책의 상주·진주 도폭은 다른 지도보다 방안의 간격이 조밀하다. 즉 대구·안동·경주는 5.9mm, 상주·진주 지도는 6.6~6.7mm의 방안 크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규격의 종이를 사용하여 지도를 그린 데에 기인한 것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약 36.5cm 가로 22.5cm이지만, 군현지도는 세로 106~108cm 가로 83~89cm 내외의 대형 용지



[그림 6-7] 『영남지도』 중 「대구」

에 그린 후 접어서 제작하였다. 그러므로 경주, 안동, 상주, 진주, 대구와 같이 행정구역이 넓은 큰 고을은 방안의 크기를 작게 그림으로써 넓은 지역을 같은 크기의 종이에 그려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 지역의 지도는 다른 군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척이 작은 지도가 되어, 약 1:76,000~1:67,000 축척 지도이다. 영조 23(1747)년~영조 26(1750)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도로를 직선으로 나타낸 점, 대로·중로·소로로 크기에 따라 도로를 구별하고, 각각 적색, 황색, 청색의 선으로 표현한 것도 다른 유형의 지도와 다른 독특한 점으로 18세기 중엽 도로를 중시했던 시대적 분위기와 요청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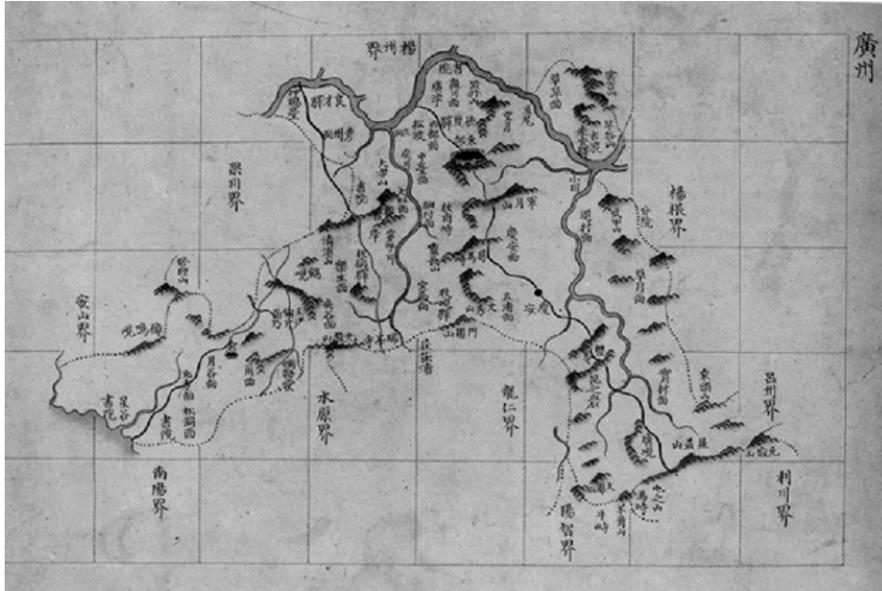
18세기 중엽에 전국에 걸쳐 군현단위로 1:50,000 축척 지도를 제작했던 것은 지도제작의 역사와 이후 지도제작에 미친 영향, 그리고 각 지역의 정보파악이라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1리 방안지도는 현전하는 방안지도 중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서, 방안도법의

사용과 그를 통한 축적의 표시 및 지도에 표시된 내용의 위치와 거리 등을 정확히 표현하려는 목적, 전국의 군현을 대상으로 한 지도 제작 범위의 확대, 기호화의 진전 등 조선 후기 지도 발달을 선도한 지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상세하고 풍부한 주기를 기록하여 지도와 지지를 결합, 지도가 전할 수 없는 지역의 행정·문화적인 사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조선지도』(7책, 규16030), 『팔도군현지도』(3책, 고4709-111),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3책, 古2107-36), 『팔도지도』(8책, 古朝 61-21), 『동국지도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지도』(4책, K2-4583), 고려대학교 도서관 『여지도』(2책, B-10 A-53), 『지도』(4책, B-10 A-52 등은 20리 방안 위에 그린 군현지도집이다. 이 지도집의 군현지도는 20리 방안 위에 그렸으므로 1리 방안지도 보다 크기가 작고 내용이 상세하지 않다. 그러나 전국의 각 군현의 지도를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책자에 그려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게 만든 정돈된 지도책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그림 6-8). 1리 방안지도가 주기를 많이 기록하여 지지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20리 방안 지도들은 대부분 주기 없이 지도로만 구성되어 있어 매우 정돈되고 세련된 지도책 형태이다.

우리나라 지도발달의 전환기였던 18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였던 여암 신경준(1712~1781)은 지도제작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동국여지도발(東國輿地圖跋)”, “동국팔로도소지(東國八路圖小識)”, “어제여지도소서(御製輿地圖小序)” 등의 글을 보면 그가 지도제작에 일가견을 가지고 지도제작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지도발달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던 농포자 정상기(1678~1752)와 아들 정원립, 손자 정항령까지 삼대에 이어졌던 지도제작의 기법을 정항령과 친교가 있었던 신경준도 나누어 가졌음을 지도에 관한 그의 글에서 살필 수 있다. 1769년 국왕 영조가 『강역지』 편찬에 관해 물었을 때, 신경준은 360주의 각읍지도를 따로 만들 것을 건의하였으며, 『동국문헌비고』 편찬을 진행하면서 영조의 명에 따라 『동국여지도』를 제작하였다(양보경, 1999)

『여암유고』 권5, 「발(跋)」 ‘동국여지도발’에 의하면 영조가 문헌비고(文獻備考)를 편찬하게 하고, 신경준에게 별도로 동국지도(東國地圖)를 만들 것을 명하자, 신경준은 공부(公府)에 있는 지도 10여건을 검토하고, 여러 집을 방문하여 소장된 지도들을 살펴보았으나 정항령이 그린 지도만 한 것이 없어 정항령의 지도를 사용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 지도에 약간의 교정을 가하여 6월 초6일에 영조의 명에 따른 지도제작을 시작하여 8월 14일에 지도편찬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리하



[그림 6-8] 『팔도군현지도』 중 「광주(廣州)」, 20리 방안지도

여 열읍도(列邑圖) 8권, 팔도도(八道圖) 1권, 전국도(全國圖) 족자 1축을 임금께 올렸다. 이 지도는 주척(周尺) 2촌(寸)을 하나의 선으로 하여 세로선 76, 가로선 131개의 좌표 방안 위에 그렸던 방안지도(方眼地圖)였다. 열읍도 8권은 각 도별로 편찬된 군현지도집으로서, 영조대의 지도제작사업의 결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원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방안지도(또는 경위선표식지도)는 모든 군현지도를 같은 축척으로 그림으로써 군현지도들 사이의 분합(分合)을 가능하게 한 지도이다. 이로써 전국의 각 군현지도를 연결시켜 지역별, 도별, 나아가 전국지도로 합해 볼 수 있고,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동일한 축척을 가진 군현지도들은 『대동여지도』와 같은 대축척 전국지도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며, 일정한 축척을 적용함으로써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려 했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지도 안에 1리, 혹은 10리, 20리 방안을 그리고 그 위에 지도를 그리게 되면, 지역과 지역 간의 거리 파악이나 방위, 위치 등이 더욱 정확하고 정교하게 된다. 축척의 적용, 대축척지도, 전국을 포괄하는 공간적 범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18세기 중후반에 여러 종 제작된 방안지도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신경준은 회화식지도의 전통과는 다른 방안지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의 제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리 방안 군현지도집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의 모든 군현지도를 동일한 축척으로 그린 점이다. 이 지도들은 20리를 약 4.2cm로 나타내, 모든 군현지도를 같은 축척으로 그림으로써 군현지도들 사이의 분합(分合)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전국의 각 군현지도를 연결시켜 지역별, 도별, 나아가 전국지도로 합해 볼 수 있고, 나누어 볼 수도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축척을 가진 군현지도들은 『대동여지도』와 같은 대축척 전국지도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18세기 후반 정조대에도 경위선표식지도가 제작되었다. 김정호가 만든 『청구도(靑邱圖)』의 제목(題文)과 범례에서 최한기(崔漢綺)와 김정호는 다같이 정조대의 경위선표식지도를 언급하였다. 정조 15(1791)년에 정조는 전국 군현 지도를 그려 올리도록 명했는데, 이 지도는 전국을 경선(經線) 154, 위선(緯線) 280여 개의 경위선표(經緯線表)로 나눈 지도였다고 하였다. 정조대 경위선표식 지도는 10리 간격의 방안 위에 그려진 10리 방안의 경위선표식 군현지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도 역시 현존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군현지도집의 형태로 종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8세기에 1리, 20리, 10리 방안을 가진 경위선표식지도 특히 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이 국가 주도로 여러 차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민간에서 이들 지도를 전사한 필사본들이 모사되고 있었음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팔도지도』의 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경위선표식형 군현지도집은 한 도폭 안에서, 그리고 모든 군현지도에 비교적 일정한 축척을 적용함으로써 ‘축척형 지도’로 부를 수 있으며,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려는 노력을 엿보게 한다. 지도 안에 1리, 혹은 10리, 20리 방안을 그리고 그 위에 지도를 그리게 되면, 지역과 지역 간의 거리 파악이나 방위, 위치 등이 더욱 정확하고 정교하게 된다. 축척의 적용, 대축척지도, 전국을 포괄하는 공간적 범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18세기 중후반에 여러 종 제작된 ‘경위선표식 군현지도’는 조선의 지도 발달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신경준의 동국여지도는 제작기술상으로는 전도·도별도·군현지도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제작될 수 있는 과학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배우성, 1998, 203).

조선 후기에 국가 주도로 1리, 10리, 20리 등 다양한 격자를 사용한 방안지도의 활발한 제작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효율적 통치와 안정된 행정을 위해 지방사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밀한 지도제작과 지리지 편찬의 필요성을 절감한 데서 출발한 것이었다. 특히 173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비변사 팔도구관당상제와 관련이 있다.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사회를 안정시키고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수령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지방행정 실태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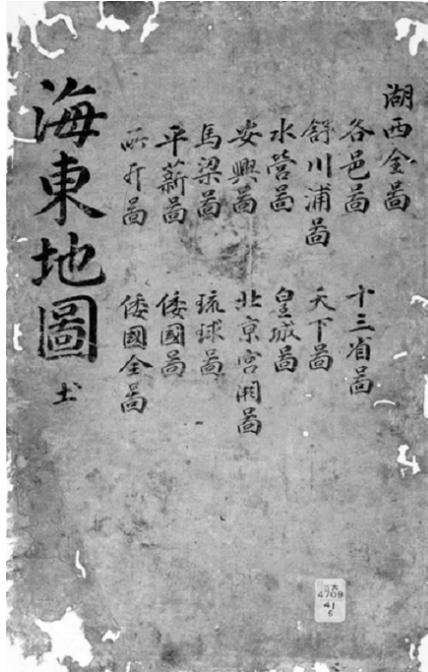
확하게 파악하고 수령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썼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비변사의 ‘팔도구관당상제’였다. 팔도구관당상제는 비변사 당상들이 전국 8도를 분장하여 도내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독하고 책임지도록 한 것이었다.

## ② 비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

이 형태의 군현지도집은 군현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의 책자에 일정한 크기로 전국의 군현을 그려 모아 놓은 지도집이다. 이 유형의 지도집들도 도별로 분책되거나 군현수가 적은 도가 한 책에 묶여져 3책~8책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학연구원규장각에 소장된 『해동지도(海東地圖)』(그림 6-9), 『여지도(輿地圖)』, 『광여도(廣輿圖)』(그림 6-10), 국립중앙도서관·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에 소장된 『여지도』 등의 지도책이 그 예이다. 이 형태의 지도집에 수록된 군현지도들은 지도의 크기가 같으므로 군현마다 축척이 상이하다. 또한 지도 안에 표시된 현상들의 방위, 거리, 면적, 위치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정교하거나 정밀한 지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도책의 크기가 작아서 열람이나 휴대에 편리하다. 이 때문에 관찬으로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이 전사해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형태의 ‘비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 들은 전국 모든 군현을 비교적 작은 크기의 지도책에 그림으로써 이용에 매우 편리한 장점을 지니며, 군현지도의 보급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지지적인 내용을 지도의 뒷면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지지를 지도의 부록으로 활용하여, 지도로 파악하기 어려운 각 지역에 대한 역사·사회·경제적인 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각 군현의 지도를 모아 지도책이나 지도첩으로 만든 군현지도집은 방대한 분량, 내용의 상세함, 전국의 모든 지역을 한 종의 지도책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들 군현지도집들은 제목은 서로 다르지만, 지도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내용이 유사한 지도들은 18세기 중엽 활발했던, 군현지도 제작과 읍지 편찬의 분위기 속에서 군현지도집의 필사가 활발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18세기 군현지도집 중 해동지도는 여타 지도들과 여러 점에서 상이하여 주목되는 지도집으로서, 유사한 지도가 남아 있지 않은 유일본 전국 군현지도집이다. 『해동지도』는 천하도와 같은 세계지도로부터 십삼성도, 황성도, 북경궁궐도, 유구도(琉球圖), 왜국전도와 같은 외국지도, 조선여진분계도·요계관방도(遼瀋關防圖)와 같은 국경 지역 지도, 팔도의 도별 지도, 330여 군현지도, 영종도·덕적도와 같은 진보지도, 영애도(嶺隘圖)·함관령도(咸關嶺圖)와 같은 군



[그림 6-9] 『해동지도』의 제6책 표지



[그림 6-10] 『광여도』 중 「영천군」

사요총지의 지도 등 다양한 유형의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8첩에는 「대동총도」, 제4첩에는 「서북피아양계전도」 등 대형 낱장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해동지도』는 ‘비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이지만, 이 유형의 군현지도집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한 지도집이다. 상세한 전국지도와 관방지도의 수록, 지도와 주기의 동시 수록, 도로·영애 등의 상세한 표시 등 소형 군현지도집에서 진전된 형태를 보여 준다. 내용으로 볼 때 이 지도집은 18세기 중엽의 사회경제상을 잘 반영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 도로, 봉산(封山) 등의 상세한 표시 등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 지도는 1750년대에 장책된 것으로 보이지만, 도별도와 군현지도의 내용은 1730~1740년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별, 군현별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짜임새 있게 정돈된 지도책은 아니지만, 세계지도로부터 진보지도까지 당시까지 만들어졌던 다양한 유형의 지도를 한 책에 정리한 데에 의의가 있다. 지도학사적으로는 우리나라 지도발달의 전환기에 제작된 지도로서, 18세기 전반 이전의 지도를 정리하고 18세기 중엽 이후의 새로운 지도로 발달해 가는 전환기의 면모를 반영하고 있는 지도이다. 『해동지도』가 지도를 중심으로 지리지를 결합한 것이라면, 동시대에 편찬된 『여지도서』는 지리지를 중심으로 지도를 결합시킨 것이었다(양보경, 1995b, 66).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 전국적으로 다시 군현지도가 제작된 것은 고종 8(1872)년이다. 1866년의 병인양요, 1871년의 신미양요를 겪은 후 1872년 대원군 집정기에 삼군부에 의해 만들어진 이 지도는 군현지도 외에도 군현에 소속된 군사시설인 진보, 목장, 성의 지도를 포함하고 있어 460장에 달하는 대규모이다.

지도의 내용은 매우 상세하고 정밀하다. 개항과 그 이후 급격하게 변화되기 이전, 조선 후기의 전국 각 군현의 모습을 초상화처럼 보여 주는 지도로서, 지명이나 문화재 등 조선 후기 지역 사회의 이해와 복원에 중요한 자료이다. 또 예전처럼 관찰사영이나 중앙에서 화원들이 다시 옮겨 그리거나 정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 군현에서 그린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정돈된 상태의 지도는 아니지만, 획일적이 아닌 각 지역의 지도제작 솜씨와 지방의 정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재미도 있다. 이 지도들은 크기가 매우 크고, 군현마다 지도의 크기가 조금씩 상이하여 일정한 축척이 적용된 정확한 지도는 아니다. 그리고 대형지도이므로 지도책이나 지도첩의 형태인 군현지도집으로 묶여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지도들은 같은 시기에 전국 각 군현과 군현에 소속된 군사시설 등을 그린 지도이므로 넓은 범위의 군현지도집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현지도는 지도의 내용, 제작기법, 형태, 이용층의 확대 등 조선 후기 지도발달의 여러 측면을 선도하였다. 특히 18세기는 군현지도의 발달에서 전환기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군현지도의 주요 유형들 즉 단독 군현지도, 군현지도집, 지지 중에 포함된 군현지도의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군현지도집은 정밀한 방안도법을 사용한 ‘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 과 일정한 크기의 책자에 전국 각 군현을 그린 ‘비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 의 두 유형이 18세기에 활발하게 제작되면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 또는 방안식 군현지도집의 꾸준한 편찬과 진전은 과학적이고 근대적인 지도 제작을 향한 노력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군현지도에 1리, 10리, 20리 방안을, 도지도에 10리, 20리, 30리 방안을, 전국지도에 50리, 70리, 80리, 100리 방안을 적용하여, 거리·위치·방위·크기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18세기 중기에는 군현마다 방안의 크기가 다른 1리 방안지도가 제작되었으나,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일정한 방안 크기 즉 일정한 축척을 가진 군현지도집이 만들어짐으로써 군현지도의 분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정한 축척의 군현지도는 대축척 전도의 제작에도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양보경, 1995). 특히 『조선지도』 『해동여지도』 등 20리 방안지도는 19세기의 조선 지도제작의 발달을 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방안지도의 활발한 제작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효율적 통치와 안정된 행정을 위해 지방사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밀한 지도제작과 지리지 편찬의 필요성을 절감한 데서 출발한 것이었다. 특히 173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비변사 팔도구관당상제와 관련이 있다.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사회를 안정시키고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수령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지방행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령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썼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비변사의 ‘팔도구관당상제’ 였다. 팔도구관당상제는 비변사 당상들이 전국 8도를 분장하여 도내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독하고 책임지도록 한 것이었다.

한편 비교적 작은 크기의 책자에 일정한 크기로 전국 각 군현을 그린 ‘비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 은 전통적인 회화식 지도의 전통을 전국적인 범위의 지도에 결합시킨 지도이며, 열람·이용·휴대에 편리한 군현지도집이다. 이 형태의 군현지도집은 전국 군현지도의 대중화와 일반화에 큰 공헌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도집은 이후 민간에서의 풍성한 군현지도 제작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양보경

## 참고문헌

- 김기혁 외, 2005,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유형연구—동래부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0(1), 1-26.
- 김기혁, 2007,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의 발달 연구—「동국지도3」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9(1), 19-36.
- 배우성, 1995, “영조대 군현지도집의 편찬과 활용,” 한국학보 81, 일지사, 154-187.
- \_\_\_\_\_, 1996, “18세기 관찬지도제작과 지리인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5~2002, 조선시대 지방지도: 전라도편, 경기도편, 충청도편, 경상도편, 강원도, 함경도편, 황해도편, 평안도편.
- \_\_\_\_\_, 1995, 해동지도, 상편, 하편, 해설·색인편, 경세원.
- 서울역사박물관, 2006, 이찬 기증 우리 옛지도.
- 양보경, 1992, “18세기 비변사지도의 고찰—한국학연구원규장각소장 도별 군현지도집을 중심으로—,” 규장각, 15, 93-123.
- \_\_\_\_\_, 1995a, “대동여지도를 만들기까지,” 한국시민강좌, 16, 84-121.
- \_\_\_\_\_, 1995b, “군현지도의 발달과 『해동지도』,” 해동지도 - 해설·색인집, 서울대규장각, 61-74.
- \_\_\_\_\_, 1999c, “여암 신경준의 지리사상,” 국토, 국토연구원, 36-43.
- \_\_\_\_\_, 1995d,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발달,” 문화역사지리 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55-63.
- \_\_\_\_\_, 2005, “장서각 소장 비변사지도 『영남도』 고찰,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69-92.
-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한국의 옛 지도(도판편, 자료편).
-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 이찬, 1979, “동랍도의 특성과 지도발달사에서의 위치,” 진단학보 46·47합집, 44-51.
- \_\_\_\_\_, 1980, “한국 지도 발달사,” 한국지리(총론편), 건설부 국립지리원, 107-126.
- \_\_\_\_\_, 1981, “한국 고지도에서의 좌표체계,” 한국과학사학회지, 3(1), 3-11.
- \_\_\_\_\_, 1989, “조선시대의 지도책,” 한국측지학회지 7(2), 69-84.
- \_\_\_\_\_,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 장상훈, 2006, 조선후기 태축척조선전도의 발달과 『동여』, 『동여』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 정약용 저·다산연구회 역주, 1981, 역주 목민심서 Ⅲ, 창작과 비평사.
- 한영우·안휘준·배우성, 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 3. 방안지도

#### 1) 동양에서의 방안도법

기원전 5세기부터 서양의 그리스 학자들은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타고라스학과 플라톤은 구체(球體)는 완전하고 형태이기 때문에 지구도 그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적 근거와 물리적인 증거를 추가하여 이를 지지하였다. 이후 여러 천문학자들은 지구의 둘레와 직경의 측정을 시도하였다. 지리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90~160 A.D.)는 지구를 360도로 나누고 도(度)를 분(分)과 초(秒)로 나누는 위선과 경선을 고안하였다. 15세기 그의 지도가 부활한 이후 그가 고안한 격자 체계는 현대 지도의 기초가 되어 있으며 경선과 위선은 타원형인 지구의 모습을 반영하여 곡선으로 그려진다.

그리스의 경위선 체계는 지구를 구형으로 보는 입장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서의 격자 체계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기원전 221년에 진(秦)나라(221~207 B.C.)가 전국을 통일하여 군현제를 실시하고, 이후 한(漢)나라(202 B.C.~220 A.D.)가 세워지면서 지도는 국가의 운영에 필수품이 되었다.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 이전에 창행(張衡, 78~139 A.D.)은 둥근 하늘과 평평하고 네모난 땅[天圓地方]을 대상으로 격자 체계를 설정하고 그에 입각하여 하늘과 땅을 측정하였다. 그로부터 2세기 후 진(晉)나라(265~420)의 초대 공무(工務)장관으로 임명된 배수(裴秀)는 8매로 된 중국의 정밀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창행의 격자 체계를 이용하였다. 그는 지도의 서문에서 장방형 격자를 이용하여 지도를 만드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만일 눈금이 딸린 구획선이 없는 지도를 그리면, 원근(遠近)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 …… 거리의 척도는 눈금이 딸린 구획선에 의하여 매겨진다. 또한 상대적인 위치는 보측(步測)된 직각 삼각형의 응용에 의해 측정된다. …… 장방형 격자의 원리를 올바르게 적용하면 곧게 뻗는 곳이든, 구부러진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또는 먼곳이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앞에서 그 모습을 숨길 수 없다.”(이성범 역, 1987, 178쪽에서 재인용)

중국인들은 이와 같은 좌표의 원리를 이용하여 땅을 분할하였고, 배수(裴秀)가 지도 좌표에 사

용한 용어인 칭[經]과 웨이[緯]는 섬유를 짜는데 사용된 용어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중국의 지도 발달에서 서양식 지도제작 기법이 사용되기 이전까지 방형의 격자 체계는 널리 사용되었다. 당나라(618~907)시대에는 전국의 방안식 지도를 완성하였고 송나라(960~1270)시대에는 지도의 위쪽을 북쪽으로 정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 후 1555년 명나라의 나홍선(羅洪先, 1504~1565)이 제작한 『광여도』가 목판으로 제작 보급되면서 방안식 지도의 발달은 절정에 이르렀다.

## 2) 우리나라 고지도와 방안

조선에서 1861년 제작된 『대동여지도』의 「지도유설」에서 진나라 배수(裴秀)의 지도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격자를 이용한 제도제작 기법이 19세기 조선의 지도제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방안 도법에 대한 용어는 격자식, 방격식, 획정식, 방안식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안도법으로 사용하였다.

### (1) 우리나라의 방안도법

우리나라 지도제작에서 방안도법을 사용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조선 전도에 방안격자가 나타나는 것은 앞서 언급된 『광여도』의 「조선도」이다. 해안선 등 지도 윤곽을 볼 때 고려시대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도에 함경, 평안, 황해도 등의 지명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8도 행정구역이 확정된 1413년 이후에 모사된 지도로 보이며 특히 함경도 지명이 사용되기 시작한 연산 4(1498)년 이후로 추정된다. 이 지도는 방안을 바탕으로 한반도가 그려진 것이라기보다는 『광여도』의 제작 도법에 맞추어 조선지도 위에 방안을 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 전기의 지도 중 방안이 표시된 지도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세종조 때 간의(簡儀) 제도가 완성되어 천체의 고도가 관측되면서 위도가, 천문용 시계인 혼천의를 통해 경도 측정이 가능하였다. 동시에 10리 간격으로 북을 치도록 고안된 기리고차(記里鼓車)의 제작 등은 정확한 거리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조선 전기의 이와 같은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 등의 천문도가 제작된 것을 볼 때 지도 제작에 방안 사용의 가능성을 시사한다(이찬, 1981, 3-4). 조선 후기 청나라가 『황여전람도』를 제작하면서 숙종 39(1713)년 청나라 사신 목극등(穆克登)을 따라온 하국주(何國柱)가 한성의 북극 고도(위도)는 북위 37° 39′ 15″, 경도는 북경 순천부

중선을 기준으로 편동(偏東) 10° 30′ 로 측량한 기록이 『국조역상고(國朝歷象考)』에 수록되어 있다(이찬, 1991, 353). 정조 13(1791)년에도 비변사에 소장된 지도를 이용하여 한양을 기준으로 팔도 관찰사영의 위도와 편도를 측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당시 지도제작에 경위선 개념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18세기 지리학자인 신경준(申景濬)의 『여암유고(旅菴遺稿)』에는 방안식 지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庚寅年(1770년, 영조 46)에 왕께서 『東國文獻備考』를 편찬하게 하였다. 본인이 이 일에 참여하였다. 이미 또한 본인에게 『東國地圖』를 그리도록 명하여서, 公府에 소장하던 10여건[지도]을 꺼내어 諸家の 古本을 찾아가 고찰해 보니, 玄老(鄭弘)가 그린 것 만함이 없었다. 마침내 채택해서 약간 교정을 가하였다. 6월 6일에 시작하여 8월 14일에 일을 마쳐서 바쳤다. 列邑圖 8권, 八道圖 1권, 全國圖 족자 1축이다. 周尺 2寸을 1線으로 하여 縱線 76개, 橫線 131개였다. 왕께서 또한 명하여 같은 수를 東宮에 바치게 하였다. 왕께서 친히 小序를 지었다… (旅菴遺稿, 卷之五, 東國輿地圖跋).

대개 지도가 있으면 서문이 있어야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지도는 처음에 비고(備考)·통고(通考)에 함께 신고자 했지만 이런 사례가 없는 까닭으로 여러 의논들이 일어나서 이름을 ‘여지도(輿地圖)’라고 지었다. 京都·兩都로부터 八道에 이르기까지 도리·산천을 모두 다 갖추었다. 이것의 편집은 바로 申景濬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이루어낸 것이다. 360주의 대소와 원근을 한 번에 전개하여 마치 指掌과 같다.”(旅菴遺稿, 卷之十三, 御製輿地圖小敘)

신경준이 영조의 명을 받아 주척(周尺) 2촌(寸)을 1선(線)으로 하는 방안식 군현지도를 제작하여 바쳤으며, 지도를 『여지도』라 이름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은 방안도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도제작기법의 틀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주척을 이용하여 종선 76개, 횡선 131개를 그렸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국을 아우르는 경위선 조직을 완성하였다는 뜻이다. 동시에 전국 모든 지역이 주척 2촌의 방형 격자를 바탕으로 동일한 축척에 의해 지도 제작이 시도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전에 제작된 정상기의 『동국지도』의 도별도도 백리척(百里尺)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나 훨씬 상세한 지도가 제작된 것이다. 또한 360주의 대소와 원근을 볼 수 있도록 그렸고, 열읍도와 팔도도, 전국도가 동시에 그려졌음은 동일한 체계에 의해 각 고을의 지도(열읍도), 도별지도와



[그림 6-11] 『동국지도3』 동래부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그림 6-12] 『해동여지도』 동래부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조선 총도가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 (2) 방안도법으로 그려진 고지도

방안도법으로 그려져 남아 있는 고지도는 대부분 군현지도와 대축척 조선전도로 구분된다. 이들 지도는 전국이 동일한 축척을 바탕으로 그려져 있으며 수록 지명 등을 볼 때 회화식 기법으로 그려진 다른 군현지도와는 달리 『해동여지도』 등 대축척 전도 제작의 바탕이 되었음이 밝혀져 있다(김기혁, 2005). 한편 도별도로서 방안도법을 바탕으로 그려진 지도는 몇 점이 있으나 방안이 지도 위에 그려진 지도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 ① 군현지도

#### ㉠ 군현지도와 방안도법

[표 6-1] 방안도법으로 그려진 군현지도책

	소장처	지도명	청구기호	내용 및 비고
1	국립중앙도서관	『東國地圖三』	승계貴2702-22	1책(경상도)
2	국립중앙도서관	『海東輿地圖』	古2107-36	3책(乾·坤·補)
3	규장각	『朝鮮地圖』	奎16030	7책(전라도 결본)
4	규장각	『八道郡縣地圖』	古4709-111	3책(경기도·충청도·평안도)
5	국립중앙도서관	『八道地圖』	古朝 61-21	6책(팔도)
6	장서각	『地圖』	K2-4583	4책(팔도)
7	고려대도서관	『輿地圖』	B-10 A-53	2책(경기도·충청도·강원도·함경도)
8	고려대도서관	『地圖』	B-10 A-52	4책(팔도)

조선 후기 제작된 군현지도 중 방안이 묘사된 가장 초기의 지도는 규장각에 소장된 『영남지도』(규12154 외)이다. 도별로 구성된 군현지도책으로 표지에 비변사인이 찍혀 있어 『비변사인 지도』로 소개되어 있다(양보경, 1992). 이 지도에는 1리 간격 방안(일부 지도의 경우 10리 방안)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군현마다 축척이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 군현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 지도에서의 방안은 전국을 아우르는 좌표체계가 아니라 군현 내에서 각 지점간의 거리를 쉽게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표 6-1)은 군현지도 중 방안도법에 의해 제작된 주요 군현지도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지도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동국지도3』(그림 6-11)과 『해동여지도』(그림 6-12), 규장각 소장의 『조선지도』이다. 『동국지도3』은 경상도 각 군현을 그린 지도책만 남아 있다. 표지에는 표제와 41개의 수록 군현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기재된 지명은 대부분 경상좌도에 속해 있는 고을 지명이다. 표제명으로 보아 다른 도별 지도책과 함께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산청·안의 지명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영조 43(1767)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이다. 71개 고을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도는 길이 4.2cm(20리)의 방안을 이용하여 그려져 있다. 군현마다 방안 크기는 동일하고 읍치와 가까운 방안의 격자를 기준으로 경위선표 수치가 있다. 채색 필사본 지도이나 일부 군현의 경우 흑색으로 수정·가필하여 내용이 추가된 경우가 있다.

『해동여지도』는 3책(乾·坤·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는 건(乾)과 곤(坤) 편에 수록되어 있다. 보(補)권은 각 고을의 통계를 수록하였다. 제작 연대는 1800~1804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20리 방안위에 그려진 것은 『동국지도3』과 유사하나 고을 크기에 따라 방안 크기가 다르다. 25.0cm×17.0cm 크기의 광곽을 바탕으로 4개의 방안을 그렸을 경우 약 4.3cm, 5개의 경우 3.5

cm, 6개의 경우 2.7cm, 7개의 경우 2.2cm의 정방형의 방안이다. 또한 이 지도책에서는 1면에 1개 군현에서 최대 8개 고을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일부 고을은 서로 연결되어 그려져 있다.

이 지도책에는 『동국지도3』과 마찬가지로 경위선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 『동국지도3』에서는 읍치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점에만 기재되어 있는 반면, 『해동여지도』에서는 『동국지도3』과 동일한 수치를 기재하고 이어지는 방안에는 경위선의 아랫 자리만 기입하였다. 경상도의 경우 31×21개의 방안에 군현의 위치만 표시하고 있다. 경상도에서 고을이 그려진 범위는 북-남으로 83(순흥)-119(거제), 동-서로 18(장기)-42(함양)이며 이는 『동국지도3』의 범위와 동일하다. 한편 도별 「팔도분표」를 수록하여 각 도에서 군현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내용은 『청구도』의 일부 이본(異本)에 수록된 「팔도분표」의 방안 수치와 일치되어 주목된다.

『조선지도』는 기존 연구에서 대표적인 방안식 군현지도로 소개되어 있으며 규장각에서 영인, 발간하여 보급되었다. 7책(전라도 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1750~1768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연천·가평·양주·포천·영평 등 5개 고을이 누락되어 있다. 3책의 강원도와 7책의 경상도 목차 부분에 「備邊司」 도장이 찍혀 있어, 비변사에서 사용하던 지도였음을 보여준다. 모든 고을의 지도가 4.2cm의 방안위에 그려져 있으나 경위선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앞의 두 지도책과 다르다. 모든 고을의 지도는 동일한 지리 정보는 일정한 기호로 표시되어 있어 이 지도책이 한 기관에 의해 기획·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 지도 외에 「팔도군현지도」는 경기도 38개 고을, 충청도 54개 고을, 평안도 42개 고을을 3책으로 엮은 지도책이다. 『조선지도』와 내용과 품격이 거의 동일하다. 『조선지도』에 누락되어 있는 경기도의 5개 고을이 포함되어 있다. 「팔도지도」(국립중앙도서관)는 전국 8도의 완질본 방안식 군현지도책이다. 『조선지도』와 내용은 동일하나 매우 거칠게 그려져 있다. 수록된 지명들을 볼 때 1838년경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대 도서관 소장의 「여지도」는 원래는 4책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나 2책만 남아 있다. 1책은 경기도·충청도, 2책은 강원도·함경도 군현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조선지도』와 동일하며 지도의 품격과 지명의 필체도 뛰어나다. 1762~1776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도」(장서각)는 전국 4책(1책: 경기도·함경도, 2책: 충청도·전라도, 3책: 황해도·평안도, 4책: 강원도·경상도)으로 되어 있으며 지도 한 면에 2~8개 군현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경상도 도별도의 지명에는 안음과 산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군현지도는 안의와 산청으로 되어 있어, 이 지도가 영조대의 원본 지도를 바탕으로 정조대에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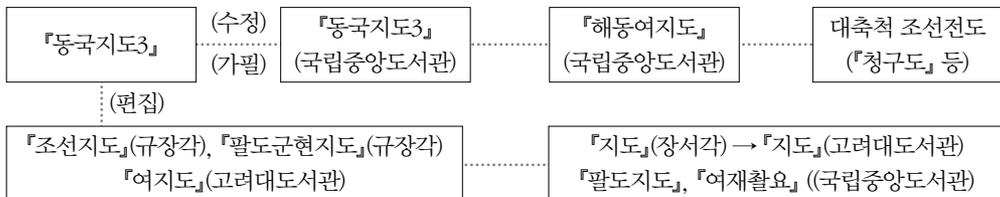
고려대 도서관 소장의 『지도』도 4책으로 되어 있고 지도 한 면에 2-8개 군현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체제로 볼 때 장서각 소장 『지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1책; 경기도·충청도, 2책; 경상도·전라도, 3책; 강원도·함경도, 4책; 평안도·황해도로 되어 있어 도별 구성에서는 차이가 난다. 다른 방안식 지도와는 달리 지도의 여백에 주기를 기입한 것이 특징이다.

### ㉠ 지도의 계열

방안식 군현지도의 계열에 대해 김기혁(2007)은 (그림 6-13)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조선지도』는 『동국지도3』이 제작된 이후 군현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재편집되어 제작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편집 과정에서 도로망이 일률적으로 묘사되고, 일부 지리 정보의 경우 기호나 지명(書院, 倉, 烽)을 이용하여 부호화하였다. 『조선지도』가 제작된 이후 『동국지도3』은 이후 수정·가필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해동여지도』가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군현에서 흑색으로 수정·가필한 내용의 대부분은 『해동여지도』에 반영되어 있으나 『조선지도』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가필되기 이전의 『동국지도3』은 신경준이 제작한 최초의 방안식 지도 형태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의 『팔도군현지도』, 고려대 도서관의 『여지도』는 체제와 지도의 제작 수준을 볼 때 『조선지도』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팔도지도』는 이들 지도 중 일부가 민간에 의해 묘사되어 제작된 것이며, 장서각 소장 『지도』는 한 면에 여러 개의 군현을 수록하는 방법으로 편집·제작되어 왕실에서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대 도서관 소장 『지도』는 장서각 『지도』가 민간에 의해 주기가 첨부되어 묘사된 지도이다.

『해동여지도』에 삽입된 「경위전도」의 내용과 일부 『청구도』에 삽입된 「팔도분표」가 거의 비슷하고 읍치의 위치 묘사와 수록 지명에서 두 지도가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내용상 동



[그림 6-13] 방안도법의 군현지도 유형

자료: 김기혁(2007)

일 계열의 지도이며, 『해동여지도』가 『청구도』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인다. 『대동여지도』의 저본인 『청구도』와 이들 근현지도가 동일한 도법으로 그려져 있고 내용도 유사하여 이들 지도들 간의 관련성과 계열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동여지도』가 『조선지도』의 내용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는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나, 대축척 전국전도인 『청구도』와의 관계에서는 이견이 있다. 『청구도』의 저본을 『해동여지도』로 본 이상태(1999, 215-216)의 주장에 대해 오상학(2001, 44-46)은 두 지도책에 그려진 방안의 일치는 인정하나 내용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경위선표식 근현지도책을 직접적인 저본으로 삼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았다. 그리고 『청구도』의 저본을 기존에 존재했던 대축척 전도를 기본 지도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양보경(1999)이 소개한 바 있는 『조선도』와 같은 유형의 전국 전도를 예로 들었다.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18세기 제작된 방안식 근현지도책은 19세기의 『청구도』 및 『대동여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조선 후기의 지도 발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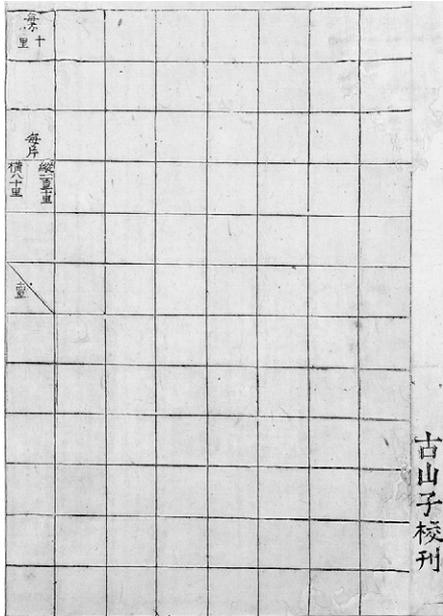
## ② 대축척 조선전도와 방안도법

방안도법으로 그려진 대축척 조선전도는 (표 6-2)와 같다. 이들 중 방안이 그려진 지도는 규장각 등에 소장된 『청구도』, 국립중앙박물관의 『동여』 및 1861년과 그 이후 제작된 『대동여지도』이다.

『청구도』는 국내 총 10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책들은 수록 지명과 축척 등의 구성에 있어서 동일하나 제책의 형식과 표제, 지리정보의 수록 방법 등이 서로 다르다(김기혁, 2004). 『동여』는 14층으로 구성된 분첩절첩식의 지도이다. 표제는 '동여'로 되어 있으나 지도

[표 6-2] 방안도법으로 그려진 『대축척 조선전도』

	소장처	표제명	청구기호	형태	비고
1	규장각 외	『靑邱圖』 외	-	필사본	2책-4책
2	국립중앙도서관	『大東輿地圖』	古朝61-01	필사본	18첩
3	국립중앙박물관	『東輿』	M-127	필사본	14첩
4	일본 오사카부립도서관	『朝鮮圖』	-	필사본	26책
5	규장각외 20여 기관	『大東輿地圖』	奎 10333	목판본(신유)	22첩
6	규장각외 3기관	『東輿圖』	奎 10340	필사본	22첩
7	규장각	『大東方輿全圖』	奎 10341	필사본	22첩
8	규장각외 3기관	『大東輿地圖』	古 4709-6	목판본(갑자)	22첩
9	영남대도서관 외 5개 기관	『大東全圖』	989-11	필사본(모사)	22첩



[그림 6-14] 『대동여지도』에 표현된 방안

의 1층에 ‘대동여지도’ 표제가 기재되어 있다. 전국을 남북으로 14층으로 구분하였으며, 각층은 절첩식으로 되어 펴고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4첩의 지도를 펼쳐서 연결하면 세로 5.2m, 가로 2.9m 정도의 대형 전도가 된다.

목판본 『대동여지도』는 조선시대 지도 발달사에서 정점에 있는 지도이며 우리나라 고지도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분첩절첩식으로 되어 있으며 각 첩의 크기는 30.0×20.0cm로 22층을 모아 붙이면 세로 약 7m, 가로 약 4m가 된다. 각 도엽 면은 세로 120리, 가로 80리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6-14). 서울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성신여대 박물관, 영남대 박물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목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송실대 박물관에 있다. 목판은 양면으로 판각되어 있고, 한 면에 2개 이상의 도엽면을 판각하였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대동여지도』, 일본 오사카부립도서관에 소장된 『조선도』는 방안도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지도 위에 방안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규장각 등에 소장된 『동여도』와 『대동방여전도』, 갑자본 『대동여지도』 및 후대 모사본은 내용상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좌표체계가 동일하다.

이들 대축척 조선전도는 동일한 방안도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들 지도에 수록된 지명, 하천 유로, 산맥 등의 지리 정보가 20리 방안을 바탕으로 제작된 군현지도와 거의 일치하고, 방안 체계도 유사하다. 그러나 지도 제작에 바탕이 된 방안 관련 내용에서는 지도마다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이의 저본인 『청구도』는 수록 지명 뿐만 아니라 방안의 좌표체계에서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3)은 『청구도』와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방안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두 지도가 전국을 10리 방안을 바탕으로 구획하여 지도를 제작한 것은 동일하나 방안 개수에서 차이가 있다. 『청구도』의 경우 남북 29층, 동서 22개 판으로 나누고 각 면을 남북 10개 방안, 동서 7개 방안으로 구

[표 6-3]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의 방안 좌표체계 비교

	『청구도』		목판본 『대동여지도』	
	남북(세로)	동서(가로)	남북(세로)	가로
체제(A)	29층	22판	22층	19판(최대)
면당 10리 방안수(B)	100리(10개)	70리(7개)	120리(12개)	80리(8개)
전체 10리 방안(C=A×B)	290개	154개	264개	152개
전체 리수(C×매10리)	2,900리	1,540리	2,640리	1,520리

확하여 남북 2,900리(290개 방안), 동서 1,540리(154개 방안)을 바탕으로 지도를 그렸다.

반면에 『대동여지도』의 경우 한 도엽면을 남북 120리(12개 방안), 동서 80리(8개 방안)으로 구성하여 전국을 남북 22층, 동서(최대) 19판으로 줄였다. 동서의 길이는 1,520리로 『청구도』와 큰 차이는 없으나, 남북은 2,640리(260개 방안)로 『청구도』에 비해 260리(26개의 방안)를 줄이고 있다. 이는 『대동여지도』의 밑그림을 제작하면서 종래의 지도를 단순히 모사한 것이 아니라 수록 지명과 함께 방안의 좌표체계 등에서 변화를 기하였음을 보여준다.

### 3) 방안도법의 좌표체계

#### (1) 군현지도에서 좌표체계

방안에 경위선 수치가 기재된 군현지도인 『해동여지도』에는 각 군현의 지도위에 2촌(20리) 방안이 그려져 있으나 동일한 크기의 광곽 내에 군현의 크기와 관계없이 표현하였기 때문에 도면마다 방안의 크기가 다르다. 반면 이지도의 저본이 된 『동국지도3』에 그려진 방안의 크기는 4.2×4.2cm로 동일하다. 두 지도에서 각 군현의 방안에는 읍치를 중심으로 가까운 경위선에 기준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 이 수치는 『동국지도3』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이 수치가 각 지역의 위치를 방안 위에 표현하는 데 있어 기준 좌표체계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6-4)는 『해동여지도』에서 각 도별로 고을이 그려진 범위를 좌표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한반도의 동단(東端)은 함경도 경흥, 서단(西端)은 평안도 의주로 동-서는 77개의 방안에 그려져 있다. 이를 매방 20리로 환산하면 거리는 1,540리가 된다. 북단(北端)은 함경도, 경흥, 남단은 전라남도 강진으로 북-남은 제주도를 제외하면 122개 방안이 된다. 이를 거리로 환산하면 2,520리가

된다. 한편 제주도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남북 10개, 동서 14개의 방안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따라서 제주도를 포함하면 남북 방안수는 132개가 된다. 『해동여지도』에서 나타나는 동서와 남북의 77개와 132개 방안 개수는 『여암유고』에서 ‘동서를 76개의 선, 남북을 131개의 선’으로 표현하였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이는 이 지도에 수록된 수치가 방안도법에서 기본적인 좌표체계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신경준에 의해 만들어 졌음을 보여준다.

좌표체계의 기준점이 되는 경위선의 위치(경위선 수치 0×0)는 한반도 북단인 함경도의 온성·종성 도읍과 경흥 도읍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온성·종성의 도읍은 위선 0-15, 경선 25-35 좌표에 그려져 있다. 여기에서 위선의 경우 두만강이 표현된 한반도 북단에서 북쪽으로 약 36리의 선이 기준선이 되고 있다.

경흥 도읍의 경우 위선 6-15, 경선 1-7 좌표에 그려져 있다. 이중 가장 동단인 녹둔도의 경우 경선 2.0에 표현되어 있어 녹둔도에서 동쪽으로 약 40리에서의 선이 경선의 기준에 해당된다. 이를 지도상에 표현하면 좌표의 기준점은 한반도를 벗어나 현재 중국령인 춘화 일대에 해당된다.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지도의 경선 좌표를 표현할 경우 대개 수도 혹은 주도(州都)를 기준으로 동·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경선 좌표체계 대신에,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단일 좌표체계로 사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표 6-4] 『해동여지도』 도별 좌표체계의 범위

	서-동			북-남		
	방안수치	방안수	리	방안수치	방안수	리
경기도	55-40	15	300	67-85	18	360
충청도	58-30	28	560	81-96	15	300
전라도*	59-39	20	400	94-126 (94-122)	25	500
경상도(해동여지도)	42-18	24	480	83-119	36	720
경상도(동국지도3)	42-18	24	480	82-119	37	740
강원도	49-17	32	640	58-90	32	640
황해도	67-47	30	600	59-72	13	260
평안도	77-44	23	460	44-59	15	300
함경도	41-23	18	360	33-56	23	460
	36-1	36	720	1-30	30	600

\* 전라도에서 남측 하단의 경우 대흑산도와 홍도를 그린 방안에서 126이 나오나 이는 실제 위치의 착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에 가장 남단인 강진현의 경우 122개 방안에 표현되어 있다.

## (2) 대축척 조선전도에서의 좌표체계

19세기 제작된 대축척 지도에 서지 정보와 방안을 보면 지도제작에서 군현지도에서 사용된 좌표체계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5)는 대축척지도의 방안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동여』에서는 전국을 남-북 14층으로 나누고 각 층별로 남-북으로 10개의 20리 방안 위에 지도를 그렸다. 전국의 남-북은 2,800리로 표현되고 있으며, 제주도를 제외하면 2,280리가 된다. 경선의 경우 동-서를 11판으로 나누고 각 판마다 7개의 20리 방안을 이용하여 140리를 묘사하고 있다. 전국의 동-서는 1,540리가 되어 『해동여지도』의 동서 거리와 일치한다.

『청구도』의 경우 남북을 29층으로 나누어 매 층마다 남북으로 10개의 10리 방안을 이용하여 100리를 표현하고 있다. 전국의 남-북은 2,900리가 되며, 제주도를 제외하면 2,500리가 된다. 경선의 경우 동서를 22판으로 나누어 각 판마다 7개의 10리 방안을 이용하여 70리를 묘사하고 있다. 전국의 동-서는 1,540리가 되어 이는 『해동여지도』나 『동여』의 동-서 거리와 일치한다.

『대동여지도』는 남-북을 22층으로 나누어 매 층마다 남-북으로 12개의 10리 방안을 이용하여 120리를 표현하고 있다. 전국 남-북은 2,640리가 되며 제주도를 제외하면 2,400리가 되어 다른 지도들과 큰 차이가 있다. 동-서의 경선 좌표에 있어서는 19판으로 나누고 매판 8개의 10리 방안을 이용하여 80리를 묘사하고 있다. 전국의 동-서는 1,520리가 되며 이는 다른 지도들과 비교하여 볼 때 차이는 20리에 불과하다.

이들 지도들의 내용을 보았을 때 대축척 지도에서 사용된 방안은 동일한 좌표체계를 사용하였고, 이전에 제작된 군현지도의 방안체계가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각 지도들이 제작되면서 좌표체계에 부분적인 변화가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경선 좌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위선에서 변화가 있다.

[표 6-5] 방안도법 지도의 방안 표현 방법

지도	『해동여지도』	『동여』	『청구도』	『대동여지도』		
유형	군현지도책	조선전도	조선전도	조선전도		
형식	2책(3책은 補)	분첩절첩식	분첩절첩식	분첩절첩식		
방안 크기(정방형)	2촌	2촌	1촌	1촌		
실제 방안 크기	도별로 상이	3,7cm	지도마다 차이	2,5cm		
위선체계	제주 도서 포함	층 수	-	1층-14층	1층-29층	1층-22층
		층별 리	-	200리	100리	120리
		북-남	-	2,800리	2,900리	2,640리
	제주 도서 제외	층 수	1-122개(방안)	1-11층, 13층 일부	1-25층	1층-20층
		층별 리	20리	80리(13층)	100리	120리
		북-남	2,440리	2,280리	2,500리	2,400리
경선체계	판 갯수	1-77(방안)	1-11판	1-22판	1-19판	
	판별 리	20리(방안)	140리(7판)	70리	80리	
	동-서	1,540리	1,540리	1,540리	1,520리	

### (3) 방안도법의 축척

#### ① 축척 산출 방법

우리나라 『대동여지도』연구에서 주요 주제중의 하나는 지도의 축척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표 6-6)과 같이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었으나, 학자들마다 서로 상이한 결론을 내고 있었다. 연구의 결론이 다양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으나 특히 제작의 바탕이 된 군현지도의 방안도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1861년에 제작된 목판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도에서 사용된 축척의 개념이 전통적인 척도인 척(尺)을 근간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척도인 미터법을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대동여지도』에서 표현된 특정 지점간의 거리 측정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는 『대동여지도』이전에 제작된 군현 지도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청구도』(1834)에 수록된 「청구도범례」에는 지도제작에서 축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도를 그리는 법은 「기하원본」에 나타난 있다. 지도를 그리는데 혹은 축소해서 소도(小圖)를 만들고자 하거나 혹은 확대해서 대도(大圖)를 만들고자 하면 그법은 「갑을병정」이란 한 지도를 소도로 축소해서 원도의 4분의 1로 만들고자 한다면 곧 「갑을병정」 도형의 4분의 1을 가지고 하나의 「무기경신」형으로 그린다. 「갑을병정」 원형을 가지고 임의로 몇 개 정방형으로 나누고 소형을 가지고 또 몇 개의 정방형으로 나누 다음에 원도에 그려있는 산천, 성곽, 촌서, 임원 등이 대로의 어느 정방에 들어 있는 것을 보아서 소도의 어느 정방형 안에 축소하여 그려 넣으면 즉 이것이 작게 그린 「무기경신」형의 소도이니 곧 원도인 「갑을병정」의 대도와 같은 식이 되는 것이다.”(『청구요람』 「범례」(규장각본))

이 내용은 당시 지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지도 크기(축척)는 방안 크기의 조정으로 통해 이루어 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지도의 축척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방안도법 자체가 지닌 축척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대동여지도』는 이전의 군현지도에서 나타난 방안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지도의 축척은 지도에 표현된 방안 크기의 비교에 의해서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방안도법의 축척

우리나라 고지도에서 축척이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표현된 지도는 『정상기』 동국지도에 표현된 백리척(白里尺)이다. 지도마다 크기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지만(0.1~9.5cm) 이 척의 표시는 전국이 동일한 축척으로 지도가 그려졌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백리척의 길이를 미터

[표 6-6] 『대동여지도』의 축척과 관련된 연구

연구자	저서	년도	축척
경성제국대학	조선고지도전시목록	1937	약 1:150,000
방동인	한국의 지도	1976	약 1:160,000
이찬	한국문화사대계	1970	약 1:160,000
홍시환	한국지리학사	1983	약 1:162,000
성남해	측량 85년 12월호	1985	약 1:260,000
박관섭	대동여지도 도법 및 계보 연구	1987	1:160,000-1:162,000
김상수	대동여지도제작의 측지학적 분석(4)	1989	1:166,346

자료: 김상수(1989)

법으로 환산하여 이를 묘사된 척의 실제 길이와 비교하여 축척을 약 1:420,000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 지도에서는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축척은 미터법을 통해 산출될 수 밖에 없다.

방안도법의 축척을 알아보기 위해 지도에서 표현된 리(里)와 척(尺)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영조 22(1746)년에 간행된 『속대전(續大典)』의 공전(工典)에는 주척(周尺) 6척을 1보(步)로 하며, 360보를 1리(里)로 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김정호의 『대동지지』 이정고(里程考)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목록층에도 수록되어 있다. 척과 리의 단위에서 볼 때 1리=360보×6척=2,160주척(周尺)=21,600촌(寸)이 된다.

신경준의 “周尺 2寸을 1線으로 하여 縱線 76개, 橫線 131개였다”라는 기록을 이 원리에 따라 풀어서 표현하면 방안도법에서 주척 2촌(10리=1촌)으로 20리를 표현하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216,000촌(=10리)를 1촌으로 줄여서 그렸기 때문에 지도의 축척은 1:216,000이 된다.

### ③ 지도에서 표현된 방안 크기

신경준의 기록에서 주척 1촌의 실제 크기(cm)를 알기 위해 조선 후기 주척의 길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초 순조대에 제작된 수표의 눈금은 1척이 21.87cm, 뒷면이 21.77cm로 계측되었다. 1960년대까지 창덕궁에 남아 있던 옛 도량형기의 측정 결과도 주척의 길이는 20.48cm에서 21.6cm이다(박홍수, 1967). 이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주척 1척은 약 21cm이다. 이 척도를 바탕으로 할 때 신경준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2촌은 4.2cm가 되며 이 방안의 크기는 『동국지도 3』에서 표현된 방안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군현지도에서 방안도법의 축척이 결정된 후 이후의 지도제작에서는 『청구도』의 범례에서 보는 것처럼 2×2寸의 방안 크기를(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4.2×4.2cm)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조절하면서 지도 크기가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 제작된 대축척지도의 축척은 지도위에 표현된 방안 크기의 실제 길이를 표준 방안(각 4.2cm)과 비교하면 제작자가 지도를 만들 당시 의도된 축척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판본 『대동여지도』에서 표현된 10리 방안(그림 6-14)의 실제 길이는 방안마다 2.45~2.5cm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부산대학교 도서관 분) 방안면 전체의 크기는 세로 30.0cm, 가로 20.0cm로 각 10리 방안의 크기는 2.5×2.5cm이다. 20리의 경우 5.0cm가 된다. 김정호는 이 지도를 만들면서 이전에 4.2cm의 크기의 방안을 5.0cm로 확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현대적인 축척 개념으로 환산하면 1:181,440(216,000×42÷5.0)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 (4)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방안 좌표체계

이전의 대축척 지도가 필사본으로 제작된 것과는 달리 목판본으로 제작되면서 이전의 지도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기획되어야 했음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목판들을 통해서 볼 때 당시의 제작 환경은 매우 좋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목판 수를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청구도』에서 2,900리로 표현되던 남북의 거리를 2,640리(22층×120리)로 줄이고, 매층을 120리로 표현함으로써 29층으로 되었던 층수를 22층으로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해안 지역의 경우 두 지역을 한 면에 판각 하는 등 목판을 최소한으로 줄여 비용을 절감한 흔적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지도 제작 기법의 변화로 인해 좌표 체계의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6-7)은 군현지도의 방안도법을 바탕으로 10리 방안으로 구획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좌표를 부여한 후 주요 장소들에 대해 지도상 위치를 바탕으로 각 지도에서의 경위선 좌표를 산출한 것이다. 한반도 최북단인 온성의 경우 『청구도』에서 위선과 경선 좌표는 각각 84리(위선 기준선으로 부터 남으로 84리), 188리(경선 기준선으로부터 서로 188리)로 나타나는데 반해 『대동여지도』에서는 위선 36리, 경선 195리로 표현되어 위선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다른 지역에서 경향도 비슷하여 두 지도에서 위선 차이는 대부분 30~40리 내외의 차이를 보이며 경선의 차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라도 제주의 경우 위선이 2,543리로 『청구도』의

[표 6-7]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의 주요 지점의 경위선 방안 좌표

	지점(읍치 중앙)	『청구도』		『대동여지도』	
		위선	경선	위선	경선
1	함경도 온성	84	188	36(-48)	195(+7)
2	함경도 경흥	209	81	154(-55)	96(+17)
3	함경도 명천	560	290	511(-49)	302(+12)
4	한양	1,545	924	1,503(-42)	929(+5)
5	강원도 울진	1,752	357	1,695(-57)	395(+38)
6	경상도 동래	2,211	446	2,171(-40)	454(+8)
7	전라도 해남	2,339	1,040	2,292(-47)	1,051(+11)
8	전라도 제주	2,785	1,016	2,543(-242)	1,055(+39)

\* 괄호 안의 수치는 『청구도』와의 차이임.

2,785리에 비해 242리의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주요 지점의 경위선 좌표의 변화는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제작하면서 위선의 기준선을 남으로 대폭 이동시키고, 전라도 해남과 제주도 사이의 층수를 조정하여 전체 면수를 줄여 밑그림을 제작한 후 판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4) 맺음말

고지도제작에서 방안도법은 18세기 중반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회화적인 기법으로 그려졌던 군현지도의 한계를 넘어 20리의 방안을 이용하여 군현지도를 제작하였고 이를 주도한 이는 신경준이었다. 매방 주척 2촌(4.2cm)의 방안으로 전국을 동서 76개, 남북 131개 선으로 구획하여 좌표 체계를 설정하고, 이 방안위에 지도를 그렸다. 모든 군현지도는 일률적인 방법과 동일한 축척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당시 방안의 축척은 1:216,000이었다.

이때 전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좌표체계의 골격은 이후 제작된 대축척지도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대축척 지도가 제작되면서 지리적인 정보가 부분적으로 변하나 좌표체계는 그대로 이용되었다. 지도의 축척은 방안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결정되었다. 필사본으로 제작되었던 전국지도가 목판으로 제작되면서 좌표 체계의 변화는 불가피 하였다. 목판수를 줄이기 위해 위선의 기준선을 이동시키고, 전라도 해남과 제주도 사이의 남해에 대한 좌표가 재조정되어 목판본 『대동여지도』가 탄생된 것이다.

김기혁

#### 참고문헌

- 김기혁, 2004, “청구도의 이분 유형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발표초록문.  
\_\_\_\_\_, 2007,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의 발달 연구-〈동국지도3〉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9(1), 19-36.  
\_\_\_\_\_, 2008, 부산고지도, 부산광역시.  
김기혁 외, 2005,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유형연구-동래부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0(1), 1-26.  
김두일, 1994, “대동여지도의 공간적 정확성,” 문화역사지리, 6, 31-43.  
김상수, 1989, “대동여지도제작의 측지학적 분석,” 지적, 169, 49-54.  
박관섭, 1977, “대동여지도의 도법 및 계보에 관한 역사지리학적 연구,” (건국대학교)지리논집, 3, 115-155.  
박홍수, 1967, 이조척도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  
양보경, 1992, “18세기 비변사지도의 고찰-규장각소장 도별 군현지도집을 중심으로-,” 규장각, 15, 93-

123.

- 양보경, 1995, “대동여지도를 만들기까지,” 한국시민강좌, 16, 84-121.
- \_\_\_\_\_, 1999, “일본 대판부립도서관 소장 조선도의 고찰,” 서지학연구, 17, 421-435.
- 오상학, 2001, “고산자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그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 27-102.
-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 이 찬, 1981, “한국 고지도에서의 좌표체계,” 한국과학사학회지, 3(1), 3-11.
- \_\_\_\_\_,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 장상훈, 2006, 조선후기 대축척조선전도의 발달과 『동여』, 『동여』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 Boorstin, D, 1983, *The Discoveries*, Random House(이성범역, 1987, 발견자들, 범양사)

## 4. 회화식(繪畫式) 지도

### 1) 머리말

조선시대 동안 수많은 지도가 제작되었다. 공적인 동기로, 때로는 사적인 동기로 제작, 유통된 고지도는 우리 문화의 개성을 전해주는 중요한 문화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 고지도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회화적인 기법을 활용한 예술적인 지도라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고지도를 부를 때 회화식 지도(繪畫式 地圖)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회화식 지도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광의(廣義)로는 지도를 그릴 때 사용되는 도법(圖法)으로서의 의미이고, 협의(狹義)로는 지도이면서도 산수화에 준하는 회화적인 표현이 적극적으로 구사되었다는 의미이다. 회화식 지도라는 용어에 혼재된 두 가지 의미를 분별하게 되면 고지도에 나타난 회화적 특징의 의미를 좀 더 뚜렷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후자의 경우는 회화지도(繪畫地圖)라고 하려고 한다.<sup>1)</sup>

본고에서는 먼저 고지도에 나타난 회화적 도법의 성격을 상징성, 기능성, 장식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면서 회화식 지도로서의 특징과 의미를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조선 후기 이후에 유행한 회화지도(繪畫地圖)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18세기 이후 군현지도가 관찬(官撰), 사찬(私撰)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19세기에는 지방관의 행차나 유람, 백성들의 생활상을 담은 풍속 장면 등을 포함시키거나, 읍치 주변의 경관을 산수화에 준하는 회화적인 기법으로 표현한 지도가 등장하였다(그림 6-15). 이러한 지도들은 단독형식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한 지역, 즉 한양을 포함하여 평양, 진주, 동래, 전주, 통영 등 한정된 지역들에서 자주 제작되었고,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전형화 된 구성과 화풍을 지향하였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회화 지도에 나타난 내용과 형식, 표현의 변화는 제작동기와 용도, 수요자, 제작자 등 19세기 사회의 제반 변화가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19세기의 회화지도는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록하는 동시에 감상화에 가까운 회화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독립적인 형식의 회화식 군현지도는 다양한 이유로 지도를 활

1) 회화지도란 용어는 이태호(1998)가 사용한 그림지도란 용어와 유사하지만, 방안지도, 회화식 지도 등 다른 용어와의 통일을 위하여 한자어로 표기하였다. 이찬(1977)은 繪圖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양보경(1995)은 회화식 지도의 형식에 주목하여 단독지도라고 분류하였다.



[그림 6-15] 『진주지도』, 지본채색, 80×122cm

자료: 규장각

용, 소유, 감상하였던 지방관과 지방문화의 영향으로 자주 제작되었다. 회화지도가 유행한 이면에는 중앙에서 활동하던 화원(畫員)을 지방관이나 화사군관(畫師軍官)으로 파견하던 관례나 제도적인 배경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양이나 동래처럼 회화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지역 출신의 화사군관이나 화가들의 활약도 돋보인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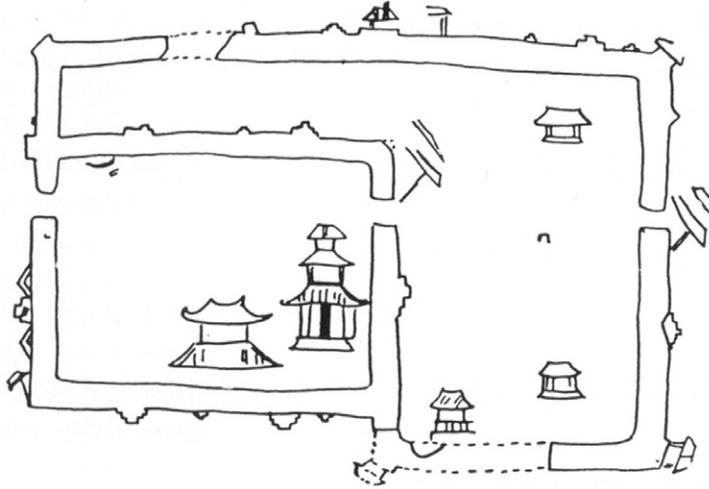
## 2) 회화식 지도의 정의와 특징

회화식 지도란 용어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sup>3)</sup> 광의는 지도를 그릴 때 사용되는 도법(圖法)으로서의 의미이고, 협의는 18세기 이후 유행한, 산수화에 준하는 표현을 도입, 구사한 지도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도법으로서의 개념은 고지도의 포괄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고, 좀 더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먼저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도를 제작할 때 회화적인 도법을 활용하였음을 기록을 통해서

2) 동래지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도판은 김기혁(2008) 참조. 지방의 화가에 대하여는 이훈상(2008) 참조.

3) 회화식 지도에 대하여는 이찬(1977), 안휘준(1995a), 이태호(1998), 한영우 외(1999) 참조.



[그림 6-16] 지도, 고구려 요동성총 前室 벽화 중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요동성총의 벽화에 있는 『요동성도』는 거대한 규모의 성시(城市)를 회화적으로 요약하여 그린 지도이다(그림 6-16). 이후 고려시대의 지도에서도 회화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여러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sup>4)</sup>

조선시대에 들어와 지도의 제작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지도는 국가통치와 행정, 국방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각 시대마다 정치, 사회, 문화적인 이유로 지도가 제작되었으며, 지도를 제작할 때 통상적으로 지리적인 요소를 판단하는 상지(相地), 지형적인 요소를 도면 위에 그리는 화원(畫員), 그리고 지리에 대한 식견이 높은 관료가 함께 파견되었다. 이는 지도가 종합적인 정보와 표현이 응축된 자료임을 의미한다. 문헌기록과 현존유물을 통해서 지도를 그리는 도법으로서 회화적인 표현은 조선시대 내내 지도제작의 기본 요소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동안 지도는 기본적으로 관찬지도로써 제작되고, 관리되었다. 지도가 가진 공적인 성격은 많은 경우 궁중에서 활동한 최고 수준의 화가, 곧 화원이나 지방의 관아에 소속된 화사(畫師)들을 지도제작에 투입하는 관례를 낳았다. 지도에 사용된 재료인 비단과 종이, 필과 묵, 각종 안료는 회화작품에 사용되는 동일한 재료이다. 화원이나 화사는 회화작품을 제작하는 재료를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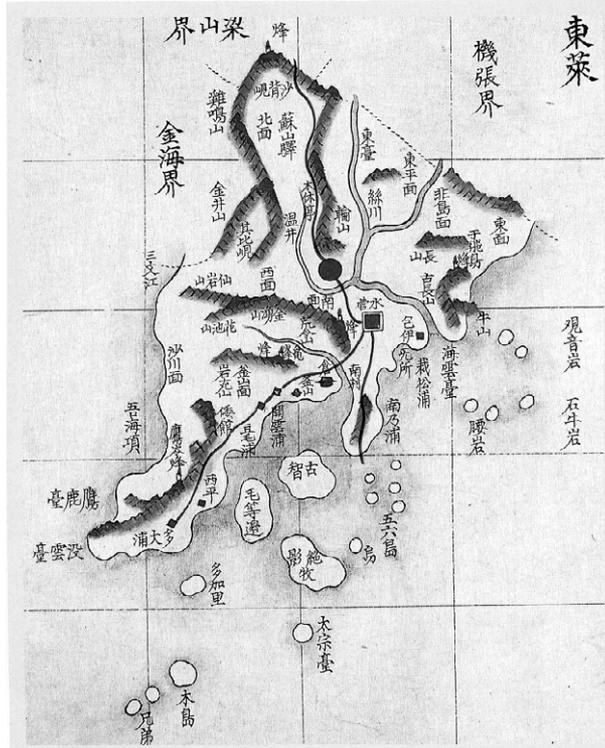
4)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지도에 대하여는 이찬(1991), 이상태(1991), 전상운(1995), 한영우(1995) 참조.

다를 수 있었고, 특히 궁중회원의 경우는 정식 회원이 되기까지 보통 십년 이상의 훈련을 거친 전문적인 화가였다. 각종 그림을 그리는 일은 물론이지만 지도를 제작하는 일도 회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중시되었다.

현존하는 고지도들은 대개 땅의 윤곽을 나타내는 윤곽선을 가지고 있다. 윤곽선은 지도의 기본적인 기능과 관련된 요소로 회화적인 도법의 차원보다는 지도제작 당시 가졌던 정보에 의하여 결정되곤 하였다. 그러나 윤곽선의 안쪽부터는 산의 줄기와 물의 흐름을 통하여 전체 지세(地勢)를 드러내고, 각종 기호들을 기입하는 회화적인 도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지명과 수치 등 중요한 사실들을 문자로 주기하여 시각적인 표현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보도 담아내었다. 우리나라의 고지도는 산맥과 물줄기로 이루어진 산천지세(山川地勢)의 표현이 두드러져 보이고, 다양한 색채와 기호로 아름답게 치장되었다는 점, 즉 회화적인 표현이 부각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그림 6-17). 지도의 종류와 제작시기에 따라 때로는 파도문양과 산수화에 준하는 표현들도 나타나므로 어떤 지도들은 회화적인 요소가 다른 어떤 요소, 즉 기능적인 요소보다 더욱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sup>5)</sup> 지도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각적 표상물로서 개인적인 표현이나 장식을 위해 제작되기 보다는 정보를 수록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그렇다면 고지도에서 강조된 회화성은 어떠한 의의가 있는 것일까.

고지도에 나타난 회화식 도법에 대하여 기능을 중심으로 세 가지 성격과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회화식 표현을 통하여 강조된 상징성이고, 둘째는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성이며, 셋째는 미적인 효과를 강화하는 장식성이다. 먼저 상징성의 측면은 고지도의 제작목적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고지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요소에 속하는 산맥과 물줄기는 국토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사상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의 저변에 풍수적인 개념이 적용된 것은 물론이려니와,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학적인 자연철학으로서 정립된 땅의 개념이 결합되어 국토가 왕도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장(場)으로 인식된 것을 시사한다. 백두산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맥과 같은 산줄기와 생명의 기(氣)를 확산시키는 물줄기는 국토 전체를 이상적인 현실경으로 만들고 유지하려는 정치적인 이상과 목표를 가시화한 상징적인 표상이다. 따라서 고지도는 지도를 만든 국왕과 관료의 현실과 정치, 국토에 대한 이상과 신념이 담겨진 표상물이며, 유난히 강조된 산맥과 물줄기는 그러한 의

5) 지도에 나타나는 파도문양에 대하여는 안휘준(1995a), 이태호(1998) 참조.



[그림 6-17] 『동래부』, 『동국지도3』 중, 18세기 중엽, 지본채색, 53×3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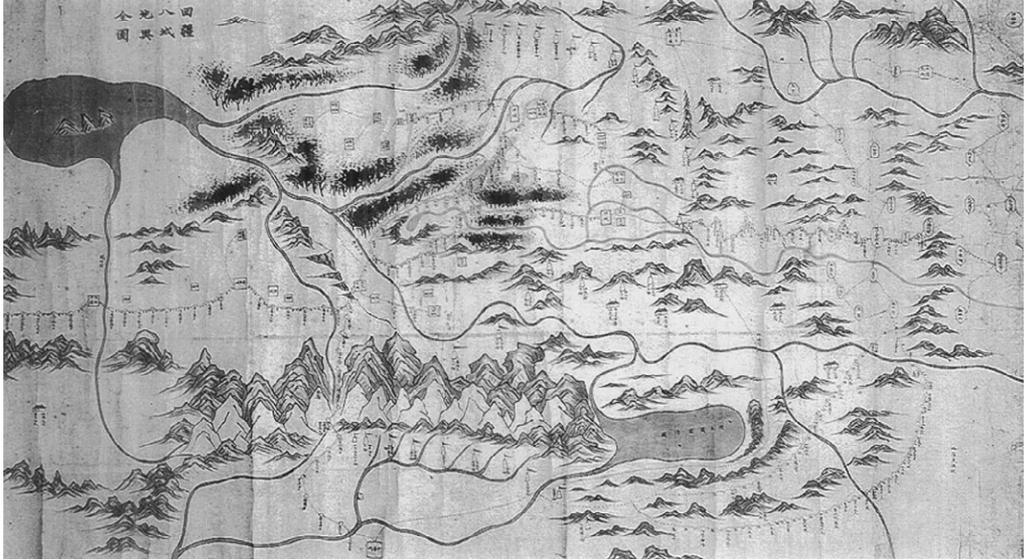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식을 대변하는 상징체계인 것이다.

고지도에 나타난 이러한 도법은 중국의 지도에서도 발견된다(그림 6-18)<sup>6)</sup>. 기본적으로 유사한 도법을 사용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조선의 지도가 보편적으로 좀 더 세련된 표현과 정선된 재료, 수준 높은 기량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의 경우 고지도의 제작주체가 궁중이나 중앙 관아, 또는 주요한 지방관아인 경우가 적지 않고, 그에 따라 수준 높은 화가와 비싼 재료를 동원하여 제작되었다는 이유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두 번째, 고지도에는 다양한 도형과 일정한 색채, 즉 회화적인 표현과 재료를 동원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지명과 시설, 유적과 유물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각종 기

6) 중국 고지도에 대하여는 劉鎮偉 主編(199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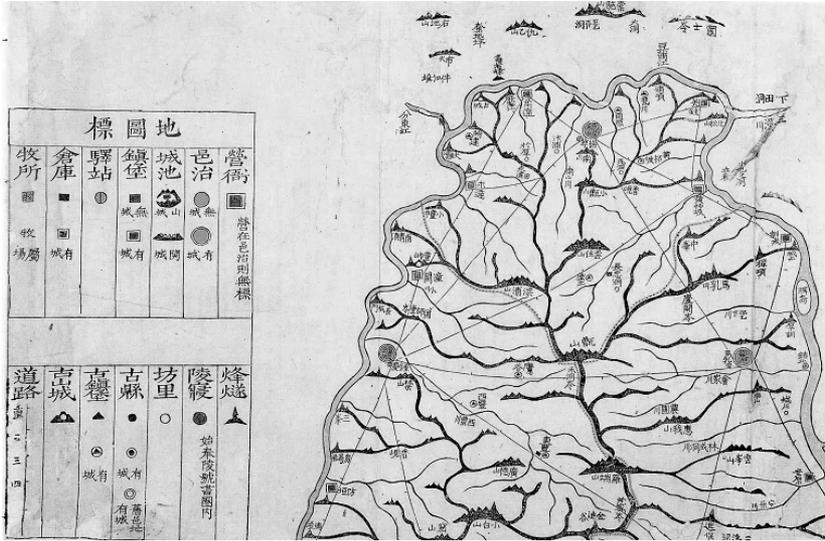


[그림 6-18] 『回疆八城地與全圖』, 지본채색, 76×137cm

자료: 劉鎮偉 主編(1995), 도46

호들은 지도가 전달하려는 정보를 한눈에 알려주는 체계로서 작용한다. 또한 적황녹청을 비롯한 다양한 색채들은 지역을 한눈에 분별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음양오행(陰陽五行)에서 유래된 전통적인 색채관념을 전달하여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와 문화를 담아내기도 한다(그림 6-19). 지도에 사용된 안료들은 시대와 가격, 재료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어 전문적인 식견을 적용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지도의 수준과 격조, 제작시기를 읽어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세 번째, 고지도에 나타난 회화적인 요소들은 장식성을 강화하여 고지도가 기능적일 뿐 아니라 예술적인 작품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는 한국 고지도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지도에 나타난 장식성은 한편으로 유기체적인 국토관을 가지고 국토를 왕도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장으로 인식한 국왕 및 관료들의 철학과 미학, 문화를 시사하는 요소이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은 곧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터전이며, 또는 그러한 이상이 실현된 현실경이니 만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었다. 장식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첨부할 요소는 글씨이다. 지도에는 정갈한 해서체로 쓴 각종 기록들이 실려 있다. 지도에 쓰인 글씨는 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매체로서 대부분 서법의 전문가가 썼을 것이다. 회화적, 서예적 미를 갖춘 고지도는 우리 문화의 수준과 특징을 보여주는 문화재로서 손



[그림 6-19] 지도표, 『대동여지도』 중

꼽히고 있다.

한편 안휘준(1995a)은 고지도를 도면식(圖面式) 지도와 회화식(繪畫式) 지도로 나누고, 회화적인 기법을 파도와 준법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도성도, 군현도, 산도 등 회화식 지도를 구도를 중심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세 가지 유형은 첫째, 부감식 구도, 둘째 개화식 구도, 셋째 폐화식 구도이다. 이러한 논의는 회화식 지도에 나타난 기법적인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3) 조선후기의 회화지도

회화식 지도라는 용어는 협의로 사용될 때 산수화에 준하는 회화적인 표현이 강조된 지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도에는 비교적 한정된 소규모의 지역이 담겨지며, 다양한 정보와 함께 회화성이 강조되는 회화적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지도를 회화지도(繪畫地圖) 또는 회도(繪圖, 그림지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필자도 도법으로서의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서 회화지도라고 부르려고 한다.

회화지도는 18세기 이후 군현지도의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물론 그 이

전에도 여러 지역에 회원을 파견하여 지도를 그려오게 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회화지도의 유래는 오래 된 것으로 추정된다(한영우·안휘준·배우성, 1999). 그러나 회화지도가 적극적으로 제작되고, 지역에 따라 전형화가 진행된 것은 18세기 이후였다.<sup>7)</sup>

전국적, 또는 도별 군현지도집을 제작할 때 지방에서 제작하여 바친 회화식 군현지도들이 활용되었다. 군현지도집은 대개 화첩 또는 책자형태로 장황되었기 때문에 수록된 회화지도의 규모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때로는 지지(地誌) 가운데 회화지도가 작은 규모로 수록되어 시각적 보완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회화지도의 좀 더 본격적인 면모는 대규모 화면에 소상한 정보를 담은 독립적인 지도로 제작되면서 나타났다.<sup>8)</sup> 이러한 지도들에서는 화면에 담겨진 내용, 구성, 세부 기법의 변화가 일어났고, 지도의 기능과 성격, 수요자와 제작자 면에서도 군현지도집에 실린 지도와 구분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본 장에서는 특히 19세기 이후 유행한 회화지도를 중심으로 제재와 소재, 화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의 성격과 기능, 수요자와 화가의 문제 등을 살펴 보려고 한다.

### (1) 행정과 통치, 그리고 교화(教化)

정약용은 순조 21(1821)년에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지었다. 그 가운데 ‘부임육조(赴任六條)’에서 수령은 부임 직후 해당지역의 정황을 담은 대규모의 지도를 화공으로 하여금 그리게 한 뒤 관아의 벽에 걸어두고 행정, 통치용 자료로 삼을 것을 추천하였다. 또한 지도를 그리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도의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sup>9)</sup> 이를 통하여 19세기 즈음 지방관이 해당지역의 실정을 숙지하기 위해서 회화지도를 활용한 것을 짐작하게 된다. 정약용이 제안한 지도는 기존의 전국적, 또는 도별 단위로 제작된 군현지도집에 실린 소규모의 지도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독립화면에 담겨진 상세한 군현지도를 의미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성격의 지도는 한양, 평양, 진주, 동래, 통영, 전주 등 일부 군현에서 반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지역들 이외에 해주, 철산, 함흥, 강화, 제주 등 다른 지역의 전경을 그린 회화지도들도 현존하고 있다. 문헌기록과 현존 사례들을 토대로 볼 때, 19세기에는 군현의

7) 군현지도에 관한 연구서는 이상태(1993), 배우성(1995), 양보경(1995), 이상태(1999), 김기혁(2002; 2005) 참조.

8) 이러한 지도에 대하여 양보경(1995)은 단독지도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9) 정약용은 주척 1척으로 10리의 길이를 삼을 것을 제안하였고, 고을의 남북이 백리요 동서가 80리라면 지도의 지면이 길이 10척, 너비 8척이 될 정도로 크게, 그리고 회화적인 재료와 기법을 동원하여 그릴 것을 추천하였다. 정약용, 『戶籍』, 『牧民心書』, 戶典 참조.



[그림 6-20] 『함흥지도』(부분), 10폭병풍, 지본수묵채색, 109.8×284.7cm

자료: 규장각

상황을 상세하게 수록한 회화지도들이 자주 제작되면서 지도의 범주를 넓혔다. 회화지도들도 기본적으로는 행정과 통치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해당지도들은 군현의 산천형세, 도로, 다양한 건축물과 기념물, 장시 등 동시대 군현의 변화상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록하였다.

『평양지도』, 『진주지도』, 『함흥지도』, 『완산지도』에는 대규모 화면에 해당 군현의 전모가 산수화에 준하는 표현으로 재현되었다(그림 6-20). 이 지도들은 군현의 상황을 상세하게 표상하고, 때로는 주기까지 기록한 점에서 행정과 통치를 위한 자료로서의 기능이 부각되었다(이영희, 2002). 지도에 따라서 행정을 위한 자료로서 수치나 건물, 기념물을 강조하여 그리고, 명칭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도 있고, 재지사족(在地士族)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화적인 성격의 관아나 지명, 명칭을 좀 더 수록하는 등 다소간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 지역의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국규모의 지도나 읍지에 수록된 내용과 기록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경우

가 적지 않다.<sup>10)</sup>

19세기 이후 진행된 지방사회의 변화, 지방행정의 독립화, 지방관료문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은 지도의 제작에도 새로운 형식과 내용, 표현을 초래하였다.<sup>11)</sup> 대규모의 독립화면에 그려진 군현지도들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용도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별로 제작된 군현지도들은 전국지도나 중앙정부가 추진한 군현지도집에 실린 소규모 군현도와 유사한 구성과 내용을 토대로 제작되었다.<sup>12)</sup> 그러나 지역적인 사정을 소상하게 담아내고, 동시에 회화적인 표현, 곧 준법과 수지법, 인물화, 계화 등 회화적인 요소와 기법이 부각되어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새로운 차원의 지도로 변화되었다.

## (2) 공적(公的) 기록화

조선후기 이후 지방관의 행차나 지방관이 주도한 행사, 백성들의 다양한 생활 등을 담은 회화지도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평양지도』, 『해주지도』, 『전주지도』, 『통영지도』, 『거제도지도』, 『철산지도』, 『경기감영도』 등 여러 지도에 행렬 및 풍속장면이 수록되어 있다(그림 6-21). 이러한 표현은 춘추로 행해진 순력행사를 포함하여 지방관이 행한 여러 행사의 주요장면을 포착하여 그리고, 때로는 해당지역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이 같은 지도들은 보는 이들에게 지방관의 정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해당지역 백성들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물론 지도에 묘사된 현실은 실제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도를 수요하고, 제작한 사람들은 19세기 향촌사회의 실재를 그대로 담으려는 생각보다는 이상적인 현실을 표현하는데 더 관심을 가졌다. 거의 모든 회화식 지도에 나타나는 정연함, 균형감, 평화로움, 절기에 따른 적합한 상황의 묘사는 명분과 이상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인식이 반영된 표상물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지도를 본다는 것과 그린다는 것은 모두 공적인 지향점을 주입하는 것이고, 또는 어지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를 인지시키는 주문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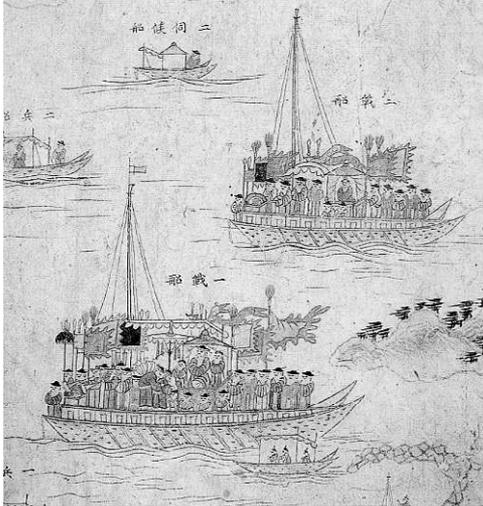
이러한 특징은 궁중의 행사를 기록한 궁중행사도에서도 나타났다(그림 6-22).<sup>13)</sup> 19세기의 궁중행사도를 보면 모든 행사가 예에 따라 성공적으로 거행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10) 고지도 제작의 배경에 대하여는 한영우(1995), 한영우·배우성(1995) 참조.

11) 19세기 지방과 향촌에 관한 연구로는 이원표(1979), 전우철(1985), 고석규(199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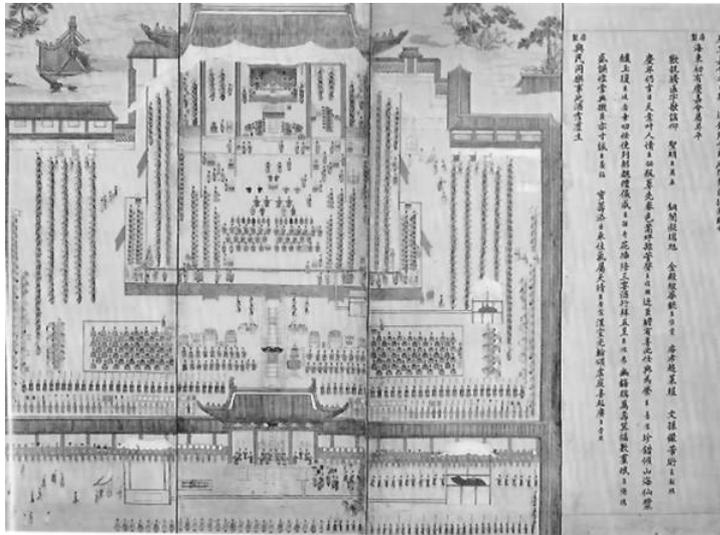
12) 관찰지도의 제작배경과 인식에 대하여는 배우성(1996) 참조.

13) 궁중행사도에 대하여는 박정혜(2004) 참조.



[그림 6-21] 『거제도지도』(부분), 8폭병풍, 지본수묵 채색, 121×33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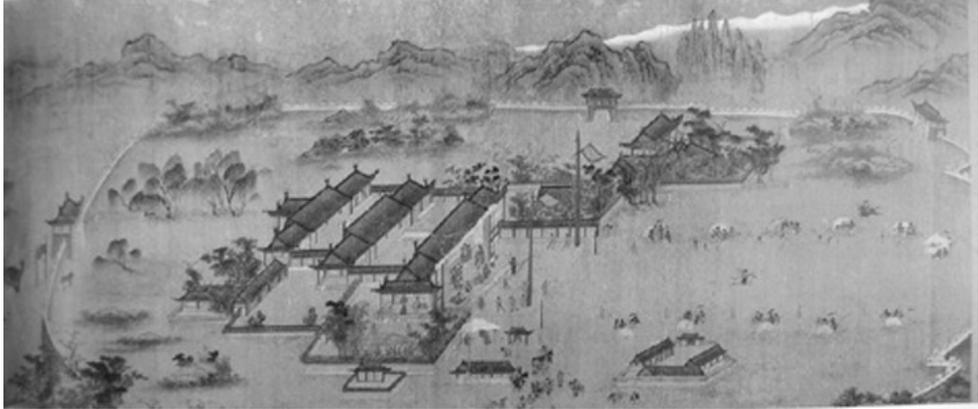
자료: 동아대박물관



[그림 6-22] 『순조기축진찬도』(부분), 1829년, 8폭병풍, 견본채색, 149×413cm

자료: 삼성리움미술관

정연하고, 대칭적이고, 영원불변할 것만 같은 정적인 장면들이 가장 비싼 비단과 채색, 정세한 장식을 동원하여 묘사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 왕권과 궁중의 세력이 약화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궁중행사도는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화려하게 제작되었다.



[그림 6-23] 한시각, 『길주과시도』(『북새선은도』 중), 견본채색, 전체 57.9×674.1cm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지도 중에 실린 여러 행사장면은 지방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공적행사를 기록하던 회화적 전통과도 관련이 있다. 1674년 함경도 길주에서 치러진 문무과시의 장면을 기록한 17세기의 『북새선은도(北塞宣恩圖)』(그림 6-23)와 18세기에 유사한 행사를 계기로 제작된 유사한 내용과 표현의 『길주과시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필로 전하는 『평안감사향연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은 공적인 행사를 계기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행사의 주요한 장면과 행사가 일어난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경관이 묘사되어 행사를 기록하고 기념하는 공리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18세기 이후 사대부의 삶을 요약하여 표현한 평생도(平生圖)가 유행하였는데, 문인관료의 성공적인 평생을 여덟 장면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sup>14)</sup> 그 가운데 관찰사 행차장면, 신관부임장면 등이 포함되어 이러한 일들이 관료로서 중요한 이력으로 인식된 것을 알려준다(그림 6-24). 황해도 해주로 부임하는 수령의 부임장면을 그린 전김홍도필의 『안릉신영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와 박기제의 『월임도』(삼성리움미술관 소장) 등은 지방관의 이력과 관련된 회화적 기록물이다. 이처럼 18세기 이후 관료의 이력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관료문화의 한 부분이 되었고, 회화식 지도 속에 순력행차 및 여러 행사장면이 표현되는 것에도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순력행사는 지방관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였다. 조선 전기 거의 전 기간을 순력으로 보내던 방식이 조선 후기에 들어와 춘추 순력으로 변하였지만 여전히 순력은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행사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 경관이나 주요 장면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전통이 형성되었

14) 평생도의 도판은 국립중앙박물관 편(2002) 참조.



[그림 6-24] 필자미상, 『관찰사부임도』, 『담와흥계희평생도』 8폭병풍 중, 견본담채, 각 76.5×37.9cm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6-25] 필자미상, 『취병암』, 『제주십경도』 중, 지본수묵채색, 각 63.8×36.2cm

자료: 일본 고려미술관

다.<sup>15)</sup> 17세기에 관동부사가 관할 지역을 순력한 뒤 이를 기념하여 제작한 『관동팔경도』, 함흥부사 남구만이 제작한 『함흥십경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주목사가 제주의 승경을 꼽아 만든 『제주십경도』,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이 순력한 뒤 제작한 『탐라순력도』, 1748년 경 강원도 관찰사 김상성이 주문제작한 『관동십경도』(규장각 소장) 등은 지방관의 순력을 계기로 만들어진 작품들이다.<sup>16)</sup> 지방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순력은 기념할 만한 환유(宦遊)로 인식되고, 그 결과 시각적인 기록물로 기념되었다(그림 6-25).

『연강임술첩』은 1742년 가을 경기도 관찰사 홍경보(1692~1745)가 경기도를 순력하던 중 글 잘 짓는 연천현감 신유한(1681~?)과 그림 잘 그리는 양천현령 정선(1676~1759)을 불러 뱃놀이

15) 관료의 환유와 이를 기념하고 기록한 회화에 대하여는 박은순(2007a) 참조.

16) 『관동팔경도』와 『제주십경도』에 관하여는 이보라(2005) 참조.



[그림 6-26] 정선, 『우화등산도』, 『연강임술첩』 중, 1742년, 지본수묵, 33.5×94.2cm, 개인 소장



[그림 6-26-1] 정선, 『웅연계람도』(부분), 『연강임술첩』 중, 1742년, 33.1×93.8cm,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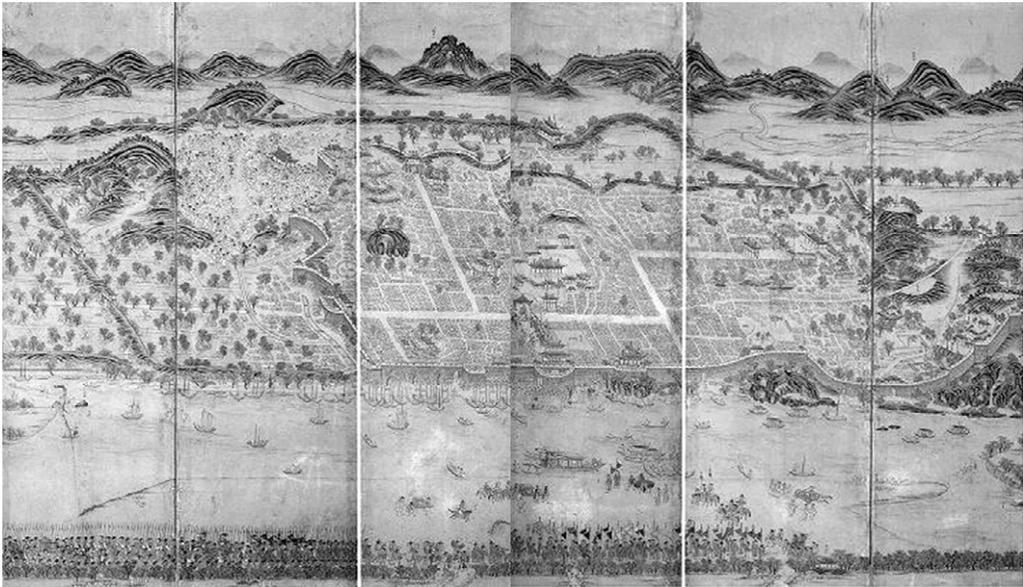
를 하고 이를 기록하게 한 작품이다.(그림 6-26) 진경산수화의 대가 정선이 완숙한 기량으로 그려낸 환유의 기념물인 『연강임술첩』은 관료문화의 산물로서 주목된다. 이 그림은 진경산수화이지만 관찰사의 시위와 의장, 그리고 이를 구경하는 백성들이 등장하여 순력 중의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그림 6-26-1).

19세기 중엽 경 제작된 『강화도행렬도』는 강화도에 살던 철종을 모시러간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기록한 작품이다(그림 6-27). 강화도의 경관을 회화식 지도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장중한 행렬을 포함시켜 그린 이 작품은 지도와 기록화, 실경산수화가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요한 행사를 그림으로 기록하고 기념하는 궁중행사도의 전통과 지방의 인문경관을 상세하게 담아낸 지도적인 성격, 그리고 태평성대의 아름다운 현실경을 은유한 실경산수화의 전통이 융화되어 새로운 종합예술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 작품은 지도가 행정적, 통치적 차원만이 아니라 기념과 감상의 차원과 결합되면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변화된 것을 보



[그림 6-27] 『강화도행렬도』, 19세기 중엽, 채색, 각 47×101cm

자료: 북한 조선미술박물관



[그림 6-28] 『평양지도』, 10쪽병풍, 19세기 후반, 각 131×39cm

자료: 서울대박물관

여준다.

서울대박물관 소장의 『평양지도』, 동아대박물관 소장의 『해주지도』와 『거제도지도』, 삼성리움 박물관 소장의 『철산지도』와 『경기감영도』 등에는 각종 의장을 내세운 지방관의 행렬이 표현되어

회화지도에 지방관의 순력 또는 지방관이 주관한 행사를 수록하는 방식이 하나의 전형으로 정립된 것을 보여준다.(그림 6-28) 회화지도에 나타난 새로운 요소와 표현은 지도가 공적인 용도로 제작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면서 나타난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

### (3) 지도의 사유화(私有化)

홍기주(1829~?)가 제작한 『환유첩(宦遊帖)』은 평생 동안 역임한 열네 고을의 지도를 모은 지도첩이다(그림 6-29). 홍기주가 화첩의 마지막 면에 쓴 발문에 의하면 두 명의 화공을 동원해서 읍지에 실린 해당지역의 지도를 모사하였다고 한다. 재직 한 시기와 기간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이 작품에는 사적인 동기로, 즉 와유(臥遊)를 위하여 제작하였다는 홍기주의 발문(跋文)이 있어 그 제작동기와 목적을 알려준다. 지방관을 역임한 관료가 관료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이력을 기록하기 위하여 지도첩을 제작한 것이다. 『환유첩』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지도에 대한 인식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던 정황을 증명하고 있다.

관료문인들이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행하였던 각종 행사를 기록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회화적인 표현을 동원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었다. 조선 초 관료들의 계회를 기록한 실경으로 표현된 계회도는 그러한 단초를 보여준다<sup>17)</sup>(그림 6-30, 그림 6-31). 계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아주 작게 그려지고, 계회의 장면을 현실적 이상경으로 크게 부각시켜 표상함으로써 태평성대와 왕도정치를 찬양하는 방식이 조선 초의 관료문화를 배경으로 정착되었다(박은순, 2002; 2006). 이같은 종류의 실경산수화에 담겨진 공리성(公利性)은 본말론에 입각하여 회화를 말기(末技)로 보면서 폄하하고, 효용적인 회화를 중시한 보수적인 관료문인들로 하여금 실경산수화를 적극적으로 제작, 감상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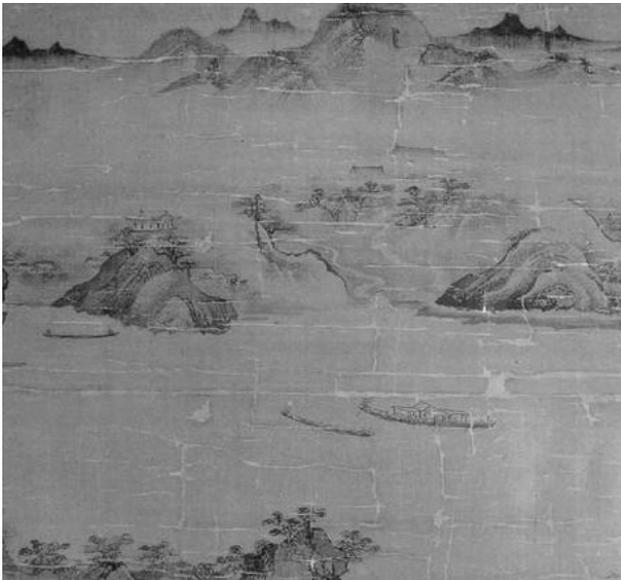
조선 초 계회도에서 정립된, 실경을 통하여 관료들의 삶을 기록하는 관습은 지방관으로서의 행적을 그림으로 기록, 기념하는 관행으로 이어져 갔다. 지역군수의 요청으로 제작된 이방운(1761~1815 이후)의 『사군강산참선수석권(四郡江山參僊水石卷)』은 그러한 전통이 19세기 초까지 유지된 것을 보여 준다.<sup>18)</sup> 19세기 말 홍기주가 제작한 『환유첩』은 진경산수화가 쇠퇴한 시기

17) 독서당계회도와 풍수적 실경산수화에 대하여는 박은순(1996) 참조.

18) 이방운의 작품에 대하여는 박은순(1999) 참조.



[그림 6-29] 『전주지도』, 『환유첩』 중 한 면, 홍기주 주문, 지본담채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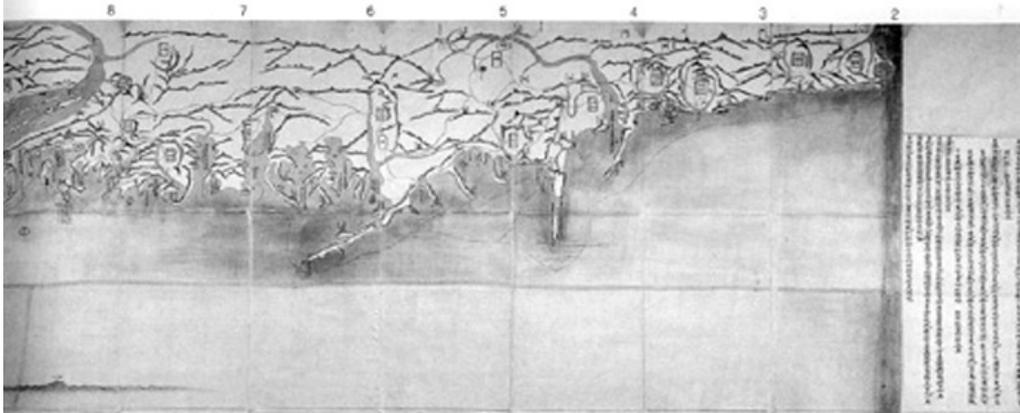


[그림 6-30] 필자미상, 『독서당계회도』(부분), 1531년,  
 견본수묵, 91.5×62.3cm

자료: 일본 개인소장



[그림 6-31] 풍수개념도



[그림 6-32] 『고려중요처도』(부분), 18세기 후반, 견본채색, 67×342cm

에 자신의 환력을 지도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념하고, 사유화한 경우이다.

지방에서 제작된 지도의 사유화 문제를 시사하는 사례로서 『고려중요처도』를 들 수 있다(그림 6-32). 『고려중요처도』는 경상좌도 수군절도사를 지낸 강응환(1735~1795)이 가지고 있던 것을 현재 후손이 보관하고 있다. 경상북도 영해 축산포에서 하동까지 해안선과 주변상황을 기록한 이 지도는 그가 수군절도사로 재직하던 시절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김기혁 외, 2005, 356). 중요한 군사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공적인 성격의 지도가 어떤 연유로 개인의 집에 전하게 되었을까. 다른 유사한 사례를 참고삼아 본다면 재직시절 행정용 자료로서 해당지역의 지도를 제작할 때 여러 본을 제작한 뒤 그 중 한 본을 사유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이 지도와 매우 유사한 『영호남연해형편도』가 소장되어 있다. 『영호남연해형편도』는 『고려중요처도』와 달리 호남해안지도가 포함된 것이지만 영남해안지도부분은 내용과 화풍이 『고려중요처도』와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sup>19)</sup> 이 지도의 앞과 뒤에는 산수도가 실려 있어서, 사적인 동기로 소장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도의 사유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작품으로 『철산지도』를 들 수 있다(그림 6-33).<sup>20)</sup> 이 작품의 오른쪽 다섯 폭에는 회화식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장면과 행렬이 나타나고, 왼쪽의 세 폭에는 소박한 민화풍으로 그려진 높이 쌓여 올라간 괴석 더미들이 묘사되었다. 지도 부분에 고을 사이

19) 이 지도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이 1928년 11월 이성의에게서 다른 고서 등의 유물과 함께 구입하였고, 지도의 가격으로 21,000원을 지불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 사실을 알려준 이귀원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0) 삼성리움미술관에 소장된 이 작품의 존재를 거론하고, 사진파일을 제공해 준 이훈상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림 6-33] 『철산지도』, 19세기 후반

자료: 삼성리움미술관

로 지나는 긴 행렬의 가장 끝 부분에 나타나는 일산을 쓴 인물은 행렬의 주인공으로 보인다. 곳곳이 나타나는 나무들은 누르고 붉은 모습이어서 가을임을 짐작하게 된다. 왼쪽의 괴석 부분에서는 일산 아래 초록색 옷을 입은 인물이 세 번 등장한다(그림 6-33-1). 그림 중에는 여러 지명과 건물의 명칭이 주기되어 이를 토대로 철산의 읍치를 중심으로 주변경관을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 네 번 반복하여 등장하는 인물은 철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이며, 곧 이 작품을 주문한 사람일 것이다. 이 작품은 회화식 지도와 민화풍의 회화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작품으로 공적인 용도로 제작된 지도로 보기는 어렵다. 『철산지도』는 개인적인 소유를 위하여 제작되면서 민화풍의 장식성까지 구비하게 된 새로운 상황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대부들이 관료로서 봉직하는 기간 동안 있었던 주요한 모임이나 경험을 실경산수화로 기록하는 관행은 조선 초 이후 하나의 관습으로 이어져 갔다. 이러한 관료문화의 전통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급격히 보수화되고, 진경산수화도 쇠퇴한 19세기에 이르면서 새로운 표상방식이 모색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19세기에는 지방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관료문화가 형성되었다.<sup>21)</sup> 새로운 사회



[그림 6-33-1] 『철산지도』(부분), 19세기 후반

21) 19세기의 지방 정치, 사회에 대하여는 이훈상(1991), 민선희(1993) 참조.

분위기와 관료문화의 변질을 배경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제작, 유통되던 지도가 좀 더 광범위하고 실용적인, 또는 사적인 수요에 부응하게 되면서 지도의 형식과 내용, 화풍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sup>22)</sup> 지도의 새로운 기능과 용도는 지도의 회화성을 더욱 강화시키거나, 지도에 수록된 다양한 요소들이 경우에 따라 선별,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지방관아 소속의 화사(畫師)와 군현지도의 전형화

##### (1) 지방관아 소속의 화사(畫師)

18세기에는 기호나 방안 등 각종 효율적인 요소들을 도입하면서 지도의 정보체계가 급격히 발전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회화적인 표현들이 이전에 비하여 더욱 중시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새로운 현상의 기저에는 지도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기능, 수요의 다변화라는 배경도 작용하였지만 18세기 이후 진행된 화원의 지방파견제도도 일정한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화사군관(畫師軍官)이라 불리는 지방으로 파견된 도화서 화원은 지방지도의 제작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때로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훈상은 화원의 지방파견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또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여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이훈상, 2008). 그러나 제도적인 상황과 현존하는 회화지도와의 구체적인 연관성은 아직 구명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이 장에서는 현존하는 회화지도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도화서 출신의, 또는 지방에서 활약한 화가들이 지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고, 화풍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가 하는 점을 고찰하려고 한다.

18세기 중엽 이후 지방을 그린 군현지도의 제작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즈음 도화서 출신의 화가로서 지방에 파견된 화가들은 다양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지방으로 파견된 화원들이 지도를 제작한 것에 대한 기록은 적지 않다. 잘 알려진 사례로 대마도 지도를 그려오라는 정조의 명을 받고 파견된 김홍도(1745~1806 이후)와 김응환의 예를 들 수 있다. 두 사람은 함께 부산까지 갔다가 김응환이 죽는 바람에 김홍도가 홀로 대마도에 가서 지도를

22) 이 시기 지도의 사유화와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하여는 양보경(1998), 122-123쪽 참조.

그려 바쳤다고 한다. 일본으로 간 통신사를 수행한 회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지도를 그리는 일이었다.<sup>23)</sup> 1748년에 이성린과 1763년에 김유성, 1811년에 변박 등은 모두 일본의 지도를 그리라는 주문을 받았다. 또한 18세기에는 유명한 화가들이 지방의 관직에 임명되는 일이 잦아졌다. 경상도 안기의 찰방 및 충청도 연기현감으로 파견된 김홍도, 경상도 진주 부근 소촌의 찰방으로 파견된 김윤겸, 나라의 중요한 회사(繪事)를 행한 뒤 그때마다 지방관으로 파견된 김희성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김희성은 1748년 확인되지 않는 지방의 변장(邊將), 1754년 황해도 초도의 절제사, 1762년 진주 부근 사천의 현감을 역임하였다.<sup>24)</sup> 김희성의 아들인 김후신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원으로 활약하였고, 찰방과 현감을 역임하였다. 이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화사 군관의 명단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방으로 파견된 유명한 화가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김희성이 그린 『전주지도』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열쇠를 제공한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전주지도』는 불염재(不染齋) 김희성(1717~1763 이후)이 그린 작품이다(그림 6-34).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회화식 전주지도의 구성이나 소재를 토대로 제작된 지도인데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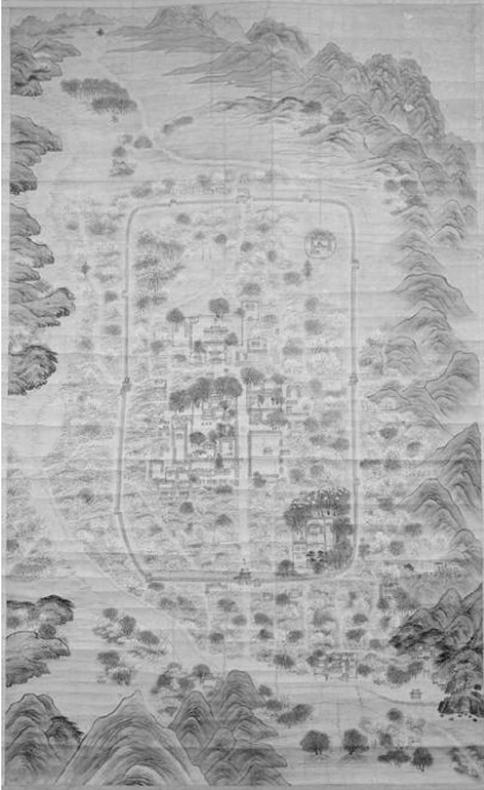
『전주지도』에는 전주읍치와 주변의 자연경관이 재현되었다. 풍수적으로 북서쪽이 허약한 전주의 지세를 보강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산(造山), 북문쪽의 웅성, 울창한 숲정이, 저수지를 강조하면서 이상적인 도시 전주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켰다(그림 6-34-1). 사각형의 공간 안에 모여 있는 읍치에서 인가는 간술하게 그려졌고, 관아의 주요한 건물들이 크게 부각되었다. 읍치의 하단 우측에 있는 경기전 위에는 하얀 학들이 날고 있다. 읍치 주변으로 하얀 복사꽃과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울창하여 봄 경치임을 알려 준다.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높은 언덕, 곧 오목대 위에는 지방관의 행렬이 묘사되었다(그림 6-34-2).<sup>25)</sup> 약식의 의장을 대동하고 나선 지방관은 하얀 차일 안에 들어가 보이지 않지만, 그 옆에 놓여진 의자에 놓인 호피는 이 지방관이 감사급의 고위 관료임을 시사한다. 이 그림은 전주이씨의 본향이며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있는 전주를 아름답게 재현하여 관료로서의 책임감과 자의식, 왕권에 대한 충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보인다.

이 지도는 정선화풍의 영향과 서양화법에서 유래된 투시도법이 나타나고 있어 18세기 이후 제

23) 통신사 수행회원의 활동과 회화에 대하여는 홍선표(1995) 참조.

24) 김희성의 이력에 대하여는 김수진(2006) 참조.

25) 오목대는 태조 이성계의 행적과 관련된 장소이다. 따라서 오목대와 경기전 등을 부각시킨 것은 이 그림의 제작배경을 시사하는 요소로 볼 수 있겠다.



[그림 6-34] 김희성, 『전주지도』, 18세기 중엽, 기본수묵채색, 150×90cm



[그림 6-34-1] 김희성, 『전주지도』(부분)



[그림 6-34-2] 김희성, 『전주지도』(부분)

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그림 6-34-1). 이 작품에는 1771년(영조47)에 설치된, 이성계의 시조 이한공과 부인 경주김씨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인 조경묘(肇慶廟)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26)</sup>

김희성은 굳세고 빠른 필치와 부드럽고 우아한 필선을 구사하였고, 윤택한 묵법, 화사한 색채, 정교한 묘사로 화사하고도 강렬한 인상을 자아내었다. 특히 토산을 그린 부드러운 피마준(披麻皴)(그림 6-34-3), 바위를 묘사할 때 적묵법(積墨法)과 부벽준(斧劈皴)을 구사한 준법, 소나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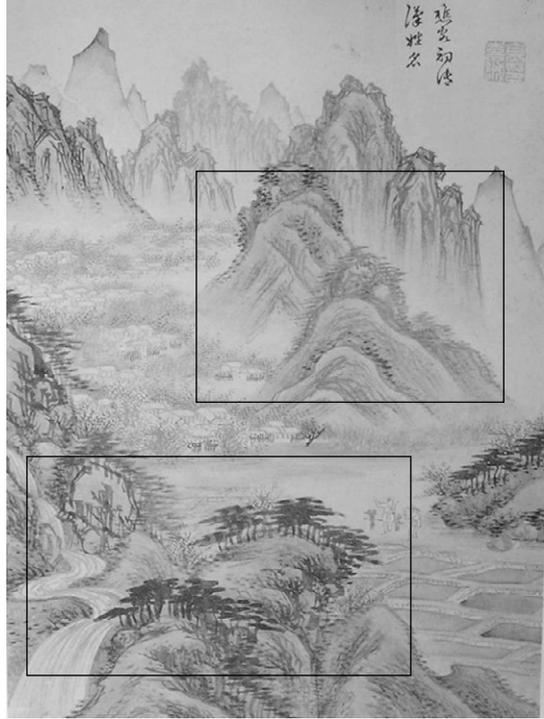
26) 조경묘에 대한 내력과 전주의 풍수, 풍수적인 요소를 부각시킨 전주지도의 특징에 대해서는 조법중(2000) 참조. 이 그림의 제작 시기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전주성의 남문과 서문이다. 본래 남문 위에는 삼층 누각인 명현루(明見樓)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767년 큰 불이 나서 남문과 서문이 불탔고, 다음 해 재건된 뒤 남문에는 이층 누각을 지은 뒤 풍남문(豊南門)이라고 하고, 서문은 재건한 뒤 패서문(沛西門)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이층 누각과 함께 '南門'이라고 명기되었고, '西門'이라고 써어 있다. 즉 이 작품의 제작시기는 1767년 이전의 상황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6-34-3] 김희성, 『전주지도』(부분)



[그림 6-34-4] 김희성, 『전주지도』(부분)



[그림 6-35] 김희성, 『초객초전한성명』, 지본담채, 36.5×28.2cm

자료: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오쿠라소장품

표현한 T자형의 수지법(樹枝法)(그림 6-34-4)은 겸재 정선의 영향을 보여주며, 그 위에 근경은 크고 분명하고, 원경은 작고 흐려지는 서양적인 투시도법을 접목시킨 특이한 기법은 복합적인 화풍을 구사한 김희성의 개성을 말해준다(그림 6-35).<sup>27)</sup> 『전주지도』는 화원출신의 화가가 제작한 회화지도로서 산수화에 준하는 예술성을 갖춘 지도의 이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형재 변박(1741~1783 이후)처럼 지방 출신 화사군관의 활약도 주목된다. 변박은 동래부에서 거주하던 중인 출신의 화가이다.<sup>28)</sup> 동래부에서 무관으로 봉직하던 변박은 그림 뿐 아니라 글씨도 잘 쓰고, 시도 잘 지은 문사형 화가이다. 그는 1760년 20세 때 동래부사 홍명환의 명으로 『부산진순절도』, 『임진전란도』 등 역사기록화를 이모하였고, 1763년에서 1764년 사이 일본으로

27) 김희성의 회화에 대하여는 김수진(2006) 참조.

28) 변박의 이력과 활동에 대해서는 김동철(2003) 참조.



[그림 6-36] 변박, 『왜관도』, 1783년, 지본수묵담채, 133×58.5cm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가는 통신사행에 무관직으로 파견되었다. 일본에서 그는 서화가로서 활약하였는데 일본의 지도와 명승을 그리는 일도 수행하였다. 이로써 변박이 실경과 지도를 잘 그린 것을 알 수 있다.<sup>29)</sup>

실경이나 지도를 그릴 때의 화풍은 43세, 1783년에 제작한 『왜관도(倭館圖)』를 통하여 추측할 수 있다(그림 6-36). 『왜관도』에 나타난 굳센 필세, 짙은 묵법, 토산을 그릴 때 둥근 산형과 피마준을 구사하는 점, 소나무의 모습 등 변박의 화풍은 어느 정도 개성화된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정선의 진경산수화풍을 연상시킨다.<sup>30)</sup> 지방의 화가 변박이 중앙에서 주로 활동하던 정선의 화풍을 토대로 개성적인 화풍을 이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전반 경 주로 활약한 정선은 경상도 청하와 하양의 현감을 지냈고, 영남일대의 진경산수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변박이 정선에게 직접 배웠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변박이 정선의 화풍을 접하고 배운 배경으로 1762년 경상도 사천지역에 현감을 지냈던 김희성과 1763년과 1764년 사이 일본 통신사로 함께 파견되었던 김유성으로부터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중앙화단의 주요한 회원인 이 두 화가들은 모두 정선화풍의 진경산수화를 능란하게 구사하였다. 변박은 이들을 통하여 정선화풍의 진수를 접하였고, 20대에 그린 『부산진순절도』와 『동래부순절도』에서는 구사하지 않았던 정선식의 화풍이 40대의 『왜관도』에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화를 보여준다. 동래 지역에서 명성이 높았던 변박의 화풍은 이후 19세기까지 동래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전수되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

## (2) 군현지도의 전형화

18세기 후반 이후 지방의 군현을 대규모 화면에 재현한 회화지도가 유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군현지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제작된 것도 아니고, 또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나 화풍으로 제작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양지도, 평양지도, 진주지도, 동래지도, 통영지도 등 회화식 지도가 가장 많이 전해지는 지역들에서는 일정한 소재, 구성, 화풍이 구사되어 지역적인 전통이 형성, 전수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시기, 이유, 화가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각 지역에서 어느 시기에 활동한 유명한 화가가 대표적인 작품을 제작하였고 이후 이를 토대로 구성과 기법이 예술적 관습으로 정착, 관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문화가 독자적으로 형성, 존중된 것을 시사한다. 전형화과정에서 중요한 역

29) 1764년 통신사의 회화활동과 파견된 화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강재언(2002), 서운정(2005) 참조.

30)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대하여는 이태호(1984), 박은순(2000; 2007b) 참조.



[그림 6-37] 김윤겸, 『환아정도』, 『영남기행첩』 중, 18세기, 지본담채, 54.5×34.5cm

자료: 동아대박물관



[그림 6-38] 『진주지도』(부분), 19세기, 지본담채, 99.5×227cm

자료: 계명대박물관

할을 한 화가나 화풍은 대부분 중앙의 화단 또는 화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앙에서 형성된 상층 문화의 저변화 및 지방으로의 전파는 이 시기 일반 회화나 민화에서도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 중 하나이다. 중앙의 문화가 지방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정한 자극과 변화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형성된 지방문화는 이후 지역 내에서 전승되면서 지방문화의 개성적인 요소로 정착된 것을 회화식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의 회화지도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을 토대로 지역적 전통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 화가의 존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로 진주지도를 들 수 있다. 진주지도는 독특한 화풍을 드러내어 눈길을 끈다. 간결한 필선과 절제된 묵법, 맑고 산뜻한 담채효과, 평면적, 기하학적인 형태를 선호하는 점 등 여러 지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진재 김윤겸의 화풍을 연상시킨다. 안동 김씨 집안 출신의 서자로 평생 높은 관직을 역임하지는 못하였지만 시서화로 이름이 높았던 김윤겸은 진주 근처 소촌 지역의 찰방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sup>31)</sup> 김윤겸은 『영남기행첩』과 『한산제승당도』 등 영남일대와 통영을 그린 진경산수화에서 진주지도의 화풍과 유사한 화풍을 구사하였다(그림 6-37, 그림 6-38). 이 작품들에 나타나는 화풍이 진주지도에 나타나는 화풍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주지도에 미친 김윤겸화풍의 영향을 거론할 수 있다.

현존하는 진주지도에는 1823년에 축석루 아래에 건축된 의기사(義妓祠)가 나타나고 있어서 19세기 초 이후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시기에서인가 김윤겸식의 화풍이 진주지도를 그리는

31) 김윤겸에 대하여는 이태호(1981) 참조.

대표적인 화풍으로 정착되었고, 이후 진주지도는 19세기 말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현재까지 회화식 지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지도에 나타나는 화풍의 전형화 문제를 모두 거론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양지도에 나타나는 정선회풍의 영향도 일정기간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형적인 화풍의 연원을 구명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가 남아있는 동래의 경우에는 지방화풍의 형성과 전수의 문제를 구명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 특이한 상황에 있었던 때문인지 동래에는 화사군관이 파견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동래에서 활약한 화가들은 동래 출신으로 동래에 거주하던 토박이였다.

그 전형적인 경우가 변박과 이시눌이다. 변박은 20대 시절 1760년 동래부사 홍명한의 명으로 『부산진순절도』와 『동래부순절도』를 이모하였고,<sup>33)</sup> 1783년 40대에는 『왜관도』를 그렸다. 변박은 시서화를 모두 잘하였던 문인의식을 가진 화가인 동시에 무반관료로 성공한 인사였다. 변박의 화풍은 이후 18세기 전반 경 활동한 송암 이시눌의 화풍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시눌은 동래 출신의 무반(武班)이자 화가로 동래부의 여러 군직을 역임하였다.<sup>33)</sup> 변박만큼 지위가 높거나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시눌 또한 역량있는 화가였다. 이시눌은 동래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이시눌이 구사한 화풍의 특징은 『임진전란도』와 동아대박물관 소장의 『동래지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그림 6-39). 이 작품들에 나타나는 둥글고 완만한 토산의 형태와 산등성이를 따라 축축이 찍힌 측필의 미점들, 느슨한 피마준 등은 변박의 화풍과 유사한 요소들이다.<sup>34)</sup> 따라서 정선~변박~이시눌로 이어지는 화풍의 계보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872년의 군현지도에서도 발견된다. 1872년의 군현지도에 실린 동래지역의 지도들 가운데 좌수영, 부산진, 서평진, 다대진, 개운진, 두모진 등이 유사한 화풍으로 표현되었는데, 좌수영에서 영진지도도 같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sup>35)</sup> 영진지도를 그린 화가는 변박~이시눌로 이어지는 동래지도의 계보를 잇고 있다(그림 6-40). 이러한 상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동래지도』와 서울 옥선에 출판된 『동래지도』에서도 확인된다(그림 6-41, 그림 6-42). 이 지도들에 나타나는 화풍의 전반적인 특징은 변박~이시눌과 강한 친연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동래

32) 이 작품에 대한 논의는 허선도(1987), 권소영(2003) 참조.

33) 이시눌의 관직 이동에 관하여는 김동철(2003) 참조.

34) 이시눌의 『임진전란도』와 『동래지도』의 화풍비교는 박은순(2008), 94쪽 참조.

35) 이 점에 대해서는 오상학(200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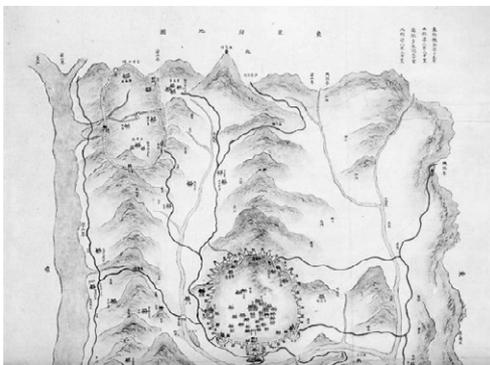


[그림 6-39] 이시눌, 『동래지도』, 19세기 중엽, 지본수묵, 132.5×78.5cm



[그림 6-41] 『동래지도』, 19세기 후반, 지본담채, 133.4×82.7cm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그림 6-40] 『부산진지도』, 『군현지도첩』 중, 1872년 경, 지본담채

자료: 서울대규장각



[그림 6-42] 『동래지도』(부분), 19세기 후반, 지본담채

자료: 서울옥션출품

부사접왜사도』의 경우도 동래 특유의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오랫동안 정선의 작품으로 전칭되었지만 이 작품에 나타나는 화풍상의 특징은 정선의 화풍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선화풍의 영향을 받은 동래지역의 화가가 그린 작품으로 볼 수 있다.<sup>36)</sup>

이제까지 정리하였듯이 동래에서는 정선~변박~이시눌~무명의 화가들로 이어지는 화풍 또는 화가의 계보가 형성되었다. 18세기 정선의 화풍에서 출발하여 지역의 대가들에 의하여 변화, 유지된 계보는 중앙문화의 기준으로 본다면 보수적이지만 그 자체로서 동래에서 형성된 지방문화라는 의미가 있다. 회화식 지도에 나타난 지역문화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문헌 기록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또 다른 차원의 문화적 동질성과 개성 등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회화식 지도의 연구에 있어 미술사적 방법론이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친다.

##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회화식 지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회화식 지도라는 용어를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각기 특징과 의미를 규정하였고, 광의의 회화식 지도에 나타난 회화적 표현의 의의를 상징성, 기능성, 장식성의 측면에서 구명하였다.

이후 협의의 의미로서 회화식 지도를 회화지도라 명명하고, 회화지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회화지도는 18세기 이후 군현지도의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형성되었다. 독립 형식의 회화지도는 한정된 지역을 회화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한 지도로서 내용과 구성, 형식과 소재, 표현기법 면에서 전국 또는 도규모의 군현지도집에 실린 지도와 일정한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다른 면모도 지니고 있다. 독립 형식의 회화지도에 담겨진 군현의 모습과 세부내용, 표현의 특징 등은 지도의 제작동기와 용도, 수요자와 제작자, 지역문화 등 많은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같은 요소들을 분석하면서 독립적인 형식의 회화지도에 대하여 많은 사실들을 읽어낼 수 있었다.

19세기에 유행한 회화지도에는 군현의 전모가 대규모 화면에 감상회화에 준하는 세련된 방식으로 재현되었다. 새로운 군현지도는 곧 지도의 새로운 용도와 기능을 전제로 지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지도들은 때로는 공적인 용도로, 때로는 사적인 용도로 주문,

36) 세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국립진주박물관 소장본, 동경국립박물관 오쿠라소장품 소장본이다. 세 본의 도판은 신보민(2007) 참조.

제작되었다. 공적인 면에서는 관료들을 위한 통치의 자료로서 활용되었고, 때로는 동일한 지도라도 사적인 소유물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처음부터 사적인 기념물로서 제작된 경우도 있다.

회화지도에는 새로운 소재와 다양한 화풍이 도입되었다. 군현의 경관을 그리면서 지방관의 행차와 순력, 행사 장면을 넣는가 하면 산수화의 기법을 차용하여 아름다운 감상화와 같은 효과를 자아내었다. 각 지역에 따라 구성과 소재, 기법, 즉 화풍이 전형화 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개성있는 지방문화의 한 단면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지도가 더 이상 행정과 통치를 위한 기능만이 아니라 장식하고 감상하며, 기념하는 자료로 변화된 것을 시사한다. 『전주지도』와 진주지도, 동래지도 등 현존하는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상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회화지도의 화풍을 비교분석하면서 지방문화의 전수상황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박은순

### 참고문헌

- 강재연, 2002, “1764년도(영조40) 조선통신사의 일본사행에 대하여,” 아세아문화연구, 4, 33-42.
- 고석규, 1990, “19세기 전반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성격,” 외대사학, 2.
- 국립중앙박물관 편, 2002, 조선시대의 풍속화, 국립중앙박물관.
- 권소영, 2003, “육근박물관 소장 <동래부순절도> 연구,” 학예집, 10, 1-45.
- 김기혁, 2002, “부산 동래부 군현지도의 유형과 내용분석,” 한국민족문화, 19 · 20, 333-375.
- \_\_\_\_\_, 2008, 부산고지도, 부산광역시.
- 김기혁 외, 2005, “조선 후기 군현지도의 유형 연구-동래부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0(1), 1-26.
- 김동철, 2003, “倭館圖를 그린 卜璞의 대일교류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19, 47-71.
- 김수진, 2006, 不染齋 金喜誠의 繪畫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선희, 1993, “조선 후기 동래의 향반사회와 무청,” 역사학보, 139, 95-148.
- 박은순, 1996, “16세기 讀書堂契會圖 研究-풍수적 실경산수화에 대하여,” 미술사학연구, 212, 45-75.
- \_\_\_\_\_, 1999, “19세기 초 명승유연과 이방운의 <四郡江山參僊水石> 書畫帖,” 온지논총, 5, 289-329.
- \_\_\_\_\_, 2000, “天機論의 眞景에서 寫實的 眞景으로-진경산수화의 현실성과 사실성,” 한국미술의 사실성, 눈빛출판사, 47-80.
- \_\_\_\_\_, 2002, “朝鮮初期 漢城의 繪畫-新都研勝, 升平風流,” 강좌미술사, 19, 97-131.
- \_\_\_\_\_, 2006a, “명분인가 실제인가-조선 초기 궁중회화의 양상과 기능(1),”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향산 안 휘준교수 정년기념논총, 사회평론사, 132-158.
- \_\_\_\_\_, 2006b, “조선시대 樓亭文化와 실경산수화,” 미술사학연구, 250 · 251, 149-186.
- \_\_\_\_\_, 2007a, “유람의 유형과 유람을 담은 그림, 제3장 만남과 유람,” 그림에게 물은 사대부의 생활과 풍류, 국사편찬위원회 편, 두산동아, 189-214.
- \_\_\_\_\_, 2007b, “眞景山水畫 研究에 대한 비판적 검토-眞景文化 · 眞景時代論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 28, 71-219.
- \_\_\_\_\_, 2008, “19세기 회화식 지도와 지방문화,” 고지도연구학회와 문화재연구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84-97.
- 박정혜, 2004,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연구, 일지사.
- 배우성, 1995, “영조대 군현지도집의 편찬과 활용,” 한국학보, 81, 154-187.
- \_\_\_\_\_, 1996, 18세기 관찬지도 제작과 지리인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윤정, 2005, 1764년 통신사의 회화활동과 그 교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보민, 2007, 東萊府使接倭使圖屏風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 안휘준, 1995a, “한국의 고지도와 회화,” 문화역사지리, 7, 47-53.
- \_\_\_\_\_, 1995b, “한국의 고지도와 회화,” 해동지도(해설·색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48-59.
- 양보경, 1995,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발달,” 문화역사지리, 7, 55-63.
- \_\_\_\_\_, 1998, “한국의 옛지도,” 영남대 박물관 소장 한국의 옛지도 자료편, 114-127.
- 오상학, 2005, “조선후기 지방지도: 경상도 편 해설,” 조선후기 지방지도: 경상도 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53.
- 이보라, 2005, 조선시대 관동팔경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태, 1991, 조선시대 지도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3, “조선시대에 제작된 서울 고지도 연구,” 향토서울, 53, 187-224.
- \_\_\_\_\_, 1999, 한국고지도발달사, 해안.
- 이영희, 2002, “진주시 도시구조의 역사지리적 연구-지리지, 고지도, 지형도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4(1), 51-67.
- 이원표, 1979, “조선시대 수령직의 교체실태-동래부사의 경우,” 부대사학, 3, 61-86.
- 이찬, 1977, 한국의 고지도, 한국도서관협회.
- \_\_\_\_\_,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 이태호, 1981, “진재 김윤겸의 진경산수,” 고고미술, 151.
- \_\_\_\_\_, 1984, “조선후기 문인화가들의 진경산수화,” 국보, 10.
- \_\_\_\_\_, 1998, “조선시대 지도의 회화성,” 영남대 박물관 소장 한국의 옛지도 자료편, 144-147.
- 이현주, 2002,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진재 김윤겸의 <영남기행첩>,” 문물연구, 7, 155-202.
- 이훈상, 1991, 조선후기의 향리, 일조각.
- \_\_\_\_\_, 2008, “조선후기 지방 파견 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형상화,” 동방학지, 142.
- 전상운, 1995, “고지도와 과학기술,” 해동지도(해설·색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37-47.
- 전우철, 1985, “조선후기 향촌사회에 있어서의 이서계층 연구,” 진단학보, 60.
- 조법중, 2000, “옛지도를 통해본 전주의 멋과 아름다움,” 전주문화유산탐구, 전주문화원, 19-22.
- 한국사연구회19세기정치사연구반, 1990, 조선정치사(1800-1863)(상·하), 청년사.
- 한영우, 1995, “고지도 제작의 역사적 배경,” 문화역사지리, 7, 39-45.
- 한영우·배우성, 1995, “조선시대 관찬지도 제작의 역사적 배경,” 해동지도(해설·색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36.
- 한영우·안휘준·배우성, 1999, 우리 옛지도의 아름다움, 효형출판.
- 허선도, 1987, “임진 벽두 동래에서의 여러 순절과 그 승양사업에 대하여(上),” 한국학논총, 10.
- 홍선표, 1995,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파견과 역할,” 미술사학연구, 205, 5-19.
- 劉鎮偉 主編, 1995, 中國古地圖精選, 中國世界語出版社, 北京.

## 5. 서구식 세계지도의 전래

### 1) 조선에 들어온 서구식 세계지도

#### (1) 단원형 혹은 난형(卵形) 세계지도

서구식 세계지도를 최초로 동양사회에 소개한 사람은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리치였다.<sup>1)</sup> 그는 『산해여지도』, 『곤여만국전도』 등 여러 가지 세계지도를 제작했다. 1602년 마테오리치의 중국인 친구 이지조는 『곤여만국전도』를 6폭 병풍으로 제작했다. 1603년 조선사신 이광정과 권희가 이 북경판 『곤여만국전도』를 들여왔다. 당시 홍문관의 책임자였던 이수광은 이 지도에서 넓은 세계를 보았다. 그는 이 지도에 동아시아 일대의 윤곽이 훌륭하게 표현되었다고 생각했다.<sup>2)</sup>

1603년 이용시가 『곤여만국전도』를 토대로 『양의현람도』라는 8폭 병풍을 제작했다. 북경판보다 대형이며, 구중천설이 십이중천설로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곤여만국전도』와 동일하다. 국내에는 송실대 도서관에 남아 전하는데,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본 중 하나이다.

마테오리치의 세계지도는 대형 병풍으로만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다. 그의 지도들 중 일부는 『삼재도회』, 『월령광의』, 『도서편』 등에 수록되었다. 책자 안에 포함된 것이므로 소략할 수밖에

1) 일본인 학자들은 한역 서구식 세계지도에 관한 연구를 선도했다. 우리 학계의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역사학 연구자들은 서학을 중심으로, 지리학 연구자들은 지도 계보학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 서구식 세계지도에 관한 국내의 대표적인 성과들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金良善, 1961, “明末清初 耶蘇會宣教師들이 제작한 世界地圖와 그 韓國文化史상에 미친 영향,” 崇大, 6; 金良善, 1972, “韓國古地圖研究,” 梅山國學散稿; 張保雄, 1976, “利竇의 世界地圖에 關한 研究,” 東國史學, 13; 李元淳, 1986, 朝鮮西學史研究, 일지사; 崔韶子, 1987, 東西文化交流史研究, 삼영사; 姜在彦, 1990, 조선의 西學史, 민음사; 李燦, 1991, 韓國의 古地圖, 범우사; 노대환, 1997, “조선후기의 서학유입과 서기수용론,” 진단학보, 83; 배우성, 1997, “고지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세계 인식,” 진단학보, 83; 盧禎植, 1998, “韓國의 古世界地圖,” 대구교대: 오상학, 2001, “朝鮮時代의 世界地圖와 世界認識,” 서울대 박사논문: 구만옥, 2003, “16-17세기 조선지식인의 서양 이해와 세계관의 변화,” 동방학지, 122; 원재연, 2003, “조선시대 학자들의 서양 인식,” 대구사학, 73; 노대환, 2005, 동도서기론 형성과정 연구, 일지사; 배우성, 2006, “조선시대의 지역 인식,” 조선시대사학보, 36.

서구식 세계지도에 대한 우리 학계의 인식은 대체로 실학연구의 전통적인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서구식 세계지도, 혹은 유럽으로서의 서양은 지리적 시야의 확대, 직방세계관으로부터의 탈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서구식 세계지도의 도입과정은 자연스레 수용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에 따라 이해되어 왔다.

서구식 세계지도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세계관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서구식 세계지도 혹은 서양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그 지식의 양과 질을 증시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성과들은 이질적인 지식이 조선사회에서 이해되어 가는 ‘맥락’을 중심으로 재음미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서구식 세계지도의 내용과 도입 과정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재해석·내면화 양상을 함께 검토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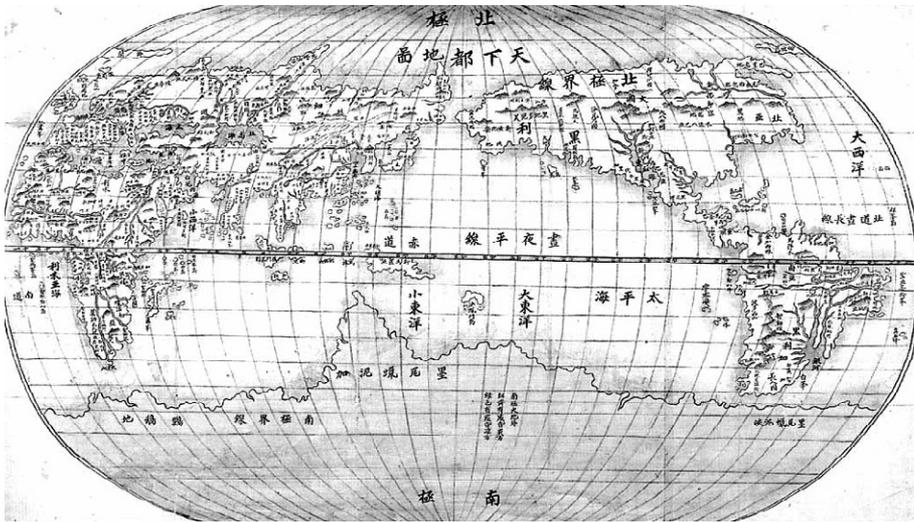
2) 芝峯類說 권2, 諸國部, 外國.

없었지만, 병풍을 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삼재도회』와 『도서편』은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즐겨 쓰던 대표적인 공구서들이었다.

마테오리치는 세계지도를 제작하면서 중국을 도면의 중앙부 가까이 오도록 안배했다.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표준경선을 태평양 상에 두어 구대륙을 왼쪽, 신대륙을 오른쪽에 배치하면 그만이었다. 새로운 세계지도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sup>3)</sup> 마테오리치 이후 동양사회에 보급된 단원형(單圓形) 내지 난형(卵形) 세계지도들은 모두 이런 전통을 따르고 있다.

조선에 유입된 난형(卵形) 세계지도 중에는 알레니의 『만국전도』도 있었다. 이 지도는 『직방외기』의 부도로 실린 것이기 때문에 마테오리치의 지도에 비해 소략하다. 하지만 남극대륙과 북아메리카의 윤곽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秋岡武次郎, 1988; 오상학, 2001). 서학에 관심이 있었던 지식인들 사이에서 『직방외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레니의 지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천하도지도』는 알레니의 『만국전도』가 대형 세계지도로 필사되었던 사실을 잘 보여준다.<sup>4)</sup>



[그림 6-43] 『천하도지도』

자료: 이찬(1991), 40-41

3) 곤여만국전도에는 중원대륙 위로 대명일통(大明一統)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다. '위대한 명나라가 세계를 통일했다'는 의미이다.

4) 『천하도지도』에 관한 설명은 한영우·안휘준·배우성(1999) 참조.

이 지도는 정조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집 안에 들어 있는데, 궁중화원의 필치와 사자관의 글씨를 엿볼 수 있다. 1570년대 이후의 오르텔리우스 지도 등 16세기 후반의 서양 세계 지도를 기초로 그린 것으로 여겨진다(노정식, 1998). 채색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노란색은 더운 곳을, 녹색은 추운 곳을 표시한다. 『곤여만국전도』에서처럼 동지나해는 대명해(大明海)로, 인도양은 소서양(小西洋)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만 태평양이 부각되면서 소동양과 대동양이 중앙경선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동남아시아 섬들 가운데 보이는 도적섬(盜島)은 향료를 찾아 동남아시아에 온 서양선박들이 해적선으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 섬의 이름에는 포르투갈·스페인 상선들이 가지고 있던 의구심과 두려움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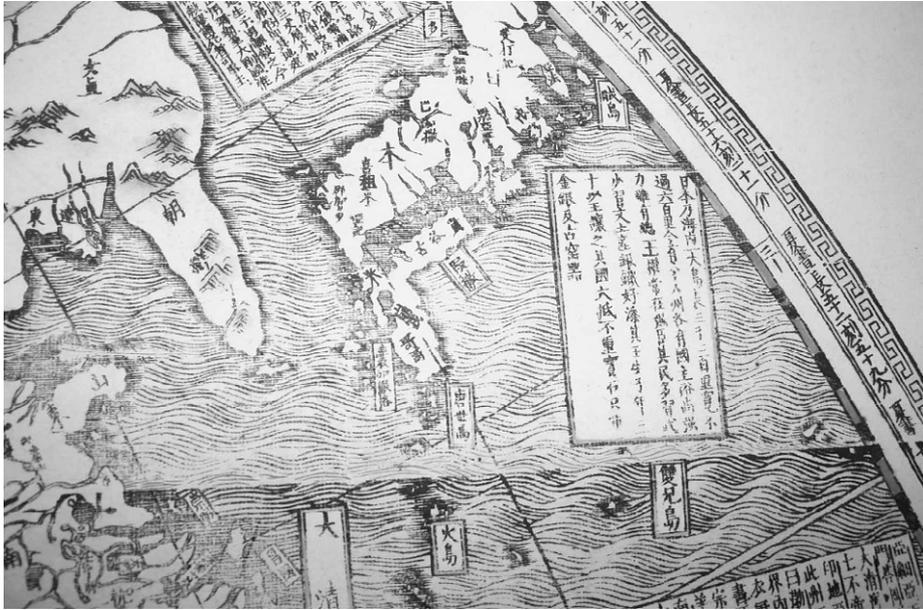
지도에는 조선의 시선도 확인된다. 한반도는 백두산과 울릉도가 그려져 있고(오상학, 2001), 한반도 좌우의 동·서해는 각각 소동해(小東海)·소서해(小西海)로 되어 있다. 만주쪽으로는 몽고, 성경, 영고탑 등이 되어 있다.

## (2) 양반구형 세계지도

조선에 유입된 서구식 세계지도 중에는 세계를 두개의 원, 즉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누어 그린 것도 있다. 페르비스트의 『곤여전도』가 그것이다. 페르비스트는 『곤여도설』(1672)을 간행한 뒤, 그 내용을 8쪽 병풍에 담아 『곤여전도』(1674)를 제작했다. 『곤여전도』는 구대륙을 서반구에, 신대륙을 동반구에 나누어 그렸으며, 남방대륙은 양쪽에 걸쳐 있다.

세계를 하나의 원 안에 그리게 되면 반드시 도면의 중심이 생긴다. 지구가 공처럼 둥글다 해도 도면상으로는 어딘가에 중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를 두개의 원에 그리게 되면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 어디가 중심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곤여전도』에는 중국 중심적인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는 지명도 있다. 동지나해의 바다이름은 대청해(大清海)이다. '위대한 청나라의 바다'를 뜻하는 이 지명은 적어도 17·18세기 조선에서는 불편한 지명이었다. 그런 점에서 『곤여전도』는 마테오리치 혹은 알레니의 세계지도와는 확실히 달랐다.

『곤여전도』는 북경판(1674년) 이외에도 광동판(1856년), 그리고 해동중간본(1860년) 등 세 가지 판본이 전한다. 광동판은 바다 속 동물의 모양이나 바다의 문양 표현 등이 북경판에 비해 훨씬 거친 편이다. 해동중간본은 광동판보다는 북경판에 가깝다. 『곤여전도』의 여러 판본들은 송실대



[그림 6-44] 『곤여전도』(부분)

자료: 송실대박물관

박물관 등 여러 곳에 전한다.

조선에 들어온 양반구도 가운데에는 중국인의 손에 의해 편집된 것들도 있다. 청은 건륭제의 치세에 전성기를 구가했다. 건륭제는 중화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만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장정부가 『해양외국도편』(1788)이라는 책을 쓰고, 『지구도』(1800)를 편찬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그러나 청의 지식인들 가운데에서도 서양의 존재를 눈 여겨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장정부의 세계지도 역시 청대 지식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장정부의 지구설과 세계지도는 도리어 조선에서 주목받았다. 이규경은 장정부의 지구설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최한기는 김정호의 도움을 받아 장정부의 지도를 목판에 새겼다. 송실대 박물관 등에 소장된 『지구전후도』가 그것이다. 이 지도는 목판으로 인쇄된 소형지도였으므로 『곤여만국전도』나 『곤여전도』에 비해 대중화가 용이했다. 최한기는 자신의 저서인 지구전요에 영환지략의 양반구도를 게재하는 등 양반구도의 보급에 노력했다(오상학, 2001).

### (3) 회입곤여만국전도의 내용

조선에 흘러들어온 서구식 세계지도 가운데 가장 널리 보급되었으며, 영향을 많이 준 것은 『곤여만국전도』이다. 이수광이 본 『곤여만국전도』는 지금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숙종대에 모사된 『회입곤여만국전도』가 서울대 박물관에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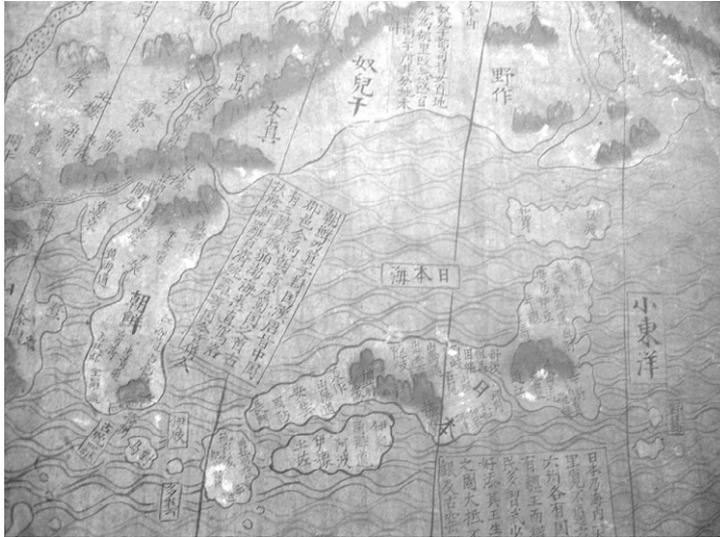
북경판 『곤여만국전도』가 6폭인데 비해 이 지도는 8폭으로 되어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각종 동물들, 그리고 바다를 누비는 탐험선 등이 그려져 있다. 이 사본의 이름 앞에 회입이라는 표현이 붙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sup>5)</sup> 최석정은 숙종의 명에 따라 이 지도제작을 주관했으며, 화원 김진여가 모사를 담당했다. 서문에 따르면 이 지도는 아담 샬(Adam Schall von Bell)이 제작한 천문도와 함께 한 별로 제작된 것이라 한다.

병풍의 첫 폭과 여덟 번째 폭에는 마테오리치의 서문, 최석정의 서문이 실려 있다. 2폭에서 6폭에는 타원형 안에 신구대륙이 그려져 있다. 2폭에는 구중천도·천구의, 6폭에는 남극도·북극도가 각각 그 여백을 채우고 있다. 구중천도는 아홉겹의 하늘을 가상한 그림이며, 천구의는 가상의 천구와 지구를 도해한 것이다. 남극도와 북극도는 각각 남극과 북극에 시점을 두고 지구를 그린 것이다.

구대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과 신대륙(남북아메리카)이 망라되어 있지만, 오세아니아주는 남극과 구분 없이 상상의 남방대륙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남방대륙의 이름은 묵와랍니가(墨瓦臘泥加)인데, 마젤란의 이름을 중국어로 음차한 묵와랍니에서 온 것이다. 묵와랍니, 즉 마젤란이라는 표현은 마젤란해협에서도 확인된다. 마젤란해협을 지난 곳에 영해(寧海), 즉 평온한 바다라는 지명이 보인다. 이 지명은 El Mar Pacifica, 즉 평온한 바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다. 이 바다는 오늘날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마젤란 일행이 세계일주를 나선 이유는 육두구, 정향, 계피, 후추와 같은 향료 때문이었다. 유럽인들은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이 향료를 좋아했다. 베니스 상인들이 오랫동안 이 향료무역을 독점했지만, 대항해시대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동쪽 항로를 개척했다. 이제 유럽에서 출발해서 남아메리카를 돌아가는 서쪽 항로만이 남게 되었다. 이 길을 개척한 것이 마젤란이다.

5) 『회입곤여만국전도』에 대한 설명은 한영우·안휘준·배우성(1999)에 실린 배우성의 글(옛 지도와 세계관)을 참조.



[그림 6-45] 『회입곤여만국전도』(부분)

자료: 서울대박물관

『곤여만국전도』는 동남아시아 향료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잘 나타나 있다. 마테오리치는 지도 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 “이 땅에서는 단향(檀香: 향나무)·정향(丁香)·금은향(金銀香)·안식향(安息香: 정신을 안정시키는 향기가 나는 나무기름)·소목(蘇木: 약재로 쓰는 나무)·후추(胡椒)·편랍(片臘) 등이 난다”

연해주 일대는 가장 윤곽이 부정확한 곳 중 하나이다. 일본은 윤곽이 실제에 가까운 반면 지명은 충분치 않은 편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다.

“일본은 해내의 큰 섬으로 길이는 3,200리이나 폭은 600리에 불과하다. 지금은 66개 주이다. 각 주에 왕이 있으며 풍속은 강력함을 숭상한다. 비록 총왕이 있으나, 권력은 항상 유력한 신하에게 있다. 무예를 하는 자는 많으나 문을 익히는 자는 적다. 토산물로는 은과 철과 후추 등이 있다. 왕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나이 30이 되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 준다. 보석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다만 금, 은, 도자기 등을 중시한다.”

일본 혼슈 위로 홋카이도처럼 보이는 섬이 있다. 홋카이도는 아이누족의 거주지였고, 전통시대 일본은 이곳을 오랑캐 땅으로 여겼다. 전근대 일본전도에서 홋카이도가 포함된 경우는 많지 않았

다. 이도(夷島)라는 이름으로 그 흔적이 남은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그런 점에서 곤여만국전도에 홋카이도처럼 보이는 섬이 그려진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섬의 이름이 이도(夷島)가 아니라 사도(佐渡)이다. 사도는 혼슈 니가타 항 맞은편에 있는 작은 섬이다.

조선에 관한 정보는 그보다 더욱 빈약하다. 조선의 윤곽은 매우 부정확하며, 지명 역시 당시의 지명과 역사적인 지명들이 혼재되어 있다. 한반도 옆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문이 붙어 있다.

“조선은 기자가 봉한 나라인데 한나라와 당나라 때에는 모두 중국의 도움이었다. 지금은 조공국 가운데 첫 번째 국가이다. 예전에는 삼한 예맥 발해 실직 가락 부여 신라 백제 탐라 등의 나라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병합되었다.”

#### (4) 지리적 시야의 확대와 지구설

서구식 세계지도를 보면서 조선지식인의 지리적 시야는 극적으로 확대되었다. 서구식 세계지도에는 신구대륙이 망라되어 있었다. 조선지식인들은 그 중에 구라파, 즉 유럽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서구식 세계지도를 동양에 전한 서양 선교사들이 그곳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럽과 중국의 관계를 특별히 눈여겨 보았다. 『구라파여지도』를 본 이수광은 이렇게 말했다. “구라파의 명칭은 대서국이라고도 하는데, 그 나라 사람 마테오리치가 8만리의 바닷길을 넘어 광둥에 와서 10여년을 살았다.” 이수광은 유럽으로서의 서양이 중국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서구식 세계지도는 넓은 세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가 공처럼 둥글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회입곤여만국전도』 제작을 총괄했던 최석정은 특별히 그 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겼다. 그는 이 지도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곤여도(坤輿圖)』는 고금의 지도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모두가 땅을 방형의 평면으로 가상한 채 중국의 성교가 미치는 곳까지를 바깥쪽 경계로 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서양인의 설은 지구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설이 비록 우랄하고 황탄하여 불경스럽기까지 하지만, 그 설이 전수되어 온 것에는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마땅히 이를 두어 이문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서구식 세계지도가 기초하고 있는 지구설은 전통적인 직방 세계 중심의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경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학설에 일리가 있는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석정은 동아시아를 넘어선 넓은 세계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지구설이라고 해서 막연히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김만중·정제두·김석문 등 서학에 관심이 있었던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구설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서양과학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던 이익·정약용·홍대용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익은 서양 역법의 우수성을 칭찬하면서 “성인이 다시 태어나도 반드시 그것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강재언, 1990). 그는 서양역법의 토대인 지구설 또한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중국은 대지 가운데 한 조각 땅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며,<sup>6)</sup> 중원대륙 밖에서 태어난 이적 가운데 성인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7)</sup>

정약용은 지구설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지도를 제작할 때 경위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도를 만들 때 지구가 둥글다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반결음은 어긋나지 않더라도 끝내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경위도에 따라 지도를 그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sup>8)</sup> 마침내 홍대용이 『의산문답』에서 ‘화이일야(華夷一也), 즉 ‘화이는 하나다’ 라고 말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세계지도와 지구설은 분명 전통적인 중화관에 다양한 형태로 손상을 입혔다. 그런 점에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서구식 세계지도를 보고 유럽을 알고 지구설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사실이 곧 사이관(四夷觀), 즉 중국 중심 세계관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처음으로 서구식 세계지도를 보았던 이수광은 ‘구라파국(歐羅巴國), 즉 오늘날의 유럽에 대해 서역(西域)의 서쪽 끝자락으로 생각했다(한영우, 1989).<sup>9)</sup> 『동문광고』의 저자 이돈중 역시 같은 방식으로 유럽을 인식했다. 유몽인은 유럽을 ‘천축의 서쪽’이라고 말했다. 서역 혹은 천축은 중국 중심의 세계의 서쪽 끝이다. 그들은 새로 알게 된 유럽을 그 서역이 확장된 공간으로 이해했던 것이다(배우성, 2006).

6) 이익, 성호사설, 권2, 천지문, 분야.

7) 이익, 성호집, 권27, 答安百順己卯.

8) 정약용, 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書.

9) 이수광, 芝峯類說, 권2, 諸國部, 外國.

서구식 세계지도와 서양과학을 높이 평가했던 이익의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자. 이익은 조선을 중화문화의 유일한 적자로 여기는 중화주의자였다. 송시열은 조선이 중화문화를 계승해 온 출발점을 기자의 시대로 설정했지만, 이익은 그것을 단군의 시대로 확장시켰다. 우리 역사의 유구성이 중국에 뒤지지 않으며 출발단계에서 이미 중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식 세계지도와 지구설에 대한 그의 발언들은 그가 중화주의자였다는 사실 위에서 음미되어야 한다.

이익은 『직방외기』에 실린 알레니의 『만국전도』를 보았다. 그는 알레니 지도의 형식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의 논리는 대략 이런 것이었다. 지구설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유럽의 서쪽 끝 북도와 중국의 동쪽 끝 아니엄협은 그 어느 것을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다. 반원의 두 끝 지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알레니가 중국을 중(中)이라 하고 유럽을 서(西)라고 한 것은 왜인가. 아시아 대륙은 천하에서 제일가는 대륙으로서 이곳에서 인류가 탄생하고 성인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시아 대륙이 천하에서 제일가는 대륙이라면 중국은 또 그 중의 중심(正心)이다.<sup>10)</sup>

김백련·김시진·신후담처럼 서구식 세계지도나 지구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오상학, 2001).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에서 이 낯선 지식들을 이해하려 했다. 서구식 세계지도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구식 세계지도의 지식을 재해석하거나 내면화한 도면들은 이러한 사상적 지형 속에서 탄생했다.

## (5) 서구식 세계지도를 재해석한 도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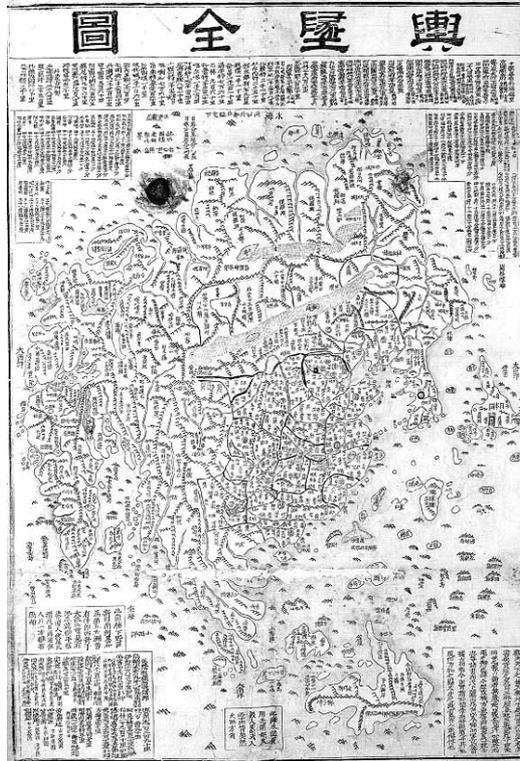
### ① 『여지전도』<sup>11)</sup>

『여지전도』는 서구식 세계지도의 내용을 채택한 목판본 세계지도이다. 도면에는 구대륙만이 그려져 있으며, 중국은 도면의 중심부에 오도록 세심하게 안배되어 있다. 지도의 제목 아래 청대 노정기가 있다. 아래쪽에는 조선 팔도 관찰사명과 중국 각 성의 북극고도 수치, 그리고 건륭제 때의 신강지역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대체적인 지도의 내용과 윤곽은 최한기의 『지구전후도』 가운데 『지구전도』와 일치하며, 고비사막 북쪽은 『영환지략』의 지도와 일치한다. 『영환지략』이 1848년에 편찬된 책이므로, 이 지도는

10) 이익, 성호전집, 권55, 跋職方外紀 (한국문집총간 199책, 『성호전집』 2, 514).

11) 『여지전도』에 대한 설명은 주로 오상학(2001)에 의거하였다.



[그림 6-46] 『여지전도』

자료: 이찬(1991), 25.

적어도 1848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도 상단의 노정기와 하단의 북극고도 및 신강관련 정보는 『대동지지』의 기록과 일치한다.<sup>12)</sup>

도면의 여백에 노정기와 지지, 지(識) 등을 빼곡히 신는 것은 마치 김수흥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연상시킨다. 지도의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지도를 구성하는 형식이 유사한 것이다. 이것은 『여지전도』가 서구식 세계지도의 도상을 전통적인 지도의 형식과 결합시킨 것임을 의미한다.

양반구도 가운데 구대륙만을 채택한 것에서도 전통적인 발상이 엿보인다. 서구식 세계지도를 본 조선의 지식인들 가운데 신대륙의 의미에 대해 깊이 천착한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구대륙, 특히 유럽과 중국에 주목했을 뿐이다. 천하도초차 중앙대륙은 중국으로부터 이어지는 범위의 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 지식인에게 신대륙은 역사와 문화가 확인되지 않는 미지의 땅일 뿐이다.

12) 오상학(2001)은 이런 점들을 근거로 『여지지도』의 제작자를 김정호로 추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반구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신대륙에 관한 도면을 중시하기 어렵다. 『여지전도』는 서구식 세계지도를 구대륙을 중심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 ② 위백규의 『천하제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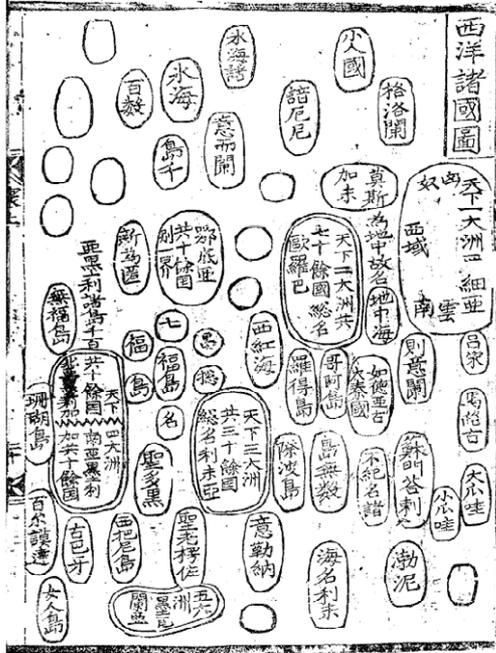
위백규의 『천하제국도』는 서구식 세계지도의 내용이 좀 더 왜곡된 형태를 보여준다. 그는 한미한 시골 선비였지만, 그의 문집인 『환영지』는 정조에게도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다. 그는 서구식 세계지도를 소문으로만 들었을 때, 우연히 『천하도』를 보게 되었다. 그는 그 지도를 마테오리치의 세계지도라고 생각했다. 추연의 세계관을 떠올린 그는 그것을 다시 구구주도라고도 불렀다. 『환영지』의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시골에서 한가로이 지내다 우연히 구구주도(九九州圖)를 얻어 보게 되었다. 마침내 내가 스스로 웃음을 이기지 못하고 말하기를, ‘구구주도(九九州圖)의 세계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작은 귀와 좁은 눈을 가진 이 사람이 역지로 그 사실 여부를 의심한다면, 혹 넓은 세상을 다녀보았을 바다 자라에게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다’ 라 하고, 드디어 책에다 베껴 두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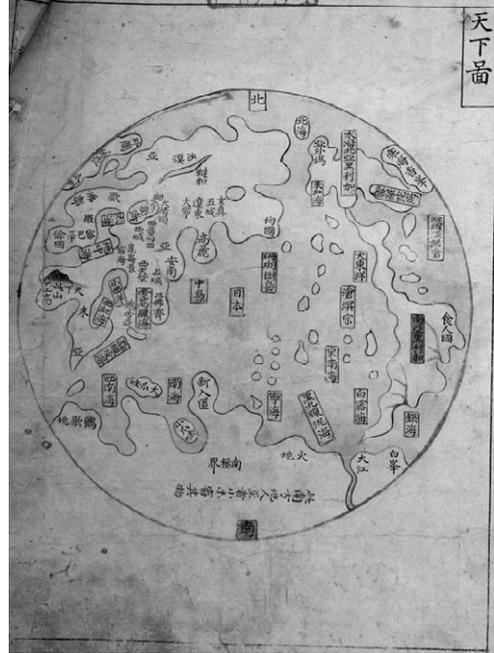
그 뒤 위백규는 알레니의 『직방외기』를 보았고, 『천하도』가 서구식 세계지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 『직방외기』의 지식을 기초로 『서양제국도』를 그린 뒤, 세계 각국에 관한 간단한 지지를 덧붙여 두었다(노대환, 1997).

이 지도는 『환영지』에 실려 있다. 세계를 구성하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남방대륙 등 5개의 큰 대륙은 각각 ‘천하일대주’(天下一大洲)에서 ‘천하오대주’(天下五大洲)까지로 불린다. 서역은 ‘천하일대주’인 아시아대륙의 서편에 있다. 그러나 이 지도의 전체적인 외형은 『직방외기』의 『만국전도』와 전혀 다르다. 지구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대주는 바다에 떠 있는 수많은 섬처럼 묘사되고 있을 뿐이다. 『구구주도』처럼 81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세아대륙을 제외한 나머지 네 대륙은 두 겹으로 둘러싸여 있다. 곳곳에 추연의 논리가 아직 까지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배우성, 2007).

13) 위백규, 存齋集, 권21, 序, 新編標題纂圖覽記序.



[그림 6-47] 천하제국도(위백규, 『환영지』)



[그림 6-48] 천하도(『광여도』)

자료: 규장각

### ③ 변형된 『천하도』

서구식 세계지도 가운데 단원형이나 난형을 채택한 도면들은 대부분 병풍형식으로 제작되거나 공구서에 수록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일부 여지도 책자나 군현지도집 중에는 『천하도』가 들어갈 자리에 서구식 세계지도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광여도』는 19세기에 제작된 회화식 전국 군현지도집이다. 8도 군현지도 이외에도 천하도, 중국지도, 일본지도 등 목판본 여지도책자에 실릴만한 도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도집에 실린 『천하도』는 전통적인 원형 천하도가 아니라 서구식 세계지도이다.<sup>14)</sup> 전통적인 원형 천하도 가운데에는 경위도를 그은 사례들도 확인된다.

14) 사본에 따라서는 태장과 수해가 잦다는 동서남북의 보수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

## 2) 천하도

### (1) 천하도의 구성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텐리대 소장본이나 혼묘지 소장본이 보여주는 것처럼 16세기까지 도 계속 모사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에 그려진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는 조선지식인의 세계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혼일’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범위는 구대륙 전체가 아니라 동아시아였다. 16세기 조선지식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런 변화는 ‘혼일’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구현하는 과정이었다. 구대륙 전체를 망라한 ‘혼일’은 명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이 중심이 되는 ‘혼일’의 세계는 사해(四海)로 비유되는 세계이며, 천하(天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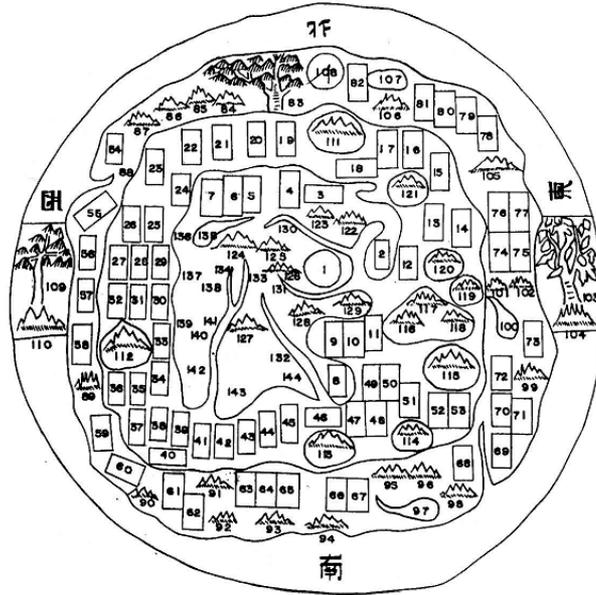
16세기 이후 중국을 중심에 둔 동아시아지도는 ‘천하를 그린 지도’가 되었다. ‘천하’ 관념은 조선이 만국공법체제를 수용할 때까지 남아 있었다. 이 동아시아지도들은 대체로 중국에서 들어온 원도에다 조선이나 일본 등을 추가한 것들이다. 그런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의연히 존재하던 그 때 조선에서는 그런 동아시아지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지도가 널리 유포되었다. 『천하도』가 그것이다.<sup>15)</sup>

세계는 둥근 원으로 표현되고 있다. 지도의 중심부에 중앙대륙이 있고, 그 바깥으로 내해(內海)가 있다. 다시 내해 바깥으로 외대륙이 있고, 외대륙의 바깥으로 외해(外海)가 있다. 외해의 좌우로는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곳이 있다. 140여 개의 지명이 이들 중앙대륙·내해·외대륙·외해 상

15) 최근의 연구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것으로는 海野一隆(1981), 배우성(2000), 오상학(2001)의 성과가 있다. 海野(1981)는 천하도가 삼재도회의 산해여지전도와 같은 단원형 세계지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지만, 서구식 지도의 세계상에 대항하기위해 도교적·신선적 세계상을 도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우성(2000)은 천하도가 근여만국전도와 같은 서구식 세계지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보면서, 그 윤곽과 이미지 모두 반서학적 산물이 아니라 서구식 세계지도에 대한 조선적 해석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오상학(2001)은 천하도가 서구식 세계지도로 인해 지리적 시야가 확대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서도, 지도의 내용은 우주지와 신선사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운노와 오상학이 천하도를 도면 자체로 이해하려 한 반면, 배우성은 그 도면을 하나의 기호 혹은 문화적 코드로 읽어내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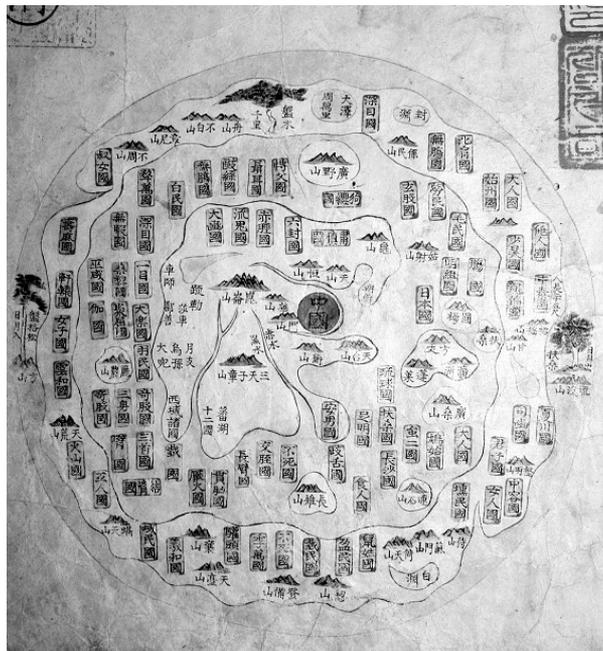
논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천하도가 형태적으로도 단원형 세계지도에서 기원했는가. 운노와 배우성이 동의한 반면, 오상학은 이 점을 비판했다. 둘째, 서구식 세계지도의 영향이 천하도의 탄생에 우호적인 환경이 되었는가. 운노는 부정했지만, 배우성과 오상학은 이 점에 동의했다. 셋째, 도면에 보이는 도교적 성격의 지명들은 실제 조선후기에 삼재사상 혹은 신선사상이 광범하게 유행했던 사실을 보여주는가. 운노와 오상학은 동의했지만, 배우성은 사상사의 맥락으로부터 이 점을 부정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의 논점, 즉 서구식 세계지도와 천하도가 공히 지리적 시야의 확대를 보여주는가. 이 글은 천하도가 서구식 세계지도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는 점, 확대된 지리적 시야를 동양 고전을 이용해 표현하려 한 것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기로 한다.



[그림 6-49] 천하도 일반형

자료: 이찬(1991), 344



[그림 6-50] 천하도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중앙대륙에는 중국(1)이 있고, 중국 주변으로 태산(122)·항산(123)·화산(125)·송산(126)·형산(128) 등 내오악이 분포한다. 중앙대륙의 여러 물길들이 발원하는 곳에는 곤륜산이 있다. 중국(1)·조선국(2)·안남국(8)·유구국(11)·일본국 등이 있다. 이들은 조선시대 당시 실재하던 나라들이다. 중앙대륙의 서편으로 서역제국(142)이 보인다. 소록(135)에서 월지(141)에 이르는 이 나라들은 『한서』 서역전에 등장하는 것들이다. ‘한나라 때의 서역’에 존재했던 역사상의 국가들인 것이다. 이 나라들이 네모모양으로 표시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과 조선을 제외하고는 도면상에서 주요 국가로 여겨지던 곳들은 모두 네모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본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섬라(9)와 진랍(10)을 제외하고 네모모양으로 표시된 나라는 모두 79곳이다. 여기에 중국과 조선을 합하면 81개국이 된다.

내해의 지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광야산(廣野山, 111)·여농산(麗農山, 112)·장리산(長離山, 113)·광승산(廣乘山, 115), 그리고 봉래산(116)·방장산(117)·영주(118) 등이다. 광야산·여농산·장리산·광승산 등은 곤륜산과 함께 외오악을 이룬다. 봉래산·방장산·영주는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다. 외오악과 삼신산에 해당하는 지명은 모두 도교적인 문헌들에서 온 것들이다.

중앙대륙과 내해의 특별한 지명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산해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모민국(15)은 온몸이 털로 뒤덮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며, 일목국(29)은 외눈박이들의 나라이다. 삼신국(35)은 한 몸에 머리가 셋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며, 관홍국(42)은 가슴이 찢린 사람들의 나라이다. 장비국(43)은 팔이 비정상적으로 긴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며, 심목국(82)은 눈이 움푹 들어간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다. 하나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나라이다.

『천하도』에는 곤륜산(124)·유파산(104)·방산(110)처럼 하늘의 존재를 묘사한 곳도 있다. 외오악의 중심인 곤륜산은 하늘의 문에 다다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배우성, 2000). 유파산과 방산은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곳이다. 천하도는 이런 점 때문에 삼재사상·신선사상이 투영된 도면으로 평가되기도 한다(오상학, 2000).

## (2) 『산해경』과 추연의 세계관

『천하도』는 알 수 없는 넓은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지도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지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 미지의 나라이름이나 산천 이름들은 이 지도가 가진 지리적 시야의 범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앙대륙~내해~외대륙~외해, 그리고 81개의 나라들로 이루어진 천하도의 기본구조는 『산해경』, 혹은 추연의 세계관에 기원을 두고 있다.

중국 고대의 신화서 혹은 지리서로 여겨지는 『산해경』은 크게 산경·해경·대황경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경에는 산천의 형세, 광물과 동식물, 괴물과 신령에 관한 정보들이 있는 반면, 해경에는 이국의 풍속과 사물, 영웅의 행적, 신들의 계보, 괴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대황경은 해경 그 바깥의 이야기이다. 산경이 지리서에 가깝다면 해경과 대황경은 신화서에 더 어울린다.

산경·해경·대황경은 쓰여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자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담겨있는 세계관도 같지 않다. 그러나 조선지식인들이 이 책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리는 없다. 그들은 이 책이 하나의 일관된 세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산해경의 산경을 중앙에 배치하게 되면, 세계는 중앙에 대륙이 있고 중앙대륙(산경)과 외대륙(대황경) 사이에 바다(해경)이 있으며, 외대륙의 끝에 다시 바다가 있는 구도가 된다. 이러한 동심원적 구조는 『천하도』의 구성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배우성, 2000; 오상학, 2001).

세계의 주요 국가가 81개에 달하며, 그것들이 모두 안쪽의 바다와 바깥쪽의 바다에 의해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은 추연의 세계관에 기초한 것이다. 추연은 전국시대 음양가를 대표하는 학자 중 한명이었다. 음양가가 보는 세계는 유가가 보는 세계와 같을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유자들이 말하는 중국이라는 것은 천하에서는 81곳이 각각 그런 땅이 있다. ... 중국 바깥으로 또 중국과 같은 곳이 9군데가 있으니, 이곳이 이른바 구주인데, 비해가 그곳을 감싸고 있다. 이 구주와 같은 곳이 또 9곳이 있는데, 대영해가 그 바깥을 감싼다.”

추연은 유가들이 말해 왔던 우공의 9주는 세계전체가 아니라, 전체 세계의 1/8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비해(裨海)에 의해 둘러싸인 9주가 있고, 9개의 9주는 다시 대영해(大瀛海)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천하도』는 81개의 나라가 바다에 의해 둘러싸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 (3) 서구식 세계지도와 『천하도』의 기원

흥미로운 것은 『산해경』, 또는 추연의 세계관이 조선에서 오랫동안 이단적인 사고방식으로 여겨져 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산해경』, 또는 추연의 세계관을 담은 이 세계지도는 17세기에 만들어져서 19세기까지 널리 유포되었다. 천하도의 작자는 무엇 때문에 『산해경』이나 추연을 떠올린 것인가. 분명한 것은 그가 전통적인 동아시아 세계보다는 훨씬 넓은 세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그리려 했다는 점이다. 작자가 도교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묘사한 동양 고전들을 선택한 것은 서구식 세계지도, 특히 단원형 세계지도 때문이었다.

19세기 전반의 소론계 유학자 이종휘는 마테오리치의 세계지도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일찍이 추연이 말하기를 ‘신주적현이 1주가 되며 그밖에 또 신주적현과 같은 것이 아홉이 있어서 이를 9주(九州)라 이름한다. 각기 비해(裨海)가 둘러싸고 있으며 또 대영해(大瀛海)가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으니, (그곳은) 천지가 만나는 곳이다’ 라 했다. 마테오리치의 지도는 모두 이와 같은 것으로 그 요지를 요약하자면 반드시 인의절검(仁義節儉)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지도에서 소양해(小洋海)라고 하는 곳이 곧 비해(裨海)이며 대양해(大洋海)라고 하는 곳이 곧 영해(瀛海)이다.<sup>16)</sup>”

이종휘는 마테오리치의 지도가 추연의 세계관을 구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비해와 영해에 비유할 근거는 있었지만, 9주가 아니라 6대륙인 것은 문제였다. 좀 더 잘 들어맞으려면 대륙이 9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휘는 마테오리치가 나머지 3대륙을 알고 있었지만 추연의 학문이 전해진지 너무 오래여서 마테오리치가 그 사실을 지도 안에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조선에서 서구식 세계지도는 추연의 세계관을 불완전하게 구현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

16) 李種徽, 『修山集』 권4, 記「利瑪竇南北極圖記」, 배우성(1998)에서 재인용.

이다. 9개 나라가 포함된 9개의 대륙은 81개 나라이다. 81개 나라로 구성된 세계는 천하도의 기본 구성과 일치한다. 이종휘가 서구식 세계지도를 해석하는 방식 역시 『천하도』의 기본구성과 일치한다.

18세기의 유학자 위백규의 문집에는 흥미로운 기록들이 여럿 보인다. 그는 처음 『천하도』를 ‘이마두천하도(利瑪竇天下圖)’라고 불렀다. 위백규는 마테오리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천하도』를 보았고, 그것을 마테오리치의 지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위백규가 혼선을 일으켰던 것은 『천하도』나 마테치의 세계지도가 모두 동아시아 밖의 넓은 곳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문집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추연이 이르기를 ‘중국 사방의 바다를 비해라고 한다. 그 바깥으로 대륙이 둘러싸고 있고, 대륙의 바깥으로 또 대영해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곳이 땅 끝이다.’라 했다. 서양 사람들은 중국의 서남해를 지중해라고 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땅이 바다를 품고 있으므로 지중해가 된다. 그 외해로 땅을 품고 있는 것은 바야흐로 환해가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추연의 설과 대략 비슷하다.”

위백규는 비해 바깥으로 대륙이 감싸고 있다면서 그 근거를 추연에게서 빌어 왔지만, 추연은 『천하도』에 그려진 외대륙의 존재를 말한 적이 없다. 위백규는 『천하도』를 보고 중앙대륙~내해~외대륙~외해의 세계구성을 추연의 세계관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는 서구식 세계지도에서 본 지중해와 환해를 추연이 말한 비해와 대영해에 연결시켰으며, 『천하도』를 ‘구구주도(九九州圖)’라고 명명하기도 했다(오상학, 2001). 구구주도라는 이름은 81개 국가로 이루어진 세계를 뜻한다. 역시 추연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제목이다.

『천하도』가 오랫동안 이단적이라고 여겨지던 『산해경』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구식 세계지도가 보여주는 넓은 세계를 동양적 전례(前例)로 이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 지도에조차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깊이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원형의 테두리는 유일하게 중국이라는 나라이름에만 적용되어 있다. 중국은 또 정확하게 도면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sup>17)</sup>

## 배우성

17) 이 점은 동양사회에 전파된 서구식 세계지도 가운데 단원이나 타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예외 없이 표준경선을 태평양 상에 두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 참고문헌

- 강재언, 1990, 조선의 西學史, 민음사.
- 노대환, 1997, “조선후기의 서학유입과 서기수용론,” 진단학보, 83, 135-136.
- 노정식, 1998, 韓國의 古世界地圖, 대구교대.
- 배우성, 1997, “고지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세계 인식,” 진단학보, 83, 43-83.
- \_\_\_\_\_,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 \_\_\_\_\_, 2000, “서구식 세계지도의 조선적 해석 <천하도>,” 한국과학사학회지, 22(1), 51-79.
- \_\_\_\_\_, 2006, “조선시대의 이역 인식,” 조선시대사학보, 36, 145-177.
- \_\_\_\_\_, 2007, “일원적 세계관과 다원적 세계관, 그리고 서양,” 동아시아고대학회 편, 동아시아의 공간관, 경인문화사, 17-94.
- 오상학, 2000, “조선후기 원형천하도의 특성과 세계관,” 지리학연구, 35(3), 231-247.
- \_\_\_\_\_, 2001, 朝鮮和時代의 世界地圖와 世界認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이찬, 1991, 韓國의 古地圖, 범우사.
- 한영우, 1989, 朝鮮後期史學史研究, 일지사.
- 한영우 · 안휘준 · 배우성, 1999,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 秋岡武次郎, 1988, 世界地圖作成史, 河出書房新社.
- 海野一隆, 1981, “李氏朝鮮에 있어서 地圖와 道教,” 東方宗教, 57.

## 6. 정상기의 동국대지도<sup>1)</sup>

### 1) 정상기(鄭尙驥)의 생애와 학문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정상기는 숙종 4(1678)년에 출생하여 영조 28(1752)년에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자는 여일(汝逸)이고 호는 어은(漁隱) 또는 농포자(農圃子)이다. 세조(世祖)는 조선 전기 유명한 학자였던 하동부원군 정인지(鄭麟趾)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윈 정상기는 홀어머니와 서로 도우며 생활을 꾸려갔는데 가세는 상당히 빈궁하였다. 성장해서는 여러 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실패하였고, 또한 몸이 병약하여 일찍 벼슬을 포기하고 가업을 계승했다.

정상기의 부인은 여흥이씨(驪興李氏) 함경도 도사(都事) 이만휴(李萬休)의 딸로서 남편보다 18년 앞서 세상을 떴다. 이만휴의 아버지 현감 이식(李湜)은 성호 이익의 종조부로서 정상기의 부인과 이익은 가까운 친척이 되고 이로 인해 이익은 정상기와 교분을 맺게 된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친교는 그로부터 3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고 학문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게 되었다.

정상기는 슬하에 희천(希天), 태령(泰齡), 항령(恒齡), 태령(台齡) 등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중 희천은 어려서 죽었고 태령(台齡)도 35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태령(泰齡)은 벼슬을 하지 못했으나 항령(1710~1770)은 영조 11(1735)년 진사 장원을 한 후 벼슬길에 오르게 된다. 정상기는 아들 항령으로 인해 말년에 중추부첨지(中樞府僉知)의 벼슬을 제수받기도 하였다. 항령의 아들 원림(元霖, 1731~1800)은 통정대부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란 벼슬까지 오르게 되는데 정조 때 추천되어 『여지승람』 편찬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사림(師霖)의 장남 수영(遂榮, 1743~1831)의 호는 지우재(之又齋)이고 어려서부터 시문과 서화에 뛰어나 많은 그림을 남기기도 했으며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수정, 교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정상기의 가문은 농포자, 항령, 원림, 수영에 이르는 4대에 걸쳐 지도제작의 명가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정상기의 학문은 반드시 옛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였고 많은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여 다방면으로 풍부한 지식을 쌓았다. 그리고 중년 이후로는 두문불출 저술에만 몰두하여 『농포문답(農圃問

1) 본고는 필자의 다음 논문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오상학, 1994,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관한 연구 -제작과정과 사본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우형·오상학, 200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지도』의 지도사적 의의,” 『문화역사지리』, 16(1), 165-181.

답)』, 『인자비감(人子備鑑)』, 『심의설(深衣說)』, 『도검편(韜鈴篇)』, 『향거요람(鄉居要覽)』, 『치군요람(治郡要覽)』 등의 많은 저작을 남겼으나 『농포문답』을 제외하고는 현전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선비가 비록 궁박하게 집에 있어도 뜻은 항상 나라를 구제하는 데 있다. 무릇 치민(治民), 치병(治兵), 산천, 관방, 재부(財賦), 성곽, 거갑(車甲), 기계(器械), 행진(行陳), 의약, 잠적(蠶績), 경농, 일용의 도구 등은 진실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니 깊이 헤아려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스스로 농포자라는 호까지 지어 시골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의 학문은 공리공론보다는 실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다방면에 걸쳐 폭넓게 궁구하였다. 특히 그는 국방을 중시하여 『도검편』과 같은 군사관계의 전문서적을 저술하기도 했는데 현존하는 『농포문답』에서도 국방관련 항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사구시적인 그의 학문성향은 당대 실학의 대가인 성호 이익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성숙되었고 마침내는 말년에 『동국지도』라는 역작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 2) 동국지도의 제작 과정

문헌자료의 한계로 인해 『동국지도』의 제작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동국지도』 사본에 수록된 발문을 통해 대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가운데 초기 사본에 실려 있는 발문의 일부이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우리나라 지도가 대단히 많으나 사본과 인쇄본을 막론하고 모두가 지면의 넓고 좁음과 둥글고 모난 것에 의해서 그랬던 까닭에 산천과 도리가 모두 어그러졌다. 십여리 정도의 가까운 것이 수백리 보다 더 멀고, 수백리 정도의 먼 것이 십여리 보다 더 가깝다. 동서남북의 방위에 이르러서는 그 위치가 바뀌어 그 지도를 보고 사방을 돌아다니려고 해도 하나도 의지할 수가 없으니 어둠속에서 길을 가는 자와 다름이 없다. 나는 이것을 근심하여 마침내 이 지도를 만든 것이다.”<sup>2)</sup>

2) 『東國地圖』跋文.

我國地圖行於世者 不知其數而無論其模本印本 皆從紙面闊狹方圓而爲之 故山川道里盡爲相左 十餘里之近者或遠於數百里 數百里之遠者或近於十餘里 以至東西南北或易其位 若按其圖而欲往遊於四方即無一可據 與冥行者無異矣 予以是病焉遂作此圖



[그림 6-51] 『동국대전도』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위의 지도 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기는 이전 시대의 지도들이 많은 결함들을 갖고 있어서 지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보다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지도제작에 임하게 된다.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도들은 대부분 지면의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리나 방위들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도의 대표적인 지도가 『동국여지승람』에 삽입된 일명 『동람도(東覽圖)』인 팔도총도와

도별도인데 『동국여지승람』 판본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에 맞도록 지도의 형태를 조정했기 때문에 팔도총도의 모습은 남북으로 압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각 도별도 역시 판본의 규격에 맞도록 지도의 형태를 조정하고 있어서 축척도 일정하지 못한 결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동람도』가 행정, 군사적 용도에서보다는 『동국여지승람』의 부도(附圖)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도에 싣고 있는 내용도 매우 소략하다. 이러한 유형의 지도는 당시 민간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도가 지닌 결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기는 말년에 『동국지도』 제작에 몰두하였는데 구체적인 제작과정은 기록의 부재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도제작은 회화와 같은 예술작품과는 달리 개인의 독창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적, 사회적으로 축적된 이전의 성과들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도제작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곡된 윤곽을 지니고 있는 『동람도』 유형의 지도에서 국토의 모습을 실제에 가깝게 묘사한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임진왜란 이후 17세기경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지도제작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고, 현존하는 당시 지도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시기를 지도제작이 정체된 시기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탄생된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정상기의 지도가 제작되었던 시기는 오히려 임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군사적, 행정적 차원에서 지도제작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경제, 사회적으로도 전쟁후의 복구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양안(量案)의 정리와 호적의 정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졌고 농업생산력의 회복을 위해 농지의 개간과 농법의 개량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다. 이러한 농업에서의 생산력의 증대는 수공업, 광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상품교환경제의 발달을 자극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실학이 태동하여 정립기에 접어드는 시기였는데 이러한 모든 여건들은 당시 지도제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민간에서의 지도 소유를 금지했던 조선전기와는 달리 사대부를 중심으로 일정 정도의 지도 소유가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에서의 지도제작이 활발하게 행해질 수 있었다. 실제로 김정호의 『청구도』 범례에서 뛰어난 지도제작가로 언급하고 있는 윤영(尹鏞, 17세기 인물로 추정), 황엽(黃曄, 1666~1736)과 같은 이도 이 시기에 활약하고 있었다. 또한 17세기를 거쳐 18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청나라와의 국경분쟁을 계기로 변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던 시기였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관방지

도가 제작되기도 했다. 중국으로부터 지도 및 지리지를 적극 수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경지역의 지도를 제작하여 국방에 이용했던 것이다.

정상기의 지도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당대까지 축적된 지도제작의 성과와 지리지식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유일한 저작인 『농포문답』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그는 병약하여 한 고을 밖을 제대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전 국토를 답사하고 측량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선 전기의 대학자이며 고위 관직에 있었던 정인지의 직계 후손으로서 집안에 소장된 지도와 각종의 지리지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고, 당대 최고의 실학자였던 성호 이익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구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백리척(百里尺)을 이용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여 당대 최고의 『동국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 3) 동국지도의 특징

#### (1) 『동국지도』의 체제와 형태

정상기의 지도는 대전도(大全圖)(그림 6-51)와 이를 팔도로 나누어 첩으로 만든 팔도분도(八道分圖)(그림 6-52)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정상기의 원도 자체는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사본을 토대로 원도의 모습을 파악해 볼 수밖에 없다. 대전도의 경우는 현존 사본이 팔도분도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인데 이들의 규격은 대략 가로 130~140cm, 세로 240~260cm 정도이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지도인 양성지, 정척의 동국지도 유형에 속하는 『조선방역지도』의 규격이 가로 61cm, 세로 132cm인 것을 보더라도 정상기의 지도는 이전 시기의 전도와는 달리 대축척의 지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축척의 전도는 여러 장의 종이를 이어 붙여서 그려야 하는 전사상의 불편함과 열람, 휴대상의 문제 때문에 후대에까지 활발하게 전사되어 이어지는 못하였고 대신에 팔도분도의 형식이 정상기 지도사본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

정상기의 팔도분도는 이전의 팔도분도와는 다른 양식으로 되어 있다. 즉, 『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지리지에 실리는 팔도분도는 각 도별 지역의 넓고 좁음에 관계없이 한 지면에 무조건 한 도를 배정하여 그렸기 때문에 축척이 서로 달라 산천의 표현과 도리(道里)가 모두 부정확한 것이 특징이었다. 정상기의 팔도분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도록 고안이 되었는데 경기도와 충청도



[그림 6-52] 『동국지도』의 팔도분도 사본 중 함경북도 부분

자료: 규장각

는 면적이 다른 도에 비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한 장의 지도에다 합쳤고, 함경도는 넓은 면적으로 인해 남도와 북도로 분리하여 두 장의 지도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각 분도의 규격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가로 60cm, 세로 100cm 내외이다.

[표 6-8] 현존하는 『동국대전도(東國大全圖)』 사본의 현황

지도명	소장처	도서번호	제작시기	규격(cm)	백리척	주변국
朝鮮地圖	국립중앙박물관	덕4396	1755~1767	271,0×139,0	웁손	중·일
筆者未詳 朝鮮地圖	국립중앙박물관	덕5996	1755~1767	257,0×150,8	백리척(9.4cm)	중·일
朝鮮八域圖	국립중앙도서관	古朝61-7	1789~1800	243,0×138,7	없음	없음
朝鮮全圖	서울대규장각	古軸4709-96	1800 이후	248,5×123,5	없음	없음
八路總圖	서울대규장각	古매912-51	1758~1767	247,0×147,0	없음	없음
朝鮮全圖	송실대박물관		1778~1800	248,5×134,5	없음	없음
東國大地圖	서울역사박물관		18세기 후반	252,5×139,5	없음	없음

자료: 이우형·오상학(2004)

정상기의 팔도분도는 양식상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첩으로 만든 이유는 열람과 휴대상의 편의를 위해서인데 이러한 형식은 농포자 지도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국여지승람』에 실린 『동람도』처럼 지지의 내용을 보완하는 보조적인 지도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간행된 지도책들이 이미 16세기를 거쳐 17세기에 이르러 널리 유행하였던 것이다. 정상기는 바로 이러한 성과들을 계승하여 대축척의 분도첩으로 만들었고 이와 같은 양식은 이후 각 군현지도집을 비롯하여 김정호의 『청구도』, 『대동여지도』에 이르기까지 대축척 지도첩이 조선 후기 지도학사상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동국지도』는 조선 전기의 지도들과 비교했을 때 일차적으로 윤곽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압록강,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의 북부지방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성지, 정척의 『동국지도』를 계승한 대부분의 지도들은 북부지방이 중·남부지방에 비해 면적이 작게 표현되었고,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의 유로가 부정확한데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구가 위도 상 상당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위도선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정상기의 지도에서는 이러한 전기 지도의 결점을 거의 극복하여 현대 지도의 한반도 윤곽과 비교해 보아도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윤곽을 보여주고 있다.

## (2) 『동국지도』의 지명 분포<sup>3)</sup>

### ① 자연지명

『동국지도』의 전체 지명수는 2,580여 개로서 조선 부분에 2,170여 개, 중국 부분에 300여 개, 일본 부분에 110여 개가 표기되어 있다. 조선부분의 2,170여 개의 지명은 일반 팔도분도의 지명수와 대략 비슷한 수치다. 이러한 지명 중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관방과 관련된 것은 큰 글자로 강조하고 있는 반면, 다른 여타의 지명들은 가늘고 작게 표기하였다.

지명 가운데 자연지명은 총 1,176개로 산봉명(山峰名) 565개, 고개 이름 298개, 강·하천·여울 이름 92개, 도서 이름 169개, 기타로서 평야·호수·제언·곶·굴·폭포 등 52개이다. 산이름과 고개이름 중에서는 고개이름이 산이름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것은 산이름과 고개이름이 같을 때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고개이름을 우선하고 산이름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도서의 경우는 대부분 유인도로서 내륙 군현에 소속된 월경지인 경우도 많다.

[표 6-9] 자연지명의 항목별 개수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계
山·峰·岳	44	56	63	71	98	60	83	93	565
고개	16	24	46	31	26	9	81	65	298
江·川·灘	12	8	8	5	13	7	21	18	92
島嶼	29	15	3	66	23	16	12	5	169
기타									52
계									1,176

자료: 이우형·오상학(2004)

### ② 인문지명

지도에 수록된 인문지명은 총 1,000여개이다. 경성을 뺀 군현명 333개, 창고 36개, 병수영 17개, 진보 205, 찰방역 40개, 산성 36개, 진도 36개, 포구 14개, 사찰 21개, 기타 260여개이다. 기타에는 방면·고읍이 50여 개, 월경지 28개, 역원 50여 개, 능침 25개이며, 누각, 사적, 교량 등도 일부 수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진보·산성·병수영 등 군사적 항목 비율이 높고 다른 지

3) 『동국지도』의 수록된 지명의 분포는 『동국지도』 원본에 가까운 사본으로 평가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의 동국대전도에 수록된 것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6-10] 인문지명의 항목별 개수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계
군현(有城)	36(10)	54(9)	26(5)	56(21)	71(9)	23(6)	46(11)	23(7)	333
창고	2	5	2	2	4	1	9	11	36
兵水營	1	2	0	3	4	3	1	3	17
鎭堡	14	5	2	25	35	17	55	51	205
察訪道	6	5	4	6	11	3	2	3	40
山城	5	2	0	5	7	6	10	1	36
津渡	6	8	1	7	9	3	1	1	36
浦口	3	3	2	1	0	0	0	5	14
寺刹	3	0	6	2	4	1	2	3	21
기타									258
계									996

자료: 이우형 · 오상학(2004)

명에 비해 자세히 강조하여 표시한 것으로 볼 때, 군사적 성격이 강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명들은 관에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오류가 적고, 변화된 지명이 잘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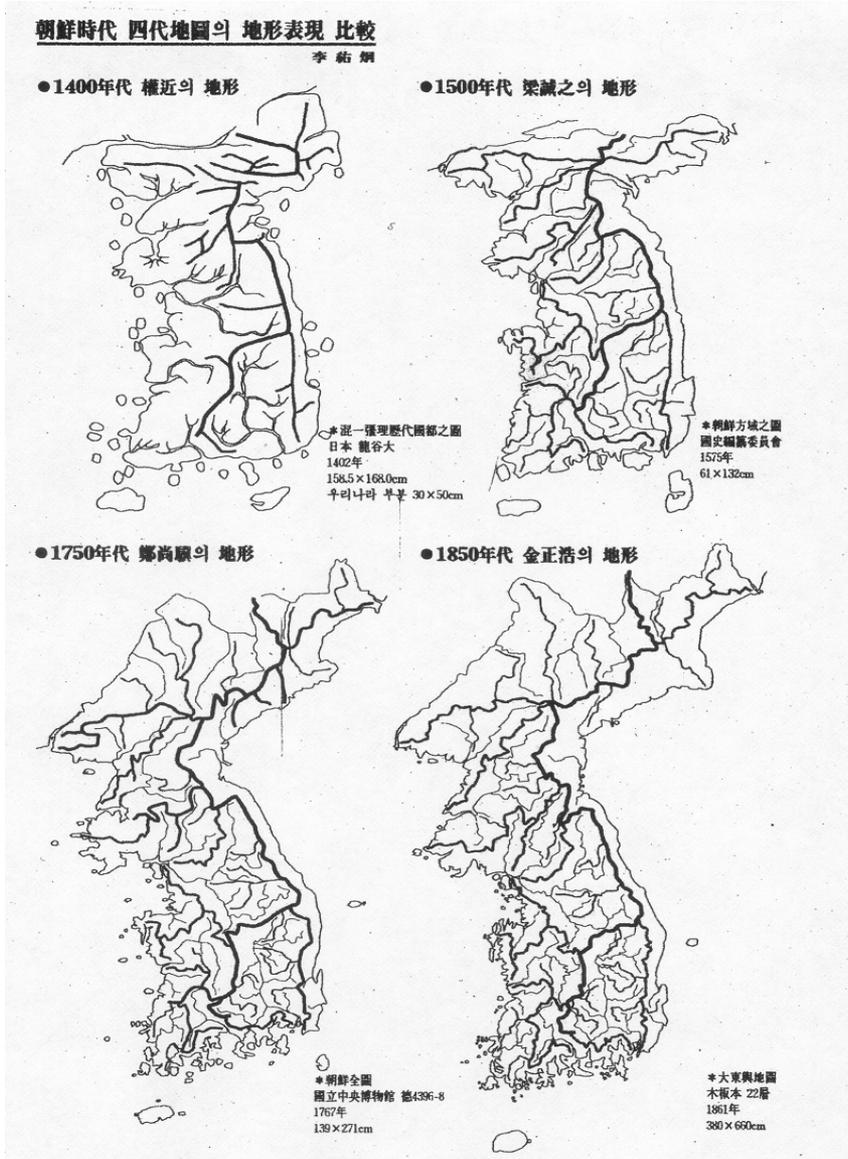
### (3) 표현상의 특징

#### ① 자연지형의 표현

김정호가 지적한 것처럼 산맥과 물줄기는 지표면의 근골(筋骨)과 혈맥(血脈)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지도제작자들은 다른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산천의 표현에 관심을 두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산천의 표현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산계(山系)와 수계(水系)가 이전 지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상세해졌다는 점이다. 이전의 지도들은 소축척 지도이기 때문에 산계와 수계를 자세히 표현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천으로 대표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후대에 비해 상당히 제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대축척의 지도로 제작되어 산계와 수계가 보다 자세히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고, 이전까지 축척된 공간인식을 바탕으로 후대의 김정호의 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산천체계를 표현해 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줄기 체계에 입각한 지형표현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산줄기 체계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를 하나의 커다란 산줄기로 하고, 이 산줄기에서 크게 가지 친 이차적인 산줄기는 대하천의 유역능선으로, 다시 여기서 뻗어나간 지맥(支脈) 순으로 지형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산줄기들은 하천을 가르는 분수령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산줄기는 각각의 유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는 것이다.



[그림 6-53] 조선시대 지도의 지형표현

자료: 이우형·오상학(2004)

이 같은 산줄기 체계는 우리의 오랜 전통지리 인식체계에 근거를 둔 것으로 동아시아 내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의 독특한 것인데, 지도상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난다. 산줄기 중심의 지형표현 기법은 이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로 이어지면서 확고히 정립되었다.

## ② 교통로의 표현

인문적 요소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교통로이다. 현존하는 이전 시기의 지도를 보면 대부분 도로망이 표현되지 않고 있다. 소략한 『동람도』 계열의 지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양성지·정척의 『동국지도』 유형의 지도에서도 교통로가 표시 안 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교통로가 자세하게 표시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으로 뻗어가는 대로는 물론 각 군현을 잇는 연결도로까지 자세히 그렸고, 서해안에서 남해안에 이르는 해로까지도 표시하였다. 또한 산지상의 영로인 고개도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 이렇듯 교통로에 대한 강조는 지도의 실용성을 고양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 후기에 상공업이 발달하고 지역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도는 실용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도로는 굵은 홍선과 가는 홍선의 두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간선도로망은 굵은 선, 지로(支路)는 가는 선으로 처리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대로가 서울에서 시작하여 제1 서북의주(西北義州), 제2 동북경흥서수라(東北慶興西水羅), 제3 동평해(東平海), 제4 동남동래(東南東萊), 제5 남통영(南統營), 제6 남통영일로(南統營一路), 제7 남해남관두량제주(南海南館頭梁濟州), 제8 서남충청수영(西南忠淸水營), 제9 서강화(西江華) 등 전국 9대로이고 여기에서 갈라진 간로(間路)가 부가되어 전국의 교통망을 구성하고 있다. 『동국지도』 사본들에서는 이들 9대로가 굵은 선으로 그려지고 여기서 갈라지는 간로나 고을 사이를 연결하는 소로는 가는 선으로 그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해로는 『증보문헌비고』에 기록된 항로와 유사하다.<sup>4)</sup> 기록에서는 출발지를 경도의 용산강(龍山江)으로 하였는데, 『동국지도』에서도 한강의 용산강까지 연결하여 그렸다. 남해안의 항로는 강화의 손돌목을 지나 서해안의 도서들을 좌우회하여 동쪽으로 울산까지 이어진다. 북쪽의 항로는 한강 하구에서 교동을 지나 압록강 하구 용천(龍川)의 신도(薪島)까지 연결된다. 항로의 성격상 조운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增補文獻備考』 권23, 關防11, 海路.

### ③ 기타 요소들의 표현

『동국지도』에는 교통로와 더불어 역보(驛堡), 산성, 봉수와 같은 군사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정상기는 국방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도에서도 이를 중시하여 표현했던 것이다. 역의 경우는 칠방역만을 그렸지만 진보(鎭堡)의 경우는 연해와 북방의 것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 산성의 경우 고성보다는 당시 국방상 요지이며 실지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성을 중심으로 그린 것으로 보인다. 봉수도 이전 지도와 달리 매우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특히 영읍의 성곽도 빠짐없이 표시하여 국방에 대한 농포자의 지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유명한 포구와 마을, 사찰, 고읍, 저수지, 나루터 등도 그려져 있다. 이들 인문요소의 표현 방식은 『동국지도』의 발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다음의 인용문이 그것이다.

“채색방법에 있어서는 경기는 순황 호서는 홍백, 호남은 순홍, 영남은 청홍, 영동은 순청, 해서는 순백, 관서는 백흑, 관북은 순흑, 산은 녹색, 하천은 청으로 했다. 홍선으로는 수륙대로를 그렸으며, 황선으로는 좌우분계를 표시했고, 돈형의 홍점으로는 봉수를 나타냈다. 흰 성가퀴는 산성을 표시한 것이며 영읍에 성이 있는 경우는 밖에 흰 선을 둘렀으며 역보는 원으로 그리되 청과 황으로 나누어 표시했다. 이것은 모두가 지도를 그린 범례이니 지도를 보는 이는 자세히 숙지하기 바란다.”<sup>5)</sup>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동국지도』는 채색된 필사본 지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지리적 사상(事象)의 표현에 이용하고 있다. 각 도별로 오방색을 사용하여 고을들을 구분했는데, 대략적으로 중앙은 황색,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홍색, 북쪽은 흑색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부의 도는 색상을 혼합하여 채색하였다. 황선으로 각 도의 좌도와 우도의 경계를 표시했고 봉수는 돈대의 형상에 불꽃을 나타내는 붉은 점으로 표현했다. 산성은 흰 성가퀴를 그려 표현했고, 고읍에 성이 있는 경우는 산성과 구분하기 위해 흰 선을 둥글게 그렸다. 역원과 진보는 작은 원으로 표현했는데 청색과 황색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채색과 기호를 이용한 표현 방법은 이후 방안식 군현지도나 대축척 군현지도에 연결되고 김정호의 『동여도』나 『대동여지도』의 정교한 범례로 발전되었다.

5) 若其施采下色 卽京畿純黃湖西紅白湖南純紅嶺南卽靑紅嶺東純靑 海西純白關西黑白關北純黑 山以綠水以靑 紅線畫水陸大路 黃線別左右分界 墩形而點紅以記鞞邊 粉堞而留白以表山城 營邑有城外施白線 驛堡成圈乍分靑黃 此皆作圖之凡例 覽者詳之

#### 4) 동국지도 사본들의 계보

##### (1) 『동국지도』 원도 계열

현존하는 『동국지도』 사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원도의 형식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의 지명 등이 수정·보완된 지도로 정상기의 후손들에 의해 전사되면서 널리 유포되었다. 수정본 계열의 사본들과 달리 원도의 한반도 윤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도들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그의 아들 정항령, 손자 정원립, 증손 정수영 등의 하동정씨 가문에 의해 계속 수정, 보완되면서 조선후기 팔도분도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항령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그는 당대 지리학의 대가인 신경준과 안정복 같은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국지도』를 새롭게 보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도는 이후 신경준의 『여지도』 제작에 저본 지도로 활용되기도 했다.<sup>6)</sup>

현존하는 원본 계열의 사본들은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그대로 모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한반도의 윤곽을 비롯한 전체적인 표현 형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지명과 같이 후대에 변화된 내용들만 수정된다. 이 계열에 속하는 사본들은 경기도와 충청도를 하나의 도면에 합쳐 그렸고(그림 6-54), 함경도는 남도와 북도로 분리해서 그렸다. 또한 대부분 백리척과 지도 발문이 전사되어 있는데 초기 사본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현존 사본들을 검토해 보면, 해안선의 윤곽이나 압록강, 두만강의 유로는 몇십년 뒤의 사본에서도 변함이 없다. 또한 산맥이나 하천의 표현 체계도 대부분의 사본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고 균현의 위치나 봉수, 역보 등도 대부분 동일하다. 단지 변천된 지명과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지명들이 후대로 가면서 보완된 정도이다.

##### (2) 『동국지도』 수정본 계열

###### ① 초기 수정본 계열

수정본 계열 사본들의 표현상의 특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한반도의 윤곽에서 원도 계열

6) 申景濬, 『旅菴遺稿』, 卷五, 跋, 東國輿地圖跋.



[그림 6-54] 원도 계열 사본의 경기·충청도 부분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의 사본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원본 계열의 사본이 『동국지도』 원도를 그대로 모사하고 지명과 같은 일부의 변화된 사항들만 수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본 계열의 사본에서는 원도의 형식에서 벗어나 국토의 윤곽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가해졌다. 이들의 대표적인 것은 규장각 소장 『팔도분도(古915.1-P173)』와 『좌해분도(古4709-14)』, 호암미술관 소장의



[그림 6-55] 초기 수정본 계열의 사본인 『해동도』의 경기도 부분

자료: 호암미술관

『해동도』(그림 6-55) 등이다.

이들은 1767년 이전에 제작된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사본들인데 지도첩의 구성에 있어서도 원도의 형식을 탈피하고 있다. 즉, 정상기의 원도는 경기·충청도를 합쳐 한 장의 도면에 그리고 함경북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리하여 각각 한 장의 지도로 만들었는데, 이와는 달리 『팔도분도』와

『좌해분도』에서는 각각 팔도별로 지도를 한 장씩 그렸다. 이와 더불어 이들 사본들에서는 백리척과 발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초기 수정본 계열의 사본과 원도 계열의 사본과 비교해 보면, 표현하고 있는 국토의 윤곽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오늘날의 중강진에서 만포로 이어지는 압록강의 유로 부분에서 나타난다. 정상기의 원도 계열의 사본에서는 이 압록강의 유로 부분이 다소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수정본 계열에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만입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외에 남해안에서도 윤곽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남해안의 고흥반도와 여수반도, 이들 주변의 도서지방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초기 수정본은 정상기의 원도에서 보이는 오류를 시정하고 있다. 정상기의 원도 계열의 사본들에서는 백야곶(白也串)을 섬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데 초기는 물론 후대의 사본에서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사해 놓고 있다. 그러나 초기 수정본 계열의 사본은 이러한 오류를 시정했고 또한 제주도 정의현 서쪽이 호수로 표현되었던 원도 계열의 잘못도 바로잡았다.

초기 수정본이 표현해내고 있는 지리적 사상(事象)들은 이전의 원도 계열의 사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졌다. 산천, 고개와 같은 자연적 요소는 물론 창고, 산성, 사찰, 군현내의 방리, 일부 면명(面名), 나루, 무덤, 정자, 비석 등과 같은 원도 계열의 사본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인문적 요소들이 수록되어 있다. 초기 수정본 계열의 사본들은 후대에도 계속적으로 전사되면서 뚜렷한 계보를 형성하게 되는데, 현재에도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 ② 정후조의 '해주신본' 계열

『동국지도』의 수정본 계열에 속하면서 앞의 초기 수정본 계열과는 또 다른 계열의 사본이 현전하고 있는데,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의 『동국팔로분지도(東國八路分地圖)』(그림 6-56)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조선팔도지도(古4709-54)』 등이 있다. 이 지도들도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그대로 전사하지 않고 수정·변형시킨 것들인데 조선후기 지도발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지도로 평가된다.

이 계열의 지도도 초기 수정본처럼 정상기의 원도를 따르지 않고 구성체제나 윤곽이 상당히 수정되었다. 표현 내용들은 이전의 초기 수정본보다 훨씬 풍부해졌다. 특히 군현 내 모든 면의 명칭과 군현 경계까지 표시되었는데 이는 초기 수정본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

이 계열의 지도에서 『동국팔로분지도』에는 지도 표지에 ‘갑진맹춘(甲辰孟春)’이라는 연기가 표기되어 있고 지도첩의 뒷부분에는 범례가 수록되어 있어서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지도에 수록된 지명으로 보아 ‘갑진맹춘’은 정조 8(1784)년에 해당한다. 또한 지도의 말미에는 ‘동국여지도범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원래의 지도 명칭은 ‘동국여지도’였음을 알 수 있다. 범례에는 정항령 집안의 지도를 저본으로 삼고 별도의 양지척(量地尺)을 만들어 여러 읍지로 교정하여 제작했음을 밝히고 있다. 원래의 지도첩은 총도 1폭, 팔도분도 8폭, 영애해방도(嶺益海防圖) 1폭, 사예도(四裔圖) 1폭 등 도합 11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팔도분도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지도의 제작자는 『사예지』를 저술한 정후조로 추정되는데 다음의 『팔도지도』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그림 6-56] 정후조의 해주신본 계열인 『동국팔로분지도』의 경기도 부분

자료: 성신여대박물관

“최근에 해주정씨 좌랑 정후조는 판서 정운유(鄭運維)의 아들인데 그의 형 문관 정철조는 역법, 서학, 그리고 글씨와 그림에 뛰어났고 후조는 중국, 서역, 청해, 몽고, 성경지도 등을 더욱 힘써 궁구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도 일이관지하여 하동본(河東本)에 의해 수정을 가해 마침내 그 이상의 뛰어난 지도를 만들어 냈다.”<sup>7)</sup>

위 글에서처럼 황윤석은 정후조가 중국, 서역, 청해, 몽고, 성경지도 등을 궁구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사예도』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가 궁구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주변국인 사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황윤석은 정후조가 하동본인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바탕으로 새롭게 수정 제작한 ‘해주신본’의 제작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동국여지도법례’의 기술과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동국팔로분지도』는 정후조의 ‘해주신본’으로 추정된다.<sup>8)</sup>

『동국팔로분지도』와 동일한 사본이 남아 있는데,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조선팔도지도』이다.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지도의 내용이나 윤곽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단지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라 구성 체제상의 차이이다. 즉, 『동국팔로분지도』에서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한 도면에 그렸지만, 『조선팔도지도』에서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도면 규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 그렸던 것이다.

이들 ‘해주신본’ 계열의 지도는 이전의 다른 사본들과 달리 방대한 양의 지리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표현 체제나 방법도 더욱 정교해졌다는 점에서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한 단계 높인 지도로 평가된다. ‘해주신본’ 계열의 사본이 지니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맥과 하천으로 대표되는 자연적인 요소의 표현이 정상기의 원도 계열 사본들보다 훨씬 정교해졌는데 산맥과 하천 중에서 10리가 넘는 것은 명칭이 없더라도 모두 그려 넣었다.

둘째, 지도상에 표현된 인문적 정보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정상기의 원도 계열 사본들은 기껏해야 군현명, 해로를 포함한 교통로, 봉수, 산성, 역보 등의 관방과 관련된 정보들을 표현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해주신본’에서는 산의 영애, 봉수, 강의 나무, 창고 명칭, 면의 명칭, 격참 등을 아우르고 있고 특히 군현의 방리(坊里)는 모두 표기하였다.

7) 黃胤錫, 『八道地圖(古4709-48)』, 跋文.

8) 『동국팔로분지도』는 뒤에 수록된 법례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 법례에서는 각 도별도에 도의 연혁과 조선시대 새로이 창설되고 혁파된 고을을 기재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동국팔로분지도』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이로 본다면 『동국팔로분지도』는 원본인 『동국여지도』의 팔로분도만을 모사한 사본으로 볼 수도 있다.

셋째, 정상기의 원도 계열 사본들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각 읍간의 경계를 표시하였다. 또한 두만강, 압록강 주변의 파수와 황해도 연해의 파수를 표시했으며 읍치까지의 거리를 주기했다.

넷째, 범례가 보다 정교해졌다. 정상기의 원도 계열에서는 취락의 계층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여기에서는 서울은 큰 노란색 원으로 표시했고, 순영(巡營)은 홍색 사각형, 병영·수영·통영 등은 청색 사각형, 여타의 군현은 홍색 원으로, 역은 노란색의 작은 사각형, 진은 청색의 마름모꼴 등으로 구분하여 계층을 보다 명확히 표현했다.

### ③ 신경준의 『여지도』 계열

『동국문헌비고』 여지고(輿地考)의 편찬을 담당했던 신경준은 1770년 『여지도』의 제작을 명받고 이를 실행하게 된다. 다음은 『여지도』의 제작과 관련된 기록이다.

“또한 신에게 명하여 『동국지도』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 때 기관에서 소장된 10건을 꺼내고 여러 집안을 방문하여 고본(古本)을 현로(玄老, 정항령)가 그린 지도만한 것이 없었다. 마침내 그것을 사용하여 교정을 가했다. 6월 6일에 시작하여 8월 14일에 마쳐 진상하였다. 열읍도(列邑圖) 8권, 팔도도(八道圖) 1권, 전국도(全國圖) 족자 1개인데 주척 두 치를 한 선으로 하여 종선 76개, 횡선 131개였다.”<sup>9)</sup>

위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신경준은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의 편찬을 수행하면서 국가적 사업으로 지도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전도와 도별도, 군현지도를 하나의 세트로 제작하였다. 신경준의 『여지도』 제작에는 정항령이 그린 지도가 저본으로 사용되었는데,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을 가리킨다. 즉,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아들 정항령에 의해 다시 전사·제작되면서 보완되었는데, 정항령과의 친분이 있었던 신경준이 이 지도를 『여지도』 제작의 저본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여지도』는 우리나라의 국토를 20리 방안을 사용하여 동서로 76개, 남북으로 131개의 선을 그려 만든 것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지도』, 『팔도군현지도』 등의 20리 방안의 군현지도가 이 때 제작된 열읍도의 사본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도들은 4.2cm의 방안에 그려져 있는데, 주척 한 자를 20.5cm로 잡아도 거의 두 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가로

9) 申景濬, 『旅菴遺稿』, 卷五, 跋, 東國輿地圖跋.



[그림 6-57] 신경준의 『여지도』 계열 사본의 강원도 부분

자료: 경희대 혜정박물관

315cm, 세로 546cm의 대형 전도가 된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대전도의 두 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신경준의 『여지도』의 팔도도 사본으로 추정되는 지도가 현재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그림 6-57). 팔도의 지도 가운데 경기도, 함경도, 강원도 지도가 남아 있는데, 열읍도 사본으로 추정되는 규장각 소장 『조선지도』와 그 형태와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조선지도』에서는 읍치를 단순화시켜 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혜정박물관 소장 도별도에서는 읍치를 객사, 아사 등의 관아 건물을 그려 표현한 점이 다른 정도이다.

『여지도』 계열의 사본을 정상기 『동국지도』의 원도 계열과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규격면에서 『여지도』 계열의 사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수록하고 있는 지리 정보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산계와 수계의 표현이 한층 더 자세하고 정교해졌음을 알 수 있

다. 해안가의 섬들도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신경준의 『여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을 저본으로 활용하면서 고을의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된 기존의 회화식 군현지도와 읍지와 같은 지리지를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도별지도에 그려진 읍치의 모습이 회화식 군현지도에서 보이는 모습과 흡사한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신경준의 『여지도』 계열의 사본은 규장각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병풍으로 제작된 『조선팔도지도』(古屏912.51 J773)이다.<sup>10)</sup> 이 지도는 6폭의 병풍(1폭 163×65cm)으로 되어 있는데, 각 지도를 이어 붙이면 세로로 5m나 되는 대형의 전도가 된다(이기봉, 2008). 혜정박물관 소장의 『여지도』 계열 사본과 비슷한 크기이다.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윤곽과 수계망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같은 계열의 사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줄기의 표현이 상이하고 일부의 지명에서 차이와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모사 관계에 있지는 않고 약간의 보완·수정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표현 형식으로 보아 『조선팔도지도』가 후대 사본으로 판단된다.

『여지도』 계열의 사본은 다른 수정본 계열보다 지도학사상 차지하는 의의가 더욱 크다. 무엇보다 정상기의 원도를 대폭 확대하여 대축척의 지도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여타의 수정본 계열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대축척의 도별도는 20리 방안에 기초한 군현지도 제작으로 이어졌고, 이들은 19세기 대축척 전도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1)</sup>

#### ④ 초기 수정본의 변형 계열

수정본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 사본 가운데 또 다른 유형으로 초기 수정본이 변형된 계열의 지도를 들 수 있는데, 규장각 소장의 『팔로총도(八路總圖)』(古枚 912.51-P186)(그림 6-58)와 『동역

10) 필자가 1994년 석사학위논문은 작성할 당시 이 지도에 대한 원본 열람이 불가능했고, 마이크로필름으로도 제작되어 있지 않아 석사학위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규장각에서 영인 간행되어 본고에서 다룰 수 있었다(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조선 후기 대축척 조선분도 - 정상기의 『동국지도』 수정본 계통 -』 참조).

11) 신경준의 『여지도』 제작에서 군현지도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도나 도별도를 만들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이기봉, 2008, 75) 이는 전통시대 지도제작의 방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회화식 군현지도나 읍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축척의 방안식 군현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결합하여 도지도나 전도를 만들었다는 상향식 방식을 주장한 것인데, 축척이 제각각 다른 회화식 군현지도를 사용하여 동일한 축척의 군현지도로 변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인접 고을의 연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군현보다 큰 범주의 지도가 없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경준은 정상기의 팔도분도 사본을 기본도로 삼고 이를 대폭 확대 수정한 도별도를 먼저 만든 다음 이 도별도를 연결하여 전도를 만들고 여기에 세로선 76, 가로선 131개를 그어 방안좌표를 그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군현의 경계선을 따라 개별 군현의 지도를 묘사하여 군현지도책으로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혜정박물관의 『여지도』 계열의 팔도도 사본에는 읍치의 관청 모습이 그려져 있는 반면, 군현지도책인 규장각의 『조선지도』에는 읍치가 관아 건물이 없는 형태로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는 점도 도별도에서 군현지도로 가는 하향식 방식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림 6-58] 『팔로총도』의 평안도 부분

자료: 규장각

도(東域圖)(古4709-27)가 대표적이다. 두 지도는 정상기의 대전도와 팔도분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동역도』의 각 도별도를 합치면 『팔로총도』가 된다. 수록된 지명으로 보아 『팔로총도』는 1758년에서 1767년 사이로 추정되고, 『동역도』는 19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

『동역도』는 정상기의 원도를 대폭 수정한 수정본 계열의 사본이면서도 구성 체제는 원도 계열을 따르고 있다. 즉, 경기·충청도를 한 도면에 그렸고 함경도는 남도와 북도로 분리하여 그려 여

타 수정본 계열의 사본과는 다르다. 이는 이 지도가 정상기의 원본 계열에 바탕을 두고 제작된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데, 이 지도의 부분적인 윤곽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지도의 제주도 부분에는 정의현 서쪽 지역이 만이 아니라 호수의 형태로 잘못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기의 원도 계열 사본에서 흔히 보이는 오류이다. 이는 『동역도』의 대전도인 『팔로총도』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다.

『팔로총도』는 초기 수정본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수정본과 마찬가지로 원도 계열 사본에서 보이는 오류를 시정하고 있다. 윤곽과 표현 내용도 대략적으로 초기 수정본과 일치하고 있어서 같은 계열의 지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팔로총도』에서는 섬들을 포함하고 있는 해안 지역의 윤곽이 매우 자세해졌고 초기 수정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섬들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초기 수정본을 보완한 지도로 평가된다.

## 5) 동국지도의 가치와 의의

### (1) 백리척의 사용

백리척은 『동국지도』의 사본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9.4~9.8cm의 길이로 되어 있다. 이 길이가 백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막대기 모양으로 그려진 일종의 제척(梯尺)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중국에서는 일찍 가로 세로의 격자망인 방괘(方罫)를 이용하여 지도를 제작했으나 백리척과 같은 제척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17세기에 방괘를 이용한 지도제작이 행해졌다. 그러나 방괘의 경우 방향과 거리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효과는 있으나 지도가 오히려 번잡해지는 결점도 있었다. 또한 도로와 같은 곡선으로 된 거리를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상기는 이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의 독창적인 사고로 백리척을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백리척은 현대의 Bar Scale과도 유사하여 이를 이용하면 각 지점간의 직선거리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 (2) 국토의 원형 확립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전의 지도는 대부분 북부 지방의 윤곽이 왜곡되어 있었다. 조선전기 정

척·양성지 등의 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지도는 남부 지방은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그려졌으나 북부 지방은 두만강과 압록강의 유로가 거의 수평으로 그려졌고 면적도 실제보다 작게 그려져 왜곡이 심한 편이었다. 이는 함경도, 평안도가 변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청나라의 침입에 대한 국방의 강화, 청나라와의 국경 분쟁, 평안도·함경도 지역의 개발과 같은 요인으로 북부 지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지도의 제작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정상기의 지도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는 이전의 지리지, 지도를 비롯하여 이 시기 간행되는 읍지, 관방 지도 등을 수합하여 왜곡되었던 북부 지방의 윤곽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 지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1861년)』보다 무려 100년 이상 앞서서 우리 국토의 형태를 실제에 가깝게 그려냈던 것이다.

### (3) 대축척 전도의 효시

조선시대 제작된 대부분의 지도에서는 축척의 표시가 없다. 따라서 현대지도와 같은 축척을 산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축척을 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도이다. 대부분의 백리척이 9.4~9.8cm인데 10리를 5km로 잡았을 때 축척은 대략 1:51만~53만 정도이다. 『동국지도』 이전의 지도들 가운데서도 대축척에 해당하는 있었지만 이들 지도는 우리나라 전도가 아니라 특정 지역을 그린 지역도가 대부분이다. 당시 유행하던 지도는 전도의 경우 이보다 훨씬 작은 축척으로 제작된 것이었고 도별도도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지도처럼 소축척의 소략한 지도였다.

### (4) 다양한 정보의 수록

당시로는 대축척에 해당하는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실제에 가까운 국토의 윤곽 묘사를 바탕으로 산계와 수계의 표현이 명확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산명, 하천명, 고개명 등이 상세히 수록되었다. 전국의 모든 군현이 표시되고 이들 고을을 잇는 교통로도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육로와 더불어 해로도 잘 그려져 있다. 또한 역보(驛堡), 산성, 봉수와 같은 군사적인 내용이 중점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유명 포구와 마을, 사찰, 고읍, 제언, 나루터 등 이전 지도와는 비교

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5) 민관(民官) 지도제작의 기본도

1757년 조정에 알려지게 된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이후 관청에서 적극 활용하게 된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1770년 신경준의 『여지도』 제작 사업이다. 그는 영조의 명을 받아 『동국문헌비고』와 짝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게 되는데 이 때 기본도로 사용된 것이 정상기의 『동국지도』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도별도, 군현지도 등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지도는 이후에도 관에서 계속 전사되면서 이용되었다.

민간에서도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지도제작에 이용되었다. 특히 해주정씨 가문의 정철조, 정후조 형제는 정상기의 지도를 바탕으로 수정, 편집하여 더 뛰어난 해주본(海州本)을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이후에 제작되는 전도들은 정상기의 대전도를 바탕으로 축소한 것들인데 도리도표(道里圖表)에 수록된 전도, 『해좌전도(海左全圖)』 등이 대표적이다. 이익, 정약용 같은 대학자들도 정상기의 지도 사본을 소장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의 지리지식을 더욱 넓힐 수 있었던 것이다.

#### 6) 이후 지도발달을 주도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그의 후손 정항령, 정원립, 정수영 등에 의해서 전사, 수정되면서 널리 보급되었고 정철조, 정후조, 신경준, 황윤석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방괘(方畧)를 사용한 군현지도, 소형의 전도가 계속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김정호의 지도로 이어지게 된다. 1834년 김정호의 『청구도』는 바로 정상기 지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지도학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1861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청구도』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시킨 것인데 이 역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정상기의 『동국지도』로 이어진다. 또한 구한말 정부에 의해 제작되는 전도와 도지도들이 대부분 정상기의 지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동국지도』가 조선후기 지도제작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오상학

## 참고문헌

- 오상학, 1994,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관한 연구 -제작과정과 사본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5, 옛 삶의 모습 고지도,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지리원·대한지리학회, 2000, 한국의 지도 -과거·현재·미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정상기의 동국지도 -원본 계통의 필사본-.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조선후기 대축척 조선분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수정본 계통-.
- 이기봉, 2008, “정상기의 『동국지도』 수정본 계열의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20(1), 56-88.
- 이우형·오상학, 200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지도』의 지도사적 의의,” 문화역사지리, 16(1), 165-181.
-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 7.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 1) 김정호와 대동여지도

#### (1) 새롭게 조명해 본 김정호의 생애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김정호의 출생지·거주지·생몰연대 등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드물다. 더구나 김정호의 옥사설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대동여지도』는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또 『대동지지』는 어떻게 편찬되었는가는 더욱 오리무중이다.

『대동여지도』라는 조선 지리역사상 불멸의 업적을 남긴 김정호에 대한 의문사항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일까? 이는 그의 빛나는 업적에 비하여 그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정호에 대해서는 추측과 억측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김정호가 『동여도지』를 쓴 후 최성환과 함께 『여도비지』를 편찬하고 이러한 지지(地誌)들을 종합하여 『대동지지』를 편찬하였으며, 『청구도』·『동여도』·『대동여지도』 등의 3대 지도를 제작하였다.

위와 같이 많은 업적을 남긴 김정호이지만 이에 얽힌 수많은 의문을 선학들의 연구를 연구사적으로 정리하면서 김정호의 출생지, 김정호의 생몰연대, 김정호의 거주지, 김정호의 당호(堂號) 문제, 백두산등정과 전국답사의 사실여부, 김정호의 옥사설, 『대동여지도』의 실측문제, 최한기와의 관계, 김정호의 신분문제 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김정호의 출생지

김정호의 출생지가 황해도라는데 이의를 제기한 연구자는 없다. 황해도 봉산설이 유력하다. 그러나 필자는 황해도의 토산을 김정호의 출생지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김정호가 최초로 쓴 지리지가 『동여도지』인데 이 책의 편자에 “월성 김정호 도편(月城 金正浩 圖編)<sup>1)</sup>”이라고 썼다가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먹으로 지워졌다. 그러나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동여도지』 제7권만은 편자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른 권수를 유심히 살

1) 金正浩, 『東輿圖志』 卷7(奎 가람古 951.01-G 421d).

펴보면 “월성 김정호 도편(月城 金正浩 圖編)”이라는 글자를 희미하게나마 읽어 낼 수 있다.

이 월성이란 일반적으로 자기의 본관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김정호는 청도 김씨가 아니라 월성 김씨 곧 경주 김씨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여도비지』를 살펴보면 이 의문은 풀린다. 이 책은 최성환과 공저로서 편자가 “예성 최성환 성옥보 휘집, 오산 김정호 백원보 도편(藥城 崔 璉煥 星玉甫 彙輯, 鰲山 金正浩 伯元甫 圖編)”<sup>2)</sup>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로 본다면 김정호는 청도 김씨가 분명하다. 그러면 『동여도지』에서는 왜 “월성 김정호(月城 金正浩)”라고 했을까? 『대동지지』 황해도 토산조를 보면 토산의 옛 명칭이 월성으로 나타난다.<sup>3)</sup> 이는 김정호가 황해도 봉산 출신이 아니고 토산 출신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 ② 김정호의 생몰연대

김정호의 생몰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병도는 김정호가 순조·헌종·철종·고종까지 4대에 걸쳐 생존했다(이병도, 1971)고 하였다. 매우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다. 김정호는 순조 34년에 『청구도』를 제작했으며 철종 12년에 『대동여지도』를 초간하고 고종 원년에는 『대동여지도』를 재간하였으며, 『대동지지』를 쓰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단정은 사실에 부합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김정호의 생몰연대를 밝히는 데 미흡하다.

김정호의 생몰연대를 정확히 1804년에서 1866년이라고 지적한 연구자는 김양선이지만(김양선, 1972), 그는 이 연대의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아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대동지지』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김정호가 고종 3(1866)년까지 생존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대동지지』 권1 국조기년(國朝紀年) 고종조에는 고종의 왕비가 민비로 기록되어 있다.<sup>5)</sup> 조선시대의 다른 왕들은 세자로 책봉된 뒤 세자빈을 맞아들였다가 함께 즉위하지만 고종은 세자 시절이 없이 바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세자빈이 없었다. 고종은 즉위하고 철종의 국상을 다 치른 3년 후 고종 3(1866)년 3월에 민비를 왕비로 맞아들였다.<sup>6)</sup> 이 사실이 『대동지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호는 고종 3(1866)년 3월 이후까지 생존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친우였던 최한기가 1803년에 태어나서 1877년에 죽었다면 김양선이 지적한 1804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죽

2) 金正浩·崔璉煥, 『輿圖備志』(國立, 古 0233-3).

3) 金正浩, 『大東地志』 卷18, 黃海道 兎山縣 邑號條.

4) 줄고, 앞의 글.

5) 金正浩, 『大東地志』 卷1, 國朝紀年 高宗條.

6) 『高宗實錄』 卷3, 3年 3月 6日과 20~22日 기사 참조.

었다는 지적은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 김정호의 출생 시기는 현재 밝혀 근거가 없지만 그가 고종 3년(1866)까지 활동했음은 『대동지지』를 통하여 확실히 밝힐 수 있다.

### ③ 김정호의 거주지

김정호가 황해도에서 언제 서울로 상경했는지는 알 수 없다. 김정호는 서울에 상경하여 남대문 밖 만리재에 살았다고 한다.

김정호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정인보의 지적이 가장 타당하다. 그는 김정호와 생전에 면식이 있던 한세진의 대인(大人) 증언을 근거로 김정호가 만리재에 살았다(정인보, 1955; 동아일보 1931년 3월 9일; 16일)<sup>7)</sup>고 하였다. 그러나 정인보 보다 앞서 1925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조선광문회에서 김정호의 유업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유허가 있는 남문 밖 약현에 기념비를 세우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동아일보, 1925년 10월 9일). 이로 본다면 김정호는 약현 부근에 살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서대문 밖 공덕리에 살았다는 설은 매우 잘못된 얘기다. 왜냐하면 『수선전도』 등의 도성도를 펼쳐 들고 위치를 확인하면 만리재 너머가 바로 공덕리이기 때문이다. 공덕리는 남대문 밖이지 서대문과는 거리가 멀다. 약현·만리재·공덕리는 서로가 지적의 거리이다. 조선광문회에서 약현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한 점으로 보아 이미 상당한 고증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정황에 의해 김정호는 약현 부근에 거주했을 것이다.

### ④ 김정호의 당호 문제

김정호는 고산자(古山子)라고 자호(自號)하였다(류재건, 1862). 그리고 가정 형편이 빈한했고 신분도 미천했다. 그러므로 그가 당호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동지지』에 그가 인용한 65종의 사서(史書) 대부분은 최한기나 최성환에게서 빌린 것이지 그가 소장한 사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규경도 최한기가 많은 장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8)</sup> 당시는 책값이 무척 비쌌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좀처럼 책을 소장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지구도』에 중간자(重刊者)로 표기된 태연재는 김정호의 당호가 아니라 최한기의 당호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수록된 이규경의 『지구도변증설(地球圖辨證說)』을 보면 『지구도』

7) 鄭寅普, 「大東輿地圖」, 『菴園國學散稿』 第2篇 朝鮮古書解題; 『東亞日報』 1931년 3월 9일자와 16일자 기사.

8) 李圭景, 「中原新出奇書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上)』.

의 중간자는 최한기이므로 태연재는 최한기의 당호이다. 김정호는 『지구도』를 판각해 준 각수(刻手)였지 중간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태연재는 김정호의 당호가 아니다.

#### ⑤ 김정호의 전국답사설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하여 백두산을 일곱 차례나 등정했다는 사실을 믿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방동인, 1985). 그러나 과거에는 김정호의 위대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무비판적으로 이를 수용하였다. 오늘날에도 백두산을 혼자 등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백두산을 등정했다고 하더라도 지도제작에는 큰 도움이 못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백두산을 등정했다면 『대동지지』에 수록되어 있는 함경도 무산부 백두산조 기사를 그렇게 소략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정호보다 앞서 우리나라 지도 발달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정상기의 경우를 보더라도, 백리척(百里尺)을 이용하여 『동국대지도』와 『팔도분도』라는 훌륭한 지도를 만들었지만 그도 전국을 답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에서 전해오는 가장(家藏)지도와 다른 사람들이 소장한 지도들을 참고하여 당시로는 가장 정밀한 『동국대지도』를 만들었다. 그는 『농포문답(農圃問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발자취가 미친 곳은 수백 리에 불과하고, 들고 본 것도 또한 한 고을 밖을 나가지 못했는데, 무엇으로써 온 나라의 고질적인 폐단을 갖추어 알겠는가? 그러나 가까운 것으로서 미루어 보면, 먼 데 것도 알 수가 있다.”<sup>9)</sup>

김정호의 경우에도 정밀한 지도를 만들기 위하여 전국을 두루 답사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연구자는 드물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 사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사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자.

a) 여지학을 좋아하여 깊이 고찰하고 널리 수집하여…… (『이향견문록』)<sup>10)</sup>

b) 김정호는 어려서부터 지도와 지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랜 세월 동안 찾고 살펴 여러

9) 鄭尙謙, 『農圃問答』 祛弊療.

10) 劉在建, 『里鄉見聞錄』, “癖於輿地之學 博攷廣蒐”.

도법에 상세히 알아 매년 조용한 시간에 간편한 비람식을 확실히 얻어…… (『청구도 제문』)<sup>11)</sup>

c) 나는 일찍이 우리나라 지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비변사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나 옛날 집에 좀먹다 남은 지도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증거로 삼고 여러 지도를 서로 대조하고 여러 지리지 등을 참고하여 하나의 완벽한 지도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나는 이 작업을 김백원(金百源)에게 위촉하여 완성하였다. (『대동방여도 서문』)<sup>12)</sup>

가)는 유재건이, 나)는 최한기가, 다)는 신현이 쓴 기록들이다. 이 세 사람은 김정호와는 같은 시기에 활약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김정호가 전국을 두루 답사하였다고 지적한 사람은 없다. 세 사람 모두 오로지 기존의 지도들을 두루 모아 좋은 점을 따서 집대성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호는 유재건이 지적한 것처럼 “깊이 고찰하고 널리 자료를 수집”했거나, 최한기가 말한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자료를 찾고 수집 열람”했으며, 신현이 말한 대로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증거로 삼거나”, “여러 지도들을 상호 비교”하여, 『청구도』나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심나는 곳은 직접 답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동인의 지적처럼 단발은 프랑스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지만 당시로는 가장 정확한 세계 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방동인, 1985).

## ⑥ 김정호의 옥사설

김정호 옥사설(獄死說)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이 옥사설을 강력히 부인한 이병도는 그 근거로 여러 가지를 들었다. 김정호가 만든 지도나 지지 어느 것 하나 몰수당하거나 압수당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이병도, 1971). 필자도 옥사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고종실록』·『승정원 일기』·『추국안』 등을 검토해 보았지만 그러한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김정호의 옥사설이 허위라는 근거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호가 만든 지도나 편찬한 지지가 하나도 손상당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다(京城帝大, 1925).

둘째, 국가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동여지도』의 판목을 압수하여 소각했다고 했

11) 崔漢綺, 「靑邱圖題」, 「靑邱圖(乾)」, “金正浩 年自童冠 深留意於圖志 歲久搜閱 詳審去之輪贏 每值靜閑 時確論求得 比覽式簡便”.

12) 申穗, 「大東方輿圖序」, 「琴堂初稿」(奎古 3428-339), “余嘗有意於我東輿圖 如籌司奎閣之藏 古家之餘 廣蒐而證定 參互群本, 援據諸書 合以裒輯 因謀金君百源 屬以成之”.

는데 현재에도 『대동여지도』 판목 1매가 송실대 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다. 또 1931년의 경성대 『고도서전관목록』에 의하면 판목 2매가 당시 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품을 꺼리는 일본인이 수십 매를 비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양선도 『대동여지도』 판목을 소유하고 있었으며(김양선, 1960), 최성환 후손들의 증언에도 『대동여지도』 판목들이 남아있었다<sup>13)</sup>고 하였다.

또 광복과 함께 일제로부터 박물관 소장품을 인계받은 국립중앙박물관 인수목록에 『대동여지도』 판목 1조(組)를 인수받은 기록이 있다. 이 판목은 한국전쟁 때 망실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판목 1조는 1매가 아닌 여러 매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조사에 의하여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15매의 대동여지도 판목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유추해 볼 때 『대동여지도』 판목은 압수당하지 않았었다.

셋째, 유재건이 『이향견문록』에 죄인을 수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 유재건은 김정호가 몰(沒)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류재건, 1862). 만약 김정호가 옥사했다면 물고(物故)당했다고 표기해야 옳다.

넷째, 김정호가 옥사를 치렀다면 김정호와 교류하였던 최한기나 재정적 후원자였던 최성환·신헌 등도 연루되어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았어야 할 텐데 그러한 기록이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한다면 김정호는 옥사하지 않았으며 그의 옥사설은 일제가 그들의 식민통치를 위하여 조작하고 날조한 사실인 것이다.<sup>14)</sup>

### ⑦ 김정호의 신분과 사상

김정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전기는 전혀 없다. 따라서 다음에서 제시할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만 그의 신분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첫째, 『이향견문록』에 수록된 인물들의 신분을 통해서 김정호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유재건은 『이향견문록의례(里鄕見聞錄義例)』에서 마을에서 그 아름다운 행적을 기릴 수 있는 사람 중에 기록이 인멸하여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한탄하여 『이향견문록』을 편찬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 책은 전기가 전해지지 않는 하층계급 출신으로서 각 방면에 뛰어난 인물들의 행적을 모았다. 그러므로 『이향견문록』의 성격상 여기에 수록된 김정호도 하층계급 출신이었던 것이다.

13) 崔永達 씨 증언(忠北 淸原郡 江內面 多樂里 거주 현 73세).

14) 『朝鮮語讀本 5』 출처.

둘째, 신현의 『대동방여도』 서문을 통해서도 김정호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다. 서문 중에 신현은 김정호를 “김군백원(金君百源)”이라고 하였다. 신현은 순조 11(1811)년에 태어났고 김정호는 순조 3, 4년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연령적으로는 김정호가 연상이다. 그런데도 이 글에서는 김정호를 김군(金君)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김정호의 신분은 신현에 훨씬 못 미쳤던 것이다. 연하자가 연상자에게 김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현이 신분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같은 양반 출신이면 김공(金公)이라고 표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성명을 적지 않고 성과 자만을 적고 있으며 자(字)도 부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김정호는 신현과는 다른 신분계층으로서 양반은 아니었다.

셋째, 김정호의 족보가 없다는 점이다. 청도김씨 대동보에 의하면 김정호는 봉산파로 분류되어 있는데 6·25동란으로 인하여 봉산파가 실계(失系)된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6·25동란과 관계없이 구보(舊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김정호는 구보에도 실려 있지 않다. 이는 김정호가 족보도 갖지 못한 한미한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비롯하여 많은 지도를 제작한 점으로 미루어 상당한 지식을 지닌 계층이었던 듯하다. 아마 그는 잔반(殘班)계층이거나 중인계층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다음으로 김정호의 사상을 살펴보겠다. 김정호는 3대지지를 편찬하였지만 자기의 생애나 사상을 나타내는 글을 남기지 않았다. 『지도유설』 등은 김정호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나름대로 인용하면서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동여도지』에는 다음과 같은 그의 자서문(自序文)이 있어 김정호의 사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대개 여지학에는 지도와 지지가 있는 것은 오래 되었다. 지도는 직방씨가 있고 지지는 한서가 있다. 지도로 천하의 형세를 살필 수 있고 지지로 역대의 제작(制作)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큰 틀이다.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도적(圖籍)이 없는데 삼국사기나 고려사부터 지지가 실리게 된다. 신라 통합 이전에는 군현이 설치된 경우 이름은 있으나 가리키는 곳이 없으며, 강역의 진퇴도 역시 기록은 있으나 준거할 만한 것이 없다. 아무리 훌륭한 역사가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가려 낼 수가 없다. 다만 중국이나 우리나라 여러 역사책에 실려 있는 사실을 근거로 혹은 옳다고 하나 잘못됨이 없지 않아 후에 논변자들이 갖다 맞추나 확실히 질정할 수가 없다.”<sup>15)</sup>

이처럼 『동여도지』 서문은 김정호가 지지나 지도를 제작하면서 『지도유설』 등에서처럼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한 것과 달리, 지지나 지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한 유일한 사료이다. 이 자서문에 나타난 김정호의 역사지리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호는 도(圖)와 지(志)를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지지(地志)가 있어야만 하고 그래야만 주현과 산수의 고금에 따른 설시분합(設施分合)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지지가 있으면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준산거해(峻山巨海)에 가로막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도 지도의 분율(分率)을 이용하여 원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준망(準望)을 통하여 피차의 실체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경위(經緯)와 도리(道里)를 잘 살펴 진상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호는 지도로써 천하의 형세를 살필 수 있고 지지로써 역대의 제도와 문물을 헤아려 볼 수 있으므로 도(圖)와 지(志)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위국(爲國), 곧 치국(治國)의 대경(大經)이라고 하여 도와 지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관(童冠) 시절부터 죽는 그 날까지 지도를 제작하고 지지를 편찬하였던 것이다.

둘째, 지도와 지지는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기(檀箕) 이래 지도가 없고 지지는 『삼국사기』에 이르러 비로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의 군현 설치와 강역의 변동을 알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단군 이래 고려시대까지의 국토·강역·풍속·관제 및 제국과의 전쟁 상황을 별도로 편찬하여 지지의 첫머리에 둔다고 하였다.

셋째, 조선 초기에 『동국여지승람』이 만들어져 비로소 도적(圖籍)이 환연해졌지만 자신이 살던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동국여지승람』이 만들어진 지 3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현 진보(鎭堡)의 혁치(革置)나 호구·전부(田賦)의 증감 등이 차이가 많아졌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동여도

15) 「東輿圖志序」, “夫輿志之有圖有志 古也 圖有職方 志自漢書, 圖以觀天下之形勢 志以推歷代之制作 實爲國之大經也 惟我東邦 自檀箕以降 圖籍無微 地志始著 三國高麗二史 而新羅統合以前 則其郡縣之設置 或有名而無指 疆域之進退 亦有記而無準 雖以太史之筆 不能確辨 只據中朝我東諸史所載 或有似是而不無舛謬 後之論者 畿近於牽合 而亦無得而質焉 自新羅九州以後 州縣有定 沿革有微 至于本朝 撰輿志勝覽 圖籍煥然 於東方肇基之後 凡載地之類 莫不包括 猶歎盛哉 于今三百餘年之間 州縣鎭堡之革置 戶口田賦之增減 自有不同 可以因時釐正 於是 考閱諸家之圖 按經緯而區分延袤 蒐羅史傳諸書 例勝覽而刪翼門目 門凡四十二編 凡八十五 名爲東輿圖志 若覽圖以觀其形勢 而推其制作 則規模通變 在其中 豈非爲國大經歟 蓋歷代輿志之圖志 非徒民物之記載 山川之勝蹟 而治國經濟 莫向於此 故文教武備 皆有於是 若觀防驛站學校祠院是也 州縣本無界而人裁之 山水元無定號而人名之 設施分合 古今隨宜 併省改隸 代序異經 故有史必有志也 至於峻山巨海之隔 絕域殊方之 非分率無以辨遠近之實 非準望無以正彼此之體 又以經緯高下 校夷險 審道里 眞像可見 故有地必有圖也 本國三面環海 而成平兩道內外 則自秦漢以來 至于胡元 界限之靡縮無常 皇明初界以頭溝鴨綠兩江 而地志始見三國 則三國以前 兩江以北 不復可考矣 故檀氏至于勝國 其國都疆域風俗官制及戰爭諸國 別以歷代標題 本朝八道所領州縣 凡三百三十有四 以圖輿志相體用 形勢制作在其中 則庶有補於爲邦之道云 當寧十二年辛酉仲秋 金正浩 伯元書”.

지』를 만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諸家)의 지도를 고열하여 경위선식으로 지도를 작성하고 전해 오는 사서들을 모두 모아 『동국여지승람』의 예에 따라 문목을 산익하여 42문 85편의 『동여도지』를 만들었다. 42문은 각 주현의 연혁·방면 등을 42개 항목으로 나누어 편찬했음을 말한다.

넷째, 김정호가 도와 지를 제작한 것은 치국경제에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그는 『동여도지』에서 문교무비(文教武備)에 해당하는 관방과 역참, 학교와 사원 등 42개 편목을 상술하거나 표기하여 도와 지가 서로 체용(體用)하여 나라의 다스리는 도(道)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원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평생에 걸쳐서 지지와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일신상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로매진한 그의 뜨거운 마음씨를 알 수 있다.

다섯째, 『동여도지』는 그가 동관 시절부터 뜻을 두고 편찬하기 시작하여 순조 34(1834)년에 1차적으로 완성을 보았으며, 그 후 계속적인 보완 작업 끝에 철종 2(1851)년에 『여도비지』로 2차적인 완성을 이루었고 그 후 『대동지지』로 종합하였던 것이다.

## 2) 김정호의 삼대지지(三大地志) 분석

고산자 김정호와 그의 역저인 『청구도(靑邱圖)』·『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대동지지(大東地志)』는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생몰연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터에 이 저작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고 어느 정도의 역사적 의의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김정호의 생애를 전기적으로 살펴본 글들이 있으며(류재건, 1862; 정인보, 1955; 문일평, 1941; 이병도, 1969; 정형우, 1974). 그의 저작물에 대한 제한적인 해설(홍이섭, 1966; 이병도, 1971; 1975; 이찬, 1977; 전상운, 1979; 방동인, 1985)과 『대동여지도』에 관한 연구(박관섭, 1978)가 시도되었다.

김정호는 평생에 걸쳐 영남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여도지』를 편찬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최성환(崔瑔煥)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여도비지』를 편찬하였으며 이 두 지지(地志)를 종합하여 『대동지지』를 편찬하다가 미완인 채 죽었다. 이들 삼대지지(三大地志)에 대해서 먼저 고찰해 보자.

## (1) 『동여도지(東輿圖志)』

### ① 편찬 시기

『동여도지』는 22책으로 편찬된 지지(地志)로서 김정호가 최초로 그리고 거의 평생에 걸쳐 보완해 나간 지지로, 현존본은 모두 그의 육필본(肉筆本)이다.<sup>16)</sup> 이 『동여도지』를 편찬하기 시작한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최한기(崔漢綺)의 『청구도』의 제문(題文)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제문에 의하면<sup>17)</sup> 김정호는 동관(童冠)의 나이부터 지도와 지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보이는 동관은 대략 18, 19세가량의 나이를 지칭하는 것 같다.<sup>18)</sup> 김정호가 이때부터 『동여도지』를 편찬하기 시작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시기부터 편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추정된다.

이 『동여도지』가 일차적으로 편찬·완성된 시기는 순조 34(1834)년이다. 왜냐하면 『동여도지』 제6책 권11 청주목 연혁조 기사에 “순종 25년에 현을 강호하였고 34년에는 다시 예전으로 돌렸다”<sup>19)</sup>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은 『동여도지』 주현 연혁조 기사 중 가장 늦은 기록이다. 또 『동여도지』는 『청구도』 작성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편찬되었고 『청구도』의 제작 시기는 순조 34년 가을이다. 물론 이후에도 김정호는 『동여도지』를 계속 보완해 나갔지만 책의 상하나 좌우 등 여백을 이용하여 첨부하였으므로 일차적 편찬이 완성된 시기는 이 때일 것이다.

그러면 『동여도지』는 몇 년에 걸쳐 편찬되었을까? 이 문제는 김정호의 생장 연대를 그의 막역한 친구였던 최한기와 그의 재정적 후원자였던 최성환의 생장 연대와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문을 풀 수 있다. 김정호의 막역한 친구였던 최한기는 순조 3(1803)년에 태어나서 고종 14(1877)년에 죽었고(이우성, 1971), 최성환은 순조 13(1813)년에 태어나서 고종 28(1891)년에 죽었다.<sup>20)</sup> 그런데 김정호는 『대동지지』 편찬을 고종 3(1866)년까지 계속했으므로 이로 미루어 본다면 김정

16) 현재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동여도지』 17책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동지지』 15책은 고산자 김정호의 친필본이다. 『대동지지』가 김정호의 육필본임은 정인보가 『海國圖學散稿』, 『朝鮮古書解題』, 『大東輿地圖條』에서 자세히 논증하였다. 필자 또한 두 지지의 서체를 면밀히 대조한 결과 두 지지의 필체가 똑같은 것을 확인하였다. 『동여도지』가 영남대에 소장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초 김정호의 후예로 추정되는 사람이 통문관 李謙魯에게 이 책들을 맡기고 돈을 빌려갔다가 이 돈을 갚지 못하자 후에 다시 찾아와 아예 이 책을 통문관에 팔고 갔다. 그 후 통문관에서는 이 책을 비롯하여 고지도 기획전을 열었는데 당시 영남대 총장이던 李瑄根이 일괄 구입하여 영남대가 소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여도지』는 영남대 소장본 17책 이외에 서울대 규장각의 『가람문고』에 두 권이 落秩로 보관되어 있다.

17) 崔漢綺, 『靑邱圖序』, “金友正浩 年自童冠 深留意圖志”.

18) 『大漢文辭典』3, 法仁文化社, 1987, 2340쪽, “童冠年將及冠的童子”.

19) 『東輿圖志』卷11, 忠淸道 淸州牧 沿革條, “純宗二十五年降縣 三十四年復舊”.

호는 적어도 이때까지는 생존했었다.

그러므로 김정호가 대략 60여 세까지 살았다는 항설을 인정한다면<sup>21)</sup> 그는 순조 4(1804)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최한기가 순조 3(1803)년에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막역한 친구였으므로 김정호가 순조 4(1804)년경에 태어났다고 추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본다.<sup>22)</sup> 그렇다면 동관년(童冠年)을 18, 19세로 보았을 때 김정호는 1822년에서 1823년경부터 『동여도지』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1834년에 끝냈으므로 대략 10여 년 정도의 기간을 소요하였을 것이다. 즉 김정호는 그의 나이 18, 19세에 시작하여 28, 29세 쯤에 『동여도지』를 1차적으로 편찬·완성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을 시방서로 하여 『청구도』를 작성했다.

## ② 편찬 체재

김정호가 『동여도지』를 편찬한 목적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爲邦之道)’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있었다.<sup>23)</sup> 그는 『동여도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편찬 목적을 밝히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한 후 300여 년이 흘러 주현 진보(鎭堡)의 혁치(革置)나 호구(戶口)·전부(田賦)의 증감이 『동국여지승람』 편찬 때와 많이 달라졌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당시 전해 오는 여러 사서들을 모아 『동국여지승람』의 예에 따라 문목을 산익하여 문은 무릇 42문, 편은 85편으로 체제를 잡아 『동여도지』를 편찬한다.”<sup>24)</sup>

여기에서 『동여도지』가 『동국여지승람』의 체제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여도지』는 가로 11.3cm이고, 세로 16cm의 소책자로 총 20책으로 되어 있다. 현재 제8·제14·제18책 등 3책은 결본(缺本)이어서 17책만 남아 있다. 표지의 책명은 ‘여지(輿志)’라고 표기된 것이 17책 가운데 14책이고, 3책은 ‘대동여지통고(大東輿地通考)’라고 표기되어 있다. 책 내용의 권 표시는 모두 『동여도지』라고 되어 있으며<sup>25)</sup> 권

20) 白賢淑, 앞의 글.

21) 김정호가 대략 60여 세까지 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2) 정인보는 김정호가 1865년까지 생존한 것으로 보았으며 金良善은 1804~1866까지 생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구체적인 史實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3) 『東輿圖志』 卷2, 「東輿圖志序」.

24) 위와 같음.

[표 6-11] 『동여도지』 총목

책수	표지권	표지명	내용 권수	편찬자 명
1책	輿志 1	歷代州縣	東輿圖志 卷1	金正皞圖編
2책	輿志 2	京都	東輿圖志 卷2, 3, 4	金正皞圖編
3책	輿志 3	京圻四都	東輿圖志 卷5, 6	金正皞圖編
4책	輿志 4	京畿左道	東輿圖志 卷7	金正皞圖編
5책	輿志 5	京畿右道	東輿圖志 卷8, 9, 10	金正皞圖編
6책	輿志 6	忠淸道	東輿圖志 卷11, 12	金正皞圖編
7책	輿志 7	忠淸道	東輿圖志 卷13, 14	金正皞圖編
8책	缺	缺	缺	缺
9책	大東輿地通考	嶺南志	東輿圖志 卷17, 18	金正皞圖編
10책	輿志 10	嶺南志	東輿圖志 卷19, 20	金正皞圖編
11책	大東輿地通考	湖南志	東輿圖志 卷21, 22	金正皞圖編
12책	大東輿地通考	湖南志	東輿圖志 卷23, 24	金正皞圖編
13책	輿志 13	全羅	東輿圖志 卷25, 26	金正皞圖編
14책	缺	缺	缺	缺
15책	輿志 15	江原	東輿圖志 卷29, 30	金正浩編
16책	輿志 16	江原	東輿圖志 卷31, 32	金正皞編
17책	輿志 17	黃海	東輿圖志 卷33, 34	卷33 金正皞編 皞卷34 金正浩編
18책	缺	缺	缺	缺
19책	輿志 19	咸鏡	東輿圖志 卷36	金正皞編
20책	輿志 20	咸鏡	東輿圖志 卷37	金正皞編

\* 平安道志 缺本

자료 : 영남대학교 소장본을 중심으로 필자가 작성.

차(卷次)가 권1에서부터 권37까지 매겨져 있는데 함경도까지만 기술되어 있고 평안도편은 결본(缺本)이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도 『동여도지』 두 권이 현존한다.<sup>25)</sup> 한 권은 역대 풍속·역대 관제 등을 서술하고 있으며, 다른 한 권은 『정리고』로서 『도리고』에 해당한다. 이 두 권까지 합치면 『동여도지』는 총 19책이 현존하며 평안도편은 결본일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김정호의 또 하나의 육필본인 『대동지지』에도 평

25) 『동여도지』의 표지 책명은 '輿志', '大東輿地通考'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내용의 권수 표시는 모두 「동여도지」로 되어 있고 권2의 김정호 自序文에서도 지지의 명칭을 「동여도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필자도 이 지지를 「東輿圖志」라고 통칭한다.

26) 『東輿圖志』(奎章閣, 가람古 951.01-G421d); 程里考(奎 7546).

[표 6-12] 『세종실록지리지』·『경상도속찬지리지』·『동국여지승람』·『동여도지』 편목 비교

分類	編目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東國輿地勝覽	東輿圖志
		總論	一般郡縣	續撰地理志		
行政	沿革	○	○	○		
	建置沿革				○	○
	屬縣				○	○
	鄉所部曲		○	○		
	鎮管				○	○
	所領	○	○	○		
	官員		○	○	○	○
	土官				○	
	郡名				○	
	院宇			○	○	
	橋梁			○	○	○
	有名嶺縣			○	○	○
	渡津			○	○	○
	程途			○	○	
海島			○	○	○	
四境	○	○	○			
越境處		○				
經濟	土產		○		○	○
	倉庫				○	○
經濟	貢稅		○	○		
	堤堰		○	○		○
	監盆			○		
	種養藥材	○		○		
	魚梁		○	○		
	陶器所		○	○		
	磁器所		○	○		
	歲貢			○		○
	賦稅	○				
	貢物	○				
	藥材	○	○			
	土宜		○			
	鹽所		○			
	鹽盆			○		
墾田	○	○				
戶	○	○			○	
口	○	○			○	
灌溉田結				○		
軍事	城郭		○	○	○	○
	關防				○	○
	烽燧				○	○
	烽火		○	○		
	驛		○	○	○	○

分類	編目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續撰地理志	東國輿地勝覽	東輿圖志
			總論	一般郡縣			
軍事	主鎮 講武場 牧場			○	○ ○ ○		○
	鎮	軍官 守城軍 騎兵 步兵	○ ○		○ ○		○ ○
		水營	兵船 船軍	○ ○		○ ○	○
	木柵 險阻要害 緊關 野人所居 兩界本營 軍丁			○ ○ ○ ○ ○	○ ○ ○ ○ ○		○
社會	姓氏			○			
禮俗	風俗			○		○	○
	民俗			○			
	宮室					○	○
	樓亭					○	○
	樓台				○		
	學校					○	
	佛宇					○	
	僧寺			○	○		
	祠廟			○	○	○	○
	陵墓			○	○	○	○
	古跡					○	
	守令名賢				○		
	名宦					○	
	人物			○		○	
	土姓名賢				○		
	寓居					○	
孝子					○		
烈女					○		
旌表問題				○			
題詠				○	○		
行祭所			○				
靈異			○				
自然 環境	山川					○	○
	形勝					○	○
	名山		○	○			○
	大川		○	○			○
	溫泉		○	○			
	冰穴		○	○			
	風穴 土質			○ ○			

안도편은 일부 결본이고 남아 있는 평안도편의 지지도 김정호의 친필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첨부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김정호는 평안도편은 편찬하지 않은 듯하다. 『동여도지』를 표로 작성하면 (표 6-11)과 같다.

다음으로 『동여도지』의 편목을 살펴보면, 각 도의 첫머리에는 도세(道勢)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각도의 연혁·분도(分道)·진관(鎭管)·관원(官員)·고읍·방면(坊面)·명산·영로(嶺路)·대천(大川)·도서(島嶼)·강역·형승(形勝)·풍속·영진(營鎭)·성지(城地)·관방(關防)·해방(海防)·진보(鎭堡)·호구·전부(田賦)·군병·역도(驛道)·도리(道里)·창고·곡총(穀摠)·토산(土産)·장시·발참(撥站)·봉수·진도(津渡)·목장·봉산(封山)·제언(堤堰)·누정·능묘·사원(祠院)·사찰 등 42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각 주현의 편목은 도세(道勢)의 편목과 비슷하게 연혁·고읍·산류(山類)·수류(水類)·강역·형승·풍속·방면·호구·전부·영진·성곽·군병·창고·곡부(穀簿)·봉수·역참·원점(院店)·진도(津渡)·교량·목장·토산·장시·궁실·누정·능묘·단유·묘전·전고 등 3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서술하고 있다. 이는 『청구도』 범례에서 제시한 38개 항목과 거의 동일하며 각 주현의 사정에 따라 해당 항목이 없을 때는 생략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김정호는 지지(地誌)는 지도의 근원이며 지도에 다 나타내지 못한 것을 기록하고, 주현의 형편에 따라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표기하되 그가 제시한 38개의 항목에 따라 어기지 말고 지도와 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7)</sup>

위 편목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호구항에서 인용한 통계는 순조 무자년(1828)식의 민호와 인구를 적고 있으며, 전부(田賦)항은 순조 정묘년(1807)의 원장(元帳)을 인용하고 있다. 군병(軍兵)항은 순조 무자년(1828) 통계를 적고 있으며, 곡부(穀賦)항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통계는 그가 지지를 편찬할 때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자료에 입각해서 인용되었던 것이다.

『동여도지』는 김정호가 『동여도지』 서문에서 제시하였듯이 『동국여지승람』의 체재를 모방하여 주현의 건치 연혁(建置沿革) 등은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 그 한 예로 두 책에 실려 있는 함경도 길주목의 연혁을 비교했을 때<sup>28)</sup>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동여도지』의 내용이 약간 자세한

27) 『靑邱圖』 凡例條.

28) 『東國輿地勝覽』 吉城建置沿革條, “本高句麗舊地 久爲女眞所據 高麗睿宗二年 遣尹瓘吳延寵 率兵十七萬 遂女眞 畫定地界 東至火申嶺 北至弓漢嶺 西至蒙羅骨嶺 以爲我疆 於弓漢村築六百七十間 號吉州 三年治防禦使 六年築中城 尋以地還女眞 後沒於元 稱海洋 恭愍時收復 恭讓王二年置吉州等處管軍民萬戶府 以英州及宣化等鎭 皆屬於州 本朝 太祖七年 改吉州牧 世祖十三年 李施愛以州

정도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동국여지승람』 이전의 사실은 거의 그대로 전사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시애의 난을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정확히 세조 13(1467)년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sup>29)</sup> 김정호는 『동여도지』에서 세조 12(1466)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표기하였다.<sup>30)</sup> 이는 김정호가 전사하다가 발생한 오류로 추정된다.

그 외에 두 책에 수록된 특산물 항의 산물류(産物類)도 거의 비슷하다. 두 지지의 편목을 비교해 보면 김정호가 『동국여지승람』을 근거로 『동여도지』를 편찬하였음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표 6-12)는 이들 편목을 비교한 것이다(정두희, 1976).

### ③ 『동여도지』와 『청구도』

김정호는 지지가 지도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였다.<sup>31)</sup> 『청구도』와 같은 대지도를 만드는 데 지지라는 시방서(示方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청구도』는 『동여도지』라는 시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동여도지』의 1차 편찬완료시기가 순조 34(1834)년으로 『청구도』의 제작연대와 일치하고 있다.<sup>32)</sup>

[표 6-13] 『동여도지』와 『청구도』 비교표

項目	戶口(戶)		田賦(結)		穀賦(石)		軍兵(名)	
	東	靑	東	靑	東	靑	東	靑
富寧	3,082	3,000	2,611	2,500	73,138	73,100	2,435	2,400
長淵	5,897	5,800	3,561	3,500	19,553	19,500	5,977	5,900
江陵	5,477	5,400	1,864	1,800	12,776	12,700	3,561	3,500
永平	1,655	1,600	1,034	1,000	8,273	8,200	1,267	1,200
淸州	13,314	13,300	19,311	19,300	11,944	22,000	12,819	12,800
南原	9,161	9,100	12,569	13,500	30,711	30,700	11,434	11,400
山淸	2,097	2,000	2,248	2,200	19,615	19,600	3,590	3,500

\* 東은 『동여도지』, 靑은 『청구도』 표시임.

叛討平之 睿宗元年降爲縣改今名 割州北永平等地 別置明川縣 今上七年革明川縣來屬 陸爲州置牧使判官 八年 還置明川縣革判官”。  
『東輿圖志』 吉州牧 沿革條, “本高句麗舊地久爲女眞所據 高麗睿宗二年 遣尹瓘吳延寵 率兵十七萬 擊遼女眞 畫定地界 東至火串嶺 北至弓漢嶺 西至蒙羅骨嶺 以爲我疆 於弓漢里村 築城郭六百七十間 號吉州 三年治防禦使置戶七千 四年撤城還其地于女眞 後沒於元 稱海洋 恭愍王五年按圖收復 恭讓王二年置雄吉州等處管軍民萬戶府 以英州及宣化等鎮 皆屬於州 本朝太祖七年改吉州牧 世祖十二年 李施愛以州叛討平之 睿宗元年降爲吉州縣監 割州北永平等地 別置明川縣 中宗七年革明川縣來屬 復爲吉州牧 別置判官 八年復降爲縣 還置明川縣……”。

29) 『東輿圖志』 咸鏡道 吉城 建置沿革條; 『世祖實錄』 卷42, 13年 5月 庚辰, (8)74b~c.

30) 『東輿圖志』 咸鏡道 吉州牧 沿革條.

31) 金正浩, 『靑邱圖』 凡例.

구체적으로 『청구도』와 『동여도지』를 비교하면 『동여도지』에 기록되어 있는 고읍·산류·방면·호구·전부·성곽·군병·창고·곡부·역원·진도·능묘 등이 『청구도』에 똑같이 기재되어 있다. 또 각 주현에 파견되는 행정관원의 등급도 두 책에 똑같이 표기되고 있다. 『동여도지』 1차 편찬 완료 이후의 행정체제 변화가 『청구도』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일치한다. 참고로 팔도에서 각각 1개의 행정구역을 추출하여 『동여도지』와 『청구도』에 기록된 호구·전부·군병·곡부 등을 비교해 보면 (표 6-13)과 같다.

(표 6-13)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호는 『동여도지』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도』를 작성하였다. 『청구도』는 지지의 사실을 모두 기록할 수 없으므로 백단위로 간략하게 통계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부령의 전부(田賦)조에 『동여도지』는 전(田)이 1,171결, 답(畓)이 11결, 속전(續田)이 1,429결로 도합 2,611결이므로 2,600결로 『청구도』에 표기해야 하는데 전 1,100결과 속전 1,400결로 어림잡아 2,500결로 100결이 차이나게 『청구도』에 표기되어 있다. 또 장연의 호수가 『동여도지』에는 5,897호로 되어 있는데 『청구도』에서는 백호 단위로 끊어 5,900호로 하지 않고 5,800호로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도』는 『동여도지』를 근간으로 작성되었던 것이다.

## (2) 『여도비지(輿圖備志)』

### ① 편찬 시기

『여도비지』는 20책으로 1책이 1권씩 20권으로 되어 있다. 『동여도지』에는 평안도편이 빠져 있는데 비해 『여도비지』에는 모두 갖추어져 있다. 『여도비지』의 편찬에는 최성환의 물심양면에 걸친 후원이 있었다. 김정호가 『청구도』를 완성한 후 계속 보완해 온 『동여도지』의 보완 부분을 정서(整書)한 지지이기도 하다.<sup>32)</sup>

이 지지의 편찬 시기는 『여도비지』 제1책 경도 묘전(廟典)조의 헌종(憲宗)을 종묘에 모신 기록<sup>34)</sup>과 동 궁묘조의 은언군묘(恩彦君廟)와 전계대원군묘(全溪大院君廟)를 “주상전하가 기유년에 세

32) 지금까지 김정호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은 대부분이 『청구도』와 『대동지지』를 연결시키고 있다. 즉 『청구도』는 『대동지지』의 附圖的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동지지』는 1866년경까지 편찬되었고 『청구도』는 1834년에 제작되었는데 어떻게 『청구도』가 『대동지지』의 부도가 될 수 있겠는가? 부도를 먼저 만들고 지지를 후에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33) 『동여도지』에는 欄外에 첨기한 내용들이 『여도비지』에는 본문으로 정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여도비지』는 고산자 김정호의 친필본이 아니고 寫員에 의해 깨끗하게 정서되어 있다.

34) 『輿圖備志』 卷1, 京都 廟典條.

우다(主上殿下 己酉建)<sup>35)</sup>라는 기록에서 추정할 수 있다. 현종은 철종 2(1851)년에 종묘에 부모되었고,<sup>36)</sup> 은언군은 철종의 조부이고 전계대원군은 철종의 생부이다. 그러므로 이 기사에서 말하는 주상은 철종을 가리키며 기유년은 철종 즉위년(1849)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여도비지』는 철종의 재위년인 1849~1864년 사이에 편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순조의 묘호를 모두 순종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묘호는 철종 8(1857)년 지돈녕 이학수(李鶴秀)의 상소에 따라 조공종덕(祖功宗德)의 원칙에 입각하여 순조로 바뀌게 된다.<sup>37)</sup> 그러므로 『여도비지』의 편찬 시기는 철종 8(1857)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는 순조릉인 인릉(仁陵)의 천봉(遷奉) 기사이다. 인릉은 처음 교하현에 봉안되었다가 철종 7(1856)년 2월에 양주 현릉 우측으로 천봉이 결정되었고 그 해 9월에 천봉이 시작되어 10월에 완료되었다.<sup>38)</sup> 그런데 『여도비지』에는 인릉의 위치를 교하현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여도비지』의 편찬 하한선은 철종 7(1856)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편찬 상한선을 살펴보자. 현종을 종묘에 부모하고 그의 어진(御眞)을 태묘전(太廟殿)과 선원전(璿源殿)에 각각 봉안한 것이 철종 2(1851)년인데 이 기사들이 『여도비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sup>39)</sup> 상한선은 이 해를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도비지』는 철종 2(1851)년부터 철종 7(1856)년까지의 6년 사이에 편찬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도비지』는 『동여도지』를 저본으로 김정호의 보완 내용을 정서(精書)한 것이므로 6년이나 되는 긴 세월이 소요되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현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도비지』는 이를 반영하듯 『동여도지』와는 달리 매우 깨끗하게 정서되어 있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더 이상은 『여도비지』의 편찬 시기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

## ② 편찬 체제

『여도비지』는 경도 및 팔도에 관한 지리지인데 최성환이 휘집(彙集)하고 김정호가 도편(圖編)하였다.<sup>40)</sup> 총 20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책이 결본이고 현재는 15책만 국립도서관에 필사본으로

35) 『輿圖備志』 卷1, 京都 宮廟條.

36) 『哲宗實錄』 卷3, 2年 4月 庚申, (48)561b.

37) 『哲宗實錄』 卷9, 8年 8月 丁巳, (48)615b.

38) 『仁陵遷奉時禮房曆錄』(奎 12939).

39) 『哲宗實錄』 卷3, 2年 4月 庚申, (48)561b.

소장되어 있다.

『여도비지』의 목차를 살펴보면, 제1권은 경도와 동반 부서, 제2권은 서반 부서와 한성부, 제3권은 경기좌도, 제4권은 경기우도, 제5권은 충청좌도, 제6권은 충청우도, 제7권과 제8권은 경상좌도, 제9권과 제10권은 경상우도, 제11권은 전라좌도, 제12권은 전라우도, 제13권은 황해좌도, 제14권은 황해우도, 제15권은 강원동도, 제16권은 강원서도, 제17권은 함경남도, 제18권은 함경북도, 제19권은 평안남도, 제20권은 평안북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2권 서반 부서, 제5권 충청좌도, 제9권 경상우도, 제16권 강원서도, 제18권 함경북도의 5권은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19권과 제20권의 평안도편 두 책은 분류번호가 달리 보관되어 있는데<sup>41)</sup> 이는 『동여도지』의 평안도편이 결본된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도비지』의 편목은 『동여도지』와 마찬가지로 먼저 각 도의 첫머리에 도세를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도표를 첨부하여 소개하고 있다. 즉, 각 도의 건치 연혁·순영(巡營)·진관(鎭管)·병영·방영(防營)·호구·전부(田賦)·강역표·극고표(極高表)·방위표·군전적표(軍田籍表)·도리표(道里表)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여도지』 42개 문목보다 훨씬 적은 12개 문목이지만 내용은 훨씬 풍부하고, 또 12개의 문목이 모두 철저하게 지도 제작에 필요하도록 작성된 점이 특이하다. 이 중에도 강역표·극고표·방위표·도리표 등은 전적으로 지도 제작을 위하여 작성된 항목이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아도 김정호는 이 『여도비지』를 『동여도』의 시방서로 편찬한 것을 알 수 있다.

각 주현의 편목은 건치 연혁·궁실·방면·고읍·산천·형승·풍속·토산·제언·창고·장시·성지·전략·역도·영로·교량·진도·원점·사전·재용·목장·봉수 등 20여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각 도의 서두에서 도내의 호구·전부·강역·극고·방위·양전·도리 등을 도표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여도비지』의 편목은 『동여도지』의 편목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다만 지도 제작을 위한 시방서로서 좀 더 치밀하게 편찬되었다는 점을 차이로 들 수 있다.

또 『여도비지』에서는 『동국여지승람』과 마찬가지로 유사 항목을 통합하여 한 항목으로 묶었다. 건치항에는 연혁·읍호·관원·방면을, 산천항에는 산류·수류·도서·형승을, 식화항(食貨項)에는 토산·수리·재용·창고·장시를, 무비항에는 성지·고성·영아·진보·고수·전략을, 도리항에는 역도·영로·진도·원점을, 사전항에는 단유·묘전·사원·서원 등을 통합 표기하

40) 『輿圖備志』 每卷頭に “藥城 崔 璣煥 彙輯, 鰲山 金正浩 圖編”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41) 『輿圖備志』 卷1~18(國立圖書館 古 0233-3), 『輿圖備志』 卷19~20(國立圖書館 古 2770-1).

고 있다. 그리고 인물·풍속항 등 지도 제작에 불필요한 항목들은 생략하였다. 이렇게 유사 항목들을 한 항목으로 묶은 것은 최성환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성환은 여러 종류의 책을 편찬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편찬 체재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42)</sup>

### ③ 『여도비지』의 내용 분석

앞에서 지적한 대로 『여도비지』는 철저하게 『동여도』의 시방서로서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내용도 주로 지도 제작에 필요한 것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전국 주요 지점, 즉 행정구역의 극고표(極高表)를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숙종 39(1713)년에 청나라 사신 하국주(何國柱) 일행이 우리나라에 와서 상한대의(象限大儀)를 써서 한성부 종가(鍾街)의 극고(極高)를 실측하여 북위 37도 39분 15초, 북경 순천부(順天府)를 기준으로 한양이 편동(偏東) 10도 30분이라는 실측치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정조가 동왕 15(1791)년에 감신(監臣) 김영(金泳)에게 명하여 한양의 북극고도와 『여지도』의 경위선을 준거하여 8도 관찰사영(觀察使營)의 극고(極高) 및 편동서도(偏東西度)를 양정(量定)하여 극고표가 만들어졌다.<sup>43)</sup> 이 시기의 전국 주현의 극고도(極高度)가 모두 양정(量定)하였는지 아니면 김정호가 후에 실측에 의하여 양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도비지』에는 함경도 25지점, 평안도 42지점, 황해도 23지점, 강원도 26지점, 경기도 38지점, 전라도 53지점, 경상도 71지점, 도합 278개 지점의 경위도가 표기되어 있다. 그 외에도 전국 주현의 강역표, 방위표, 도리표(道里表) 등을 도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경위선식의 과학적인 『동여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 ④ 『여도비지』와 『동여도』

『동여도』는 23규(紉)로 구성되어 있는 고지도 가운데 가장 세밀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다음 논거로 미루어 볼 때 김정호의 작품이라고 추측된다.

첫째, 『동여도지』 제2책에 실려 있는 서문을 들 수 있다. 김정호는 이 글에서 지도와 지지를 만들고 이를 『동여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 지지는 『동여도지』이고 지도는 『동여도』를 뜻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 서문은 『대동여지도』를 완성하고 쓴 『대동여지도』 서문이다.<sup>44)</sup> 이와 같이 김정호는 『동여도』와 『대동여지도』를 동일시하고 있다. 『대동여지도』는 분명

42) 白賢淑,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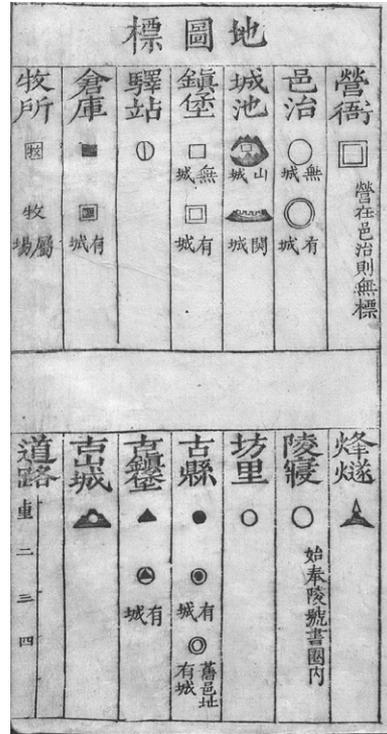
43) 『輿圖備志』 卷1, 東班存署 觀象監條 『國朝曆象考』.

한 간기(刊記)가 있기 때문에 김정호의 작품임에 틀림없지만 『동여도』 또한 그의 작품이다. 실제로 이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23규(紉)로 되어 있고 매규(每紉)에 수록되어 있는 주현수가 똑같으며 표기 내용도 거의 일치한다. 그러므로 『동여도』는 『대동여지도』를 판각하기 위하여 선행 지도로서 만들어진 것이다.<sup>45)</sup>

둘째, 신현의 『대동방여도』 서문에도 김백원(金百源)에게 위촉하여 『동여도』를 만들게 하였고 하였다.<sup>46)</sup> 우리나라 고지도 가운데 대부분이 ‘여지도’란 명칭을 사용하여 ‘동여도’란 명칭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앞서 기술한 대로 『동여도지』는 김정호의 필생의 지지이며 이 지지를 정리한 것이 『여도비지』이고 이 두 지지를 정리한 것이 『대동지지』이다. 후에 기술하겠지만 『대동지지』의 체제와 내용은 『동여도지』를 정리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동여도지』의 역대 표제(標題) 두 책의 내용이 『대동지지』에는 ‘방여총지(方輿總志)’라고 하여 전국 주현지(州縣地志) 뒤에 기술되어 있으며, 『동여도지』 「정리고(程里考)」는 전문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동여도’란 명칭은 김정호만이 즐겨 썼던 지도와 지지의 명칭이다.

셋째, 『대동여지도』의 「지도유설(地圖類說)」은 『동여도』 난외에 기재한 관자(管子)·손자(孫子) 등의 「지도론」, 고조우(顧祖禹)의 『방여기요(方輿紀要)』 서문, 백만금(百萬金)의 「지도론」 등을 종합하여 서술한 데 불과하다.<sup>47)</sup>

넷째, 『동여도지』에 표기된 지도표(地圖標)와 『대



[그림 6-59] 『대동여지도』의 지도표

44) 김정호가 「東輿圖志序」를 쓴 시기는 철종 12(1861)년 중추로 『대동여지도』 완성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45) 『동여도』를 김정호의 작품으로 단정한 것으로는 다음 글들이 있다. 李秉岐, 「韓國名著解題」 「思潮」 1-12 부록;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韓國圖書解題」, 1971, 154쪽; 盧禎植, 「金正浩 板刻의 地球前後圖에 관한 研究」 「大邱教大論文集」 8, 1973, 258쪽.  
 46) 申穗, 「大東方輿圖序」, 『琴堂初稿』. 이 사료는 수원에 사는 서지학자 李種學 씨에 의해 발굴되어 신문에 보도되었다(중앙일보, 1987년 4월 3일).  
 47) 『동여도』 第2紉의 管子·孫子의 「地理論」, 說者曰의 「地圖論」, 第3紉의 顧祖禹所纂 「方輿紀要序」, 正方位辨里道の二者가 方輿의 眉目이라는 「地理論」, 第4紉의 百金方의 「地圖論」, 영조 때 『여지도』의 작성 경위를 설명한 글, 第12紉의 고려 개성의 極高 소

『동여지도』에 실린 지도표를 비교하면 매우 흡사하다. 우리나라 고지도에 지도표가 정밀하게 표시된 것은 이 두 지도뿐인데, 『동여도』에는 12개의 지도표가 사용되고 『대동여지도』에는 14개의 지도표가 사용되었다. 『대동여지도』에는 고현(古縣)·고진보(古鎭堡)·고산성(古山城)의 항목을 별도로 구분시켰지만 『동여도』에는 이 세 항목을 주현(州縣)·진보(鎭堡)·성지(城池)항에 포함시켰으므로 별 차이가 없다. 단지 『동여도』에는 파수(把守)항이 있는데 『대동여지도』에서는 이 지도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지도의 지도표는 거의 유사하지만 『대동여지도』의 지도표가 『동여도』의 것보다 보다 간결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는 『동여도』는 필사본이고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이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로 두 지도표를 (그림 6-59)로 제시한다.

『여도비지』와 『동여도』 및 『대동여지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첫째,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방면(坊面)·고읍(古邑)·산천(山川)·도서(島嶼)·창고(倉庫)·성지(城池)·고성(古城)·진보(鎭堡)·역도(驛道)·영로(嶺路)·진도(津渡)·원점(院店)·사원(祀院) 등이 『여도비지』의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 둘째, 『여도비지』 제1권 동반부서(東班府署) 관상감(觀象監)조에 실려 있는 팔도 순영(巡營)의 북극고(北極高)를 정한 내용과 『동여도』 13규(糾) 여백란에 표기되어 있는 북극고 산정 내용이 똑같다. 셋째, 『대동여지도』 2규 여백란에 수록되어 있는 팔도의 주현수·대소영수·진보수·산성수·봉수수·역참수·방면수·전부수·민호수·인구수·군총수·목장수·창고수·곡총수가 『여도비지』 각 도의 도세를 총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통계표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3) 『대동지지(大東地志)』

#### ① 편찬 시기

『대동지지』는 모두 30권 15책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평안도편의 일부와 산수고(山水考) 및 변방편(邊方篇) 등이 결본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동지지』는 영남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동여도지』와 마찬가지로 고산자 김정호의 육필본이다.<sup>48)</sup> 그런데 『동여도지』에도 평안도편이 결본인 것처럼 『대동지지』에도 평안도편의 일부가 결본이며 또 남아 있는 일부도

개, 第13糾의 정조 때 八道觀察使營의 北極高 및 偏東西度, 역대 왕릉의 위치, 한양의 日出入時刻 등을 종합하여 『대동여지도』의 『지도유설』을 썼으며 申櫛의 『大東方輿圖序』도 이 글들을 바탕으로 썼다.

48) 영남대학교 소장 『동여도지』와 고려대학교 소장 『대동지지』는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독특한 필체의 김정호 육필본이다.

고산자 김정호의 친필본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깨끗이 정서된 지지이다. 언제 누구에 의해 첨부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대동지지』의 편찬 완료 연대는 지금까지 고종 원년(1864)으로 와전되어 있다. 이는 『대동지지』 첫 장에 “신라 시조 원년 갑자로부터 본조 철종 14년 계해까지는 무릇 1920년이며 32갑자에 해당된다(起新羅始祖元年甲子 止本朝哲宗 十四年癸亥 凡一千九百二十年三十二甲子)”라는 기사와 『대동지지』 권1 경도 국조기년(國朝紀年) 철종에 관한 기사 다음에 실려 있는 “주상 전하 원년 갑자(主上殿下元年甲子)”라는 기사를 근거로 고종 원년(1864)에 편찬 완료되었다고 단정했기 때문이다(이병도, 1971, 126). 물론 앞 기사의 “신라시조 원년 갑자”로부터 32갑자에 해당하는 갑자는 고종 원년(1864)에 해당되며 뒤의 기사 주상전하는 고종을 가리키고 원년 갑자는 1864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주상전하 원년 갑자(主上殿下元年甲子)” 다음 줄에 기록되어 있는 “중궁전하는 민씨이며 본적은 여주이고 부원군 민치록의 딸(中宮殿下閔氏 籍驪州 府院君致祿女)<sup>49)</sup>이라는 기사의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민씨가 왕비로 간택된 것은 고종 3(1866)년 3월이다. 『고종실록』에 의하면 고종 3(1866)년 3월 초6일에 대왕대비가 빈청에 하교하여 첨정 민치록(閔致祿)의 여식과 대혼하기로 정하고<sup>50)</sup> 민치록에게 의정부 영의정과 여성부원군의 봉작을 내렸다.<sup>51)</sup> 3월 20일에 책비례(冊妃禮)를 행하고<sup>52)</sup> 3월 21일에 친영례(親迎禮),<sup>53)</sup> 3월 22일에 대왕대비가 왕비 민씨의 조건례(朝見禮)를 받았다.<sup>54)</sup> 이와 같이 『고종실록』과 『대동지지』의 국조기년 고종조의 기사를 고려해 보면 김정호는 적어도 고종 3(1866)년 3월 이후까지 『대동지지』의 편찬을 계속했다고 볼 수 있다.

『대동지지』의 편찬 하한을 고종 3(1866)년으로 잡았을 때 상한선은 어디일까? 『대동지지』 권14 전라도 흥양군 연혁조에 “당저 10년 군으로 승격되었다(當寧十年陞郡)”는 기사와 『대동지지』 권18 황해도 문화현 연혁조의 “당저 2년 신해에 강등당하고 11년에 다시 승격되었다(當寧二年辛亥降縣監 十一年復陞)”는 두 기사가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당저 2년 신해”는 철종 2(1851)년 신해년과 일치하므로 김정호는 『대동지지』를 철종 재위년 기간부터 편찬하기

49) 金正浩, 『大東地志』 卷1, 國朝紀年 高宗條.

50) 『高宗實錄』 卷3, 3年 3月初6日.

51) 위와 같음.

52) 『高宗實錄』 卷3, 3年 3月 20日.

53) 『高宗實錄』 卷3, 3年 3月 21日.

54) 『高宗實錄』 卷3, 3年 3月 22日.

시작한 셈이다.<sup>55)</sup>

『대동지지』 권5 충청도 도세조에서 연혁을 설명할 때 철종 13(1862)년에 역적 김순성(金順成)의 태지가 청주이므로 충청도의 도명에서 청자를 빼고 공충도로 개칭한 내용이 적혀 있다.<sup>56)</sup>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김정호는 철종 12(1861)년 『대동여지도』를 완성한 후 곧 『대동지지』 편찬에 착수하여 고종 3(1866)년 이후까지 편찬을 계속했음을 알 수 있다. 김정호는 철종 13(1862)년 김순성의 난 이후에 『대동지지』 편찬에 착수하여 고종 3(1866)년 죽는 날까지 편찬을 계속하였을 것이다.

## ② 편찬 체재

『대동지지』는 『동여도지』를 근간으로 삼고 『여도비지』를 참고로 보완한 지지이다. 『동여도지』에는 역대 주현(州縣) 등 역대지가 별책으로 첫머리에 편찬되어 있는데 『대동지지』에서는 이를 맨 마지막에 『방여총지(方輿總志)』 편목으로 배열하고 있다.

『정리고(程里考)』는 『동여도지』와 마찬가지로 주현지(州縣地志) 뒤에 배열하고 있다. 『대동지지』의 총목과 『여도비지』의 총목 그리고 (표 6-14)에 제시한 『동여도지』의 총목 등 3책을 비교해 보면 전국 주현 지지의 배열이나 명칭 등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동지지』는 『동여도지』의 체재를 근간으로 하여 『여도비지』에서 추가 보충한 내용들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책의 분량을 비교하면 『동여도지』가 22책 정도이고 『여도비지』는 20책인데 『대동지지』는 15책으로 다소 그 분량이 줄어들었다. 문목을 비교하면 『대동지지』는 『동여도지』의 42개 문목보다 20개나 적은 22개 문목으로 각 도 주현의 지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동지지』의 문목은 『여도비지』의 문목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이기 때문에 『동여도지』의 세분된 문목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 다만 풍속·재용(材用)·수리·장시 등의 문목이 생략되었을 뿐이다. 특히 장시항(場市項)의 생략은 종래의 상공업 발달에 부응하기 위하여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는 주장과 상치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로써 볼 때 『대동지지』는 『동여도지』와 『여도비지』를 종합한 김정호의 마지막 지지이며 작품인 셈이다.

55) 종래의 『청구도』가 『대동지지』의 附圖라는 설명과 『대동여지도』가 『대동지지』를 참고하여 작성했다는 설명 등은 잘못이다.

56) 金正浩, 『大東地志』 卷5, 忠淸道 沿革條 欄外에 附記된 기사 내용임.

[표 6-14] 『동여도비지』와 『대동지지』의 총목

輿圖備志	大東地志	輿圖備志	大東地志
總目	總目	卷17 咸鏡南道	卷17 黃海道 10邑
卷1 京都 東班府署	卷1 京都 漢城府	卷18 咸鏡北道	卷18 黃海道 13邑
卷2 西班牙署 漢城府	卷2 京畿道 4都	卷19 平安南道	卷19 咸鏡道 15邑
卷3 京畿左道	卷3 京畿道 13邑	卷20 平安北道	卷20 咸鏡道 10邑
卷4 京畿右道	卷4 京畿道 20邑		卷21 平安道 10邑
卷5 忠淸左道	卷5 忠淸道 33邑		卷22 平安道 13邑
卷6 忠淸道 21邑	卷6 忠淸右道		卷23 平安道 10邑
卷7 慶尙左道	卷7 慶尙道 15邑		卷24 平安道 9邑
卷8 慶尙左道	卷8 慶尙道 25邑		卷25 山水考
卷9 慶尙右道	卷9 慶尙道 23邑		卷26 邊防考
卷10 慶尙右道	卷10 慶尙道 8邑		卷27 程里考
卷11 全羅左道	卷11 全羅道 18邑		卷28 程里考
卷12 全羅右道	卷12 全羅道 13邑		卷29 歷代志
卷13 黃海左道	卷13 全羅道 12邑		卷30 歷代志
卷14 黃海右道	卷14 全羅道 13邑		卷31 歷代志
卷15 江原東道	卷15 江原道 17邑		卷32 歷代志
卷16 江原西道	卷16 江原道 9邑		

### ③ 『대동지지』의 인용서목

김정호는 앞의 두 지지와는 달리 『대동지지』 서두에 이 지리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인용했던 사료명을 밝히고 있다. 그 인용서목에 의하면 중국사서 22종, 한국사서 43종의 도합 65종의 사료를 참고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중국사서나 우리나라 사서를 막론하고 이용 가능한 정사류를 모두 빠지지 않고 인용했고, 인용서목을 배열할 때에도 정사류, 관찬사료류, 사찬사료류 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고산자 김정호가 정사류를 중히 여기는 역사의식을 지녔음을 알게 한다.<sup>57)</sup>

김정호는 위에 인용한 65종 이외에도 상당수의 사료와 지도를 참조하였다. 예를 들면 『청구도』 범례에서 『기하원본(畿何原本)』의 지도식을 소개한다거나 『여도비지』 관상감(觀象監)조에서 『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를 인용하고 있지만, 인용서목에서는 모두 빠져 있다. 물론 이 두 사서가 『대동지지』에 직접 인용되지 않았지만 앞서 서술한 대로 두 지지의 정리편이 『대동지지』이므로 두 지지에 인용된 사서는 『대동지지』에도 인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7) 이병도는 김정호가 제1차 사료를 제쳐놓고 2차, 3차의 사료를 인용한 고루성을 드러냈다고 하였는데 인용서목의 배열, 본문 내에서의 고증 태도를 볼 때 김정호는 정사류를 중시하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다.

[표 6-15] 『대동지지』 인용서목록표

引用書目			
史記	漢司馬遷撰	朝鮮賦	明董越撰
前漢書	後漢班固撰	三國史	高麗金富軾撰
後漢書	宋范曄撰	高麗史	國朝鄭麟趾撰
三國志	晉陳壽撰	東國史略	國朝權近李詹撰
晉書	唐太宗御撰	東國通鑑	國朝徐居正撰
	唐房喬等撰		
南史	唐李延壽撰	東史綱目	國朝安鼎福撰
北史	唐李延壽撰	歷代總目	國朝洪萬宗撰
隋書	唐魏徵撰	東國遺事	國朝安弘撰
唐書舊	後晉劉煦撰	周官六翼	高麗金敬叔撰
新	宋歐陽修宋祁撰	國朝寶鑑	列聖朝諸臣撰
宋史	元托克托撰	輿地勝覽	國朝盧思慎徐居正撰
遼史	元托克托撰	瓊源譜略	列聖朝重修
金史	元托克托撰	大典通編	正宗乙巳奉教撰
元史	明宋濂撰	文獻備考	英宗康寅原
明史	清張廷玉撰		正宗壬子續
通鑑輯覽	建隆三十三年 奉勅撰	萬機要覽	純祖丁卯奉教撰
明一統志	明李賢等奉勅撰	松京志	純祖朝
盛京志	建隆四十四年 奉勅撰	江都志	正宗朝癸卯
廣輿記	清蔡方炳撰	關北志	正宗朝
開國方略	建隆三十八年 奉勅撰	華城志	純祖朝
高麗圖經	宋徐兢撰	南漢志	國朝洪敬謨撰
文獻通考	元馬端臨撰	關西志	正宗朝
湖南志	純祖朝	關北沿革考	國朝丁若鏞
疆域考	國朝丁若鏞撰	朴氏溯源錄	
渤海考	國朝柳得恭撰	尊周錄	國朝李書九撰
耽羅志		耳溪集	國朝洪良浩著
擇里志	國朝李重煥撰	水經	國朝丁若鏞撰 李淨註
燃黎記述	國朝李令翊編	東國地理辨	國朝韓百謙撰
燃黎典故	國朝李令翊編	地理群書	國朝柳馨遠撰
軍國總目	純祖戊子田賦戶口軍保	俎豆錄	正宗朝御製序
通文館志		程里表	國朝李崑秀撰
西浦漫筆	國朝金萬重著	臥遊錄	
燕岩外集	國朝朴趾源著	輿地圖	
滄溪聞記	國朝金時讓撰		

첨언하면 『대동지지』 편찬에 인용된 65종의 사서들은 『동여도지』와 『여도비지』 편찬에도 상당히 인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용서목들은 대부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어 김정호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가 인용한 서목은 (표 6-15)과 같다.

김정호는 65종이나 되는 사서들을 어떻게 접할 수 있었을까? 이들 사서 중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최한기의 후원으로 구독할 수 있었을 것이며 국가의 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사서·자료·지도 등의 열람에는 최성환과 신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을 것이다. 그가 인용한 사서의 희귀본들이 오늘날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점도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해 준다.

### (3) 김정호의 삼대지도(三大地圖) 탐구

#### ① 『청구도(靑邱圖)』

김정호는 삼대지지(三大地志)와 삼대지도(三大地圖)를 남겼다. 물론 지지와 지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도와 지지의 관계는 흔히 '좌도우지(左圖右志)'의 관계로 표현되곤 한다. 3대지지는 앞에서 고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3대지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 『청구도』의 구성

『청구도』는 순조 34(1834)년에 제작된 대지도로 김정호의 첫 업적이다. 『청구도』는 건곤(乾坤) 두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구성은 범례와 지도식(地圖式)·도성도(都城圖)·팔도주현도(八道州縣圖)·부록(附錄)으로, 신라구주군현총도(新羅九州郡縣總圖)·고려양계지도(高麗兩界地圖)·본조팔도성경합도(本朝八道盛京合圖) 등으로 되어 있다.

『청구도』는 전국 8도 주현을 가로 22판, 세로 29층으로 나누고 첩(帖)이 되도록 하였다. 1에서 29층까지 중 흡수층은 건책(乾冊)에, 짝수층은 곤책(坤冊)에 수록하였다. 1판 1단의 길이는 가로 70리(里), 세로 100리(里)로 나누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폭원(幅員)을 동서 1천 5백 리, 남북 3천 리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즉 남북 3천 리를 100리씩 나누면 30층인데 전라도와 제주도를 잇는 한 층이 생략된 것이고 동서 1천 5백 리를 70리로 나누면 22판이 된다.

『청구도』는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를 저본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동여지도』는 산음·안음이 산청·안의로 개칭되었고 이산이 초산으로 개칭되었는데 후자가 표기되지 않았으며 금천이 시흥으로 바뀌어 표기되지 않았음을 미루어 정조 1(1777)년부터 정조 11(1787)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이 지도에는 경위선표를 이용하여 전국 8도의 주현이 표시되어 있다. 남북으로는 함경도를 1로 시작하여 전라도 해남을 118로 삼았으며 동서로는 함경도를 역시 1로 시작하여 평안도가 76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가로 76개의 방안(方眼)과 세로 118개의 방안(方眼) 속에 넣어 경위도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지도가 우리나라를

경위선식으로 표현하여 전국을 하나로 묶은 최초의 지도이다. 이 지도를 선행지도로 삼아 『청구도』가 제작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청구도』와 『해동여지도』의 내용을 비교하면 (표 6-16)과 같다.

(표 6-16)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도』는 『해동여지도』의 경위선표식 방법이나 주기 내용을 대체적으로 모방하고 있다. 『해동여지도』에는 14,161개의 주기가 있는 데 비하여 『청구도』에는 15,485개의 주기가 적혀 있어 『청구도』가 『해동여지도』보다 1,324개의 주기가 많은 정도이다.

『청구도』의 제작 원리는 최한기가 쓴 『청구도제(靑邱圖題)]와 김정호가 쓴 범례, 지도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최한기의 『청구도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도의 제작은 획야분주(劃野分州)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 하(夏)나라 우왕이 대홍수를 다스린 후 중국을 구주(九州)로 나누어 각 주의 실정에 맞도록 공물(貢物)을 정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도가 서진(西晉)의 배수(裴秀)가 그린 『우공구주지도(禹公九州地圖)』이다. 이 지도는 산맥과 수계(水系)에 따라 구주(九州)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지도상에서 지형·방위·위치 등이 정확히 고려된 것은 아니었다. 지형·위치·방위 등은 천문 관측으로 경위도가 밝혀진 후에야 바르게 되었다.

둘째, 천문 관측에 의한 경위선의 결정에 대해서다. 최한기는 “하늘(天)의 1도(一度)는 땅(地)의 200리가 되고 또 시간의 4분(分)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월식 때 동과 서 두 곳의 시각차가 4분이 라면 동서 두 지점의 거리는 200리가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위도 측정은 남에서 북으로 향해서 200리이면 북극의 고도가 1도 높아지며 북에서 남으로 향해서 200리이면 북극의 고도가 1도 낮아진다. 이와 같이 북극성의 높낮이와 비례하여 위도를 추정하였던 것이다.

셋째, 정조 15(1791)년에 천문 관측한 결과를 가지고 지형·위치·방위 등을 바로잡았다. 숙종 39(1713)년에 청나라 하국주(何國柱) 일행이 와서 한성부 종가에서 북극 고도를 실측하였다. 이렇게 실측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조 15년에 『여지도』에 입각하여 8도의 경위도를 양정(量定)시켰다. 이와 같이 8도의 경위도가 확실해지자 비로소 8도의 분폭(分幅)과 전국 주(州)의 분표(分表)가 자유자재로 이루어졌고 실제의 크기와 큰 착오 없이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그린 『여지도』 중 정철조(鄭陸詒)·황엽(黃燁)·윤영(尹鏞)의 『여지도』가 특히 우수하였는데 김정호는 이들을 참고하여 『청구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넷째, 재래 지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재래 지도는 정상기(鄭尙驥)가 지적하였듯이 종이의 크고 작음에 맞추어 334개 주현을 똑같이 그렸기 때문에 작은 고을은 넓어지고 큰 고을은 도리어

[표 6-16] 『해동여지도』와 『청구도』의 내용 비교

	해동여지도	청구도	비고
山岳	4,455	4,712	257
河川	875	1,077	202
寺	389	443	54
樓亭	132	157	25
祠廟	68	80	12
書院	199	212	13
驛院	596	650	54
倉	876	898	22
鎭堡	26	29	3
浦	250	299	49
碑	4	6	2
山城	62	76	14
烽燧	612	669	57
部曲	106	140	34
橋	40	60	20
坪洲	53	62	9
軍營	13	14	1
牧場	17	17	0
坊面	3,445	3,755	310
里	207	213	6
島	883	971	88
기타	853	945	92
계	14,161	15,485	1,324

축소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주현도를 일일이 맞추어 전도(全圖)를 만들려면 늘 맞지 않고 문란함이 많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방안(方眼)을 긋고 지도를 그려 나갈 때 큰 고을은 축척의 비례가 10리를 1치[寸]로 나타냈다면 작은 고을에서는 5리를 1치로 나타내어 그 비례가 같지 않아 혼잡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표(表)에 따라 경계선을 살핌에 있어서 치[寸]를 맞추어 척[尺]을 헤아림과 다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호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방안을 그어 제도하되 전국을 같은 비례로 제도함으로써 축척 비례가 정연하고 주현의 분합(分合)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다섯째, 배수(裵秀)의 6체(體)를 들어 지도 만드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배수는 서진의 정치가이며 지리학자였다. 그는 『우공구주도(禹貢九州圖)』를 제작하였는데 중국 지도학의 시원을 이룬 인물이다. 그는 지도 만드는 격식으로 여섯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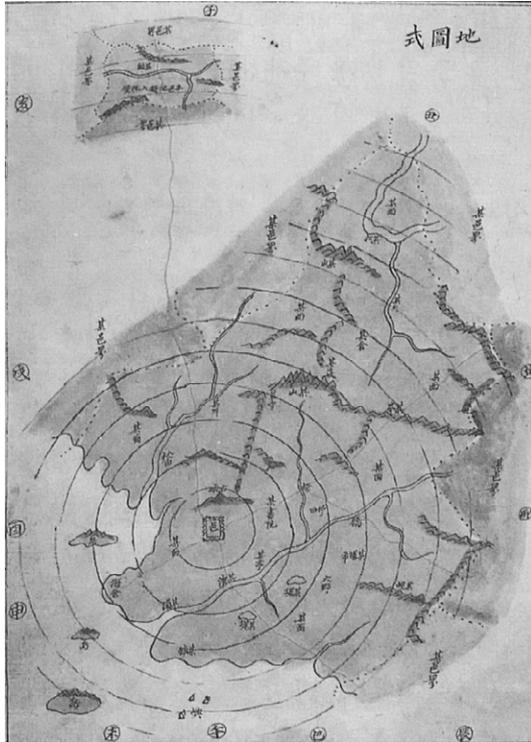
- ① 분율(分率): 지형이 동서와 남북의 폭원(幅員)
- ② 준망(準望): 이 곳과 저 곳의 지형을 바로잡는 방위를 말함
- ③ 도리(道里): 이 곳과 저 곳의 거리
- ④ 고하(高下): 지형의 높낮이
- ⑤ 방사(方邪): 지형의 모나고 비뚤어진 것
- ⑥ 우직(迂直): 지형의 구부러진 것과 곧은 것

이 여섯 가지 원칙이 지도 제작의 기본 원리이고, 이 원칙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도상(圖像)이 있으되 분율(分率)이 없으면 원근의 차이를 살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분율은 있지만 준망(準望)이 없다면 한쪽만 만족시킬 수 있고 다른 쪽에서는 잃게 된다. 준망은 있으되 도리(道里)가 없다면 산과 바다가 똑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해서 그려야 하니 상통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도리는 있지만 고하(高下)·방사(方邪)·우직(迂直)이 없다면 거리에 있어서 지도상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실제와 다르게 되므로 준망의 바름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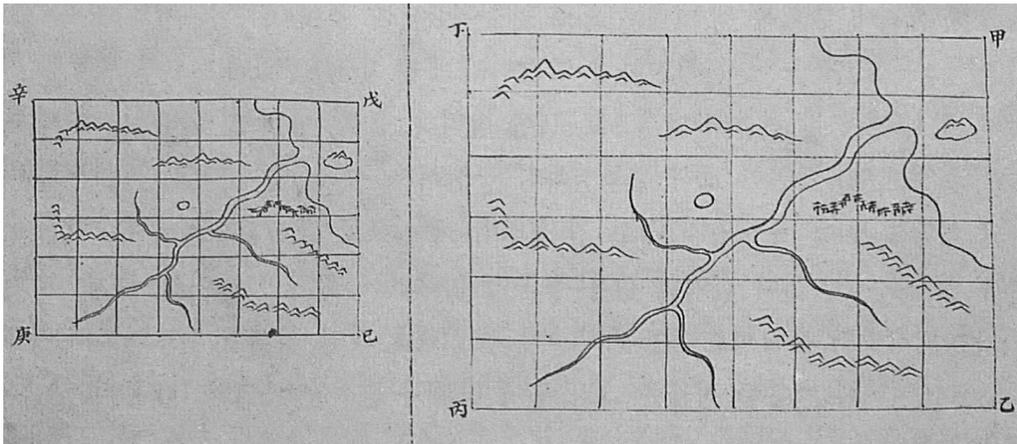
#### ㉠ 『청구도』의 제도원리

『청구도』는 배수의 지도제작 6원칙을 매우 착실하게 적용하였다. 즉 방안선(方眼線)을 그을 때 가로 70리, 세로 100리로 나누어 분율을 고려하였고, 지도식에서 준망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남북 4방위 대신에 12간지의 12방위법을 써서 방위를 바르게 하였다. 이러한 준망의 적용으로 『동국여지승람』·『동국문헌비고』 등의 지리서에 잘못되어 있는 지명을 바로잡기도 하였다. 그리고 거리의 균정(均正)을 위하여 일정한 지점(특히 한양과 각 주현 읍치를 중심 삼음)을 중심으로 원(圓)을 10리마다 돌려 그려서 도리(道里)를 바르게 하였다. 이를 평환법(平環法)이라고 하였다. 종래처럼 방괘법(方罰法)을 쓰면 사우(四隅)의 리수(里數)가 사정(四正)보다 멀기 때문에 거리의 리수(里數) 계산에 균등함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림 6-60)에서 지도식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배수의 제도6원칙은 이미 조선 초기에도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청구도』에만 적용된 독창적인 제도원리는 아니다. 『청구도』가 지금까지 그려진 지도와 다른 점은 천문 관측에 의한 경위선표식을 적용한 점, 그리고 『기하원본(幾何原本)』을 참고하여 서양의 기하학의 원리를 이용한 확대 축소 정확성을 기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기하원본』의 확대 축소법은 (그림 6-6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6-60] 『청구도』의 지도식



[그림 6-61] 『기하원본』의 확대 축소법

### ㊤ 『청구도』의 성격

『청구도』는 건치 연혁(建置沿革)을 비롯하여 고적(古蹟)에 이르기까지 38개 항목에 대해서 표기하고 있다. 그 중 약 1/3을 주기(註記)하고 있다. 이처럼 주기가 많은 것은 지도표가 개발되지 않았고 종래의 '지도는 지리지의 부도(附圖)'라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정호는 지지와 지도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리지라는 것은 지도에서 다 나타내지 못한 것을 다 적을 수 있으니, 그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여 주군현으로 하여금 그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없음에 따라 이 방식을 어기지 말고 기록하도록 하고 지도와 더불어 함께 행하게 할 것이다.

『청구도』의 제작 방식은 전통적인 방안도법을 써서 배수의 지도제작 6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환법(平環法)·유클리드의 기하원리 등을 과학적으로 활용하여 획기적이다.

이제껏 살펴본 『청구도』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도』는 전국도로써 현존하는 지도 중 가장 크며 축척이 약 1:216,000에 해당되는 지도라는 것이다(가로 462cm×세로 870cm). 둘째, 『청구도』는 이전까지의 어느 지도보다도 과학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축척이 동일한 전국도로써는 당시에 가장 정밀한 지도라는 사실이다. 넷째, 『청구도』는 군현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였으며 특히 비지(飛地)와 두입지(斗入地)를 표시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는데 이 점에서 『청구도』는 이전의 어느 지도보다 실용적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청구도』는 편람(便覽)하기에 좋도록 책첩(冊帖)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첫째, 도식(圖式)을 전통적 방식으로 택한 점이다. 둘째, 방위는 12방위를 써서 정확하지만 지점(地點) 표현이 보다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셋째, 수계(水系)만을 정확히 표현하고 산맥(山脈)을 표시하지 않고 진산(鎭山) 중심으로 표시함으로써 두 지점 간의 거리가 실제보다 늘어나 산악이 많은 동쪽이 넓게 그려졌다는 점이다. 넷째, 부기(附記)가 많아 지도의 독립성보다는 지리지의 부도(附圖)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흡한 점들은 그가 후에 만들어 낸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 ㊤ 『동여도(東輿圖)』

『동여도』는 23규(紉)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지도 가운데 가장 정밀한 지도이다. 『동여도』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판각하기 위해 제작한 선행지도로 김정호의 작품일 것이다. 그 추정 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여도지』 제2책에 실려 있는 서문에서 김정호는 지도와 지지를 만들고 이를 『동여도지』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 지지는 『동여도지』이고 지도는 『동여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의 작품이라는 분명한 간기(刊記)가 있다. 반면 『동여도』에는 간기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체제가 23규로 되어 있고 매규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의 형태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다만 『대동여지도』에는 13,188여 개의 주기명(註記名)이 있는데 『동여도』에는 18,736개의 주기명이 있다. 『대동여지도』는 『동여도』의 주기명 중 5,548여 개의 주기명을 생략하고 있다. 3,800여 개의 방리명(坊里名)을 비롯하여 중요도가 2차, 3차적인 사항들이다. 이는 『대동여지도』가 목각의 어려움 때문에 생략했으리라고 추측된다. 이와 같이 『동여도』는 『대동여지도』를 판각하기 위해 제작된 선행지도일 것이다.

둘째, 신헌은 『대동방여도』 서문에서 “김백원(金百源)에게 위촉하여 『동여도』를 만들게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백원은 김정호의 자(字)이니 김백원은 바로 김정호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동여도』는 김정호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 실려 있는 지도표가 독특하며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이다. 『동여도』에는 12개의 지도표가 사용되었고, 『대동여지도』에는 14개의 지도표가 사용되었다. 『대동여지도』에는 고현(古縣)·고진보(古鎭堡)·고산성(古山城)의 항목을 별도로 구분시켰지만 『동여도』에서는 이 세 항목을 주현(州縣)·진보(鎭堡)·성지(城池)항에 포함시켰으므로 별 차이가 없다. 단지 『동여도』에는 파수(把守)항이 있는데 『대동여지도』에서는 이 지도표가 빠져 있다. 『대동여지도』의 지도표는 『동여도』의 지도표보다 간결하다. 이는 『동여도』는 필사본이고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이기 때문에 목각에 용이하도록 간결화시킨 때문이다.

넷째, 『동여도』 제13규 여백란에 표기되어 있는 인릉(仁陵)의 위치가 현릉우강(獻陵右岡)으로 되어 있다. 인릉은 순조의 왕릉인데 원래 교하현에 봉안하였다가 철종 7(1856)년 2월에 현릉 우측으로 천봉이 결정되어 그 해 10월에 천봉이 완료되었다. 그러므로 『동여도』는 철종 7년 이후에 제작되었으며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초간(初刊)한 것은 철종 12(1861)년이다. 철종 연간에 김정호를 제외하고 이렇게 상세하고 방대한 지도를 제작할 사람은 없었다.

다섯째, 이병기(李秉岐)가 『사조(思潮)』 제1권 제12호의 부록으로 수록한 「한국명저해제(韓國名著解題)」에서 『동여도』를 김정호의 작품으로 분류하여 해설하였으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편찬한 『한국도서해제(韓國圖書解題)』에서도 이 작품을 김정호의 작품으로 소개한 점을 들 수 있다.

### ③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 ㉠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의 구성

『대동여지도』는 『동여도』와 같이 가로 80리, 세로 120리를 한 개의 방안(方眼)으로 하여 한 개 면(面)으로 하고, 2개 면은 한 개 도엽(圖葉)인 목판 한 장에 수용하였다. 그러므로 『대동여지도』의 전체 지도 도엽은 목판 121매이고 제책(製冊)이 되었을 때의 면수는 213면이다. 그러나 여기에 부록적인 지도유설(地圖類說)·도성도(都城圖)·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 등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엽으로 126목판이고 전체 면수는 227면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가로 70리, 세로 100리를 한 개 방안으로 한 개 면을 이루어 총 321면인 『청구도』와 비교할 때 94면이 줄어든 숫자이다. 『대동여지도』의 면수가 『청구도』의 면수보다 줄어든 것은 『대동여지도』가 『청구도』보다 가로 10리, 세로 20리를 한 개 방안에 더 수용하고 도서를 육지에 가깝게 배열하여 그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구도』는 동서 22판 남북 29층이고, 『대동여지도』는 동서 19판 남북 2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전체 거리로 환산하면 『청구도』는 동서가 1,540리이고 남북은 2,900리이고, 『대동여지도』는 동서가 1,520리이고 남북은 2,640리이다.

두 지도는 10리를 1촌(寸)으로 그린 같은 축척의 지도로서 동서는 20리 차이가 나고 남북은 260리 차이가 난다. 동서 20리 차이는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북 260리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청구도』는 육지와 제주도 사이의 바다를 제26·27·28층으로 편성하였지만 공백(空白)과 여백층(餘白層)으로 되어 있다. 반면 『대동여지도』에서는 그와 같은 바다의 공간을 두지 않고 제주도를 별도의 지도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260리의 공간층이 없다. 그러므로 육지만의 남북 거리는 두 지도가 2,400여 리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도엽을 재구성하여 100여 면을 줄인 이유는 보다 넓은 지역을 하나의 도엽에 수용하여 지도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목판각이라는 제작상의 어려움도 덜고자 했기 때문이다.

도엽의 재구성으로 나타난 변화로는 경도 부분이 상당히 변했다는 것이다. 『청구도』 16층 14면과 『대동여지도』의 13층 12면을 면밀히 비교하면, 『청구도』는 한양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동쪽 경계선이 12면을 넘어가 있어 2개 면을 잇대어 보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대동여지도』는 한양이 한 면의 중앙 부위에 위치하여 한양을 둘러싼 경계(境界)가 모두 수용되었으며 북쪽과 남쪽 끝에 양주와 수원, 서쪽과 동쪽에 양천과 광주, 그리고 동북쪽 지역의 능원(陵園)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구성은 당시 수도권의 지역적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동여지도』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62] 『대동여지전도』

『청구도』는 건곤(乾坤) 두 책으로 구성되어 건권에서는 1·3·5의 홀수층을, 곤권에서는 2·4·6의 짝수층의 면을 동에서 서로 제책(製冊)하여, 두 권을 상하로 펴 네 개의 지도면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하였으나 그 이상의 지도면은 서로 인접하여 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대동여지도』는 각 층의 도엽(圖葉)을 연폭(連幅)으로 동에서 서로 길게 잇고 이것을 병풍식으로 접어 모두 22층으로 하는 분첩절루(分帖折疊)의 방법으로 제책하여 한 질이 되게 하였다. 이 때 책의 크기는 가로 20cm, 세로 30cm로서 당시 서지류(書誌類)의 크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마치 한 권의 책처럼 편리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동여지도』는 개개 층별로 동에서 서로, 남북으로 22층을 계속 인접하면 가로 4m, 세로 8m의 거대한 우리나라 전도(全圖)가 된다.

㉠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의 내용 비교

『청구도』는 『해동여지도』를 저본으로 제작되었음은 앞서 이야기하였다. 『청구도』는 필사본이

[표 6-17]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의 내용 비교

	청구도	대동여지도	비고
山岳	4,712	4,572	140
河川	1,077	1,374	-297
寺	443	229	214
樓亭	157	169	-12
祠廟	80	34	46
書院	212	0	212
驛院	650	617	33
倉	898	815	83
鎭堡	29	400	-371
浦	299	514	-215
碑	6	1	5
山城	76	31	45
烽燧	669	560	109
部曲	140	665	-525
橋	60	110	-50
坪洲	62	91	-29
軍營	14	8	6
牧場	17	47	-30
坊面	3,755	613	3,142
里	213	248	-35
島	971	911	60
기타	945	1,179	-234
계	15,485	13,188	2,297

다. 필사본은 기본적으로 필사자가 필사할 때 저지르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김정호는 이를 덜기 위하여 목판본인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두 지도의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표 6-17)와 같다.

(표 6-18)에서 볼 수 있듯이 『대동여지도』는 후에 만들어졌지만 목판본이기 때문에 판각의 어려움이 있어 주기 내용을 『청구도』보다 많이 생략하였다. 하천(河川)·누정(樓亭)·진보(鎭堡)·포(浦)·부곡(部曲)·교(橋)·평주(坪洲)·목장(牧場)·리(里)항만 『청구도』보다 많을 뿐이고, 대부분의 항목이 『대동여지도』에서는 적게 판각되었다. 총 2297개의 주기 내용이 『대동여지도』에는 적게 판각되었던 것이다.

㊤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의 내용 비교

『동여도』는 현존하는 고지도 중 제일 자세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대동여지도』를 판각하기 위

[표 6-18] 『대동여지도』와 『동여도』의 내용 비교

	대동여지도	동여도	비고
山岳	4,572	5,419	847
河川	1,374	1,939	565
寺	229	520	291
樓亭	169	254	85
祠廟	34	48	14
書院	0	4	4
驛院	617	152	35
倉	815	819	4
鎭堡	400	403	3
浦	514	705	191
碑	1	6	5
山城	31	33	2
烽燧	560	571	11
部曲	665	671	6
橋	110	158	48
坪洲	91	121	30
軍營	8	10	2
牧場	47	77	30
坊面	613	1,994	1,381
里	248	364	116
島	911	1,131	220
기타	1,179	2,837	1,658
계	13,188	18,736	5,548

하여 제작한 선행지도이다. (표 6-18)에서 두 지도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 비교하였다. 산악(山岳)·하천(河川)·방면(坊面) 등은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대동여지도』의 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역원(驛院)·창(倉)·진보(鎭堡) 등의 항목은 두 지도의 기재 내용이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대동여지도』의 주기(註記) 내용은 총 13,188개인 데 비하여, 『동여도』는 18,736개의 주기 내용이 있다.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대동여지도』보다 5,548개가 더 많은 것이다. 『대동여지도』에서는 판각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량의 주기 내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청구도』와 비교하면 『청구도』에는 15,485개의 주기가 있으므로 『청구도』가 『대동여지도』보다 2,297개의 주기 내용을 더 기록하고 있다. 『동여도』는 『청구도』보다 3,251개의 주기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는 가장 정밀한 지도인 것이다.

### ㊤ 『대동여지도』의 축척

『대동여지도』는 『청구도』·『동여도』와 마찬가지로 100리를 1척(尺)으로, 10리를 1촌(寸)으로 한 백리척(百里尺) 축척의 지도이다. 그러나 당시의 1촌(寸) 1보(步)가 현재의 몇 cm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쉽게 미터법에 의한 축척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들 지도에 적용한 주척(周尺)의 길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대동여지도』의 축척을 미터법으로 환산한 축척으로는 대체로 1:160,000과 1:216,000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조선시대의 10리가 현재의 10리와 마찬가지로 4km라는 거리 개념에서 출발하여 계산해 낸 축척이다. 그러나 이 축척은 문제가 있다. 『대동지지』에는 “주척(周尺)을 쓰되 6척은 1보이고 360보는 1리이며 3600보는 10리로 된다”는 기사가 있는데도 이를 유념하지 않은 채 계산한 축척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10리=4km 개념은 조선시대 거리 개념이 아니고 일제가 토지 측량 사업에 사용한 거리 개념이다.

후자는 이우형(李祐炯)·성남해(成南海) 등이 주장하는 거리 개념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미터법은 원래 지도의 축척을 통일하기 위하여 탄생된 단위로 지구의 둘레가 4만km에서 비롯되었으므로 360도로 나누면 1도는 111.11km가 된다. 이를 당시 위도 1도는 200리라고 하였으므로 111.11km를 200리로 나누면 5.5km가 되어 10리는 약 55km가 되는 것이다.

둘째, 『속대전(續大典)』과 『대동지지』에는 “주척을 단위로 쓰되 6척이 1보이고 360보가 1리이

며 3600보가 10리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주척의 길이는 31.24cm, 20.8cm, 25cm 등으로 다양하다. 순조 때에는 25cm를 기준으로 한 듯하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25\text{cm} \times 6 = 150\text{cm}$ ,  $150\text{cm} \times 360\text{보} = 0.54\text{km}$ ,  $0.54\text{km} \times 10\text{리} = 5.4\text{km}$ 가 된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10리는 4km가 아니고 5.4km이다. 이러한 두 근거에 의해 『대동여지도』의 축척은 약 1:216,000이라고 할 수 있다.

#### ㊤ 『대동여지도』의 특색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의 걸작품인 동시에 우리나라 고지도를 집대성해 놓은 최고의 고지도이다.

이 지도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판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으며 대량 생산의 길을 터놓았다.

둘째, 지도표를 사용하여 지도의 주기 내용을 간결화하고 고지도를 근대화시켰다.

셋째, 분합이 자유롭게 22첩으로 만들어 상하를 연결하면 도별지도도 되고 전부 연결하면 전국도가 되도록 제작하여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접으면 책 크기만 하여 휴대하고 다니기에 편하도록 제작하였다.

넷째, 전통적인 고지도 제작 양식인 배수의 6체를 사용하고 방안도법을 이용하였으며, 확대 축소할 때에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가미하여 고지도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다섯째, 다른 어느 고지도보다 주기내용이 많아 풍부한 정보량을 담고 있다.

여섯째, 10리마다 점을 찍어 여행할 때 이정(里程)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태

#### 참고문헌

- 京城帝大, 1936, 『古圖書展覽目錄』 65項, 19.  
 김양선, 1972, 『韓國實學發展史』, 숭실대학교.  
 류재건, 1962, “金古山正浩,” 『里鄕見聞錄』 卷8.  
 문일평, 1941, “金正浩,” 『朝鮮名人傳』 3, 朝光社.  
 박관섭, 1978, “大東輿地圖의 圖法 및 系譜에 관한 歷史地理學的 研究,” 『朴寬變公壽紀念論叢』, 23-61.  
 방동인, 1985, 『韓國의 地圖』,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67-190.  
 이병도, 1969, “金正浩,” 『人物韓國史』 4, 박우사.

- \_\_\_\_\_, 1971, “地圖, 地志의 集大成者로서의 古山子 金正浩,” 내가 본 어제와 오늘, 박영사.
- \_\_\_\_\_, 1971, 靑邱圖(乾),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이우성, 1971, “明南樓叢書 敍傳,” 明南樓叢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이찬, 1977, 韓國古地圖, 韓國圖書館學研究會.
- 전상운, 1979, 韓國科學技術史, 정음사.
- 정두희, 1976,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Ⅱ),” 歷史學報, 70, 108-109.
- 정인보, 1955, “大東輿地圖,” 『崑園國學散稿』 第2篇 朝鮮古書解題, 大東輿地圖條.
- 정형우, 1974, “金正浩,” 韓國의 人物像 3, 신구문화사.
- 홍이섭, 1964, “金正浩와 大東輿地圖,” 思想界, 10, 272-275.
- 동아일보, 1925년 10월 9일.
- 동아일보, 1931년 3월 9일.
- 동아일보, 1931년 3월 16일.
- 大漢文辭典 3, 1987, 법인문화사.

## 8. 대동여지도 판본 비교

### 1) 머리말

김정호가 목판으로 간행한 <大東輿地圖>는 현재까지 국내외에 24질이 확인되고 있다.<sup>1)</sup> 이러한 『대동여지도』의 여러 판본(版本)들은 대부분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만, 판본 사이에 미세한 차이점들도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판본의 체재와 형식에서도 확인되며, 지도내용의 수정사례에서도 발견된다.<sup>2)</sup> 『대동여지도』의 여러 판본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제작 당시의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판본에 나타나는 차이점은 일정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동여지도』 판본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비교작업은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제작할 당시의 미시적인 작업과정을 구체적으로 복원해 내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베일에 가려져 있는 김정호의 지도 제작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 2) 대동여지도 판본의 체재와 수정 사례

『대동여지도』 판본의 체재와 형식이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이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되고 언제까지 『대동여지도』가 계속 인출되었는지, 또 이럴 경우 체재와 형식은 그 정형성을 계속 유지하는가의 여부는 이제까지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할 만큼 연구방향을 모색하지 못했다.

그런데 현존하는 비교적 많은 수의 『대동여지도』의 판본을 면밀히 비교해 보면 이러한 논의에 상당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판본 가운데 형식적으로 정형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동여지도』를 중심으로 그 구성 요소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판본은 모두 22책으로 이루어진 분첩절첩식(分冊折帖式) 지도로, 각 책의 앞뒤에는 모두 표

1) 이제까지 알려져 있는 국내외 소장 『대동여지도』 판본 24질을 <별표 1>에 정리하였다.

2) 『대동여지도』의 여러 판본을 비교하여 지도 내용의 수정 사례를 처음 보고한 것은 지도 연구가 李祐炯(1990)이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수정 사례의 선후관계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이우형의 선행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다만 그는 이러한 수정사례를 바탕으로 『대동여지도』 판본의 변천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지는 않았다.

3) 철종 12(1861)년.

지가 붙어 있다. 제1책에는 표제(標題)('大東輿地圖'라는 지도 제목과 간행연도('當寧十二年辛酉')<sup>3)</sup>, 간행자('古山子校刊')를 기록, 방안표(方眼表), 함경도 온성(穩城)·종성(鍾城)·경원(慶源)지역 지도, 지도표(地圖標), 지도유설(地圖類說), 도성도(都城圖),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를 차례로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제2책에는 목활자로 인쇄한 전국통계(全國統計)를 수록하고 있다. 이후 제3책부터 제22책까지는 지도 이외의 별도의 특징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 않아서 판본 간에 체재 상의 차이점은 없다.<sup>4)</sup>

이에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동여지도』의 제1책과 제2책의 구성내용을 다른 판본들과 비교해 보면 『대동여지도』의 구성요소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표지: 표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② 표제: 표제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신유본과 갑자본<sup>5)</sup>)으로 다시 나뉨
  - ③ 지도유설: 수록하지 않은 경우와 수록한 경우(목활자본과 필사본으로 다시 나뉨)
  - ④ 경조오부도와 도성도: 수록하지 않은 경우와 수록한 경우(목판본과 필사본으로 다시 나뉨)
  - ⑤ 통계: 수록하지 않은 경우와 수록한 경우(목활자본과 필사본으로 다시 나뉨)
- ※ ①~④항(제1책 수록), ⑤항(제2책 수록)

요컨대 『대동여지도』 각 판본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동여지도』와 같이 위와 같은 구성 요소를 완전히 갖춘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모두 갖춘 경우에도 목판인쇄가 아닌 필사본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위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조합한 여러 판본이 제작된 시점의 전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지명 수정의 사례를 확인하는 일이다. 특히 일부 현존하는 대동여지도 목판에 지명을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어서 수정의 전후관계를 밝히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sup>6)</sup>

4) 『대동여지도』는 22책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제21책과 제22책(제주도)을 합본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대동여지도』의 체제와 형식의 변천을 반영한다고는 판단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고종 원년(1864년).

6) 제4책의 십만명 인근 경계, 제17책의 안연역, 삼학진 등의 수정사례를 보여주는 목판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십만명 인근 경계선(점선)은 삭제하여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안연역의 경우는 잘못된 위치에 있던 글자를 도려낸 뒤, 바른 위치에 새로운 글자 조각을 파 넣는 방식을 취하였다. 현재 이 글자 조각은 탈락되어 결실된 상태이다.

지도연구가 고(故) 이우형은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6개의 수정사례를 보고하였으며,<sup>7)</sup> 소재구는 대동여지도 목판의 조사과정에서 제4책의 십만령 인근 군현 경계의 수정사례 1건을 보고하였다.<sup>8)</sup> 아울러 이번의 판본 비교과정에서 6개의 수정사례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정사례들은 수정의 전후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판본 자체의 선후관계를 확인하는데 뿐만 아니라 『대동여지도』 판본의 체재와 형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이제까지 확인된 『대동여지도』의 수정사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19)의 연번 4, 6, 8, 9, 12, 13은 이 글의 작성과정에서 새로 확인한 수정사례이다.<sup>9)</sup> 연번

[표 6-19] 『대동여지도』의 수정사례

연번	수록 위치	수정내용	비고
1	제1책	地圖類說	I 식(備考豆) → II 식(備考云), I 식(以北) → II 식(西北)
2	제4책	三水와 長津 군현경계 조정	I 식(잘못된 경계선) → II 식(잘못된 경계선 삭제) → II 식(삭제 후 필사 보완)
3	제4책	十萬峯 인근 군현경계 조정	I 식(잘못된 경계선) → II 식(잘못된 경계선 삭제) → II 식(삭제 후 필사 보완)
4	제4책	江界의 경계(牛項峯-火通峯) 삭제	I 식(잘못된 경계선) → II 식(기존 경계 삭제)
5	제6책	黃楚峯의 지형 조정	I 식(황초령 지형 오류) → II 식(오류 수정)
6	제8책	新彌島의 지명 및 목장 기호 삽입	I 식(지명 및 기호 없음) → II 식(지명 보완) → III 식(기호 삽입)
7	제9책	通達驛의 추가	I 식(통달역 미표기) → I 식(지명 필사 보완) → III 식(기호와 지명 표기)
8	제15책	越松鎭 지명 삽입	I 식(지명 표기 없음) → I 식(지명 필사 보완) → II 식(지명 표기)
9	제15책	報恩 인근 사각형 삭제	I 식(사각형 있음) → II 식(사각형 없음)
10	제17책	東津 古縣 기입 및 위치 수정	I 식(미표기) → II 식(甘浦 북쪽에 동진고현 표기) → III(감포 남쪽에 동진고현 표기)
11	제17책	安偃驛의 위치	I 식(잘못된 위치에 표기) → II 식(위치 수정) → III 식(묵선으로 도로 표기)
12	제17책	三鶴津 지명 오류 수정	I 식(지명 오류) → II 식(오류 수정)
13	제17책	淸道 월경지 경계	I 식(실선으로 표기) → II 식(점선으로 수정)

\* 위 표에 정리된 내용구분 사항을 (표 6-20)에 적용하였다.

7) 이우형은 (표 6-19)의 연번 1 제1책 地圖類說에 나타난 오자(誤字) 2개, 2. 제4책 三水와 長津의 군현경계, 5. 제6책 黃楚峯의 지형, 7. 제9책 고원 인근 通達驛의 추가, 10. 제17책 東津 古縣의 추가 및 위치수정, 11. 제17책 성주 인근 安偃驛의 위치수정 등 6개의 수정사례를 보고하였다(이우형, 1990, 27-29).

8) 소재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동여지도』 목판을 조사하여 (표 6-19)의 연번 2, 제4책 十萬峯 부근 군현경계의 수정작업이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다(소재구, 1997, 130-132).

4는 제4책 강계의 경계(우항령~화통령 일대) 수정 시도이며, 연번 6은 제8책 신미도의 지명과 목장 기호가 누락되어 있다가 추가된 사례이다. 연번 8은 제15책 월송진이 기호만 수록되고 지명이 누락되어 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연번 9는 제15책의 보은(報恩) 인근에 무의미한 사각형이 인출되어 있다가 삭제되는 경우이다.

연번 12는 제17책 삼학진(三鶴津)의 지명이 잘못 표기되었던 것을 바로 잡은 경우이다. 수정사례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판단되며, 현존하는 목판에만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다. 다만 잘못된 글자를 도려내고 삽입하였던 글자 조각은 탈락되어 현재 구멍만 확인할 수 있다. 연번 13은 제17책 청도(淸道)의 월경지(越境地) 경계선이 실선에서 점선으로 수정되는 경우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수정사례는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 3) 대동여지도 판본의 전개 및 수정 과정

#### (1) 『대동여지도』 판본의 비교

제1책과 제2책의 수록내용을 비롯하여 13개의 지명 수정사항을 바탕으로 검토 대상이 된 22질의 대동여지도 판본을 비교해 보면 (표 6-20)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표는 『대동여지도』 각 판본을 검토한 결과를 수록한 것으로, 이 표에 표기된 연번은 각 판본의 선후관계를 감안하여 설정한 것이다.<sup>10)</sup> 곧 지도에 이루어진 13가지의 수정작업의 선후관계를 추적하고, 이에 더해 제1책과 제2책에 수록되는 여러 구성요소의 전개 과정을 살핀 결과이다.

(표 6-20)을 살펴보면 『대동여지도』의 내용에 대한 수정작업이 간행사업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곧 『대동여지도』에는 표제에 기재된 간행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신유본(1861년 간행)과 갑자본(1864년 간행)의 두 판본이 있지만, 갑자본에 와서야 신유본의 오류가 한꺼번에 개선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신유본에서 지도의 오류 수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9) 연번 8의 월송 지명삽입은 양보경(양보경, 1997, 30)이, 연번 13의 청도 월경지 경계선 수정사례는 이기봉이 확인하였으며, 나머지에 사례는 필자가 새로 확인한 것이다.

10) 새로운 확인된 수정사례의 경우에는 모든 판본에 대해 수정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수정사례를 추가로 확인하기 전에 실사가 이루어져 해당 부분을 열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표 6-20)에서 공란으로 비어 있는 부분은 이러한 경우이다. 단, 확인 가능했던 수정사례로도 판본의 선후관계를 추정할 수 있었다. 물론 해당 판본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각 판본 간의 선후관계에 대한 추론은 잠정적인 것임을 밝혀 둔다.

[표 6-20] 『대동여지도』 판본 비교

연번	판본	지도의 체제						지도의 수정 사례												
		표지	표제	지도유설	도성도	경조오부도	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지도유설	십만령	삼수경계	화통령	항초령	신미도	통달현	월송진	사각형	동진고현	간언역	삼학진	월경지
1	성신여대a	○	×	×	×	○	×	-												
2	장서각a (2-4957)	×	×	×	×	○	×	-												
3	존경각	×	○ 辛酉	×	○	○	×	-												
4	규장각a 4709-5	×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	-												
5	부산대 도서관	○	○ 辛酉	○ 필사	○ 필사	○ 필사	○													
6	일본 국회 도서관a (292.1038)	○	○ 辛酉	×	○	○	×	-												
7	성신여대b (보물850)	○	○ 辛酉	○	○	○	○													
8	일본 국회 도서관b (217-37)	○	○ 辛酉	○	○	○	○													
9	일본 텐리도서관 (292.1413)	○	○ 辛酉	○	○	○	○													
10	국사편찬 위원회	×	○ 辛酉	○	○	○	○													
11	장서각b (2-4957)	○	○ 辛酉	○	○	○	○													
12	규장각 (규10333)	○	○ 辛酉	×	○	○	×	-												
13	코베시립 박물관	○	○ 辛酉	○	○	○	○													
14	서울역박 (보850-2)	○	○ 辛酉	○ 필사	○	○ 필사	○													
15	국립중앙 도서관	×	○ 辛酉	○	○	○	○													
16	영남대	○	○ 辛酉	○	○	○	○													
17	미국 버클리대	○	○ 辛酉	○	○	○	○													

연번	판본	지도의 체제					지도의 수정 사례													
		표지	표제	지도유설	도성도	경조오부도	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지도유설	십만령	삼수경계	화통령	황조령	신미도	통달역	월송진	사각형	동진고현	안언면	삼학진	월경지
18	화봉박물관	×	○ 辛酉	○	○	○														
19	중앙박물관a (미등록)	○	○ 辛酉	○ 필사	○	○ 필사														
20	동양문고a (VII.2.158)	○	○ 辛酉	○	○	○														
21	중앙박물관b (신521)	○	○ 甲子	○ 필사	○	○ 필사														
22	동양문고b (VII.2.159)	○	○ 甲子	×	○	○ ×	-													
23	규장각c (4709-6)	○	○ 甲子	×	○	○ ×	-													
24	거창박물관	×	○ 甲子	×	○	○ ×	-													

주: 위 표, 지도의 체제부분에서 기호 ○는 해당 항목이 수록되었음을, 기호 ×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지 부분에서 ○는 사후에 개장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원래 표지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신유본의 최종단계에서 사실상 수정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위 표에서 알 수 있다.<sup>11)</sup> 특히 『대동여지도』 갑자본 4질에는 신유본에서 이미 수정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도내용의 수정추이를 바탕으로 『대동여지도』 각 판본의 제작 선후관계를 설정하고 나면, 각 판본의 체제나 형식이 일정한 전개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동여지도』 제1책과 제2책에는 지도 이외의 구성요소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초기 판본에서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가 판을 거듭하면서 새로 수록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동여지도』 판본의 형식과 체제는 그것이 발간된 최초 시점에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판을 거듭하면서 발전해나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갑자본 단계에서 판본의

11) 이러한 판단은 잠정적인 것임을 밝혀둔다. 이제까지 확인되지 않은 수정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까지의 조사결과로는 갑자본에서 처음 나타나는 수정사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형식과 체제가 해제되고 있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 (2) 『대동여지도』 판본 제작 단계 설정 시론

(표 6-20)에 제시된 『대동여지도』 판본 24질에 대한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현존 판본의 제작 양상과 추이를 단계별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단계 (1~2): 대동여지도의 지도 부분이 완성된 단계로 제1책에 일반적으로 수록되는 표제, 지도유설, 통계, 도성도가 실려 있지 않으며, 별도 표지도 붙어 있지 않아 지도의 뒷면을 그대로 표지로 활용하고 있다.<sup>13)</sup> 다만 경조오부도는 이 단계부터 목판본으로 수록되어 있다. 간행연대가 기록된 표제가 없으므로 1861년(신유년) 제작이라고 확정하는 데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지도 부분에서는 제17책 삼학진(표 6-20의 12)을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한 교정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즉 지도 부분이 완성되어 인출을 시작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의 인출작업 이후 교정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본(표 6-20의 연번 1)은 대동여지도 판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특히 제8책의 신미도는 지명과 기호(牧)가 모두 누락되어있다(그림 6-85). 제17책 삼학진에 대한 표기는 현존하는 판본 모두 수정되어 있으나 해당 지도의 목판에는 보완을 위해 끼워 넣었던 글자 조각이 탈락된 흔적이 남아 있다(그림 6-103). 성신여대 소장본에는 제15책 보은에서 20리 지점에 의미 없는 직사각형이 인쇄되어 있어 특징적이다(그림 6-94). 한편 장서각 소장본에도 이러한 사각형이 인쇄되어 있었으나 인출 후 이를 긁어내고 ‘관기(館基)’라는 지명을 필사하여 기입한 점이 독특하다(그림 6-95).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본(연번 1)에 표지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제작 당시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이러한 해제양상이 해당 판본 제작당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판본의 체제가 훼손된 탓인지를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판본 제작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이러한 양상이 시작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김정호와 일정한 관계가 있겠지만 분명한 논증은 어렵다. 다만 거창박물관 소장본의 경우에는 판본의 형식이 심하게 흐트러져 있어서 김정호가 제작에 간여했는지조차 의심이 된다.

13) 이 단계에서 표제나 지도유설, 통계 따위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후대의 훼손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대동여지도』 판본의 초기 단계에서만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서 그 원인이 후대의 훼손 때문이라고만 판단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㉔ 단계 (3): ‘大東輿地圖’라는 지도의 명칭과 ‘古山子校刊’이라는 간행자의 명의, ‘當十二年辛酉’라는 제작연도를 명기한 표제가 처음 수록되었으며, ‘도성도’도 처음 수록되었다. 이 단계까지는 각 책의 앞뒷면에 별도의 표지가 붙어 있지 않다. 아울러 제17책에 동진 고현(東津 古縣)이 기존의 지형(산줄기)을 일부 삭제한 뒤 새로 표기되었으며, 제8책에 신미도의 지명이 추가되었다. 이 단계의 판본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이 있다.

㉕ 단계 (4~6): 이 단계의 판본에서 제6책(황초령)과 제15책(보은 인근 사각형)의 교정사항이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곧 황초령의 산줄기가 제대로 수정되었으며, 보은 인근의 사각형도 삭제되었다. 이 단계까지는 지도유설과 통계가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연번 5)에는 지도유설과 통계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필사본으로 후대에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 소장본(연번 4)에는 아직 표지가 붙어 있지 않으며,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과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본(연번 6)에 표지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㉖ 단계 (7~8): ㉔단계와 같이 제6책(황초령), 제15책(보은 인근 사각형), 제17책(동진)의 교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목판으로 인쇄된 지도유설과 통계가 처음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단, 지도유설에 나타나는 오자(誤字)는 교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다. 성신여자대학교 소장본(보물 850호, 연번 7)과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본(연번 8) 모두 표지가 개장된 것으로 보여서 이 단계에서 별도의 표지가 부착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㉗ 단계 (9~14): ㉔ 단계와 같이 제6책, 제15책, 제17책(동진 고현)의 교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이 단계에 이르러 제17책 청도의 월경지 경계선이 점선으로 수정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연번 10)의 지도유설에는 오자가 그대로 실려 있어서 앞 단계와의 선후를 결정하는 데 혼란을 주지만(그림 6-75), 제17책의 청도 월경지 경계선이 분명히 수정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연번 10)을 제외한 장서각 소장본(연번 11), 규장각 소장본(연번 12)에 별도의 표지가 붙어 있어서, 이 단계에서 『대동여지도』 판본의 체재가 일단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울역사 박물관 소장본(연번 14)에 수록된 지도유설과 통계는 필사본이고, 규장각 소장본(연번 12)에는 지도유설과 통계가 수록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에는 제8책의 신미도에 ‘목(牧)’이라는 기호가 새로 추가되어 이 단계의 판본 중 가장 마지막 판본임을 보여준다.

㉔ 단계 (15): 제8책의 신미도를 포함하여 ㉓단계까지의 수정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이 단계에 이르러 제4책(삼수 경계), 제9책(통달역), 제15책(월송진), 제17책(안언역)의 교정사항이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제17책의 동진고현은 1차 교정에 이은 2차 교정사항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연번 15)은 제17책의 안언역의 위치가 수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로도 묵서로 추기(그림 6-102)되어 있는 유일한 판본이다. 이후 단계의 다른 판본에서도 안언역의 위치가 수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변의 도로가 묵서로 추기되어 있지는 않다.

㉕ 단계 (16~20): 신유본(辛酉本)의 최종단계로 볼 수 있다. ㉓단계까지의 수정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고, 이 단계의 전기 판본(영남대학교도서관 소장본: 연번16) 및 미국 버클리대학교도서관 소장본: 연번17)에서 제4책의 화통령 일대 군현경계선이 삭제되고, 이 단계의 후기 판본(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연번19) 및 일본 동양문고 소장품: 연번20)에서는 제4책 십만령 일대 군현 경계선이 삭제됨으로써, 현재까지 확인된 수정사항이 모두 반영되게 된다. 체제 측면에서도 별도 표지를 포함한 모든 요소를 갖추었고, 지도의 내용에서도 모든 수정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연번 19)은 지도유설과 통계가 필사본이다.

㉖ 단계 (21): 갑자본(甲子本)이 등장하여 표제에 ‘當宁元年甲子’라고 기록된다(그림 6-66). 신유본 최종단계(㉕단계)의 수정사항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나, 경계선 등의 삭제부분에 대한 필사교정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목판의 수정사항만을 반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연번 21)에 실린 지도유설과 통계는 필사본이다.

㉗ 단계 (22~24): 갑자본의 마지막 단계이자, 『대동여지도』 판본의 최종단계이다. ㉖단계와 같이 모든 교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나, 규장각 소장본(연번 23)을 제외하고는 필사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목판의 수정사항만을 반영하는 상태이다. 이 단계에 속하는 판본은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연번 22)과 규장각 소장본(연번 23), 거창박물관 소장본(연번 24)이다. 이 단계의 모든 판본에 지도유설과 통계가 누락되어 있다. 거창박물관 소장본에는 표지도 붙어 있지 않다. ㉓단계에서 완성된 『대동여지도』 판본의 체재와 형식이 차츰 해체되어 가는 양상으로 보인다.

#### 4)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동여지도』의 여러 판본을 비교 관찰한 결과 『대동여지도』 판본의 형식과 체재는 제작 초기부터 완성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까지 확인된 가장 빠른 시기의 판본은 성신여대박물관 소장본(연번 1)이다. 아울러 9개의 수정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㉔단계가 신유본의 최종단계로 제1책에 표제, 지도유설, 도성도, 경조오부도를 차례로 갖추고 있으며, 제2책에도 전국통계를 갖추고 있어 가장 완성도가 높은 판본으로 판단된다. 갑자본의 등장으로 새롭게 바뀌는 내용은 사실상 없으며 오히려 제1책과 제2책에 갖추어졌던 내용들이 빠지는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제4책의 경계 표시 부분도 잘못된 경계선을 삭제한 목판의 내용을 반영하지만, 별도로 새 경계선을 필사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거창박물관 소장본(연번 24)은 판본의 형식과 체재가 가장 무너진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대동여지도』 목판 중 함흥판 뒷면에 판각된 책판이 인출되어 제주도 지도 뒤에 붙어 있는 양상은 김정호가 이 판본의 제작을 직접 수행했는지조차 의심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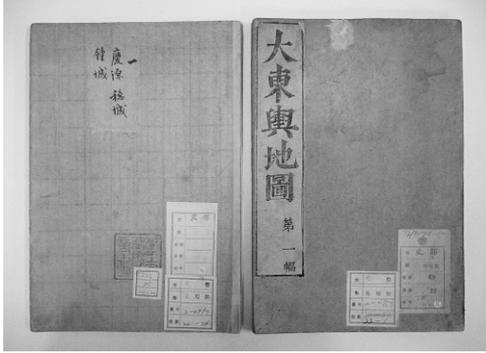
장상훈

#### 참고문헌

- 이우형, 1990, 大東輿地圖의 讀圖, 匡祐堂, 27-29.  
원경렬, 1991, 대동여지도의 연구, 성지문화사  
소재구, 1997, “金正浩 原作 大東輿地圖 木板의 調査,” 美術資料 58, 130-132.  
楊普景, 1997, “日本に所藏される大東輿地圖の書誌學的檢討,” 李朝末期大東輿地圖にあら われる自然觀・環境觀の研究, 18-35.  
양보경, 1998, “대동여지도,” 한국사시민강좌 23, 84-121.  
이상태, 1999, 한국고지도발달사, 혜안.  
장상훈, 2008, “목판본 대동여지도 판본 비교 연구,” 한국고지도학연구학회 창립학술대회자료집(대동여지도의 재해석), 118-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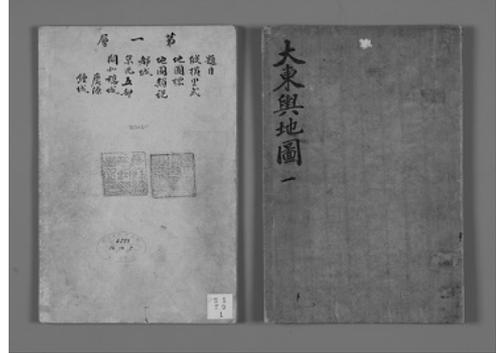
[별표 1] 『대동여지도』 판본 일람표

연번	소장처	명칭	판본	관리번호(청구기호)	비고
1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海左輿圖	미상	971(7-마-65)	
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미상	2-4957	
3	성균관대학교존경각	-	辛酉本	B16JB-0001	
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미상	古4709-5	
5	부산대학교도서관	大東圖	辛酉本	2-11/421-22	
6	일본 국회도서관	大東輿地圖	辛酉本	292.1038	Ki229d
7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大東輿地圖(改裝)	辛酉本	47(7-마-20)	보물850호
8	일본 국회도서관	東輿圖	辛酉本	217-37	
9	일본 텐리도서관	大東輿地圖	辛酉本	292.1 4 13	
10	국사편찬위원회	-	辛酉本	B16JB-1	朝鮮史編修會 舊藏本
1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大東輿地圖	辛酉本	2-4957	
1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大東輿地圖	辛酉本	奎10333	
13	일본 코베시립박물관	大東輿圖	辛酉本	南派Collection 朝鮮關係圖164	
14	서울역사박물관	-	辛酉本	서3078	보물850-2호
15	국립중앙도서관	-	辛酉本	古朝61-2	在朝鮮日本國 公使館 舊藏本
16	영남대학교 도서관	靑丘全圖	辛酉本	989-11 (2970-2991)	
17	미국 버클리대학교도서관	大東輿地圖	辛酉本	Asami20,43	
18	화봉박물관	-	辛酉本	-	
19	국립중앙박물관	-	辛酉本	-	
20	일본 동양문고	大東輿地圖	辛酉本	VII2-158	
21	국립중앙박물관	大東輿地圖	甲子本	신521	
22	일본 동양문고	大東全圖	甲子本	VII2-159	
2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甲子本	古4709-6	보물850-3호
24	거창박물관	-	甲子本		경남유형문화재 275호



[그림 6-63] 표지 ①

좌: 장서각 소장본 (별표 1의 2)  
우: 장서각 소장본 (별표 1의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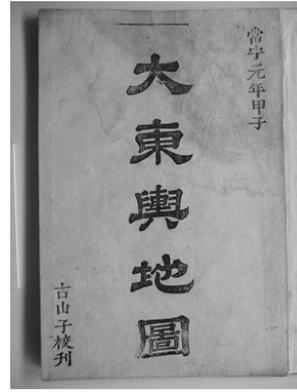
[그림 6-64] 표지 ②

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별표 1의 19)  
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별표 1의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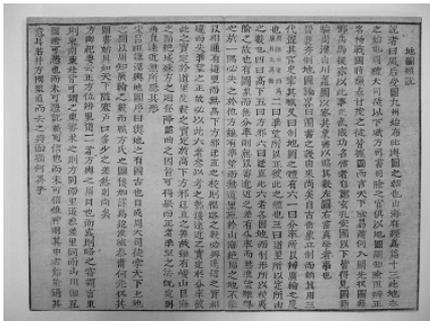
[그림 6-65] 표제(신유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별표 1의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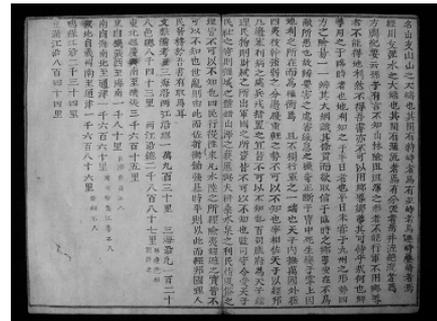
[그림 6-66] 표제(갑자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별표 1의 21)



[그림 6-67] 지도유설(목활자본)

장서각 소장본(별표 1의 11)



[그림 6-68] 지도유설(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별표 1의 21)



[그림 6-75] 통계(목활자본)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별표 1의 10)

[그림 6-76] 통계(필사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별표 1의 19)

支廬備考云三海沿兩江  
八邑總八千四十三里  
東北起慶興南至機張三  
東自機張西至海南一千  
南自海南北至通津一千  
似北自義州南至通津一  
鴨綠江沿二千三十四里  
豆滿江沿八百四十四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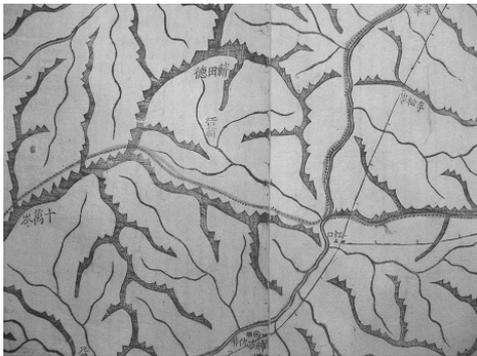
[그림 6-77] 지도유설 I 식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별표 1의 10)

支廬備考云三海沿兩江  
八邑總八千四十三里  
東北起慶興南至機張三  
東自機張西至海南一千  
南自海南北至通津一千  
西北自義州南至通津一  
鴨綠江沿二千三十四里  
豆滿江沿八百四十四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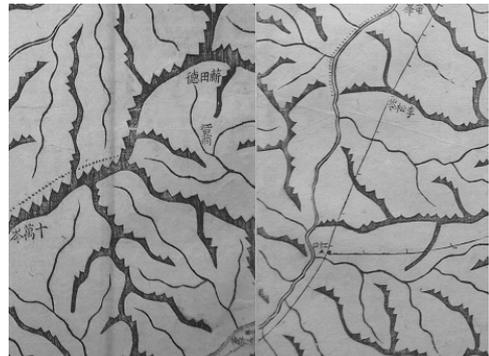
[그림 6-78] 지도유설 II 식

코베시립박물관 소장본(별표 1의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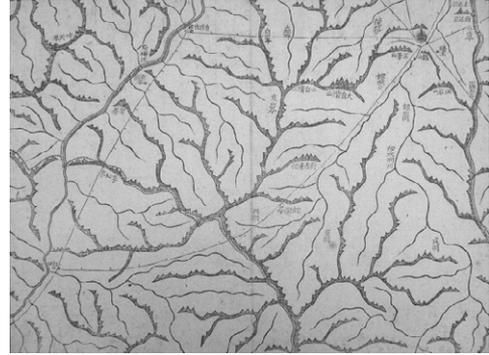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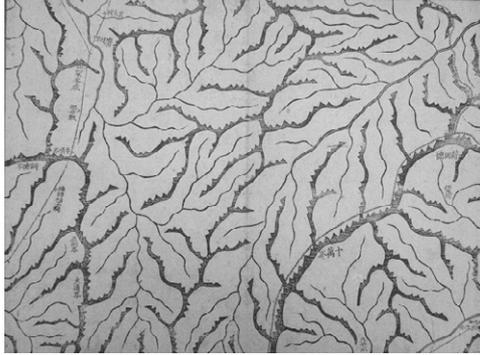
[그림 6-79] 삼수·장진 경계 I 식 및 십만령 경계 I 식

부산대학교서관 소장본(별표 1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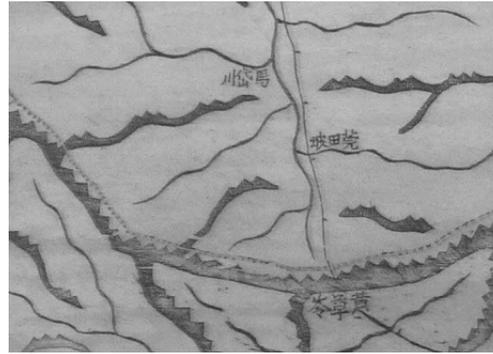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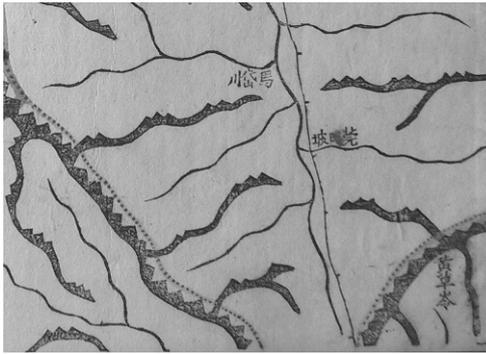
[그림 6-80] 삼수·장진 경계 II 식 및 십만령 경계 II 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별표 1의 21)



[그림 6-81, 82] 삼수-장진 경계 Ⅲ식, 십만령 인근 경계 Ⅲ식, 강계 경계 Ⅱ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별표 1의 19)



[그림 6-83] 황초령 Ⅰ식

존경각 소장본(별표 1의 3)

[그림 6-84] 황초령 Ⅱ식

장서각 소장본(별표 1의 11)



[그림 6-85] 신미도 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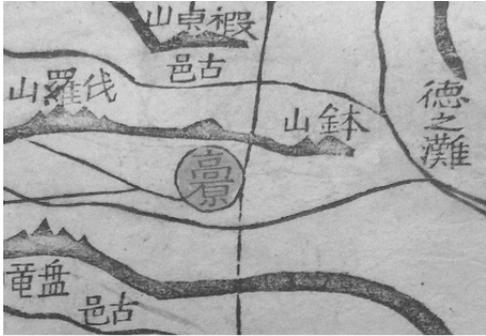
성신여대박물관 소장본(별표 1의 1)

[그림 6-86] 신미도 Ⅱ식

국사편찬위원회소장본(별표 1의 10)

[그림 6-87] 신미도 Ⅲ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별표 1의 15)



[그림 6-88] 통달역 I 식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별표 1의 10)



[그림 6-89] 통달역 II 식  
일본 코베시립박물관 소장본(별표 1의 13)



[그림 6-90] 통달역 III 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별표 1의 15)



[그림 6-91] 월송진 I 식  
존경각 소장본(별표 1의 3)



[그림 6-92] 월송진 II 식  
일본 코베시립박물관 소장본(별표 1의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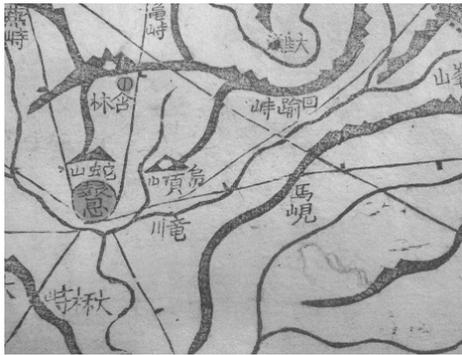
[그림 6-93] 월송진 III 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별표 1의 15)



[그림 6-94] 보은 인근 사각형 I 식  
성신여대박물관 소장본(별표 1의 2)



[그림 6-95] 보은 인근 사각형 II 식  
장서각 소장본(별표 1의 2)



[그림 6-96] 보은 인근 사각형 III 식  
부산대도서관 소장본(별표 1의 2)



[그림 6-97] 동진 고현 I 식  
장서각 소장본(별표 1의 2)



[그림 6-98] 동진 고현 II 식  
장서각 소장본(별표 1의 11)



[그림 6-99] 동진 고현 III 식  
장서각 소장본(별표 1의 15)



[그림 6-100] 안언역 I 식  
장서각 소장본(별표 1의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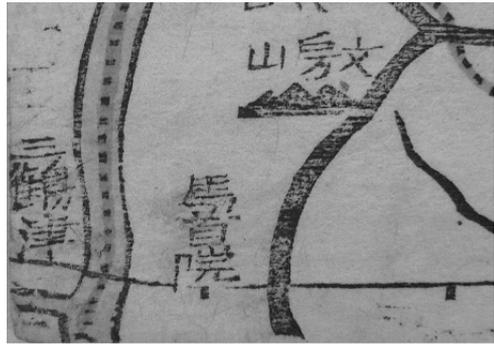
[그림 6-101] 안언역 II 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별표 1의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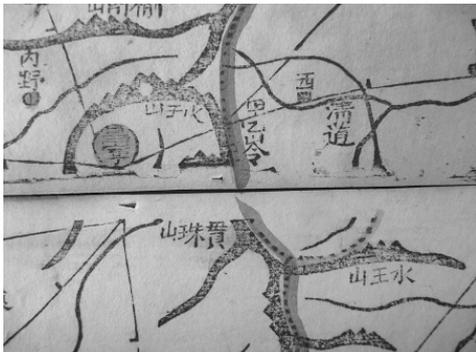
[그림 6-102] 안언역 III 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별표 1의 15)



[그림 6-103] 삼학진 일대 목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K93)



[그림 6-104] 삼학진 II 식  
장서각 소장본(별표 1의 2)



[그림 6-105] 청도 월경지 I 식  
존경각 소장본(별표 1의 3)



[그림 6-106] 청도 월경지 II 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별표 1의 15)

## 9. 기타 지도의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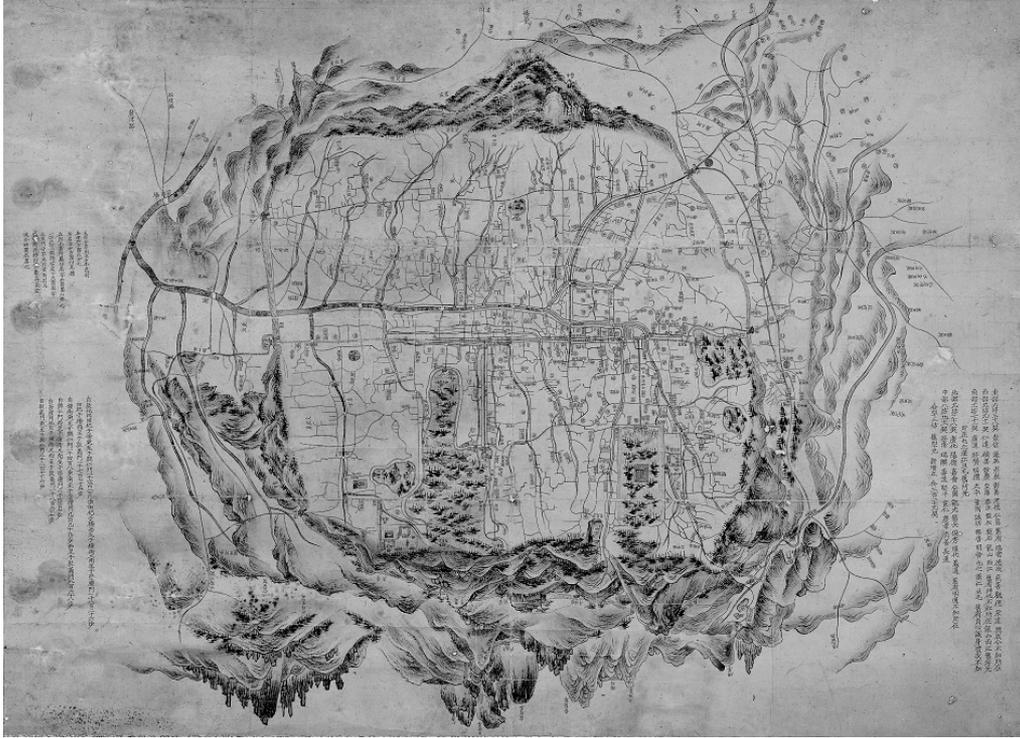
### 1) 도성도의 제작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도시의 성곽 내부를 중심으로 그린 지도를 도성도라 하는데, 대개는 서울지도를 지칭한다. 조선은 중앙집권적 사회로서 국토공간도 서울로 집중되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 더 나아가 수도 서울은 왕도(王都)로서 왕권을 상징하는 장소로 기능했다. 이러한 왕도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노력은 일찍부터 행해져 왔으며, 특히 영조·정조 시대 조선후기 문예 부흥기에는 뛰어난 도성도들이 많이 제작되기도 했다.

도성도는 왕도가 지니는 권위를 부각시켜 표현하는 상징성과 실제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지니기도 한다. 왕권의 상징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왕궁과 종묘·사직 등이 위엄 있게 그려진다. 또한 왕도를 하나의 소유주적 공간으로 표현하기 위해 주변의 사산(四山)을 이어 그리고 산지의 표현도 회화적 기법을 활용하여 실감나게 묘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왕도의 내부공간에는 하계망과 도로망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지고, 행정구역 명칭이 세밀하게 표기되어 실제 생활에서의 활용도를 높여준다.

(그림 6-107)의 지도는 현존하는 도성도 중에서 최고 작품으로 꼽히는 것으로 정조 연간에 제작된 것이다. 도봉산과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면서 백악산(白岳山)·인왕산(仁王山)·목멱산(木覓山, 남산)·타락산(駝駱山, 낙산)의 내사산(內四山)을 중심으로 서울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산수화처럼 표현하였다. 도성 안 시가지의 인문현상은 평면적으로 처리하여 풍부한 지명을 기록하고 주위의 산세와 대비되도록 하였다. 여백에는 행정구역, 도성의 크기와 도로를 기록하였는데,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敦化門)을 기점으로 삼았다. 이 당시 창덕궁이 실질적인 정궁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원본은 남쪽을 바라보며 정사(政事)를 보는 왕의 시각에 맞추어 그려 지도의 위쪽이 남쪽으로 되어 있는 점이 독특하다.

도성도는 주로 궁궐과 관청에서 제작하다가 18세기 이후에는 민간에 널리 유포되면서 사적으로도 많이 제작되었다. 또한 18세기 이후 서울에 인구가 집중하면서 한양의 생활공간도 외곽으로 확장되는데,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도성의 주변지역까지 넓게 포괄하는 지도도 제작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도성도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급증하여 「수선전도(首善全圖)」와 같은 목판본 도성도도 널리 유포되었다.



[그림 6-107] 『도성도』

자료: 규장각

## 2) 풍수지리와 명당도

풍수지리는 한국, 중국 등 동부아시아 여러 민족의 지형과 기후, 풍토 등 넓은 의미에서의 지리관, 토지관이자 자연에 대한 해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음양론과 오행설을 기반으로 주역의 체계를 주요한 논리구조로 삼는 전통적인 지리과학으로, 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상지기술학(相地技術學)이다. 이것이 후에 효의 관념이나 사머니즘과 결합되어 이기적인 속신으로 진전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토지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초기 한양의 정도(定都)와 같이 도읍을 결정하거나 고을의 읍치건설에 풍수지리가 위정자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또한 민간에 널리 퍼지면서 주택의 입지나 좌향(坐向)의 결정, 죽은 자를 위한 산소의 자리 잡기에 풍수지리가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난해한 풍수지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지도가 제작되어 이용되었는데, 이를 명당도(明堂圖) 또는

산도(山圖)라고 불렀다.

이러한 풍수지도는 일반의 지도와 다르게 풍수적 개념에 입각하여 그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풍수지리에서는 산을 용으로 인식하는데 풍수도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산이 단독으로 그려지는 것은 드물고 용이 흘러가는 것처럼 산줄기의 형태로 그려진다. 또한 명당을 이루는 주요 요소인 조종산(祖宗山), 주산(主山), 좌청룡, 우백호, 안산(案山), 조산(朝山), 명당수 등이 독특하게 형상화된다.

(그림 6-108)의 명당도를 보면 풍수적 관념에 기초하여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등의 사신사가 맥세를 강조하여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명당수도 점선의 형태로 그려져 있다. 특히 수구(水口)가 관쇄(關鎖)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현존하는 명당도들은 거주지, 촌락 등의 양택(陽宅)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산소와 같은 음택(陰宅)을 대상으로 그린 것들이 많다. 특히 산도는 가문의 족보에 수록되는 경우가 흔한데 왕릉의 경우는 따로 정교하게 그리기도 했다. 산도에서는 일종의 방위에 해당하는 좌향의 표시도 종



[그림 6-108] 전형적인 명당도인 『광주평장동도』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중 보이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방위를 측정하는데 다양한 패철(나침반)을 사용하기도 했다.

### 3) 천문도의 제작

예로부터 천문은 제왕의 학문으로 중시되었다. 『주역(周易)』에서도 ‘우러러 천문을 보고 아래로 지리를 살핀다’는 구절이 있듯이 천문은 지리와 더불어 국가경영의 중요한 학문이었다. 지리가 국토의 지형지세·토지·인구 및 물산을 파악하여 국정의 기초자료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면 천문은 천체의 운동을 관찰하고 예측하여 정확한 역(曆)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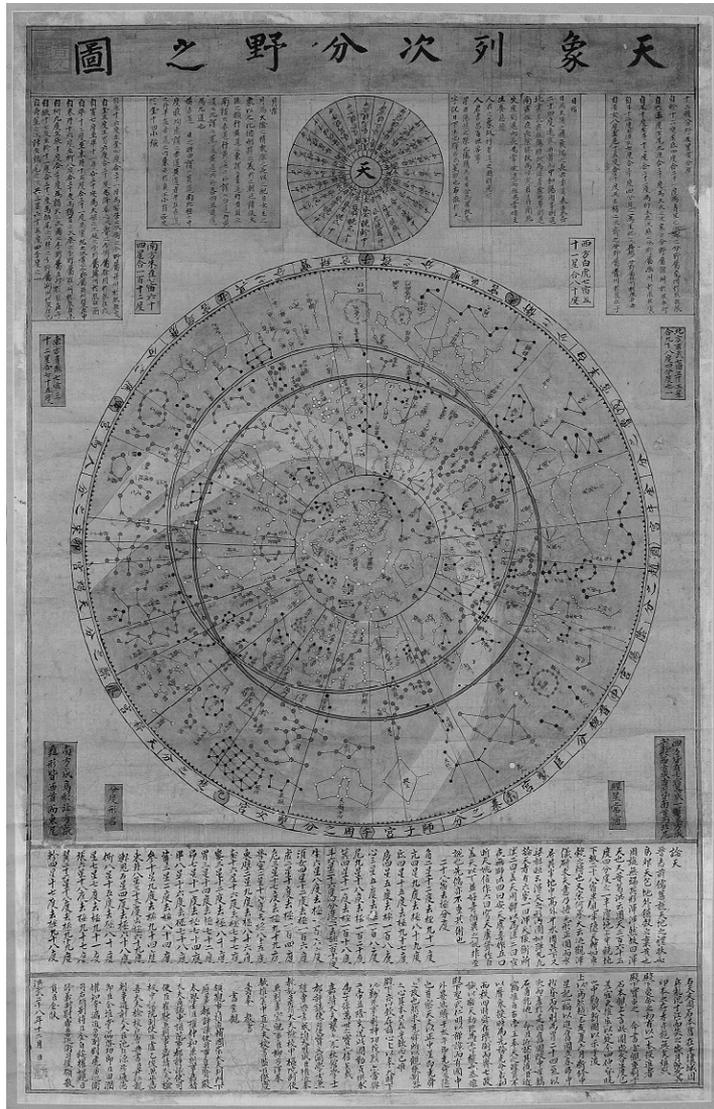
특히 하늘을 정치의 근본이념으로 생각했던 전통시대에서 천체현상은 천(天)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주재자로서의 하늘의 의사는 천체운행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으므로 하늘을 관측의 대상으로 삼아 해마다 관측의 결과를 기록하고 아울러 하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석각천문도(石刻天文圖)로는 조선의 건국초기에 제작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들 수 있다. 이 천문도는 고구려 천문도의 전통을 이어 제작된 것으로 당시 천문학적 지식이 총망라된 것이었다. 이러한 조선의 천문도의 제작은 조선왕조의 건국이 천명(天命)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려는 상징성을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후기 제작되는 천문도는 실생활에 이용되는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이러한 이념적인 성격이 강하여 18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태조 때의 천문도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림 6-109)의 천문도는 조선후기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필사본 천문도이다. 숙종 때 복각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그대로 모사한 것이다. 당시 중국을 통해 서양의 신법천문도가 조선에 전래되던 상황이었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천문도가 유행하던 현실을 보여준다.

### 4) 기타 다양한 유형의 지도

조선후기 지도의 대중화가 진전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지도가 제작되어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여행과 같은 실생활에 중요하게 이용되었다. 관료나 사대부들이 공무상 또는 산천유람과 같은 여행 시 주로 이용했던 것은 크기가 작고 간편한 휴대용 지도였다. 특히 수진본(袖珍本) 지도(그림 6-110)는 옷소매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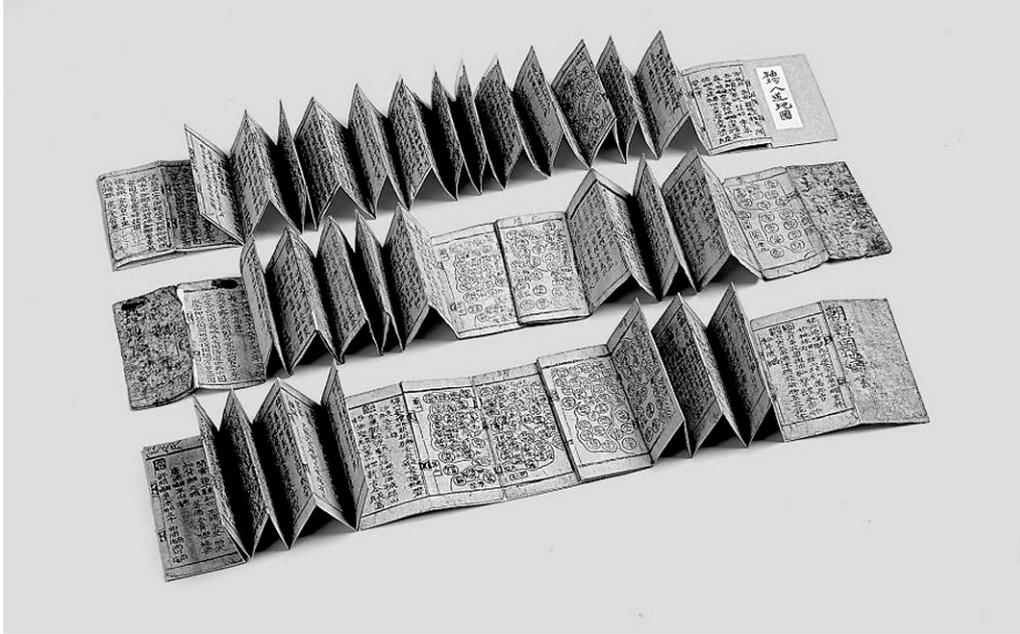


[그림 6-109] 필사본 『천상열차분야지도』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는 지도뿐만 아니라 지지(地誌)적인 내용, 그리고 당시의 생활상식까지 수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도와 각 고을간의 거리를 정리한 표인 도리표(道里表)가 그려지기도 했는데, 각 고을간의 거리는 여행의 필수적인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목장의 모습을 그린 목장지도, 궁궐의 각종 전각을 그린 궁궐도, 관청의 건물 배치를



[그림 6-110] 다양한 수진본 지도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그린 관아도, 사찰의 가람 배치를 그린 사찰도, 중요 명산의 형세를 그린 명산도, 강역의 역사적 변천을 역사부도 등 실로 다양한 유형의 지도가 제작되어 활용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지도제작의 흐름은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개항 이후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근대적 측량기술을 접하고 삼각측량에 의한 지도의 제작이 행해졌다.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삼각측량이 행해졌고 일부 지방에서도 측량에 의한 지적도의 제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 독자의 이러한 근대적 지도제작의 움직임은 1910년 일본에 병합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조선에서의 지도제작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는 순전히 식민지 경영이란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오상학**

#### 참고문헌

- 국립지리원 · 대한지리학회, 2000, 한국의 지도 -과거 · 현재 · 미래-.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오상학, 2005, 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 국립중앙박물관.